

한영  
대역

전벽가  
바디별 전집 1

박동진 바디

Bak Dong-jin Version Jeokbyeokga  
(Sung by Bak Dong-jin)

문화체육관광부 · 전라북도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



# 김병기 바디벌 전집1

2011년 11월 25일 인쇄

2011년 12월 1일 펴냄

지은이 || 채록·교주 : 최동현, 번역 : 박승배

감수 : 최동현, Philip Owen, 전산 : 오석형

발행 || 문화체육관광부·전라북도·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 (110-70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42

☎ (02) 3704-9119

전라북도 : (560-761)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

☎ (063) 280-2114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 : (561-807)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산1-1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국제회의장 1층

☎ (063) 232-8398

인쇄처 || 신아출판사

전주시 완산구 태평동 251-30

Tel. 063-275-4000

ISBN 978-89-5925-928-1 04810

978-89-5925-927-4 (전3권)

한영  
대역

전병가  
바디별 전집 1

## ■ 책 머리에

이 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전라북도, 그리고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가 관소리의 세계화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관소리 영어 사설 자막 제작 사업’의 다섯 번째 결과물이다. 2007년에는 〈춘향가〉, 2008년에는 〈심청가〉, 2009년에는 〈홍보가〉, 2010년에는 〈수궁가〉를 번역하여 자막 프로그램으로 제작한 바 있다. 올해는 〈적벽가〉 다섯 바탕과 〈정웅민 바디 조상현 창 심청가〉, 그리고 단가를 자막 프로그램으로 제작하고, 그 부산물로 한영대역 《적벽가 바디별 전집》(1-3), 《심청가 바디별 전집》(5), 《관소리 단가》의 다섯 권으로 책을 내게 되었다. 이것으로 이 사업은 끝을 맺는다.

올해 제작한 적벽가 다섯 바탕은 박동진 바디, 송만갑 바디, 정웅민 바디, 김연수 바디, 유성준 바디이다. 이 중에서 유성준 바디는 현재 거의 부르지 않고 있지만, 임방울이라는 대명창의 〈적벽가〉를 기억하기 위해서 포함시켰다. 올해 특별히 단가를 포함시킨 것은 관소리 속에는 당연히 단가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며, 〈정웅민 바디 조상현 창 심청가〉를 보충한 것은 정웅민 바디는 정권진, 성우향, 성창순, 조상현이 제각각 다르게 부르고 있어서 어느 하나라도

뺨 경우 자막으로 사용하는 데 부족함을 느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올해는 다른 해와 다르게 다섯 권의 책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해서 총 5년간의 작업이 마무리된다. 책으로 치면 스물한 권이다. 해마다 시간에 쫓기어 완벽한 결과물을 내지 못했다. 물론 능력이 뛰어나지 못한 탓도 크다. 그렇다고 머뭇거리기만 할 수 없어서 일을 시작했고, 이제 그 결말을 바라보게 된 것이다. 결과물이 비록 부족한 점이 많더라도 과감하게 도전에 나선 용기만은 가상하다고 보아주신다면 고맙겠다.

판소리는 다시 심각한 위기 상황을 맞고 있다. 판소리는 흥행예술이다. 그런데도 판소리가 흥행예술로서는 이미 생존을 마친 지 오래되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판소리는 이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각종 경연대회로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존재 방식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이런 와중에 옛 명창들은 또 한 사람씩 세상을 떠나고 있다. 그리하여 무형문화재 빈 자리가 많이 생겼는데도 그 자리가 채워지지 않은 지 오래되었다. 그러다보니 다양했던 판소리 바디들이 자꾸만 줄

어든다. 이렇듯 상황은 분명히 위기로 치닫고 있는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위기의 징후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 그러기에 더욱 안타깝다.

흔히 하는 말로 위기는 기회라고 한다. 그렇다고 가만히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기회가 저절로 찾아오는 것은 아닐 것이다. 항상 현실을 직시하고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고자 노력하는 자에게만 위기가 기회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다. 판소리가 새롭게 부활할 수 있는 날을 기다리며, 우리의 이 작은 노력이 그 희망의 작은 불씨나마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이 사업을 위해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신 문화체육관광부와 전라북도, 그리고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 김한 위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드린다. 또한 예쁜 디자인을 맡아 주신 여태명문자조형연구소의 여태명 선생과 직원 여러분, 출판을 맡아 책으로 꾸며주신 신아출판사 서정일 사장님과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린다.

또 다시 가을이다. 가을이 되면 늘 쓸쓸하지만, 올 가을만은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희망을 피워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2011년 깊은 가을날에  
지은이 씀

## 차례

### ■ 책머리에•4

### \* 박동진 바디 적벽가(박동진 창)

1. 서서 하직 .....	12
2. 서서 공명 천거 .....	14
3. 삼고초려 1 .....	18
4. 삼고초려 2 .....	20
5. 유비가 편지를 전함 .....	22
6. 삼고초려 3 .....	26
7. 공명 등장 .....	28
8. 유비 간청 1 .....	32
9. 유비 간청 2 .....	32
10. 공명 출사 .....	34
11. 박망파 전투 .....	38
12. 유비 강릉 피난 .....	42
13. 신야성 싸움 .....	46
14. 조자룡 도망 .....	48
15. 미부인 자결 .....	52
16. 조자룡 탈출 .....	58
17. 장관교 싸움 .....	64

18. 유비 하구로 피신 .....	70
19. 공명 동오로 건너감 .....	74
20. 공명 동오 선비 설전 .....	76
21. 공명이 노숙과 주유를 만남 .....	82
22. 주유 격노 .....	84
23. 공명이 화살 십만 개 얻음 .....	88
24. 조조 호기 .....	92
25. 군사 설움 타령 1 .....	98
26. 군사 설움 타령 2 .....	100
27. 군사 설움 타령 3 .....	104
28. 군사 설움 타령 4 .....	106
29. 군사 설움 타령 5 .....	110
30. 군사 호기 .....	112
31. 오작남비 .....	116
32. 조조 장수 분발 .....	120
33. 동남풍 기원 .....	122
34. 조자룡 탄궁 .....	130
35. 주유와 공명, 제장 분발 .....	140
36. 관운장 항의 .....	142
37. 화공 .....	148
38. 새타령 .....	158
39. 조조 조자룡 피해 도망 .....	162
40. 조조 신세 한탄 .....	164
41. 군사들 탄식 .....	170
42. 장승타령 .....	174



43. 군사 점고 .....	178
44. 허무적이 .....	184
45. 골래종이 .....	186
46. 허덜렁이 .....	190
47. 구먹쇠, 장터진이 .....	194
48. 옹돌쇠 .....	198
49. 조조 탄식 .....	202
50. 관운장 출현 .....	204
51. 조조 애걸 .....	208
52. 주창의 재촉 .....	214
53. 조조 살려줌 .....	216

## A Brief Introduction to Pansori

- *Pansori* is performed by one singer and one drummer. The drummer maintains the rhythm (*jangdan*) with the use of the drum while the singer performs a long narrative poem by singing, narrating, and acting.
- In *Pansori*, songs and narrations alternate constantly. When the singer sings or speaks, he or she may open or close the fan, or act out the actions of characters of the work. In this literature *Aniri* is the narration mode. *Jinyangjo*, *Jungmori*, *Jungjungmori*, *Jajinmori*, *Hwimori*, *Eonmori*, *Eotjungmori* are singing modes of different rhythms.

**Jinyangjo** : One measure consists of six slow beats, and 24 beats in 4 measures make up one rhythm cycle. It is expressed in 18/8 time.

**Jungmori** : One measure consists of 12 beats of moderate speed, and it is expressed in 12/4 or 12/8 time.

**Jungjungmori** : One measure consists of 12 slightly quick beats, and it is expressed in 12/8 time.

**Jajinmori** : One measure consists of 4 slightly quick beats, and it is expressed in 12/8 time.

**Hwimori** : One measure consists of 4 very quick beat, and it is expressed in 4/4 time.

**Eonmori** : Alternating measures consist of 2 and 3 beats, and the complete cycle consists of 10 very quick beats. It is expressed in 10/8 time.

**Eotjungmori** : One measure consists of 6 beats, and it is expressed in 6/4 time.

박동진 창

Sung by Bak Dong-jin

# 1. (서서 하직) 유비, 관우, 장비가 도원결의를 하고 뜻을 모았는데, 모사 서서가 유비를 떠난다.

[아니리] 천하대세<sup>1)</sup>가 합구필분<sup>2)</sup>이요, 분구필합<sup>3)</sup>이라.

주나라<sup>4)</sup> 말년<sup>5)</sup>에 진시황<sup>6)</sup>이 통일하였고

한고조<sup>7)</sup>께서는 인의<sup>8)</sup>로 통일하여 사백 년을 내려오다,

현제<sup>9)</sup> 때 이르러서 우연히 사방에서 도적들이 벌떼같이 일어날 제,

[중중모리] 동에<sup>10)</sup> 손권<sup>11)</sup>이요, 북에는 조조<sup>12)</sup>라.

조조 위인<sup>13)</sup> 불작시면<sup>14)</sup> 치세지능신<sup>15)</sup>이요, 난세지간웅<sup>16)</sup>이라.

협천자이령제후<sup>17)</sup>하니 기세<sup>18)</sup>가 난당<sup>19)</sup>이라.

그 때에 탁군<sup>20)</sup> 땅에 영웅 하나가 나계시니<sup>21)</sup> 그 이름이 유현덕<sup>22)</sup>이라.

관운장<sup>23)</sup> · 장비<sup>24)</sup>와 더불어 도원<sup>25)</sup>에서 맹세하는데,

우리가 낳은 날은 다 같이 못 낳았어도, 나라를 바로잡고 백성을 구한

후에 사직<sup>26)</sup>을 반석<sup>27)</sup> 위에 받들고, 죽는 날은 한 날 한 시 죽으리라.

백마<sup>28)</sup> 잡아 하나님께 제 지내니, 천하 사람들은 유 · 관 · 장 삼인<sup>29)</sup>

이라 부르더라.

모사<sup>30)</sup>는 서서<sup>31)</sup>인데, 조조가 피를 내어 서서 모친을 잡아다가 허

창<sup>32)</sup>에다 가둬놓고,

1. (Xu Shu(徐庶) Says Goodbye.) Liu Bei(劉備), Guan Yu(關羽), and Zhang Fei(張飛) make a resolution in a peach orchard. Xu Shu(徐庶), Liu Bei's(劉備) strategist, leaves them.

[Aniri] It is a general trend that a long time of division inevitably leads to unity, and a long time of unity inescapably leads to division.

Qin Shi Huang(秦始皇) unified ancient China at the end of the Zhou(周) Dynasty.

Liu Bang(劉邦) unified ancient China through his virtues, and his dynasty lasted for 400 years.

When King Xian(獻) was on the throne, rebellious forces rose everywhere like a swarm of bees.

[Jungjungmori] In the east is Sun Quan(孫權), and in the north is Cao Cao(曹操).

His character is as follows: He is a talented politician, but he is a wicked man in chaotic times.

He rules over feudal lords, taking advantage of the emperor. His force is formidable.

Meanwhile, there was a hero in Zhuo(涿) County. His name is Liu Bei(劉備).

He makes a resolution with Guan Yu(關羽) and Zhang Fei(張飛) in a peach orchard.

They say that they were born in different times, but they will straighten the country, save the people, strengthen the royal family, and die at the same time.

They kill a white horse and offer it to God. People call them Three Great Warriors.

Their strategist is Xu Shu(徐庶). Cao Cao(曹操) imprisons Xu Shu's(徐庶) mother as a part of his scheme.

정육<sup>33</sup>)이를 명하여 서서 모친의 필적<sup>34</sup>)으로 가만히 도적하여<sup>35</sup>) 위조  
 편지<sup>36</sup>)를 하여노니,  
 서서가 보고 기가 막혀 현덕께 하직하니, 현덕이 대경<sup>37</sup>)하여,  
 “분운세상<sup>38</sup>)에 천하를 득실할<sup>39</sup>) 것을 선생님을 믿었더니, 이 지경이  
 웬일이오?  
 모자지정<sup>40</sup>)은 깊고 높아 그 은혜가 태산이라.  
 선생은 나를 버리고 위로 모친을 위하고, 아래로 조조를 잘 섬기어  
 대사성공<sup>41</sup>)을 하사이다.”<sup>42</sup>)  
 서서가 울며 여짜오되, “황숙<sup>43</sup>)의 후은<sup>44</sup>)을 생각하여 비록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한 말씀도 안 하리다.”  
 제장<sup>45</sup>) 불러 각기 모두 다 이별을 할 제,<sup>46</sup>)  
 “서서는 박복<sup>47</sup>)하여 유사군<sup>48</sup>)께 하직하고 조조계로<sup>49</sup>) 가지마는,  
 그대들은 유사군을 잘 섬겨 대사성공하사이다.”  
 제장들 같이 울음을 울 적에 서서는 하직하고 가는구나.  
 현덕이 기가 막혀, “서원직<sup>50</sup>)이 가는구나. 저기 저 나무를 베려무나.  
 선생 가는 것을 망중<sup>51</sup>) 보자.”  
 이렇듯 울음을 울으니 서서가 가다가 돌아오며,  
 “깜박 잊고 한 말씀 아니 하고 갈 뻔하였소. 한 사람을 천거<sup>52</sup>)하리다.”

## 2. (서서 공명 천거) 서서가 떠나면서 유비에게 제갈공명을 천거하니, 유비가 관우, 장비와 함께 공명의 집으로 찾 아간다.

[중모리] “양양땅<sup>53</sup>) 이십리허<sup>54</sup>)에 만고기재<sup>55</sup>)가 있사오니,

Cao Cao(曹操) has Cheng Yu(程昱) forge her handwriting and send a letter to Xu Shu(徐庶).

After reading the letter, Xu Shu(徐庶) is disheartened and speaks to Liu Bei(劉備). Liu Bei(劉備) is astonished.

“The world is in chaos, and I am relying on you. I can’t believe what’s happening to us.

You owe your mother a huge favor.

Please don’t worry about me. Go to console your mother. Serve Cao Cao(曹操) well and make your life a big success.”

Xu Shu(徐庶) speaks in tears. “I will think about your favor to me, and I will not help Cao Cao(曹操) even if it means my life.”

Xu Shu(徐庶) calls the officers and says goodbye to them.

“I am unfortunate to have to leave Liu Bei(劉備) and go to Cao Cao(曹操).

Please serve Liu Bei(劉備) well and strive for success.”

Officers shed tears, and Xu Shu(徐庶) leaves them.

Liu Bei(劉備) is upset. “Xu Shu(徐庶) is leaving. Please cut down that tree. Let me see him until he disappears.”

As Liu Bei(劉備) sobs, Xu Shu(徐庶) comes back.

“I forgot to say something before I leave. Let me recommend someone to you.”

**2. (Xu Shu(徐庶) Recommends Kong Ming(孔明).) As Xu Shu(徐庶) leaves, he recommends Kong Ming(孔明) to Liu Bei(劉備). Liu Bei(劉備), Guan Yu(關羽), and Zhang Fei(張飛) visit Kong Ming’s(孔明) place.**

[Jungmori] “A remarkably talented man lives near Xiangyang(襄陽) Castle.

성은 제갈이요, 이름은 량이웁고, 자<sup>56)</sup>는 공명이요, 도호<sup>57)</sup>는 와룡<sup>58)</sup>이라는 대현인<sup>59)</sup>이 있소이다.

상통천문<sup>60)</sup> 하달지리<sup>61)</sup> 전무후무<sup>62)</sup> 하웁고,

귀신을 불러 쓰는 술법이 있다고 하오니,

황숙께서는 그 사람을 얻으시면은 천하를 자리 겹듯<sup>63)</sup> 할 것이니 찾아가 보사이다.”

[아니레 현덕이 물어 가로대, “전에 사마덕조<sup>64)</sup>가 말씀을 하시기를, ‘복룡,<sup>65)</sup> 봉추<sup>66)</sup> 중에 한 사람만 얻으면은 천하를 가히 점하리다.’<sup>67)</sup> 하시더니,

이 사람이 혹 복룡, 봉추 중에 한 사람이 아니오니까?”

서서가 하는 말이, “봉추는 양양<sup>68)</sup> 사람 방통<sup>69)</sup>이요, 복룡이 즉 제갈 공명이로소이다.”

현덕이 대희하여,<sup>70)</sup> “오늘에야 복룡·봉추를 알았구나.” 서서는 하직하고 갔겠다.

그 때여 현덕이는 공명선생을 만나려고 삼고초려<sup>71)</sup>로 세 번을 찾아가는데,

[진양조] 당당한<sup>72)</sup> 유현덕은 신장<sup>73)</sup>은 칠 척 오 촌<sup>74)</sup>이요, 면여관옥<sup>75)</sup>이요, 자고기이<sup>76)</sup>하고, 수수과슬<sup>77)</sup>이라.

오모홍포<sup>78)</sup>에 옥띠를 둘러 띠고, 쌍고검<sup>79)</sup>을 빗겨<sup>80)</sup> 차고,

적로마상<sup>81)</sup>에 두렷이<sup>82)</sup> 앉은 거동 한태조<sup>83)</sup>의 기상<sup>84)</sup>이라.

관운장 위인<sup>85)</sup>을 볼작시면,<sup>86)</sup> 신장은 구 척이요, 면여중조<sup>87)</sup>하고 순약도지<sup>88)</sup>로다.

단봉안<sup>89)</sup> 와잠미<sup>90)</sup> 청룡도<sup>91)</sup>를 빗겨 들고,

삼각수<sup>92)</sup>를 거사리고<sup>93)</sup> 적토마상<sup>94)</sup>에 두렷이 앉은 거동<sup>95)</sup> 위풍<sup>96)</sup>이 늠름하고,<sup>97)</sup>



His last name is Zhu Ge(諸葛), his first name is Liang(良), his adult name is Kong Ming(孔明), and his nickname is Wo Long(臥龍). He is a virtuous man.

He has grasped the principles of Heaven and Earth, which is unprecedented.

He is said to have the ability to call up ghosts and use them. If you obtain him, you will easily obtain the world. Please visit him in person.”

**[Aniri]** Liu Bei(劉備) asks, “You once said if I obtain Fu Long(伏龍) or Feng Chu(鳳雛), I will obtain the world.

Isn't this man either Fu Long(伏龍) or Feng Chu(鳳雛)?”

Xu Shu(徐庶) answers, “Feng Chu(鳳雛) is Pang Tong(龐統) living in Xiangyang(襄陽). Fu Long(伏龍) is Kong Ming(孔明).”

Liu Bei(劉備) is happy. “I now see who Fu Long(伏龍) and Feng Chu(鳳雛) are.” Xu Shu(徐庶) says goodbye and leaves.

Hoping to meet Kong Ming(孔明), Liu Bei(劉備) visits Kong Ming's(孔明) cottage three times.

**[Jinyangio]** Liu Bei(劉備) is majestic and tall.

He is handsome with large earlobes. His arms are long enough to reach his knees.

He wears a black helmet, a red coat, and a jade belt, carrying a wide sword obliquely.

On a horse with white spots, he looks like the first emperor of a dynasty.

Behold Guan Yu(關羽). He is also tall, his face is brown, and his lips are red.

His eyes resemble those of a phoenix. His eyebrows look like silkworms. He holds his Blue Dragon Sword obliquely.

His whiskers and beard form a triangle pointing up. He looks awe-inspiring on his red horse.

장비 거동을 불작시면, 신장은 팔 척이요, 표두환안<sup>98)</sup>에 연합호수<sup>99)</sup>로다.

머리에 녹건<sup>100)</sup>이요, 몸에는 앵무전포,<sup>101)</sup> 장 팔 척<sup>102)</sup> 사모장창<sup>103)</sup> 오추마상<sup>104)</sup>에 두렷이 얹은 거동 진삼국지맹장<sup>105)</sup>이로다.

현훈옥백<sup>106)</sup>으로 예단을 갖춘 후에 삼인이 말을 타고 만석교<sup>107)</sup>를 얼른 건너 적막공산<sup>108)</sup> 다다르니

요요행원<sup>109)</sup>에 개가 짖고, 창대<sup>110)</sup>는 길을 덮고,

낙락한<sup>111)</sup> 산조성<sup>112)</sup>은 폭포를 섞어 운다. 천공<sup>113)</sup> 오색 뜬구름은 골골이 덮혔는데,

초야강산<sup>114)</sup> 옥천<sup>115)</sup>이요, 산영도강어약수<sup>116)</sup>라.

금각철봉<sup>117)</sup>은 사면으로 좌우하고, 취죽청송<sup>118)</sup>은 높기를 반공<sup>119)</sup>하니, 허허, 신선이 살 데로구나.

### 3. (삼고초려 1) 유비가 공명을 찾아가나 만나지 못한다.

[아니레] 현덕이 멀리 남양<sup>120)</sup>을 바라보며,

“산은 높지 아니하여도 수려<sup>121)</sup>하고, 물은 깊지 아니하여도 징청<sup>122)</sup>하고, 들은 넓지 아니하여도 평탄하도다.”

[중모레] 유 · 관 · 장<sup>123)</sup> 삼인이 급히 말을 채쳐<sup>124)</sup> 남양용중<sup>125)</sup>을 찾아갈 제,

인적<sup>126)</sup>은 고요하고 내양<sup>127)</sup>만 넘노는데,

동자다려<sup>128)</sup> 묻는 말이, “선생이 계옵시냐?”

Behold Zhang Fei(張飛). He is tall, his head resembles that of a leopard, white circle surround his eyes, his chin looks like that of a swallow, and his beard looks like that of a tiger.

He wears a silk hat and a yellow military coat. He holds a long spear up high whose end is triangled.

When he is on a good horse, he looks like the best warrior of the three countries.

Carrying black, pink, and white silk as a present, the three people move on horses over a bridge and arrive at a quiet and deep mountain.

On their long journey, a dog barks and spears cover the road. Songs of mountain birds are mixed with that of a waterfall. The sky is covered with colorful clouds.

There are a field, a river, a mountain, and a spring. The shadow of a mountain crosses a river where fish play.

High peaks are in all four directions. Blue bamboo trees and pine trees rise high into the sky.

This must be a good place for a god to live.

### **3. (Visiting the Cottage 1) Liu Bei(劉備) visits Kong Ming(孔明) in vain.**

[Aniri] Liu Bei(劉備) looks at Nanyang(南陽).

“Mountains are not high but beautiful. Streams are not deep but clear. The land is not wide but even.”

[Jungmori] Liu Bei(劉備), Guan Yu(關羽), and Zhang Fei(張飛) move their horses fast to Longzhong(隆中) in Nanyang(南陽). Everything is quiet, and there are waves in the river.

Liu Bei(劉備) asks a boy. ““Is Kong Ming(孔明) around?”

저 동자 여짜오되, “선생은 글을 읊다가 입산한 지가 수일<sup>129</sup>)이오.”  
“언제나 오시려는가?” “삼오일<sup>130</sup>)이 될지 십수일<sup>131</sup>)이 되올런지 기  
약<sup>132</sup>)을 모르내다.”<sup>133</sup>)

“선생이 오시면은 한종실<sup>134</sup>) 유황숙<sup>135</sup>)이 계하<sup>136</sup>)에 이르렀다가 못  
뵈옵고 가시더라고 그 말 부디 전하여라.” 신신히<sup>137</sup>) 부탁하고,

#### 4. (삼고초려 2) 유비가 두 번째로 공명의 집을 찾아가서 선비가 글 읽는 소리를 듣는다.

[아니리] 현덕이 신야<sup>138</sup>)로 돌아와 수일을 지낸 후에 두 번째 찾아가  
려 하니,

장비가 불평을 하며, “형장<sup>139</sup>)은 그까짓 촌놈의 자식을 보려하시고  
어찌 또 가시렵니까?

소제<sup>140</sup>)가 가서 그놈이 있으면 잡아 묶어 끌고 오리다.”

현덕이 꾸짖어 하는 말이, “내가 대현<sup>141</sup>)을 만나려고 갖은 정성을 다  
하는데,

너는 어찌 이리 불순한<sup>142</sup>) 말을 하느냐? 너 오지 말고 이 성이나 지키  
고 있거라!”

장비 하는 말이 “아, 양위<sup>143</sup>) 형님이 가시는데, 소제가 어찌 아니 가  
오리까? 죽어도 따라 갈랍니다.”

“네 오려면은 다만 병어리가 되려무나.” 두 번째로 찾아갈 제,

[중모리] 삭풍<sup>144</sup>)은 늠름하고<sup>145</sup>) 서설<sup>146</sup>)이 비비<sup>147</sup>)할 제,

산은 옥같고, 수풀은 은으로 장식한 듯,

만산평야<sup>148</sup>)에 백설이 분분<sup>149</sup>)하니 온 천하가 은빛이라.

걸음을 재촉하여 와룡강<sup>150</sup>)을 찾아가서,

The boy responds, “After reading books here, he went to a mountain a few days ago.”

“When will he come back?” “Nobody knows whether he will come in a few days or in a dozen days.”

Liu Bei(劉備) asks, “If he comes back, please tell him that the uncle of the emperor of the Han(漢) Dynasty waited for him below the stairway and went back without seeing him.”

#### **4. (Visiting the Cottage 2) Liu Bei(劉備) visits Kong Ming’s(孔明) house for the second time, and hear a scholar reading a book.**

[Aniri] Liu Bei(劉備) comes back to Xinye(新野), stays there for several days, and tries to visit Kong Ming(孔明) again.

Zhang Fei(張飛) complains, “Brother, why do you want to visit the little country man again?

I will go there, tie the little man up, and bring him here.”

Liu Bei(劉備) scolds him, “I am doing my best to meet a great figure.

How can you make such an imprudent remark? Stay here and guard this castle!”

Zhang Fei(張飛) replies, “My two brothers are going. How can I not go? I’ll go there no matter what.”

“If you want to come, please keep your mouth shut.” They visit Kong Ming(孔明) for the second time.

[Jungmori] The three men look majestic, and auspicious snow comes down.

Mountains look like jade, and forests appear to be decorated with silver.

Since it snows, all the mountains and fields are white.

They walk fast and arrive at Wolonggang(臥龍岡).

문을 두드리니 동자가 나오는데,  
 동자다려 묻는 말쑤, “선생이 계옵시냐?”  
 저 동자 여짜오되, “선생은 지금 계시지만 초당<sup>151</sup>)에서 글을 읊나이다.”  
 현덕이가 그 말을 듣고서 초당으로 들어가니, 명화<sup>152</sup>) 두어 장을 붙  
 였는데 이상한가 보더라.  
 ‘담박이명지요, 영정이치원이라.’<sup>153</sup>)  
 초당을 올라가니, 한 소년 선비가 글을 읊는데,  
 “봉<sup>154</sup>)이 천 길<sup>155</sup>)을 날으매<sup>156</sup>) 오동<sup>157</sup>)이 아니면 깃들지 않도다.  
 선비 일방<sup>158</sup>)에 처하매, 명주<sup>159</sup>) 아니면 섬기지 않도다.  
 몸소 밭 갈기를 즐겨함이며, 내 집을 사랑토다.  
 금서<sup>160</sup>)를 붙여 기오함<sup>161</sup>)이여, 천시<sup>162</sup>)를 기다리도다.”

## 5. (유비가 편지를 전함) 유비가 공명의 아우 제갈균에게 편지를 전하고 돌아오다 공명의 장인을 만난다.

[아니레 현덕이 그 시가 끝나기를 기다리어, 초당으로 올라가 예를 하며,  
 “고명<sup>163</sup>)을 듣사옵고 전일<sup>164</sup>) 왔다가 뵈지 못하고 이번에 와서 만나 게 되오니 실로 만행<sup>165</sup>)인가 하옵니다.”  
 저 소년이 황망히<sup>166</sup>) 답례하고, “장군께서는 가형<sup>167</sup>)을 보려함이 아니오이까?”  
 현덕이 대경<sup>168</sup>)하여, “아니, 그러면 선생이 와룡선생<sup>169</sup>)이 아니시오?”

As they knock at the door, the boy comes out.  
 Liu Bei(劉備) asks the boy, "Is Kong Ming(孔明) around?"  
 The boy answers, "He is here, but he is reading a book in a cottage."  
 Hearing the boy, Liu Bei(劉備) goes to the cottage. Two famous pictures in the cottage look strange to him.  
 'Wish becomes bright through disinterestedness and purity.  
 Grand wish is realized through peace and silence.'  
 A young scholar reads a book in the cottage.  
 "A phoenix flies a long distance, but it dwells only in a paulownia tree.  
 A scholar living in a country serves only a wise king.  
 I enjoy plowing a field and love my house.  
 The letters on a six-stringed zither express my confidence. I wait for the opportunity from heaven."

**5. (Liu Bei(劉備) Gives a Letter.) Liu Bei(劉備) hands a letter to Kong Ming's(孔明) brother, Jun(均). On his way back, he meets Kong Ming's(孔明) father-in-law.**

[Aniri] After waiting for the young scholar to finish reading, Liu Bei(劉備) goes into the cottage and shows respect.  
 "I heard about you. I visited here the other day in vain. It is fortunate that I came here today and see you."  
 The young scholar is disconcerted. "Don't you want to see my brother, general?"  
 Liu Bei(劉備) is startled. "Oh, aren't you Kong Ming(孔明)?"

“예. 우리는 본래 삼형제로, 장형<sup>170)</sup> 제갈근<sup>171)</sup>은 동오<sup>172)</sup> 손중모<sup>173)</sup>의 막빈<sup>174)</sup>으로 계시웁고, 중형<sup>175)</sup>이 제갈량 공명이요, 제가 제갈균<sup>176)</sup>이지요.”

“그러면 선생이 지금 댁에 안 계신가요?”

“예, 어제 최주평<sup>177)</sup>과 상약<sup>178)</sup>하시고 나가셨사웁니다.”

현덕이 생각다 못하여 지필<sup>179)</sup>을 달라 해서 편지를 써놓으니, 그 글에 하였으되,

‘높은 이름을 듣고 두 번 와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니, 초창함<sup>180)</sup>이 어떠하다 이르리까?

유비는 한조<sup>181)</sup>의 묘예<sup>182)</sup>로 벼슬을 탐하는 것이 아니오라,

군웅<sup>183)</sup>이 나라를 어지러이 하매<sup>184)</sup> 심장이 끓어지는지라.

비록 광제<sup>185)</sup>할 마음은 있지마는 실로 경륜지책<sup>186)</sup>이 없는지라.

선생의 충의를 앙모<sup>187)</sup>하니, 바라옵건대 여망<sup>188)</sup>의 대재<sup>189)</sup>를 펴시고, 자방<sup>190)</sup>의 홍업<sup>191)</sup>을 베푸시면

천하 사직<sup>192)</sup>이 만행<sup>193)</sup>일까 하와<sup>194)</sup> 글로 먼저 고하나다.<sup>195)</sup>

건안<sup>196)</sup> 십일년 십이월 초순 좌장군 유비라.’ 써서 제갈균께 주고, [진양조] 한 곳을 당도하니, 어떠한 사람인가 머리에는 남관<sup>197)</sup>을 쓰고, 몸예다가 청의<sup>198)</sup>를 입고, 저는 나귀를 빗겨 탔는데, 동자는 호로병<sup>199)</sup>을 들고 뒤를 따라 오는 것이 정녕한<sup>200)</sup> 외룡선생이 로구나.

[아니레] 현덕이 말께<sup>201)</sup> 급히 내려 물어 가로되, “그대 막비와룡인가?”<sup>202)</sup>

저 사람도 황망히<sup>203)</sup> 말께 내려 답례하고,



“No. I have two brothers. The eldest brother, Jin(瑾), is a military officer in Wu(吳) Country. The second brother is Kong Ming(孔明), and I am the last one, Jun(均).”

“If so, isn’t Kong Ming(孔明) around now?”

“No, he went out yesterday because of an appointment with Cui Zhou Ping(崔州平).”

Asking for a sheet of paper and a brush, Liu Bei(劉備) writes a letter:

‘After hearing about your fame, I visited here twice in vain and go back. How sad I am!

I, a descendent of the royal family of the Han(漢) Dynasty, don’t have the greed for a government position.

I am upset because many strong men are troubling this country. I wish to correct the situation, but I don’t have a strategy to rule the world.

Looking up to your virtue, I hope that you unfold your talent as Lu Shang(呂尚) did, and contribute to setting up a nation, as Zi Fang(子房) did.

I speak to you in this letter first because I thought the royal family could be safe thanks to you.

Early December, 207. Lieutenant General, Liu Bei(劉備).’ He hands the letter over to Jun(均).

**[Jinyangjo]** Liu Bei(劉備) reaches a certain place where a man wears a dark blue hat and blue clothes, sitting obliquely on a donkey.

A boy follows him, carrying a gourd bottle. He must be Kong Ming(孔明).

**[Aniri]** Liu Bei(劉備) gets off his horse quickly and asks, “Aren’t you Kong Ming(孔明)?”

The man gets off his donkey fast too and shows respect.

“예, 나는 와룡이가 아니옵고, 와룡의 장인되는 황승언<sup>204</sup>)이오.  
 와룡이가 입산한 지가 수일이 넘사오니 일후<sup>205</sup>)에 다시 오사이다.”<sup>206</sup>)  
 [중모레] 현덕이가 탄식을 한다. “내가 복이 없어 이러는가. 정성이  
 부족한가?  
 사백 년 기업<sup>207</sup>)을 속절없이<sup>208</sup>) 잃게 되니, 이를 장차 어쩔거나? 어  
 썰거나, 어이를 할거나?”<sup>209</sup>)  
 이렇듯이 울음을 운다.

## 6. (삼고초려 3) 유비가 공명을 세 번째 찾아가니, 동자가 선생은 낮잠을 자는 중이라고 전한다.

[아니레] 운장이 하는 말이, “형장<sup>210</sup>)은 너무 심려치<sup>211</sup>) 마시고 명  
 년<sup>212</sup>) 봄에 다시 찾아오는 것이 어떠하오리까?”  
 현덕이 그 말을 따라 신야<sup>213</sup>)로 돌아와,  
 건안<sup>214</sup>) 십일 년 초춘<sup>215</sup>)에 삼일 간 목욕재계<sup>216</sup>)하고 예물<sup>217</sup>)을 장  
 만하여, 삼고초려<sup>218</sup>)로 세 번째로 찾아가는데,  
 [진양조] 삼인이 말을 타고 남양용중<sup>219</sup>)을 찾아갈 제,  
 한 곳을 당도하니 어떠한 두 농부가 호미를 들고 밭을 매며 노래를  
 지어 읊는데,  
 “창천<sup>220</sup>)은 연기와 같고, 육지는 기국<sup>221</sup>)과 같은지라.  
 세인<sup>222</sup>)이 흑백을 분별하고 왕래자<sup>223</sup>)는 영육<sup>224</sup>)을 다투는도다.”  
 현덕이 그 말을 듣고, “오늘은 선생이 적실히<sup>225</sup>) 남양에 계시도다.”  
 유 · 관 · 장 삼인이 말을 급히 몰아 남양용중을 찾아갈 제,

“No, I am not Kong Ming(孔明) but Kong Ming’s(孔明) father-in-law, Huang Cheng Yan(黃承彥).

Kong Ming(孔明) went to a mountain several days ago. Please come later.”

[Jungmori] Liu Bei(劉備) laments. “Am I an unlucky person? Am I unconscientious?

I may lose the four-hundred-year old country contrary to my wish. What should I do?”

He wails as said above.

## **6. (Visiting the Cottage 3) Liu Bei(劉備) visits Kong Ming(孔明) for the third time. The boy says Kong Ming(孔明) is taking a nap.**

[Aniri] Guan Yu(關羽) speaks, “Brother, don’t worry. Why don’t we visit here again next spring?”

Agreeing with him, Liu Bei(劉備) returns to Xinye(新野).

In early spring, 207, Liu Bei(劉備) takes a bath for three days, prepares presents, and visits Kong Ming(孔明) for the third time.

[Jinyangjo] The three people ride horses to Longzhong(隆中) in Nanyang(南陽).

They arrive at a certain place where farmers are weeding a field with hoes, singing a song.

“The blue sky is like smoke, and the land is like a checker board.

People discriminate between black and white, and dispute over honor and dishonor.”

Hearing the song, Liu Bei(劉備) says, “Kong Ming(孔明) must be in today.”

Liu Bei(劉備), Guan Yu(關羽), and Zhang Fei(張飛) spur their horses fast to Longzhong(隆中) in Nanyang(南陽).

인적은 고요하고 내양<sup>226</sup>)만 넘노는데 동자가 서 있거늘,  
 동자다려<sup>227</sup>) 묻는 말씀, “선생이 계옵시냐?”  
 저 동자 여짜오되, “선생은 계시지만 초당<sup>228</sup>)에 춘수<sup>229</sup>)가 깊었소이다.”  
 현덕이 그 말 듣고 초당을 들어가서 뜰 아래로 거닐면서,  
 무상<sup>230</sup>)에 잠긴 부처 모양으로 눈을 감고 읊<sup>231</sup>)을 하고 계하에<sup>232</sup>)  
 기다린 자가 반일<sup>233</sup>)이 되었구나.

## 7. (공명 등장) 장비가 성질을 부리는데, 공명이 나와 유비를 바라본다.

[중모리] 익덕<sup>234</sup>)이 성질은 급한지라. 장비의 성질은 급하구나.  
 고리눈<sup>235</sup>) 부릅뜨고, 다박수염<sup>236</sup>) 거사리고,<sup>237</sup>)  
 검은 팔 뒤건고<sup>238</sup>) 고성대갈 활,<sup>239</sup>) “어! 우리 가가<sup>240</sup>)는 금지옥  
 엽<sup>241</sup>)이요,  
 또한 한실지친<sup>242</sup>)인데, 우리 형님이 저만한 사람을 보려하고 삼고초  
 려 세 번을 왕립<sup>243</sup>)하시었고,  
 오늘도 계하에 이른지 반일이 되었는데 저 선생놈이 거만을 부리며,  
 눕고 잠든 체 깨지를 앓으니 이제 죽여 마땅하도다.  
 공명이 과연 재주가 있다하니, 한 걸음에 들어가 저놈의 초당을 때려  
 부숴 불을 버섯 질러 놓으면,  
 공명이 앓았나, 누웠나, 가잠인가, 진잠인가,<sup>244</sup>) 꿈꾸나, 지기<sup>245</sup>)를  
 보리라!”  
 쫓아 들어가니 윤장이 손을 잡고,

A boy stands in a quiet place near a river where there are waves. Liu Bei(劉備) asks the boy, "Is Kong Ming(孔明) around?" The boy answers, "He is around, but he is taking a deep spring sleep in the cottage."

After hearing the boy, Liu Bei(劉備) goes to the cottage and walks around in the yard.

He closes his eyes like meditating Buddha, pulls up his hands together in front of his face, and bends his body, waiting below the stairway for a quarter of a day.

**7. (Kong Ming(孔明) Shows Up.) Zhang Fei(張飛) loses his temper. Kong Ming(孔明) comes out and looks at Liu Bei(劉備).**

[Jungmori] Zhang Fei(張飛) is hot-tempered.

He opens his eyes wide around which there are white circles. His beard is strong and short whose end goes up.

He folds up his sleeves, showing his black arms and speaking in a loud voice, "Hey! My brother is a person.

Although a member of a royal family, he visited this cottage three times to see that little man.

He has been waiting below the stairway for a quarter of a day today. Arrogant, however, that little man pretends to sleep, so he deserves to die.

I heard Kong Ming(孔明) has some talent. I'll step in, break that damn cottage into pieces, and burn it down.

I'll see if Kong Ming(孔明) sits or lies, if he really sleeps or pretends to sleep, if he dreams or not, and if he has fortitude or not."

As Zhang Fei(張飛) moves toward the cottage, Guan Yu(關羽) grabs his hand.

“현재야,<sup>246)</sup> 현재야, 아우는 이리 말어라. 네가 옛일을 모르느냐?  
 춘추 적<sup>247)</sup>에 제 환공<sup>248)</sup>도 동괵야인<sup>249)</sup>을 보려하고 다섯 번을 찾아가 겨우 한 번 만났는데,  
 우리도 천하대사를 경론<sup>250)</sup>하며 내가 어찌 이다지 무례하냐.” 굳이 잡고 말릴 적에,  
 [아니레] 그 때여 공명선생은 잠을 깨어 글을 한 수 읊으는데,  
 “초당에 춘수죽하니, 창외일지지라.  
 대몽을 수선각고? 평생을 아자지라.”<sup>251)</sup>  
 동자 들어가 여짜오되, “한중실<sup>252)</sup> 유황숙<sup>253)</sup>이 계하에 이르신 지 반일이 넘나이다.”  
 [중모레] 공명이 그제사<sup>254)</sup> 놀라는 체하고, 동자를 꾸짖어 말을 한다.  
 “네가 그러면 어찌 그 말을 이제사<sup>255)</sup> 하느냐?”  
 급히 내당<sup>256)</sup> 들어가서 머리 위에 윤건<sup>257)</sup> 쓰고, 몸에는 학창의<sup>258)</sup>라. 백우선<sup>259)</sup> 손에 들고 계하에 통통 내려와 현덕을 영접하여,  
 예필<sup>260)</sup> 좌정<sup>261)</sup> 후, 공명이 눈을 들어 현덕을 가만히 살펴보니,  
 용준용안<sup>262)</sup>이 기이하고 수수과슬<sup>263)</sup> 이상하매 만승천자<sup>264)</sup>의 기상<sup>265)</sup>이라.  
 현덕도 눈을 들어 공명을 가만히 살펴보니, 미재강산정기<sup>266)</sup>하고, 육경육갑지법<sup>267)</sup>이 흥중<sup>268)</sup>에 가득히 든 듯하니 마음이 산란하여 다시 일어서 읊을 하고,<sup>269)</sup>

“Brother, don’t do it. Don’t you know what happened in the past?

In the Chunqiu(春秋) period, Huang(桓), a feudal lord of Qui(齊) Country, managed to meet a scholar in the east of a castle on his fifth visit.

We are trying to save the world. How can you be so rude?”  
Guan Yu(關羽) stops Zhang Fei(張飛).

**[Aniri]** Meanwhile, Kong Ming(孔明) wakes up and recites a poem:

“I had a sound spring sleep in this cottage. The day gets longer and longer outside the window.

After waking up from a big dream, I came to know about my whole life.”

The boy goes into the cottage and says, “An uncle of King Xian(獻) has been waiting for you below the stairway for a quarter of the day.”

**[Jungmori]** Pretending to be surprised, Kong Ming(孔明) scolds the boy.

“If so, why didn’t you tell me earlier?”

He goes into the main building quickly, and puts on a silk hood on his head and a large coat with wide sleeves on his body. Holding a fan of white feathers, he steps down the stairway and greets Liu Bei(劉備).

After the greetings, they sit down. Kong Ming(孔明) raises his eyes and takes a close look at Liu Bei(劉備).

He looks peculiar in that his nose is high, and his eyes are like those of a dragon. His arms reach below the knees. His appearance signifies a powerful king.

Liu Bei(劉備) also turns his eyes up and takes a close look at Kong Ming(孔明). Natural energy is between his two eyebrows. The principles of nature appear to be in his chest. Worried he shows respect to him again.

## 8. (유비 간청 1) 유비가 공명에게 자신을 도와달라고 간청한다.

[아니레] “고명<sup>270</sup>)을 듣사옵고 전에 두 번 왔다가 만나 뵈옵지 못하고 미천한<sup>271</sup>) 제 이름을 기록하고 갔삽더니,<sup>272</sup>) 선생께서는 보셨는지요?”

공명이 답을 하되, “천사<sup>273</sup>)께서는 천사<sup>274</sup>)를 보려하시고 이 누지<sup>275</sup>)에 삼고초려로 세 번을 찾아 왕립<sup>276</sup>)하시오니 그 뜻이 웬 뜻이오?”

[진양조] 현덕이가 꿇어 앉아 애궁<sup>277</sup>) 사정<sup>278</sup>) 비는구나.

“여보 선생, 듣조시오.<sup>279</sup>) 한실<sup>280</sup>)이 미약하고, 종묘와 사직<sup>281</sup>)은 망재조석<sup>282</sup>)이라.

초야<sup>283</sup>)에 묻힌 영웅 한탄이 무궁<sup>284</sup>)하되, 장수들은 말을 타고 무술<sup>285</sup>)을 싫어하니,

불쌍한 게 백성이요, 가련한 게 사직<sup>286</sup>)이라. 백설<sup>287</sup>)은 펄펄 흩날릴 적에,

손 불어 축천<sup>288</sup>)하고 발 굴러 쉬어올 제,

뉘를 보려고 내가 왔겠소? 높은 이름을 들은 지가 오래오니,

경천위지<sup>289</sup>) 무궁한 조화 안방보국<sup>290</sup>)을 하시어서 어린<sup>291</sup>) 나를 구하여주오.”

## 9. (유비 간청 2) 공명이 나설 뜻이 없다고 하자, 유비가 눈물로 호소하며 다시 간청한다.

[아니레] 공명이 배사주왈,<sup>292</sup>) “량<sup>293</sup>)이 본시 무식하와



## 8. (Liu Bei's(劉備) Plea 1) Liu Bei(劉備) entreats Kong Ming(孔明) to help him.

[Aniri] “Having heard of your name before, I came here twice but failed to see you.

I left my humble name here and went back. Did you see it?” Kong Ming(孔明) responds, “A future king visited this humble cottage three times to see a poor scholar. What is your purpose?”

[Jinyangjo] Kneeling down, Liu Bei(劉備) begs in a pathetic manner.

“Look, sir. The Han(漢) Dynasty is weak. The royal family and the country might collapse in a day.

Heroes languishing in a remote country sigh deeply. The strong and the courageous hate fighting on horses.

The people are poor, and the royal family is pathetic. White snow flies around.

I came here, blowing on my cold hands, praying to heaven, stamping my cold feet, and taking breaks.

I came here to see none other than you. I've heard of your high fame for a long time.

Please help me, a poor man, with your limitless magical talent and loyalty to the country.”

## 9. (Liu Bei's(劉備) Plea 2) As Kong Ming(孔明) is not willing to move, Liu Bei(劉備) asks Kong Ming(孔明) in tears.

[Aniri] Kong Ming(孔明) bows to Liu Bei(劉備) and speaks, “I'm not an educated person.

풍의천사<sup>294</sup>)로 남양<sup>295</sup>)에 밭 갈기와 강호<sup>296</sup>)에 고기 낚기, 글을 좋아  
 일삼거늘,  
 천하를 번복<sup>297</sup>) 한단 말은 만불성설<sup>298</sup>)이라. 거짓말을 들으시고 허  
 행<sup>299</sup>)을 하였나이다.”  
 동자를 부르더니 형주익주도<sup>300</sup>)를 내어놓고,  
 “동쪽은 손권<sup>301</sup>)의 땅이요, 북쪽은 조조의 영지<sup>302</sup>)라.  
 황숙께서는 형주<sup>303</sup>)와 양양<sup>304</sup>)을 점령하시고, 그 여세를 몰아 서  
 촉<sup>305</sup>)으로 들어가서  
 유계옥<sup>306</sup>)의 항복을 받고 사십일주<sup>307</sup>)를 점령하시고,  
 다시 한중<sup>308</sup>)으로 진출하여 장송<sup>309</sup>)의 항복을 받고 보면 천하를 얻  
 고, 한실<sup>310</sup>)을 가히 정하리다.”  
 이렇듯이 말을 하고 나올 뜻이 없는지라.  
 [중모레] 다시 꿇어 비는구나. “여보 선생, 듣조시오. 방금 삼국이 술  
 밭같이<sup>311</sup>) 일어나는데,  
 선생이 아니시면 뉘라<sup>312</sup>) 흥복<sup>313</sup>) 하오리까? 뉘라 백성을 구하리까?”  
 오열<sup>314</sup>)하며 울음을 우니 용안<sup>315</sup>) 누락이 만강류<sup>316</sup>)라.  
 흐르나니<sup>317</sup>) 눈물이요, 나오나니<sup>318</sup>) 한숨이라. 현덕의 일편십<sup>319</sup>)이  
 구천<sup>320</sup>)에 사무친다.

## 10. (공명 출사) 공명이 유비를 따라 나와, 군사를 훈련시킨다.

[아니레] 공명이 생각하니, ‘현덕이 한나라 사직<sup>321</sup>)과 백성을 위하여  
 저렇듯 노심초사<sup>322</sup>)하니 내 어찌 그 뜻을 차마 버리리오?’

I'm a humble scholar, cultivating a field, fishing in a river and a lake, and reading books.

It is absurd that I can conquer the world. Having heard a false rumor, you came here for nothing.”

Kong Ming(孔明) calls the body and unfolds a map of Jingzhou(荊州) and Yizhou(益州).

“In the east is Sun Quan’s(孫權) land. In the north is Cao Cao’s(曹操) territory.

Please occupy Jingzhou(荊州) and Xiangyang(襄陽). Move on with the momentum to the west.

Beat Liu Zhang(劉璋) into submission and occupy forty towns. Advance to Hanzhong(漢中) and beat Zhang Song(張松) into submission. And you will obtain the world and restore the Han(漢) Dynasty.”

Speaking as said above, Kong Ming(孔明) won't move forward. [Jungmori] Liu Bei(劉備) kneels down again. “Please listen, sir. The three countries are confronting each other.

Who could bring order to them except you? Who could salvage the people?”

Choked in his throat, Liu Bei(劉備) sheds heavy tears.

What runs down is tears, and what comes out is a sigh. Liu Bei’s(劉備) firm resolution permeates into the ground.

## **10. (Kong Ming(孔明) Goes into Government Service.) Following Liu Bei(劉備) out of the seclusion, Kong Ming(孔明) trains soldiers.**

[Aniri] Kong Ming(孔明) thinks, ‘Liu Bei(劉備) is worried about the Han(漢) Dynasty and the people. How can I decline his proposal?’

다시 일어<sup>323</sup>) 예를 하며, “천단한<sup>324</sup> 재주를 버리시지 않으시면, 견마 지공<sup>325</sup>)을 다 하겠나다.”

현덕이 대희하여<sup>326</sup>) 운장과 익덕을 불러 예단<sup>327</sup>)을 갖춘지라.

“이 사람은 나의 둘째 아우 관운장이요, 저 사람은 나의 셋째 아우 장익덕이로소이다.”

공명이 바라보니 아름답고 웅장한지라.

공명이 아우 균을 불러, “내 황숙<sup>328</sup>)의 삼고지은<sup>329</sup>)을 아니 갚지 못할 것이니라.

너는 후원<sup>330</sup>)의 매화를 버리지 말고, 농업에 힘을 써라.”

제갈균이 여짜오되, “형장<sup>331</sup>)은 대사 성공하시사,<sup>332</sup>) 수이<sup>333</sup>) 환가<sup>334</sup>)하시기를 바라옵니다.”

이렇듯이 작별하고,

**[자진모레]** 그 때에 공명은 현덕과 한가지로<sup>335</sup>) 신야<sup>336</sup>)로 돌아오니, 장수는 열 명이 되지 못하고, 군사는 만 명도 못되는지라.

조그마한 하구<sup>337</sup>) 땅에 겨우 굴러<sup>338</sup>) 용신<sup>339</sup>)하며, 조석<sup>340</sup>)을 같이 하고 잠자리를 같이 하니,

운장이 불평하여, “형장은 공명이 나이도 어리고, 재주도 또한 모르는 데, 대우가 너무나 태과<sup>341</sup>)함이 아니신가 하옵니다.”

현덕이 그 말 듣고, “내가 공명을 얻은 것은 고기가 물 얻음 같고, 범이 날개 얻고, 용이 구름을 얻은 격이라. 아우는 그런 말 하지 마소.”

이렇듯 분부하고, 백성 삼천 명을 뽑아내어서 공명에게 주었더니마는, 공명이 주야로 진법<sup>342</sup>)을 가르쳐 시기를 기다릴 제,

Kong Ming(孔明) shows respect to Liu Bei(劉備) again. “If you don’t give up on my small talent, I’ll work hard for you like a dog and a horse.”

Delighted, Liu Bei(劉備) calls Guan Yu(關羽) and Zhang Fei(張飛) and gives the presents to Kong Ming(孔明).

“This is my first younger brother, Guan Yu(關羽). That is my second younger brother, Zhang Fei(張飛).”

Kong Ming(孔明) takes a look at them, who look good and majestic.

Kong Ming(孔明) calls his brother, Jun(均). “I have to return Liu Bei’s(劉備) favor of visiting me three times.

Don’t desert the Japanese apricot tree in the backyard. Put efforts into farming.”

Jun(均) replies, “Brother, make a success in your career and come back in one piece soon.”

They say goodbye to each other.

**[Jajinmori]** Kong Ming(孔明) now goes to Xinye(新野) with Liu Bei(劉備).

They have less than ten officers and 10,000 soldiers.

They manage to live in a small area, Xiakou(夏口), eating together and sleeping together.

Guan Yu(關羽) complains, “Brother, Kong Ming(孔明) is young, and his talent is yet unknown. I think you treat him too well.”

Liu Bei(劉備) says, “My obtaining Kong Ming(孔明) is like a fish obtaining water, like a tiger obtaining wings, and like a dragon obtaining clouds. So don’t say that, brother.”

After telling him this, Liu Bei(劉備) selects three thousand people and puts them in the charge of Kong Ming(孔明).

Kong Ming(孔明) teaches them how to arrange soldiers on a battlefield, waiting for the right timing.

## 11. (박망과 전투) 조조의 군사가 쳐들어오자, 공명이 박망파에서 격파한다.

[아니리] 하루는 탐자<sup>343</sup>)가 급히 와서 고하되,<sup>344)</sup>  
‘조조가 하후돈<sup>345</sup>)을 명하여 군사 십만을 거느리고, 우금,<sup>346)</sup> 이전<sup>347)</sup>  
으로 부장<sup>348</sup>)을 삼아 이 신야로 풍우같이<sup>349)</sup> 짓쳐온다.’<sup>350)</sup>하는지라.  
공명이 하는 말이, “운장과 익덕이가 내 장령<sup>351</sup>)을 어길 것이다. 주공  
은 인<sup>352</sup>)과 칼을 빌리사이다.”<sup>353)</sup>

현덕이 인과 칼을 공명에게 맡긴지라.

[자진모레] 일일은<sup>354)</sup> 공명이 장대<sup>355</sup>)에 올라 제장<sup>356</sup>)을 불러 분  
발<sup>357</sup>)한다.

“박망파<sup>358</sup>)라는 뽕<sup>359</sup>)가 있어 이름은 예산<sup>360</sup>)이라. 우편에 수풀이 있  
어 이름은 안림<sup>361</sup>)인데,

운장과 익덕이 삼천군<sup>362</sup>) 거느려 안림에 매복<sup>363</sup>)하였다가,  
적병이 지나면 양초<sup>364</sup>) 뒤에 있을 테니, 남쪽에 불이 일어남을 보고,  
양초에 불을 질러라!

조운<sup>365</sup>)은 일군<sup>366</sup>)을 거느리어 전부 선봉<sup>367</sup>)이 되고, 주공<sup>368</sup>)은 일  
군을 거느려 뒤를 접응<sup>369</sup>)하사이다.”

운장과 익덕이 웃어 가로되,

“우리는 나가 싸우고, 너는 가만히 성에 앉아 집을 지키고자 하느냐?”  
공명이 호령하는데, “칼과 인이 여기 있으니, 위령자<sup>370</sup>)는 참<sup>371</sup>)하리라!”  
벽력같은 고함소리에 위엄이 상설<sup>372</sup>)같구나. 현덕이 민망하여,

**11. (Bowangpo(博望坡) Battle 1) Kong Ming(孔明)  
diffuses the attack of Cao Cao's(曹操) soldiers in  
Bowangpo(博望坡).**

[Aniri] One day, a scout hurriedly comes and reports,  
'Cao Cao(曹操) had Xia Jiao Dun(夏侯惇) lead 100,000 soldiers.  
Yu Jin(于禁) and Li Dian(李典) are staff officers. They charge  
to Xinye(新野) like a rainstorm.'

Kong Ming(孔明) says, "Guan Yu(關羽) and Zhang Fei(張飛)  
won't follow my order. Let me borrow your sword and the iron  
symbol of your office."

Liu Bei(劉備) gives his sword and the iron symbol to Kong Ming  
(孔明).

[Jajinmori] One day, Kong Ming(孔明) stands on a commanding  
post, giving orders to his officers.

"There is Yu(豫) Mountain in Bowangpo(博望坡). On the right  
side is An(安) Forest.

Guan Yu(關羽) and Zhang Fei(張飛) will stay in ambush there  
with three thousand troops.

The enemy will pass by with food on the rear of the formation.  
If you see fire in the south, turn fire on the food and hay!  
Zhao Zi Long(趙子龍) will lead a unit as the vanguard. Your  
Majesty will take charge of one thousand troops and confront  
the enemy at the back."

Guan Yu(關羽) and Zhang Fei(張飛) laugh at Kong Ming(孔明).  
"While we're fighting the enemy, are you staying in the castle  
to protect your home?"

Kong Ming(孔明) yells at them. "I have this sword and symbol.  
Anybody disobeying my order will be beheaded."

His shout is as loud as thunder and as chilly as frost. Liu Bei(劉  
備) is ashamed.

“운주유악지중 결승천리지외<sup>373</sup>)한단 말 아우들은 듣지 못했나? 부디  
영을 어기지 말라.”

운장과 익덕은 양양불락<sup>374</sup>)하고 가고,  
그 때에 현덕이도 일군을 거느려 가기는 가지마는 의혹을 정치<sup>375</sup>)  
못하더라.

**[아니리]** 그 때에 하후돈<sup>376</sup>)은 군사 십만을 거느리고 박망파<sup>377</sup>)로 당  
도하니,

현덕의 군사가 삼삼오오<sup>378</sup>)로 대오<sup>379</sup>)가 없는지라.

하후돈<sup>380</sup>)이 세계 웃으며, “내가 서원직<sup>381</sup>)이 서서<sup>382</sup>)의 말을 웃는  
도다.

뭐, 제 재주는 개똥불<sup>383</sup>) 같고, 공명의 재주는 달덩어리 같다고?  
저까짓 군사를 몰아 나를 치는 것은 달갈로 돌을 치는 것과 무엇이  
다르리오?

내 결단코 오늘 저녁에 신야성<sup>384</sup>)을 뺏지 못할 것 같으면은 군사를  
쉬지<sup>385</sup>) 아니하리라.”

**[자진모레]** 말이 맞들<sup>386</sup>) 못하여, 말이 맞들 못하여, 자룡이 거동봐  
라. 말을 몰아 짓쳐온다.<sup>387</sup>)

하후돈이 맞아 싸워 삼합<sup>388</sup>)이 다 못 되어 자룡이 거짓 패하여 도망  
간다.

하후돈이 승세<sup>389</sup>)하여 말을 몰아 따라갈 제, 골짜<sup>390</sup>)으로 들어가는데,  
양쪽을 바라보니 갈대가 자욱하고 산길이 또한 좁은지라. 우금,<sup>391</sup>)  
이전<sup>392</sup>) 달려와서 말고삐 부여잡고,

“여보 장군, 듣조시오.<sup>393</sup>) 적군을 업수히 여기면은<sup>394</sup>) 패한다 하여  
있고,

이곳은 또한 길이 좁고 갈대가 많사오니, 만일 적군이 불로 치면은  
어찌 당하리까?”



“Brothers, didn’t you hear that he can think up a strategy to win a war away from a battleground? Please obey his order.”

Although unhappy, Guan Yu(關羽) and Zhang Fei(張飛) leave. Even Liu Bei(劉備) is skeptical about Kong Ming(孔明), but he departs with a unit.

**[Aniri]** Meanwhile, Xia Jiao Dun(夏侯惇), leading 100,000 troops, arrive at Bowangpo(博望坡).

Liu Bei’s(劉備) soldiers are scattered in groups of several people without forming a line.

Xia Jiao Dun(夏侯惇) laughs loudly. “I laugh at what Xu Shu(徐庶) said.

He said that his talent can be compared to a firefly, and Kong Ming’s(孔明) talent to the moon.

To attack me with those troops is like hitting a rock with an egg.

If I don’t secure Xinye(新野) Castle this evening, I will not let my soldiers take a break.”

**[Jajinmori]** Before Xia Jiao Dun(夏侯惇) finishes, Zhao Zi Long(趙子龍) spurs his horse at Xia Jiao Dun(夏侯惇).

Zhao Zi Long(趙子龍) and Xia Jiao Dun(夏侯惇) fight each other a little bit. Zhao Zi Long(趙子龍) flees, pretending to be defeated.

Triumphant, Xia Jiao Dun(夏侯惇) chases Zhao Zi Long(趙子龍) into a valley.

Thick reeds are on both sides, and the mountain road is narrow. Yu Jin(于禁) and Li Dian(李典) come quickly and pull up their reins.

“Hello, general. It is said if you look down on your enemy, you will lose.

Besides, this road is narrow and there are many reeds. What if they attack us with fire?”

하후돈이 옹게 여겨 군사 돌려 쉬라 하더니, 방포일성<sup>395</sup> ‘쿵!’ 사방에서 불이 일어나는데,  
 갈대에 불이 붙어 팔팔잡잡<sup>396</sup> 하는구나.  
 하후돈이 겁을 먹고 어찌 할 줄 모를 적에 조자룡이 거동뵈라.  
 말을 다시 돌리어서 급히 쫓는구나.  
 하후돈<sup>397</sup>이 황급하여 한 곳을 당도하니 양장<sup>398</sup>이 길을 막으니, 운장과 익덕이라.  
 일진<sup>399</sup>을 폐살<sup>400</sup>하고, 말을 버리고 산을 넘고 고개를 넘어 허창<sup>401</sup>으로 도망간다.

## 12. (유비 강릉 피난) 유비는 백성들과 함께 강릉으로 피난하고, 조조는 대군을 이끌고 신야성으로 쳐들어 온다.

[아니리] 그 때에 운장과 익덕이가 서로 보고 무색하여,<sup>402</sup>  
 “우리가 공명이 나이 적고 재주도 모르겠기에 깔봤더니만,  
 참말로 그 양반 말을 안 들었으면 대사를 그르칠 뻔했네.” 하고서 한편을 바라보니,  
 그 때여 미방,<sup>403</sup> 미축<sup>404</sup>이가 사륜거<sup>405</sup>를 옹위하여<sup>406</sup> 오는데,  
 공명선생이 머리에 윤건<sup>407</sup> 쓰고, 몸에 학창의<sup>408</sup>를 입고, 손에 백우선<sup>409</sup>을 들었구나.  
 운장과 익덕이 급히 말께<sup>410</sup> 내려 복배<sup>411</sup>하니, 현덕이 대회하여<sup>412</sup>  
 군사들께 상을 줄 제,

Persuaded, Xia Jiao Dun(夏侯惇) orders his soldiers to take a rest. An artillery sound is heard, and fire rises up in four directions.

The reeds catch fire, making loud burning sounds.

Shocked, Xia Jiao Dun(夏侯惇) is at a loss about what to do.

Behold Zhao Zi Long(趙子龍).

He turns his horse around and chases them fast.

Xia Jiao Dun(夏侯惇) hurriedly arrives at a certain place where Guan Yu(關羽) and Zhang Fei(張飛) block his road.

All of his soldiers are killed. He deserts his horse and goes over mountains, running away to Xuchang(許昌).

**12. (Liu Bei(劉備) Takes Refuge at Jiangling(江陵).) Liu Bei(劉備) takes refuge at Jiangling(江陵) with his people. Cao Cao(曹操) leads a huge army to attack Xinye(新野) Castle.**

[Aniri] Guan Yu(關羽) and Zhang Fei(張飛) look at each other's faces, feeling ashamed.

"We looked down on Kong Ming(孔明) because he is younger than we and we didn't know about his talent.

We might have ruined the important matter if we had not listened to him." They behold a certain place.

Mi Fang(糜芳) and Mi Zhu(糜竺) come, escorting a four-wheeled coach.

Kong Ming(孔明) wears a silk hood on his head and a large coat with wide sleeves on his body, holding a fan of white feathers. Guan Yu(關羽) and Zhang Fei(張飛) get off their horses quickly and make big bows to Kong Ming(孔明). Delighted, Liu Bei(劉備) gives prizes to his soldiers.

공명이 하는 말이, “조조 군사가 일시적으로 패하여 왔지마는, 조조 대군이 물밑듯이 들어올 것이라.

이 신야<sup>413</sup>)는 성이 작고 양식도 없고 군사가 부족하니,  
이 신야를 버리고 저 오백 리 되는 강릉<sup>414</sup>) 곡창<sup>415</sup>)으로 가서, 그곳에서 후일<sup>416</sup>)을 보는 것이 어떠리오?”

현덕이 그 말을 따라 번성<sup>417</sup>) 백성들과 신야 백성들에게 방<sup>418</sup>)을 붙였으되,

‘이곳은 장차 조군<sup>419</sup>)이 입성<sup>420</sup>)할 것이라. 나를 따를 자는 후회하지 말고 따르라.’ 하여노니,

백성들이 한 명도 남지 않고 현덕을 흠모<sup>421</sup>)하여 부녀자를 다 데리고 피난을 가는데,

하루 십 리도 가고, 이십 리도 가고, 곡성<sup>422</sup>)에 낭자할 적에,  
그 때에 하후돈<sup>423</sup>)은 군사를 패하여 허창<sup>424</sup>)으로 들어가서,  
조조 앞에 울며 하는 말이, “공명의 화공<sup>425</sup>)으로 인하여 십만 군사  
씩<sup>426</sup>) 다 죽이고, 요렇게 세 놈만 살아왔습니다.” 하여노니,

**[중모레]** 조조 듣고 화를 내어, 오십만 대군을 거느리고 풍우같이<sup>427</sup>)  
짓쳐올<sup>428</sup>) 제,

제일대군<sup>429</sup>) 사십만을 거느리고 허저,<sup>430</sup>) 장요<sup>431</sup>)가 선봉<sup>432</sup>)이요,  
제이대는 하후연,<sup>433</sup>) 장합,<sup>434</sup>) 제삼대는 조홍,<sup>435</sup>) 조인,<sup>436</sup>)  
제사대는 문빙,<sup>437</sup>) 악진,<sup>438</sup>) 조조가 스스로 오대<sup>439</sup>)가 되어

Kong Ming(孔明) says, “Cao Cao’s(曹操) soldiers are gone temporarily because they were defeated, but Cao Cao’s(曹操) huge army will come back like a tidal wave.

This Xinye(新野) Castle is small, and there are not enough food and soldiers.

Let’s desert Xinye(新野) and move away to Jiangling(江陵) where there is much food. Why don’t we make future plans there?” With Kong Ming’s(孔明) suggestion, Liu Bei(劉備) posts announcements to the people in Fan Cheng(樊城) Castle and Xinye(新野).

‘Cao Cao’s(曹操) army will come here. Please follow me, but don’t regret later.’

All the people admire Liu Bei(劉備), taking refuge along with their wives and children.

As they walk day after day, wailing sounds are heard everywhere.

Meanwhile, Xia Jiao Dun(夏侯惇) goes into Xu Chang(許昌) after being defeated.

He reports to Cao Cao(曹操) in tears, “Kong Ming(孔明) attacked us with fire. All the 100,000 soldiers died. Only three of us came back alive.”

**[Jungmori]** Angry, Cao Cao(曹操) leads 500,000 soldiers and charges at Liu Bei(劉備) like a rainstorm.

Leading the first unit of 400,000 soldiers, Xu Chu(許褚) and Zhang Liao(張遼) are in the vanguard.

Xia Jiao Yuan(夏侯淵) and Zhang He(張郃) are in charge of the second unit. Cao Hong(曹洪) and Cao Ren(曹仁) are in charge of the third unit.

Wen Pin(文聘) and Le Jin(樂進) are in charge of the fourth unit. Cao Cao(曹操) is in charge of the fifth unit.

초축,<sup>440)</sup> 장남,<sup>441)</sup> 중요,<sup>442)</sup> 종진<sup>443)</sup> 형제, 하후걸,<sup>444)</sup> 하후돈<sup>445)</sup>이라.  
일등명장<sup>446)</sup>이 천 명이요, 날랜 장졸이 오십만이라.  
풍우같이 짓쳐오니, 가련하다 현덕군은 풍전등화<sup>447)</sup>가 되었구나.

### 13. (신야성 싸움) 공명이 신야성의 빈 집에 불을 지르고, 강의 독을 허물어 조조 군사를 크게 무찌른다.

[아니리] 그 때여 조조 군사들은 신야성<sup>448)</sup>을 당도하니, 신야성이 비  
었는지라. 개미새끼 한 마리도 없지.  
군사들이 좋아라고 집집마다 신나갖고<sup>449)</sup> 들어가서, 갑옷 찢<sup>450)</sup> 벗어  
놓고 밥을 지어 먹고자 하였는데,  
전날 밤 공명 선생이 천기<sup>451)</sup>를 보니, 삼일 후에는 남풍이 반드시  
크게 불 것이라 생각하고, 각 집 반자<sup>452)</sup> 속에다가 화약 염초<sup>453)</sup>를  
가득히 넣어 두었는데,  
미방, 미축이 숨어 있다 보니 과연 남풍이 솔솔 일어나는지라. 사방에  
다 불을 질러노니,  
[엇모레] 광풍<sup>454)</sup>이 대작<sup>455)</sup>하고, 광풍이 대작하고 사방에서 불이 일  
어나는데  
조인,<sup>456)</sup> 허저<sup>457)</sup>가 대경<sup>458)</sup>하여, 조인 허저가 대경하여 중장<sup>459)</sup>을  
데리고 도망한다.  
중문<sup>460)</sup>으로 달아날 제, 그 때는 오경<sup>461)</sup>이라.

With him are Jao Chu(焦觸), Zhang Nan(張南), Zhang Yao(種繇) and Zhong Jin(種進) brothers, Xia Jiao Jie(夏侯傑), and Xia Jiao Dun(夏侯惇).

The first-rate warriors are a thousand, and fast officers and soldiers are 500,000.

As they come like a rainstorm, poor Liu Bei's(劉備) soldiers are in jeopardy.

### **13. (Battle in Xinye(新野) Castle) Kong Ming(孔明) sets fire to empty houses in Xinye(新野) Castle and breaks down the bank of a river, defeating Cao's(曹操) soldiers.**

[Aniri] Cao Cao's(曹操) soldiers reach Xinye(新野) Castle which is empty. Not even an ant can be seen.

Elated, the soldiers go into the houses, take off all their armor, and try to cook food.

Last night, Kong Ming(孔明) examined the weather and put a lot of gunpowder on the ceiling of each house, thinking there would surely be a strong south wind after three days.

While hiding, Mi Fang(糜芳) and Mi Zhu(糜竺) notice that a south wind begins to blow as expected, and they set fire everywhere.

[Eonmori] A gust of wind blows, and fire rises up everywhere. Startled, Cao Ren(曹仁) and Xu Chu(許褚) flee along with another officer.

It is early in the morning when they run to the middle gate.

기갈<sup>462</sup>)이 심한 조조 군사가 엎터지고<sup>463</sup>) 자빠지며 백하<sup>464</sup>) 상류로 도망할 제,  
 그 때에 관운장은 공명의 분부로 백하 상류를 막을 적에, 포대<sup>465</sup>)에 흙을 넣어서 백하 상류를 막았다가,  
 조조 군사 소리를 듣고서 막았던 물을 터뜨리니,  
 물결이 창일<sup>466</sup>)하여 물에 떨어져 죽는 군사 그 수를 모를러라.<sup>467)</sup>

#### 14. (조자룡 도망) 조자룡은 유비의 가솔을 찾기 위해 적군 중으로 들어갔는데, 장비는 배반한 것으로 오해한다.

[진양조] 그 때에 유현덕은 수십 만 백성들과 삼천 병마<sup>468</sup>)를 거느리고 강릉<sup>469</sup>)으로 달아날 제,  
 장비가 뒤를 끊으며 싸워가며 도망할 적에,  
 그 때에 조자룡<sup>470</sup>)은 현덕의 가솔<sup>471</sup>)을 모시고서 완완히<sup>472</sup>) 달아날 제,  
 장판파<sup>473</sup>)를 들어가서 조조 군사와 한참 동안 싸우다가 현덕이 가솔을 모두 잃어버렸네그려.  
 날은 점점 밝아오고 적군의 함성이 멀어지고,  
 그 때에 자룡은 현덕의 가솔을 찾자 하고 적군 중으로 들어가고,  
 뒤를 따라오던 현덕은 아무런 줄을 모르고서 통곡하여 우네.  
 “아이고! 분해라. 분하여라. 아까운 군사와 붙잡힌 백성들이 박복한<sup>474</sup>) 나를 만나 저 고생이 웬일이냐? 내가 차라리 죽어노면 이런 환난<sup>475</sup>)이 없으리라.”  
 칼을 빼어 목을 찢러 죽고자 하니, 장졸들이 보고서 만류를 한다.



Hungry and thirsty Cao Cao's(曹操) soldiers fall to the ground, as they flee to the upper stream of the Baihe(白河) River. Meanwhile, Guan Yu(關羽) has blocked the upper stream of Baihe(白河) River as Kong Ming(孔明) ordered, having put earth in bags.

After seeing Cao Cao's(曹操) soldiers, he breaks down the dam. Large waves are created. Numerous soldiers are drown.

**14. (Zhao Zi Long(趙子龍) Flees.) Zhao Zi Long(趙子龍) enters an enemy's area in search of Liu Bei's(劉備) family members. Zhang Fei(張飛) mistakenly thinks he is a traitor.**

[Jinyangjo] Meanwhile, Liu Bei(劉備) flees to Jiangling(江陵) with hundreds of thousands of civilians, 3,000 soldiers, and horses. Zhang Fei(張飛) defends the back of the formation as they flee. Zhao Zi Long(趙子龍) protects Liu Bei's(劉備) family members as he retreats slowly.

When he fights with Cao Cao's(曹操) soldiers in Changbanpo(長坂坡), he loses all of Liu Bei's(劉備) family members.

The day breaks, and the sounds of the enemy become weak. Zhao Zi Long(趙子龍) enters the enemy's area to search for them.

Without knowing about Zhao Zi Long(趙子龍) and his family members, Liu Bei(劉備) bewails in the back of the formation. "Alas! I am upset. Good soldiers and poor people are suffering from this hardship because they followed me, an unlucky person. If I die, this misery will go away."

He pulls out a sword and tries to kill himself. Officers and soldiers stop him.

[아니레] 장비가 하는 말이, “형장<sup>476</sup>은 너무 심려치<sup>477</sup> 마옵시오. 승  
패<sup>478</sup>는 병기<sup>479</sup>에 상사<sup>480</sup>이라.

한고조<sup>481</sup>께옵서는 항우<sup>482</sup>와 싸울 적에,  
일흔두 번을 패하였다가 구의산<sup>483</sup> 한 싸움에 성공을 하시어서 사백  
년 사직<sup>484</sup>을 붙들고 내려 오셨습니다.

우리도 백성들을 천천히 오라 하고서, 우리만 먼저 강릉으로 가옵  
시다.”

현덕이 그 말 듣고, “아니로다. 아니로다. 신야<sup>485</sup> 백성과 번성<sup>486</sup>  
백성들이 나를 따라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차라리 죽는 한이 있더라  
도 의리 없는 짓은 안 하리라.”

이렇듯 통곡하니,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듣고 현덕을 모실 것을 하나님  
께 맹세하는지라.

그 때에 미방이가 얼굴에 살<sup>487</sup>을 맞고 와서 하는 말이, “조자룡<sup>488</sup>이  
반하여<sup>489</sup> 조조게로<sup>490</sup> 도망갔습니다.”

현덕이 그 말 듣고, “공연히 그런 말 하지 마오. 자룡은 나와 환난<sup>491</sup>  
중에 만난 사람이라, 반할 사람이 아니오.”

장비가 옆에 있다가 하는 말이, “본래 그놈이 반골<sup>492</sup>이 있는 놈이요.  
내가 이놈을 만나면 창으로 배야지<sup>493</sup>를 콕 찌러 죽일 것이다.”

현덕이 그 말 듣고, “아우는 그런 말 하지 말라.

전에 운장이 조조에게 있다가 너의 형수 둘을 모시고 나를 찾아 고  
성<sup>494</sup>으로 올 적에,

네가 네 형께 하던 일을 모르느냐?

자룡이 간 것은 반한 것이 아니라, 사유<sup>495</sup>가 있어 간 것이니 너무  
의심하지 말라.”

[Aniri] Zhang Fei(張飛) says, “Brother, don’t worry too much. Victory and defeat are usual events in the military world. Liu Bang(劉邦), the founder of the Han(漢) Dynasty, was fighting against Xiang Yu(項羽). After being defeated 72 times, he won the victory in the battle on Jiuyi(九疑) Mountain and he founded a dynasty that lasted 400 years. Let’s ask the people to follow us slowly, and let’s move to Jiangling(江陵) first.”

Liu Bei(劉備) responds, “No! No! The people in Xinye(新野) and Fan(樊) Castle followed me all the way here. I would rather die than betray them.”

As he weeps, the people hear him and pledge to God that they will serve Liu Bei(劉備).

Mi Fang(糜芳) comes back with an arrow wound in his face and says, “Zhao Zi Long(趙子龍) betrayed us. He fled to Cao Cao(曹操).”

Liu Bei(劉備) replies, “Don’t say that without reason. I met him in war. He will not betray us.”

Zhang Fei(張飛) beside them says, “He was originally a rebellious person. If I meet him again, I will kill him by piercing his belly with this spear.”

Liu Bei(劉備) responds, “Brother, don’t say that. After staying in Cao Cao’s(曹操) place, Guan Yu(關羽) brought my two wives to me in an old castle. Don’t you recall what you did to Guan Yu(關羽)? Zhao Zi Long(趙子龍) went to Cao Cao(曹操) not because he betrayed us but because there is another reason. Don’t be suspicious of him.”

## 15. (미부인 자결) 조자룡이 간신히 미부인을 찾았지만 미부인은 아두를 부탁하고 자결한다.

[자진모레] 익덕이 듣지 않고, 수십 기<sup>496</sup>)를 거느리고 장관교<sup>497</sup>)를 당도하여 한 계교<sup>498</sup>) 생각하고, 나뭇가지를 찍어서<sup>499</sup>) 말안장에 꿰어달고 왕래치빙<sup>500</sup>)하여노니, 먼지가 자욱하여 의병<sup>501</sup>)을 삼은 후에, 말을 다리 위에 세워 놓고, 사모장창<sup>502</sup>)을 빗겨<sup>503</sup>) 들고, 고리눈<sup>504</sup>)을 부릅뜨고 서편을 바라보고 있구나. 그 때에 조자룡은, 그 때에 조자룡은 밤새도록 싸우다가 문득 자기 뒤를 바라보니 따르는 군사 삼사십 기<sup>505</sup>)라. 길 언덕에 한 사람이 누웠는데, 자세히 살펴보니 이는 분명 간웅<sup>506</sup>)이로다. “양위<sup>507</sup>) 주모<sup>508</sup>)를 보았느냐?” 간웅이 여짜오되, “내가 주모를 모시다가 적군을 만나 창을 맞고 여기 누웠으니, 어디로 가신 줄 모르네.” 자룡이 거동 보소. 말 한 필을 얻어내어 간웅을 태워 보내고 한 곳을 당도하니, 어떠한 사람이 “계<sup>509</sup>) 가는 것이 조장군 아니오?” “너는 누구냐?” “유사군<sup>510</sup>)의 군사더니 창을 맞고 누웠내다.”<sup>511</sup>) “양위 주모를 보았느냐?”

**15. (Lady Mi(糜) Kills Herself.) Zhao Zi Long(趙子龍)  
manages to find Lady Mi(糜). She leaves her son  
to him and kills herself.**

[Jajinmori] Without listening to Liu Bei(劉備), Zhang Fei(張飛) arrives at Changban(長坂) Bridge with tens of soldiers on horses. A scheme occurs to him.

They cut off branches of trees, attach them to the saddles of their horses, and drag them around.

They stir up a lot of dust to look as if there are a lot of soldiers. Zhang Fei(張飛) has his horse stand on the bridge, holding his spear obliquely whose end is triangled. He opens his eyes wide around which there are white circles, gazing to the west.

Meanwhile, Zhao Zi Long(趙子龍) has been fighting all night. He suddenly looks behind him, realizing thirty or forty soldiers on horses follow him.

A person lies on a hill by a road. On close inspection, he is clearly Jian Yong(簡雍).

“Have you seen Liu Bei’s(劉備) two wives, Lady Gan(甘) Lady and Lady Mi(糜)?”

Jian Yong(簡雍) answers, “When I was protecting them. I came across the enemy, I was hit by a spear, and I am lying down here. I have no idea where they went.”

Behold Zhao Zi Long(趙子龍). He arranges a horse and sends Jian Yong(簡雍) home on the horse.

Zhao Zi Long(趙子龍) reaches a certain place, where a person asks, “Hi, there! Aren’t you the general, Zhao Zi Long(趙子龍)?” “Who are you?” “I am Liu Bei’s(劉備) soldier. I am lying down here because I was hit by a spear.”

“Have you seen Liu Bei’s(劉備) two wives, Lady Gan(甘) and Lady Mi(糜)?”

저 군사 여짜오되, “아까 감부인<sup>512)</sup>께서 머리를 풀어 산발<sup>513)</sup>하고, 발을 벗고, 백성들 종종이<sup>514)</sup> 쉬여 남쪽으로 가더이다.”

자룡이 거동보소. 말을 달려 한 곳을 바라보니, 과연 백성 수백 명이 서로 부르는데,

아내는 남편을 찾고, 어미는 자식을 찾고 곡성<sup>515)</sup>이 낭자<sup>516)</sup>하네. 자룡이 크게 웨어,<sup>517)</sup> “거 피난 백성 중에 감부인이 계시니까?”<sup>518)</sup> 그 때여 감부인은 저 후면에 계시다가 자룡의 음성을 듣고서 방성대곡<sup>519)</sup>하는구나.

자룡이 말께<sup>520)</sup> 내려, “주모로 하여 난을 당하는 것은 도사<sup>521)</sup> 자룡의 죄로소이다. 미부인<sup>522)</sup>과 아두<sup>523)</sup>는 어디 가셨소이까?”

감부인이 하는 말이, “미부인과 같이 도망을 하더니만, 적군을 만나 시살<sup>524)</sup>하는 통에 어디로 가신 줄 모르오네.”

말을 맞고<sup>525)</sup> 있는 사이에 한 사람을 결박<sup>526)</sup>지어 오는데, 일원대장<sup>527)</sup>을 결박지어 오는 장수를 바라보니, 이는 미축<sup>528)</sup>이 분명하고, 결박을 지은 자는 순우도<sup>529)</sup>가 분명하구나.

자룡이 분이 나서 장창<sup>530)</sup>을 빗겨 들고 불꽃같이 말께 올라, 순우도 취하야<sup>531)</sup> 일합에<sup>532)</sup> 목을 텅그렁 베고, 미축을 구한 후에, 말 두 필 얻어서 부인과 미축을 태워 보내고 장관교로 당도하니, 장비가 크게 외어,<sup>533)</sup>

“여봐라, 조자룡아! 너는 어찌 우리 형장을 배반하느냐!”

The soldier answers, “A few minutes ago, Lady Gan(甘) untied her hair, took off her shoes, and went to the south along with other people.”

Behold Zhao Zi Long(趙子龍). He rides his horse fast and looks at a certain place where hundreds of people call each other as expected.

Wives call their husbands. Mothers call their children. Crying sounds shake the air.

Zhao Zi Long(趙子龍) shouts loudly, “Is Lady Gan(甘) among the refugees?”

In the back, Lady Gan(甘) hears Zhao Zi Long’s(趙子龍) voice and cries loudly.

Zhao Zi Long(趙子龍) gets off his horse. “You are going through this trouble because of me. Where did A Dou(阿斗) and Lady Mi(糜) go?”

Lady Gan(甘) answers, “We were fleeing together when we came across the enemy soldiers. They killed our people mercilessly. I don’t know where she went.”

As they finish exchanging words, two people come. One was tied up.

The general who is tied up is surely Mi Zhu(糜竺), and the person who tied the other is clearly Chun Yu Dao(淳于導).

Furious, Zhao Zi Long(趙子龍) holds up the long spear obliquely and gets on the horse like fire.

Confronting Chun Yu Dao(淳于導), he cuts his head off with one move and rescues Mi Zhu(糜竺).

He arranges two horses and sends the lady and Mi Zhu(糜竺) home on the horses. As Zhao Zi Long(趙子龍) arrives at Changban(長坂) Bridge, Zhang Fei(張飛) yells loudly at him. “Hey Zhao Zi Long(趙子龍)! Why did you betray my brother?”

이렇듯 소리 지르니 조자룡이 하는 말이, “내가 언제 자네 형을 배반 했는가? 주모를 찾느라고 잠시 낙후<sup>534</sup> 되었는데, 어찌 나를 배반한다 하느냐?”

장비가 하는 말이, “간옹이가 와서 내게 먼저 말하지 아니하였으면, 내가 너를 어찌 성케<sup>535</sup> 두랴? 주공<sup>536</sup>이 어디 계시냐?”

“전면<sup>537</sup> 멀지 않은 곳에 계시노라.” 자룡이가 미축을 보고 하는 말이, “그대는 먼저 돌아가시오.

나는 소주인<sup>538</sup>과 주모를 찾지 못하면, 죽어 황천<sup>539</sup>을 돌아가서 귀 신이라도 유사군<sup>540</sup>을 섬긴다고 말이나 하여주오.”

말을 맞고<sup>541</sup> 한 곳 당도하니, 어떤 일원대장<sup>542</sup>이 길을 막으니 이는 하후은<sup>543</sup>이로구나.

자룡이 분이 나서 창으로 찔러 죽인 후에 다시 칼을 뽑어 차니, 이는 청홍검<sup>544</sup>이라.

또 한 곳 당도하니 어떤 군사가 묻는 말이, “조장군은 어디로 가오?” “네가 누구냐?”

“유사군의 내행<sup>545</sup>을 호송하던 군사더니, 낮<sup>546</sup>에 살을 맞고 누웠내 다.” “미부인을 보았느냐?”

저 군사 여짜오되, “아까 미부인께서 좌편 다리에 창을 맞고 유혈<sup>547</sup>이 낭자<sup>548</sup>하여, 저 건너 저 동네 무너진 담 밑에서 우시더이다.”

자룡이 말을 몰아 황망히<sup>549</sup> 찾아보니, 과연 부인께서 우물 곁에 앉아 우시는데, 유혈이 낭자하구나.

자룡이 기가 막혀 땅에 꿇어 앉어 울며 하는 말이,

“주모<sup>550</sup>로 하여 난을 당케 하는 것은 모두 자룡의 죄로소이다.

어서 말을 타시오면, 소장<sup>551</sup>이 곁어서 조조 오십만 대군중<sup>552</sup>을 헤쳐 나가리다.”



Zhao Zi Long(趙子龍) responds to his shout, “When did I betray your brother? I fell behind for a while to look for Liu Bei’s(劉備) wives. What makes you think I betrayed your brother?”

Zhang Fei(張飛) says, “If Jian Yong(簡雍) had not told me in advance, I would have done something to you. Where is Liu Bei(劉備)?”

“He is not far in front of us.” Zhao Zi Long(趙子龍) says to Mi Zhu(糜竺), “You go back first.

If I fail to find A Dou(阿斗) and Lady Mi(糜), tell Liu Bei(劉備) that I’ll serve him even in the world of the dead.”

After finishing his words, Zhao Zi Long(趙子龍) arrives at a certain place, where a general blocks his road. He is Xia Jiao En(夏侯恩).

Infuriated, Zhao Zi Long(趙子龍) pierces him fatally with his spear and picks up his sword, which is the Qinggong Sword(青釭劍).

Zhao Zi Long(趙子龍) arrives at another place, where a soldier asks, “Where are you going, Zhao Zi Long(趙子龍)?” “Who are you?”

“I am Liu Bei’s(劉備) soldier. I escorted Liu Bei’s(劉備) wives. I am lying down here because I was shot by an arrow.” “Have you seen Lady Mi(糜)?”

The soldier answers, “A few minutes ago, Lady Mi’s(糜) left leg was hit by a spear. She is shedding a lot of blood and crying under a collapsed wall in the village over there.”

Zhao Zi Long(趙子龍) rides his horse fast. As expected, the lady cries by a well, shedding a lot of blood.

Startled, Zhao Zi Long(趙子龍) kneels down and speaks in tears. “You fell into this trouble because of me.

Please get on my horse quickly. I will walk and go through Cao Cao’s(曹操) 500,000 soldiers.”

부인이 그 말 듣고, “내가 장군을 만나게 되는 것은 아두의 홍복<sup>553</sup>)이라. 장군은 이 아이를 잘 보존하여 저의 부친의 얼굴이나 보게 하여주옵소서.”

말을 맞고<sup>554</sup>) 우물에 거꾸로 품 떨어져 죽는구나.

[진양조] 하늘이 무심하고 귀신도 야속하다. 가련하다.

유선<sup>555</sup>)이가 어머니를 잃은 것을 아는가 모르는가 엉과듯이<sup>556</sup>) 우네.

자룡이 마음이 비감하여<sup>557</sup>) 아두를 안고 울음을 운다.

“유유창천<sup>558</sup>)이여, 이게 어쩐<sup>559</sup>) 환난<sup>560</sup>)이며, 어린 공자<sup>561</sup>) 어찌라고 이 지경을 당케하오그려?

어찌를 할거나? 어이를 할거나?<sup>562</sup>) 이놈의 노릇을 어찌하리? 내가 차라리 죽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공자 구하리라.”

## 16. (조자룡 탈출) 조자룡이 아두를 품에 품고 적진을 탈출한다.

[아니레] 이렇듯이 통곡하고, 조군<sup>563</sup>)이 부인의 시신을 도적질해서 장난을 칠까봐, 담을 밀어 우물을 덮고,

갑옷을 끄르고 아두를 품에다 품고 다시 갑옷을 입은 후에,

[자진모레] 자룡이 분기탱천<sup>564</sup>)하야, 자룡이 분기탱천하야 적군을 헤쳐 나올 적에,

장창<sup>565</sup>)을 높이 들고 한 손에다 칼을 추켜 들고 한 곳을 당도하니, 일원대장이 길을 막으니, 조인<sup>566</sup>)의 부장<sup>567</sup>) 여광<sup>568</sup>)이라.

The lady responds, “It is fortunate for A Dou(阿斗) that I met you, general.

General, please preserve this baby and let him see his father’s face.”

After finishing, she plunges head first into the well and dies. **[Jinyangjo]** Heaven is cruel, and a god is heartless. How pitiful! It appears A Dou(阿斗) knows that he lost his mother. He cries hard.

Grieved, Zhao Zi Long(趙子龍) holds A Dou(阿斗) in his arms and cries.

“Limitless blue heaven! I can’t believe this misery. Why does this misery fall onto this baby?

What should I do? What should I do? I will save this baby even at the cost of my life.”

## 16. (Zhao Zi Long(趙子龍) Escapes.) Zhao Zi Long(趙子龍) escapes the enemy area with A Dou(阿斗) on his chest.

**[Aniri]** After wailing, Zhao Zi Long(趙子龍) pushes the wall and covers the well because he is afraid that Cao Cao’s(曹操) soldiers might steal the body and defile it.

He unfastens his armor, puts A Dou(阿斗) to his chest, and refastens his armor.

**[Jajinmori]** Infuriated, Zhao Zi Long(趙子龍) fights through the enemy soldiers.

Holding his long spear and sword high, he arrives at a certain place, where a general blocks the road. He is Lu Kuang(呂曠), Cao Ren’s(曹仁) officer.

창으로 찢려 죽인 후에, 또 한 곳을 당도하니 일원대장이 나오는데,  
이는 장합<sup>569</sup>)이로구나.

자룡이 거동 보소. 삼합을 싸우더니, 싸울 맘이 없어 옆길로 달아나다  
자룡이 탄 말이 실족<sup>570</sup>)하여, “아차!” 하더니만, 함정에 빠졌네!

하늘이 무심하여 함정에 빠졌으니, 어찌 모면하겠느냐?

장합의 거동 보소. 창으로 찢려 죽이려 할 제,  
검광<sup>571</sup>)이 번뜻하더니만 한 줄기 무지개가 그저 함정 속에서 나오는  
구나.

장합이 대경<sup>572</sup>)하여 뒤를 물러 도망하니,  
자룡이 함정에서 나와 한 손에 장창 빗겨 들고, 또 한 손에 청공검<sup>573</sup>)  
을 들고 적군을 헤쳐서 나올 적에,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썩은 풀 베는 듯이 조조 오십만 대군을 죽일  
적에,

조조 군사들이 그저 물결 희여지듯<sup>574</sup>) 사방으로 흩어지네.

**[아니레]** 그 때에 조조가 경산<sup>575</sup>)에서 바라보니, 한 장수 이르는 곳에  
도대체 당할 놈이 없지.

조조가 가만히 바라보더니, “저 장수 이름이 무엇이냐?”

아는 장수 하는 말이, “예, 그 바로 상산<sup>576</sup>) 조자룡인데 유비의 막  
하<sup>577</sup>)에서 지금 대단한 장수지요.”

조조가 입맛을 찌끔찌끔<sup>578</sup>) 다시면서, “그 참, 범같은 장수다. 내 마  
땅히 사로잡을 것이니,

너희들은 활로 쏘지 말고, 저 장수를 상처<sup>579</sup>) 얹게 잡아라.” 해 났겠다.

**[엇모레]** 그 때에 조자룡은, 그 때에 조자룡은, 아두<sup>580</sup>)를 품에다 품고  
적군을 헤쳐 나오는데,

After fatally piercing him, Zhao Zi Long(趙子龍) arrives at another place where an officer steps forward. He is Zhang He(張郃). Behold Zhao Zi Long(趙子龍). After fighting for a while, he stops fighting and flees to a side road.

His horse makes a false step. “Oh god!” They fall into a trap! He fell into the trap because heaven is cruel. How can he escape it?

Behold Zhang He(張郃). He attempts to pierce Zhao Zi Long(趙子龍) with a spear.

A sword emits a flash of light, and a rainbow rises up from the trap.

Astonished, Zhang He(張郃) steps back and flees.

Zhao Zi Long(趙子龍) gets out of the trap, holding a long spear obliquely in the one hand and Qinggong Sword(青釭劍) in the other hand. He fights through the enemy soldiers.

He attacks Cao Cao's(曹操) 500,000 soldiers here and there, killing them as if he were cutting rotten grass.

Cao Cao's(曹操) soldiers spread in the four directions like waves of water.

**[Aniri]** Meanwhile, Cao Cao(曹操) on Jing(景) Mountain observes the situation. Wherever a general goes, he defeats all of his soldiers.

Cao Cao(曹操) carefully looks at him. “Who is that general?”

A general who knows him says, “He is Zhao Zi Long(趙子龍) from Changshan(常山), a great warrior working for Liu Bei(劉備) now.”

Cao Cao(曹操) smacks his lips. “My goodness! He looks like a tiger. I'll capture him alive.

Don't shoot an arrow at him. Catch him unharmed.” He gives such an order.

**[Eonmori]** Meanwhile, Zhao Zi Long(趙子龍) holds A Dou(阿斗) on his chest, fighting through the enemy soldiers.

동을<sup>581</sup>) 얼리<sup>582</sup>) 서를<sup>583</sup>) 치고, 남을<sup>584</sup>) 얼리 북을<sup>585</sup>) 치며,  
생문<sup>586</sup>)으로 들어와서 사문<sup>587</sup>)에 언뜻번뜻,<sup>588</sup>)  
에 가<sup>589</sup>) 번뜻<sup>590</sup>)하면은 저 장<sup>591</sup>)의 머리 뚝 떨어지고, 제<sup>592</sup>) 가 번  
뜻하면은 저 장의 머리 뚝 떨어질 적에,  
백송골<sup>593</sup>)이 꿩 차듯,<sup>594</sup>) 두꺼비 파리 잡듯, 은장도<sup>595</sup>) 칼 빼듯, 여름  
날 번개 치듯 횡행<sup>596</sup>)하여 다닐 적에,  
군사의 머리는 추풍낙엽<sup>597</sup>)이요, 피 흘러 시내 되고, 주검이 여산<sup>598</sup>)  
이로구나.

큰 기 둘을 분지르고, 조조 명장 오십 명을 죽였구나.  
대진<sup>599</sup>)을 벗어나서 전포<sup>600</sup>)를 살피보니 피 흘러 가득구나.  
양장<sup>601</sup>)이 쫓아온다. 하나는 칼을 들고, 또 하나는 창을 들고, 양장이  
쫓아온다.

자룡의 날랜 창으로 중요<sup>602</sup>)를 찢러 죽인 후에 말을 앗아<sup>603</sup>) 달어  
날 제,  
종진<sup>604</sup>)이 거동 보소. 저의 형이 죽어노니 분기탱천<sup>605</sup>)하야 말을 몰  
아서 쫓아온다.

자룡의 날랜 창으로 종진의 창을 막고,  
우수<sup>606</sup>)를 번쩍 들어 종진을 내려 때려노니, 종진의 어깨와 머리가  
두 조각이 나는구나.

장관교<sup>607</sup>)로 도망할 제, 그 때에 문빙<sup>608</sup>)이가 십만 대군을 거느리고  
자룡을 쫓는구나.

자룡이 대호<sup>609</sup>)하여, “장관교에 쏜 장비는 나를 구하라!”  
장비가 왜는<sup>610</sup>) 말이, “장군은 먼저 가시오. 추병<sup>611</sup>)은 내가 막으  
리다.”

He threatens and attacks them in the east, west, south, and the north.

He appears here and there all of sudden.

As he appears here and there abruptly, officers' heads fall down abruptly.

He runs around as a hawk attacks a pheasant, a toad snatches a fly, a woman pulls out a silver knife, and lightning appears in the summer sky.

Soldiers' heads fall down like autumn leaves. Their blood becomes a river. Their bodies become a mountain.

He breaks two large flags and kills fifty of Cao Cao's(曹操) top officers.

After escaping an enemy line, Zhao Zi Long(趙子龍) looks at his armor, which is full of blood.

Two warriors chase Zhao Zi Long(趙子龍). One holds a sword, and the other a spear.

Zhao Zi Long(趙子龍) kills Zhong Yao(種繇) with his fast sword. He picks up his horse and runs away.

Behold Zhong Jin(種進)! He is infuriated because his brother just died. He chases Zhao Zi Long(趙子龍), riding his horse.

Zhao Zi Long's(趙子龍) blocks Zhong Jin's(種進) spear with his fast spear.

He pulls his right hand up high and slashes Zhong Jin(種進). His shoulder and head become two pieces.

As Zhao Zi Long(趙子龍) flees to Changban(長坂) Bridge, Wen Pin(文聘) chases him with 100,000 soldiers.

Zhao Zi Long(趙子龍) shouts loudly, "Zhang Fei(張飛) standing on Changban(長坂) Bridge! Help me!"

Zhang Fei(張飛) responds, "General, you go first. I'll stop the chasing troops."

[중모레] 자룡이가 숨을 돌려 이십 리를 가서 보니, 현덕이 나무 아래 쉬었구나.

자룡이 땅에 가 엎드리어 통곡터니, 현덕이도 우시는구나.

자룡이가 하는 말이, “미부인이 좌편 다리에 창을 맞으셔서 말을 타시라고 아무리 청하였지만 종시<sup>612</sup> 아니 타시더니, 우물에 떨어져 돌아가시기로

공자만 품에다 품었더니마는 보존한가<sup>613</sup> 모르내다.”<sup>614</sup>

갑옷을 끄르고 보니, 공자는 잠이 들어 깨지를 아니한다.

자룡이 대희하여<sup>615</sup> 쌍수<sup>616</sup>로 받들어 현덕께 드려노니,

현덕이 아두<sup>617</sup> 받아 땅에다 내던지며 하는 말이,

“너같은 유아로서<sup>618</sup> 하마터면 나의 일원대장을 손상할 뻔 하였구나!”

자룡이 급히 받고 꿰어앉더니 하는 말이, “간과 뇌가 땅에 떨어져도 이 은혜를 못 갚겠소.”

[아니레] 이렇듯 서로 통곡하고 위로할 제,

## 17. (장관교 싸움) 조조와 그의 군사들이 장관교까지 추적 하였다가 장비의 호통소리에 놀라 급히 도망한다.

[자진모레] 그 때여 조조군은 벌떼같이 쫓아온다.



[Jungmori] Breathing a sigh of relief, Zhao Zi Long(趙子龍) goes for a while and arrives at a certain place, where Liu Bei(劉備) is taking a rest under a tree.

As Zhao Zi Long(趙子龍) kneels down and wails, Liu Bei(劉備) cries too.

Zhao Zi Long(趙子龍) says, "Lady Mi(糜) was injured by a spear in her left leg.

I asked her to get on my horse, but she refused, jumped into a well, and died.

I only have your baby on my chest. I don't know whether he is all right or not."

Zhao Zi Long(趙子龍) unties his armor. The baby hasn't yet woken up.

Delighted, Zhao Zi Long(趙子龍) holds the baby with his hands and gives him to Liu Bei(劉備).

Liu Bei(劉備) takes A Dou(阿斗) and throws him to the ground. "I almost lost an officer because of this child."

Zhao Zi Long(趙子龍) catches the baby quickly and kneels down. He says, "I can't return your favor even though I die."

[Aniri] Zhao Zi Long(趙子龍) and Liu Bei(劉備) console each other in tears.

**17. (Changban(長坂) Bridge Battle) Cao Cao(曹操) and his soldiers chase Zhao Zi Long(趙子龍) all the way to Changban(長坂) Bridge. They are frightened by Zhang Fei's(張飛) shout and run away hurriedly.**

[Jajinmori] Meanwhile, Cao Cao's(曹操) soldiers come like a swarm of bees.

허저,<sup>619</sup> 장요,<sup>620</sup> 서황,<sup>621</sup> 문빙,<sup>622</sup> 악진,<sup>623</sup> 장합<sup>624</sup>)이며, 하후  
걸,<sup>625</sup> 오십만 대군이 풍우같이 짓쳐 와서<sup>626</sup> 장판교 당도하니,  
일원대장이 사모장창<sup>627</sup> 빗겨들고  
고리눈<sup>628</sup>을 부릅뜨고 오추마<sup>629</sup>에 두렷이 앉았는데, 장판교 다리  
위에 섰구나.

자세히 살펴보니 서편에 티끌이 은은히<sup>630</sup> 일어난다.

‘이는 분명 공명의 계교다.’ 생각하고 조조에게 급히 고하니,  
조조 청라산<sup>631</sup>을 빗겨 받고<sup>632</sup> 오는지라.

장비가 가만히 바라보니 청라산이 얼른하니<sup>633</sup> 조조 왔음이 분명하다.

장비가 크게 웨어,<sup>634</sup> “나는 연인<sup>635</sup> 장비 익덕이다.

나와 싸울 놈이 있으면 어서 나와 창 받아라!”

한 번 웨는 소리 우주 바뀌는 듯, 두 번 소리 지르니 강산이 우르르르,  
내려오던 물이 올라가고 산천초목이 벌렁벌렁 떠는구나.

조조 옆에 섰던 하후걸이가 겁이 나서 놀래 말쑥<sup>636</sup> 떨어져 죽는구나.

조조가 황급하여 말을 타고 도망하니,

조조 군사들이 조조가 도망가는 것을 보고 도망하는데,

자상천답<sup>637</sup>하여 죽는 자 부지기수<sup>638</sup>라. 우둥통통 우둥통통 오십  
리를 도망한다.

[아니레] 한참 도망을 하는데, 허저,<sup>639</sup> 장요<sup>640</sup>가 오더니,

“승상<sup>641</sup>은 장비 필부<sup>642</sup> 그까짓 촌놈의 자식을 보고 왜 이렇게 놀래  
시오?”

Xu Chu(許褚), Zhang Liao(張遼), Xu Huang(徐晃), Wen Pin(文聘), Le Jin(樂進), Zhang He(張郃), Xia Jiao Jie(夏侯傑) come along with 500,000 soldiers like a rainstorm and arrive at Changban(長坂) Bridge.

A general holds a long spear obliquely, whose end is triangled like the head of a snake.

He opens his eyes wide around which there are white circles, sitting clearly on a good horse. He stands on Changban(長坂) Bridge.

On close examination, dust rises up slowly in the west.

Thinking there must be Kong Ming's(孔明) scheme, Cao Cao's(曹操) soldier hurriedly reports to Cao Cao(曹操).

Cao Cao(曹操) comes under an oblique blue silk parasol.

Noticing the parasol faintly, Zhang Fei(張飛) guesses that Cao Cao(曹操) has come.

He shouts loudly, "I am Zhang Fei(張飛) from Yan(燕) Country. If you want to fight me, come out. Here goes my spear!"

The shouting sound appears to change the universe. The second shout shakes rivers and mountains.

The water flowing down goes up. Grasses and trees shudder. Scared, Xia Jiao Jie(夏侯傑) next to Cao Cao(曹操) falls down from his horse and dies.

Frightened, Cao Cao(曹操) gets on his horse quickly and rides away.

Cao Cao's(曹操) soldiers run away after watching Cao Cao(曹操) flee.

Numerous soldiers die because they trampled by each other. They run away for a while.

**[Aniri]** While fleeing, Xu Chu(許褚) and Zhang Liao(張遼) come out.

"Premier, why are you so frightened by Zhang Fei(張飛), a little country boy?"

조조가 하는 말이, “야들아,<sup>643)</sup> 말도 말아라. 전에 관운장이 말쑥을 하시기를, 내 아우 장비는 만군중<sup>644)</sup> 장수 머리를 좋은 주머니 물건 내 쓰듯이 제 마음대로 그냥 짹<sup>645)</sup> 벤다는데, 내가 오늘 산 것이 천행 만행 오행이요,<sup>646)</sup> 불행 중 다행이다. 너희들이 다음에 장비를 깔보지 말아라.”

그 때에 장비는 조조 군사가 따를까 하여 장판교 다리를 싹 떨어버렸겠다.

그 사연을 회보<sup>647)</sup>하니, 현덕이 그 말 듣고, “아우가 용맹은 있지만 지혜가 없소.

조조는 본래 피가 많은 사람이요, 또한 병서<sup>648)</sup>를 많이 읽은 사람이라, 우리 군사가 적어서 자네가 다리를 헐지 아니 하였으면 우리가 복병<sup>649)</sup>한 것이 있으니까 조조가 못 따라 오지마는,

우리가 다리를 헐어 놓았으니 급한 것이 분명하.<sup>650)</sup>

이대로 도망가다가는 필연코 조조에게 사로잡힐 것이라.

강릉은 나중에 가고 우선 하구<sup>651)</sup>로 가는 수밖에 없다.”

이리하여 하구로 가려 하고 뗏목을 만들 적에, 나무를 베어서 뗏목을 여러 수십 개 만들어 백성을 먼저 건네 주고,

그 다음에 군사와 장수들이 타고 하구로 건너가던 것이었다.

Cao Cao(曹操) answers, “Hey don’t say that. Guan Yu(關羽) once said to me that his brother, Zhang Fei(張飛), cuts off generals’ heads as he pleases.

I am lucky to be alive today. Don’t look down on Zhang Fei(張飛).”

Meanwhile, Zhang Fei(張飛) destroys Changban(長坂) Bridge for fear that Cao Cao’s(曹操) soldiers might follow him.

As Zhang Fei(張飛) returns and reports to Liu Bei(劉備), Liu Bei(劉備) says, “Brother, you are gallant, but not wise.

Cao Cao(曹操) was originally sly, having read a lot of military strategy books.

The number of our soldiers is small. If you hadn’t destroyed the bridge, Cao Cao(曹操) wouldn’t follow us, thinking that we would ambush him.

Since we destroyed the bridge, Cao Cao(曹操) will think that we are in a hurry.

If we take the original route, we will be captured by Cao Cao(曹操).

We will go to Jiangling(江陵) later. We will instead go to Xiakou(夏口).”

In order to go to Xiakou(夏口) by raft, they cut down trees and make dozens of rafts which are given to the people.

After that, the officers and soldiers get on rafts to Xiakou(夏口)

18. (유비 하구로 피신) 유비는 하구로 피신하여 후일을 도모하고, 조조는 손권에게 편지를 보내 함께 유비를 치자고 한다.

[중모레] 한 곳을 당도하니, 어떠한 전선<sup>(652)</sup>인지 삼대같이<sup>(653)</sup> 짓쳐 오는데,  
현덕이 대경<sup>(654)</sup>하여 자세히 살펴보니 머리에는 황금투구 쓰고, 몸에는 갑옷을 입고,  
선두<sup>(655)</sup>에 우뚝 서더니, “숙부님은 무양<sup>(656)</sup>하오? 소질<sup>(657)</sup>이 와서 기다린 지 오래외다.”<sup>(658)</sup>  
현덕이 자세히 보니 이는 강하<sup>(659)</sup>의 유기<sup>(660)</sup>로다.  
유기 울며 여짜오되, “숙부님께서 조조에게 곤하심<sup>(661)</sup>을 알고 특별히 와서 접응<sup>(662)</sup>을 하오.”  
현덕이 대화하여<sup>(663)</sup> 하구로 들어 갈 적에, 한 곳을 바라보니 어떠한 전선<sup>(664)</sup>인지 개미떼같이 오는구나.  
양인<sup>(665)</sup>이 대경할 적에, 한 사람이 머리예다 윤건<sup>(666)</sup> 쓰고, 학창의<sup>(667)</sup>를 몸에 입고,  
백우선<sup>(668)</sup> 손에 들고 선두에 우뚝 서더니,  
“주공<sup>(669)</sup>은 별래무양<sup>(670)</sup>하오?”하는데, 자세히 살펴보니, 이는 남양<sup>(671)</sup>의 공명이로다.  
[아니리] 현덕이 대화하여 묻는 말이, “선생은 어찌하여 여기 와 계시오?”  
공명이 하는 말이, “양<sup>(672)</sup>이 헤아리건대, 주공께서 강릉으로 가지지 않고 하구로 오시겠기로,

18. (Liu Bei(劉備) Takes Refuge to Xiakou(夏口).) Liu Bei(劉備) flees to Xiakou(夏口), waiting for a future opportunity. Cao Cao(曹操) sends a letter to Sun Quan(孫權) to propose that they defeat Liu Bei(劉備) together.

[Jungmori] Liu Bei's(劉備) people arrive at a certain place where warships come to them in a straight line.

Surprised, Liu Bei(劉備) examines them carefully. One person wears a golden helmet on his head and armor on his body. He stands high on the bow of a ship. "How are you doing, uncle? I, your nephew, have been waiting for you here for a long time."

Liu Bei(劉備) looks at him hard. He is Liu Qi(劉琦) from Jiangxia(江夏).

Liu Qi(劉琦) speaks in tears, "I heard Cao Cao(曹操) was giving you trouble. I came here to fight against him."

Liu Bei(劉備) is joyous. They go to Xiakou(夏口) and look at a certain place, where a group of warships comes like a swarm of ants.

Both are frightened. A man wears a silk hood on his head, a coat of long sleeves on his body, holding a fan of white feathers, standing clearly on the bow of a ship.

"How are you doing, Your Majesty?" On close examination, he is Kong Ming(孔明) from Nanyang(南陽).

[Aniri] Delighted, Liu Bei(劉備) asks, "What brought you here?" Kong Ming(孔明) replies, "I guessed you would not go to Jiangling(江陵) but to Xiakou(夏口).

먼저 운장을 시켜 한진<sup>(673)</sup>을 점령케 하고, 나는 강하로 가서 공자<sup>(674)</sup>  
 로 하여금 주공을 점령케 하고,  
 또 이렇게 다시 하구로 가서 전선을 몰아오는 길이외다.”  
 현덕이 대회하여 하구로 들어가서 성을 높이 쌓고, 양식을 저축하며  
 군사를 뽑아 훈련할 제,  
 그 때에 조조는 현덕이가 강릉을 뺏을까 하여 수로<sup>(675)</sup>로 가 강릉을  
 먼저 뺏고,  
 형주,<sup>(676)</sup> 양양,<sup>(677)</sup> 남군<sup>(678)</sup> 모조리 점령 후에,  
 군사가 실로<sup>(679)</sup> 팔십삼만 명인데 거짓말로 딱 백만이라 이르고서,  
 강동<sup>(680)</sup>의 손권의 항복을 받으려고 글을 써서 보냈으니,  
 그 서<sup>(681)</sup>에 하였으되, ‘고<sup>(682)</sup> 조서<sup>(683)</sup>를 받들어 죄 있는 자를 치매,  
 기<sup>(684)</sup>가 남으로 가리키니 유종<sup>(685)</sup>이 항복하고 형양<sup>(686)</sup>이 망풍귀  
 순<sup>(687)</sup>이라.  
 이제 상장<sup>(688)</sup> 천 명과 궁사<sup>(689)</sup> 백만으로 장군과 하구에 모여 사냥하여,  
 유현덕을 사로잡고 토지를 나누고자 하니 급히 회보<sup>(690)</sup>하라.’ 하였  
 거늘,  
 손권이 대경<sup>(691)</sup>하여 중장<sup>(692)</sup>을 모아 의논한즉, 모사<sup>(693)</sup>들은 항복코  
 자 하고, 장수들은 싸우고자 하고 유예미결<sup>(694)</sup>하는지라.  
 그 때여 노숙<sup>(695)</sup>이 내당<sup>(696)</sup>으로 들어와,  
 “근자에<sup>(697)</sup> 듣사오니, 제갈군<sup>(698)</sup>의 아우 공명이라는 사람이 군사 삼  
 천 명을 가지고 조조 군사 오십만 명을 대결하여 여러 번 패하게 하였  
 다 하옵니다.  
 그러하니 우리가 그 사람을 불러다가 강동을 지키는 것이 어떠하오  
 이까?”  
 손권이 대회하여 노숙을 보낼 적에,



I told Guan Yu(關羽) to secure a camp in Han(漢) Country. I went to Jiangxia(江夏) and asked your nephew to meet Your Majesty.

I went back to Xiakou(夏口), leading this group of warships here.”

Delighted, Liu Bei(劉備) goes to Xiakou(夏口), sets up a high castle, stores food, selects soldiers, and trains them.

Meanwhile, afraid that Liu Bei(劉備) might invade Jiangling(江陵), Cao Cao(曹操) invades Jiangling(江陵) first via a waterway. He also occupies Jingzhou(荊州) together with Xiangyang(襄陽) and Nanjun(南郡).

Cao Cao(曹操) in fact has 800,000 soldiers, but he lies that he has 1,000,000 soldiers, sending a letter to Sun Quan(孫權) to have him collaborate.

The letter reads ‘With a king’s order, I punish the guilty.

As a flag indicates the south, Liu Cong(劉琮) surrenders to me and Xiang Yang(滎陽) admires my fame and obeys me.

I want to hunt together with you in Xiakou(夏口). Joining us will be one thousand top warriors and a million archers.

I intend to capture Liu Bei(劉備) alive and divide his lands with you. Please respond quickly.”

Startled, Sun Quan(孫權) holds a meeting with his officers. Strategists wish to surrender, but warriors wish to fight. The meeting does not produce a decision.

Meanwhile, Lu Su(魯肅) comes into the main room.

“I recently heard that Zhu Ge Jin’s(諸葛瑾) brother, Kong Ming(孔明), led 3,000 soldiers, winning several victories against Cao Cao’s(曹操) 500,000 soldiers.

If so, why don’t we bring him here and have him defend our country?”

Excited, Sun Quan(孫權) sends Lu Su(魯肅) to Kong Ming(孔明).

19. (공명 동오로 건너감) 노숙이 찾아와서 공명에게 함께 동오로 가자고 설득하니, 공명이 속는 체하며 동오로 건너간다.

[중모레] 노숙이 거동 보아라.

손권의 영을 듣고 장사꾼 모양으로 일엽편주<sup>699</sup>) 빨리 몰아 하구에 당도하니,

그 때에 공명선생은 노숙이 올 것을 미리 알고 조자룡을 시키어서 노숙을 청하여서는,

예필좌정 후에<sup>700</sup>) 노숙이 하는 말이, “우리 강동<sup>701</sup>) 손중모<sup>702</sup>)는 육군<sup>703</sup>) 팔십일 주<sup>704</sup>) 거느리고 병정양족<sup>705</sup>)하니,

선생은 나를 따라 강동으로 건너가서 손·유 양가<sup>706</sup>) 합심하여 조조를 파한 후에 공명<sup>707</sup>)을 같이 하옵시다.”

공명선생 높은 재주 거짓 속는 체 허락하고 가기로 한 연후에 현덕께 하직하니,

현덕이 대경<sup>708</sup>)하여, “분운세상<sup>709</sup>)에 천하를 득실할 것을 선생을 믿었더니, 출입타국<sup>710</sup>) 웬일이오? 심량처분<sup>711</sup>) 하옵기를 천만축수<sup>712</sup>)로 비웁니다.”

공명이 꿇어 앉어 나직이 여짜오되, “차시<sup>713</sup>)를 헤아리니 동에는 손권<sup>714</sup>)이요, 북에는 조조로다. 한살<sup>715</sup>)이 미약하니,

이 때를 타서 오국<sup>716</sup>)에 들어가서 손권, 주유<sup>717</sup>)를 격동하여<sup>718</sup>) 조조와 싸움을 붙인 후에,

신은 도주이환<sup>719</sup>)하여 중도이기<sup>720</sup>)하오면, 오위양세<sup>721</sup>)를 일안에<sup>722</sup>) 도취<sup>723</sup>)하여 좌이득공<sup>724</sup>)할 것이니,

19. (Kong Ming(孔明) Goes to Wu(吳) Country.) Lu Su (魯肅) visits Kong Ming(孔明) and persuades him to go to Wu(吳) Country. Kong Ming(孔明) goes to Wu(吳) Country, pretending to be persuaded to lead them.

[Jungmori] Behold Lu Su(魯肅).

With Sun Quan's(孫權) order he rides a small boat fast like a merchant and arrives at Xiakou(夏口).

Meanwhile, Kong Ming(孔明) knew beforehand that Lu Su(魯肅) would come, having Zhao Zi Long(趙子龍) meet Lu Su(魯肅). After they exchange greetings and sit down, Lu Su(魯肅) says, "Sun Quan(孫權) of our country rules over six counties and eighty provinces, having good soldiers and enough food.

I propose you follow me to our country. Let Sun Quan(孫權) and Liu Bei(劉備) form an alliance, defeat Cao Cao(曹操) and prosper together."

Smart, Kong Ming(孔明) pretends that he is persuaded to follow Lu Su(魯肅), and says goodbye to Liu Bei(劉備).

Liu Bei(劉備) is startled, "The world is chaotic. We might gain or lose the world. I rely on you. Why do you visit a foreign country? I really wish that you think about this again."

Kneeling down, Kong Ming(孔明) says softly, "I thought about the current situation. In the east is Sun Quan(孫權). In the north is Cao Cao(曹操). The Han(漢) Dynasty is weak.

At this moment, I'll go to Wu(吳) Country and incite Sun Quan(孫權) and Zhu Yu(朱瑜) to fight against Cao Cao(曹操).

I'll escape from them, come back, mobilize the military between Wu(吳) and Wei(魏) Countries, and conquer them easily with just a single plan.

현주<sup>725</sup>) 염려 마시옵고 일엽소선<sup>726</sup>)에 조자룡 군사 백난지중<sup>727</sup>)이라도 동<sup>728</sup>) 십이월 이십일날 남병산<sup>729</sup>) 어구<sup>730</sup>)로 보내시오.”

하직하고서 건너갈 제, 공명선생 거동 보아라.

머리에는 윤건<sup>731</sup>) 쓰고, 몸에는 학창의<sup>732</sup>)요, 백우선<sup>733</sup>) 손에 들고, 일엽편주<sup>734</sup>) 빨리 몰아 강동으로 들어가서, 손권의 막하<sup>735</sup>)로 들어가니,

좌편의 모사<sup>736</sup>)들은 장소<sup>737</sup>) 고옹<sup>738</sup>) 보졸<sup>739</sup>) 우번<sup>740</sup>) 설중<sup>741</sup>) 육적<sup>742</sup>)이요,

우편의 장수들은 황개<sup>743</sup>) 여몽<sup>744</sup>) 정보<sup>745</sup>) 한당<sup>746</sup>) 주태<sup>747</sup>) 태사자<sup>748</sup>) 서성<sup>749</sup>) 정봉<sup>750</sup>) 감녕<sup>751</sup>) 육손<sup>752</sup>) 이렇게 앉았으니, 공명선생이 차례로 돌아가며 수인사<sup>753</sup>)를 한 연후에 객위<sup>754</sup>)에 올라가 앉았구나.

## 20. (공명 동오 선비 설전) 오나라의 선비들과 공명이 설전을 벌여 오나라의 선비들을 물리친다.

[아니레] 손권의 제일 모사 장소<sup>755</sup>)가 생각하기를, ‘공명이가 손권·주유를 달래서 조조와 싸움을 붙여 놓고, 자기는 중간에서 이득을 보려하고 공명과 주유를 달래러 온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하더니만, 못선비<sup>756</sup>)들이 모여 앉아 공명을 공박<sup>757</sup>)하는데, 이진 어디냐 하면 공명의 설전<sup>758</sup>) 장면이었다. 장소가 제일 먼저 나왔으며 하는 말이,

Don't worry, Your Majesty. Please give a small boat to Zhao Zi Long(趙子龍) and send him to the entry of Nanping(南屏) Mountain on this December 20th even if that proves to be difficult."

He says goodbye and leaves. Behold Kong Ming(孔明)!

He wears a silk towel on his head and a coat with large sleeves on his body. He holds a fan of white feathers in his hand. Kong Ming(孔明) moves the small boat fast into Wu(吳) Country and enters Sun Quan's(孫權) staff room.

On the left are the strategists: Zhang Zhao(張昭), Gu Yong(顧雍), Bao Zhi(保薦), Yu Fan(虞翻), Xue Zong(薛宗), and Lu Ji(陸績). On the right are the generals: Huang Gai(黃蓋), Lu Meng(呂蒙), Cheng Pu(程普), Han Dang(韓當), Zhou Tai(周泰), Tai Shi Ci(太史慈), Xu Sheng(徐盛), Ding Feng(丁奉), Gan Ning(甘寧), and Lu Xun(陸遜).

After greeting them one by one, Kong Ming(孔明) sits in the guest seat.

## **20. (Debate between Kong Ming(孔明) and Scholars of Wu(吳) Country) Kong Ming(孔明) defeats scholars of Wu(吳) Country in a debate.**

[Aniri] Sun Quan's(孫權) top strategist, Zhang Zhao(張昭), thinks that Kong Ming(孔明) will prompt Sun Quan(孫權) and Zhu Yu(朱瑜) to fight against Cao Cao(曹操),

that he intends to sit safely on the sidelines while they destroy each other, and that he came here for that purpose.

Scholars sit around and criticize Kong Ming(孔明). Kong Ming(孔明) is about to have a heated debate with them.

Zhang Zhao(張昭) steps forward first.

[중중모레] “여보 선생, 듣주시오.<sup>759)</sup> 여보 선생, 듣주시오. 황숙<sup>760)</sup>이 선생을 얻으시고 형주<sup>761)</sup>와 양양<sup>762)</sup>을 자리 건듯<sup>763)</sup> 할 줄 알았더니, 이제 조조에게 돌아가니 이 어찌된 일이오며, 세상에서 말을 하기를 선생을 관중<sup>764)</sup>과 악의<sup>765)</sup>에게 건주나니, 관중으로 말을 하면 제나라<sup>766)</sup> 정승으로 환공<sup>767)</sup>을 도와 가지고 일괄 천하<sup>768)</sup>를 하여 있고, 악의는 미약한 연나라 도와 제나라 칠십여 성 모조리 점령을 하였으니, 이 두 사람은 말을 하면 제세지사<sup>769)</sup>라 하옵니다. 선생으로 말을 하면 초려<sup>770)</sup> 속에서 묻혀 있을 적에 황숙이 세 번 찾아 가서 선생을 모셔온바, 황숙은 선생을 얻으시기 전에는 천하중황<sup>771)</sup>하였는데, 황숙이 선생을 얻으시고 조조가 군사를 한 번 내게 되니, 갑옷을 버리고, 창을 거꾸로 잡고 바람을 따라서 도망하고, 신야<sup>772)</sup>를 버리고 번성<sup>773)</sup>으로 도망하고, 당양<sup>774)</sup>에 대패하여 하구<sup>775)</sup>로 도망하니, 관중과 악의가 이러했소? 그 말 대답을 어서 하오. 그 말 대답을 어서 하오.”

[아니레] 공명이 생각하니, ‘장소는 손권의 제일 모사<sup>776)</sup> 되는 사람인데, 장소를 꺾지 못할 것 같으면은 내가 어찌 손권과 주유를 달랠 수 있으리오?’ 하고,

“봉<sup>777)</sup>이 천 길<sup>778)</sup>을 날으매<sup>779)</sup> 잡새<sup>780)</sup>들이 그 뜻을 어찌 알리?”

[중모레] “유허숙<sup>781)</sup>은 인자하시어 권력을 남용<sup>782)</sup>치 아니하고, 장수는 조운<sup>783)</sup>과 운장,<sup>784)</sup> 장비<sup>785)</sup> 셋 뿐이요, 군사는 천 명에 지나지 않는 데다가, 이러한 조건으로도 조조 군사 오십만을 대적<sup>786)</sup>할 제,

[Jungjungmori] “Please listen, sir. I thought that Liu Bei(劉備) would easily conquer Jingzhou(荊州) and Xiangyang(襄陽) after obtaining you.

Why did they fall into Cao Cao’s(曹操) hands?

People say you are as talented as Guan Zhong(管仲) and Le Yi(樂毅).

Guan Zhong(管仲) was a high official in Qi(齊) Country, he helped Lord Huan(桓公), and cast light to the world.

Le Yi(樂毅) helped weak Yan(燕) Country, occupying more than seventy castles of Qi(齊) Country.

The two people are said to be scholars saving the world.

When you were secluded in a cottage, Liu Bei(劉備) visited you three times and before you went with him.

Liu Bei(劉備) wielded his power before he obtained you. After Liu Bei(劉備) got you, Cao Cao(曹操) moved his troops.

Liu Bei(劉備) threw away his armor and ran away along the wind, holding a spear upside down.

Giving up Xinye(新野), he fled to Fan(樊) Castle. Completely defeated in Dangyang(當陽), he ran away to Xiakou(夏口).

Were Guan Zhong(管仲) and Le Yi(樂毅) similar to you? Answer this question quickly.”

Kong Ming(孔明) thinks, ‘Zhang Zhao(張昭) is Sun Quan’s(孫權) top strategist. If I can’t defeat him, how can I persuade Sun Quan(孫權) and Zhu Yu(朱瑜)?

“A phoenix flies thousands of miles. How can common birds fathom what the phoenix has in mind?”

[Jungmori] “Benign, Liu Bei(劉備) does not abuse his power. He has only three officers: Zhao Zi Long(趙子龍), Guan Yu(關羽) and Zhang Fei(張飛).

He has only 1,000 soldiers. He confronted Cao Cao’s(曹操) 500,000 soldiers under those conditions.

박망<sup>787</sup>)에서 불로 치고, 백하<sup>788</sup>)에서 물로 쓸어 조조 군사 죽은 것이  
 십오만 명이 넘사옵고,  
 조인<sup>789</sup>)과 하후돈<sup>790</sup>)이가 간담<sup>791</sup>)이 찢어졌으니, 비록 관중과 악의  
 가 이 싸움을 할지라도 이에 더하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세상에 생겨났다 충효로 근본을 삼는 것인데,  
 조조로 말을 하면 대대로 한나라 녹<sup>792</sup>)을 먹고 수십 대를 내려 왔으니,  
 국가에 변<sup>793</sup>)이 일어나면 목숨을 바쳐 막지 않고, 역적을 도모하고  
 백성을 기만<sup>794</sup>)하니,  
 조씨 조상에 욕된 자요, 천자를 위협하니 만고역적<sup>795</sup>)이 그 아니오?  
 여러 선생으로 말을 하면 손씨의 후은<sup>796</sup>)을 삼대로 받고 내려 왔으  
 니,  
 적병이 국경을 범하면은 목숨을 바쳐 막지 않고,  
 적국에다 인군<sup>797</sup>) 보고 항복하라고 권유하니, 어찌 부끄럽지 아니  
 하며,  
 당돌한 말쑥이나, 한문권<sup>798</sup>)이나 읽었다고 입으로는 천언만설<sup>799</sup>) 다  
 하지만,  
 국량<sup>800</sup>)이 적고, 피가 없고, 지혜가 없고, 재주 없어, 남의 하는 일은  
 심술만 부리고,  
 붓대<sup>801</sup>)로는 가왈부왈<sup>802</sup>) 다 하지만, 나중에 할 일 없어 남의 편지나  
 써주고, 축문<sup>803</sup>)이나 지어 주고, 지방<sup>804</sup>)이나 써주고,  
 또한 할 것 없으면 사주<sup>805</sup>) 관상<sup>806</sup>)이나 봐주고,  
 말년<sup>807</sup>)에 기운이 떨어지면 무릎팍 장단<sup>808</sup>)을 두드리며 시조 삼  
 장<sup>809</sup>)이나 부를 것이니,  
 거 국론<sup>810</sup>)은 못할 것이니라. 소인지배<sup>811</sup>)가 분명하구나.”



He attacked them with fire in Bowang(博望) and with water in Baihe(白河), killing more than 150,000 of Cao Cao's(曹操) soldiers.

Cao Ren(曹仁) and Xia Jiao Dun(夏侯惇) were scared. Guan Zhong(管仲) and Le Yi(樂毅) couldn't have done better in this war.

Loyalty to one's country and filial piety are the fundamental virtues to human beings.

Cao Cao's(曹操) family worked for the Han(漢) Dynasty for many generations.

When the country fell into trouble, he didn't risk his life to defend it. He plotted a revolt and deceived the people.

He brought dishonor to his ancestors. He is an unprecedented traitor because he threatened the emperor.

Speaking of you, you have received Sun Quan's(孫權) great favor for three generations.

When the enemy soldiers attack your border, you should risk your lives to defend your country.

Instead, you encourage the king of the enemy country to surrender. How disgraceful you are!

Excuse me, but you say numerous things because you read a lot of books.

But you are not broad-minded, not smart, not wise, and not talented. You are only perverse to what others do.

Your brushes argue many things. In the end, however, you do nothing but write a letter for another, and a prayer and a spirit tablet for another's ancestors.

Or you do fortunetelling by looking at people's faces.

You will become old and weak, and you will recite a poem while beating time with your knee.

You'll not discuss governmental affairs. You are certainly scum."

21. (공명이 노숙과 주유를 만남) 공명이 노숙과 주유에게  
쉽게 조조를 물리칠 방법이 있다고 하며, 두 여인을 조  
조에게 보내자고 한다.

[아니레] 장소<sup>812</sup>와 육적<sup>813</sup>이가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는구나.

이 때에 노숙<sup>814</sup>이 급히 와서 공명을 영접하여 내당으로 들어가서  
손권이와 서로 보게 되었던 것이었다.

공명이 손권을 바라보니, 상모<sup>815</sup>가 당당하구나.<sup>816</sup>

[진양조] 벽안황수<sup>817</sup>에 얼굴은 관옥<sup>818</sup>같고, 풍채<sup>819</sup>는 관악<sup>820</sup>이로  
구나.

손권이가 입을 열어서, “조조가 세상에 미워하는 사람은 여포<sup>821</sup>와  
유표,<sup>822</sup> 원소<sup>823</sup>와 원술<sup>824</sup>과 유황숙과 나더니마는,

운수가 불행하여 모든 영웅은 차례로 멸망하고 유황숙과 내가 남아서,  
황숙은 하구에서 웅거<sup>825</sup>하고, 나는 강동<sup>826</sup>을 점령하여 병정양  
족<sup>827</sup>하웁니다.

우리가 양가<sup>828</sup>의 세를 합쳐 서로가 도우면 만고역적<sup>829</sup> 조조를 막을  
지니, 선생은 의심치 마옵소서.”

[아니레] 공명이 배시주왈,<sup>830</sup> “선생의 말씀이 천의<sup>831</sup>에 합당<sup>832</sup>하오.  
조조가 황숙을 쫓느라고 하루 삼백여 리씩 군사로 달렸으니,

21. (Kong Ming(孔明) Meets Lu Su(魯肅) and Zhu Yu(朱瑜).) Kong Ming(孔明) says to Lu Su(魯肅) and Zhu Yu(朱瑜) that there is an easy way to defeat Cao Cao(曹操), proposing that they send two women to Cao Cao(曹操).

[Aniri] Zhang Zhao(張昭) and Lu Ji(陸績) dare not raise their heads.

Meanwhile, Lu Su(魯肅) comes in a hurry and welcomes Kong Ming(孔明). They go to the main building and see Sun Quan(孫權).

Kong Ming(孔明) sees Sun Quan(孫權), whose face looks confident.

[Jinyangjo] Sun Quan's(孫權) eyes are blue, his beard is yellow, his face is handsome, and his body is like that of Guan Zhong(管仲) or Le Yi(樂毅).

Sun Quan(孫權) speaks, "The people Cao Cao(曹操) hates are Lu Bao(呂布), Liu Biao(劉表), Yuan Shao(袁紹), Yuan Shu(袁術), Liu Bei(劉備), and me.

It is unfortunate that all the heroes except Liu Bei(劉備) and I have perished.

Liu Bei(劉備) stays in Xiakou(夏口). I have Wu(吳) Country where there are good soldiers and sufficient food.

If we form an alliance and help each other, we will suppress Cao Cao(曹操), an unprecedented traitor. Please don't be suspicious of me."

[Aniri] Kong Ming(孔明) bows to Sun Quan(孫權). "What you say fits the will of heaven.

Cao Cao(曹操) chased Liu Bei(劉備), running a long distance each day.

그 얼마나 피곤하오리까? 그러하니 합세<sup>833</sup>)하면은 조조를 꺾을 것이요.”

이렇듯 수작<sup>834</sup>)할 제, 그 때에 주유<sup>835</sup>)가 파양호<sup>836</sup>)에서 돌아왔는 지라.

공명과 서로 수인사<sup>837</sup>)를 한 연후에 주유 하는 말이,

“선생께서는 군사 삼천을 거느리고 조조 군사 오십만을 대적하여 여러 번 꺾<sup>838</sup>)하였다 하니,

조조 군사가 실로 백만인지 아닌지, 한 번 그 대답을 해보시오.”

공명이 그 말 듣고, “내가 헤아리건대 강동<sup>839</sup>)은 힘 한 점 안 들이고, 싸우지도 않고, 한 칼에 피도 안 묻히고, 조조를 스스로 물러가게 할 계책<sup>840</sup>)이 하나 있소이다.”

[중모레 “그 연유<sup>841</sup>)를 말을 하면, 조조가 피를 내어 동작대<sup>842</sup>)를 지은 것은,

강동을 무찌르고 대교 소교<sup>843</sup>) 두 여인을 강동에서 잡아다가 비빈<sup>844</sup>)을 삼은 후에 호강<sup>845</sup>)을 하리로다 장담을 하였으니,

민간의 두 여인을 천금으로 사가지고 조조에게 바쳤으면, 조조는 스스로 물러날 것이요, 강동은 만무일실<sup>846</sup>)하리니, 장군은 깊이 생각 하오.”

## 22. (주유 격노) 공명이 동작대 시를 읊어 주유를 격노케 한다.

[아니레 주유가 묻는 말이, “선생께서는 그 일을 어찌 그리 소상히<sup>847</sup>) 아십니까?”

공명이 답을 하되, “조조의 셋째 아들 자건<sup>848</sup>)이란 사람이 있는데, 글이 만고문장<sup>849</sup>)이라.

Given that he is tired, if we unite with each other, we can beat him.”

While they exchange words, Zhu Yu(朱瑜) comes back from Poyang(鄱陽) Lake.

He exchanges greetings with Kong Ming(孔明) and says, “Sir, you led 3,000 soldiers and won several battles against Cao Cao’s(曹操) 500,000 soldiers.

Please tell me whether Cao Cao(曹操) really has a million soldiers.”

Kong Ming(孔明) replies, “I have an idea for you to make Cao Cao(曹操) withdraw without any effort, without fighting, and without a drop of blood on a sword.”

**[Jungmori]** “Let me explain. Cao Cao(曹操) thought up the scheme of building up Tongque(銅雀) Tower.

He said confidently he would defeat Wu(吳) Country, take the Qiao(喬) sisters from Wu(吳) Country as queen and second wife, and live a happy life with them.

If you buy the two civilian women at a heavy price and give them to Cao Cao(曹操), he will retreat on his own accord and Wu(吳) Country will lose nothing. General, think hard.”

## **22. (Zhu Yu(朱瑜) is Infuriated.) Kong Ming(孔明) recites a poem about Tongque(銅雀) Tower, making Zhu Yu(朱瑜) infuriated.**

**[Aniri]** Zhu Yu(朱瑜) asks, “How do you know about that in such detail?”

Kong Ming(孔明) answers, “Cao Cao’s(曹操) third son is Zi Jian(子建). He writes a poem well.

조조가 명해서 제 아들을 시켜가지고 동작대 시를 짓게 해노니,  
그 시문<sup>850)</sup>이 하도 좋아 천하에 못선비들이 돌아다니며 그 시를 읊  
기로,

나도 그 시가 좋아서 한번 읊어 보았소이다.” 주유가 한 편으로는 걸  
쩍지근하지만은<sup>851)</sup> 공명이 안다 하니,

“그 시를 한번 읊어보시오.” 공명이 응낙하고<sup>852)</sup> 그 시를 읊는데, 꼭  
주유 오장<sup>853)</sup> 뒤집어지는 소리만 한단 말이여.

**[진양조]** “중명후이희유혜여, 등충대이오정이요,

견태부지광개혜여, 관성덕지소영이라.

건고문지차아혜여, 부쌍궐호태청이요,

입중천지화관혜여, 연비각호서성이라.

임장수지장류혜여, 망원과지자영이라.

입쌍대어좌우혜여, 유옥룡여금봉이며,

남이교어동남혜여, 낙조석지여공이라.”<sup>854)</sup>

**[중모레]** 주유 듣고 화를 내어 세웠던 창을 번쩍 들더니, 탁상<sup>855)</sup>을  
탕탕 두드리며,

“만고역적 조조놈이 이다지도 무례하냐!” 공명이 만류할 적에, “도  
독<sup>856)</sup>은 고정<sup>857)</sup>하시오.

옛일을 생각하면 한나라 고조<sup>858)</sup>께서 흉노<sup>859)</sup>와 싸울 적에 공주를  
주었는데,

하물며 민간의 두 여인을 어찌 그리 아끼시오?”

Cao Cao(曹操) told his son to write a poem about Tongque(銅雀) Tower.

The poem is so good that all scholars in the world wander around, while reciting it.

I liked the poem myself, so I once recited it.” Zhu Yu(朱瑜) is hesitant, but Kong Ming(孔明) says he knows about the poem. “Please recite the poem.” Kong Ming(孔明) agrees and recites the poem, which only provokes Zhu Yu(朱瑜).

**[Jinyangjo]** “I followed a wise king and we had fun together. We climbed a tower and had a good conversation. We looked over the wide capital city. I could fathom what the virtuous king wanted.

Two gates are erected high. Two palaces are high.

A high tower shines brightly. It looks as if it flies over to a west castle.

I stand by a long river. I wish for the trees in the garden to bear a lot of fruit.

The two towers are built on the left and on the right. They are Yulong(玉龍) Tower and Jinfeng(金鳳) Tower.

I’ll bring Sir Qiao’s(喬) two beautiful daughters. I’ll have a party day and night with them.”

**[Jungmori]** Indignant, Zhu Yu(朱瑜) pulls up a spear that has been standing close by and hits the table.

“The eternal traitor, Cao Cao(曹操), is so impolite!” Kong Ming(孔明) stops him. “Calm down, commander.

Think about what happened the past. When Emperor Liu Bang(劉邦) fought Xiongnu(匈奴), he offered a princess to them.

Why do you spare the two civilian women?”

### 23. (공명이 화살 십만 개 얻음) 공명이 조조 진중에 들어가서 적을 유인하여, 날아온 화살을 얻어 돌아온다.

[아니리] 주유 하는 말이, “선생은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이요.

대교라 하는 분은 손백부<sup>860</sup>님의 안택<sup>861</sup>이요, 소교라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의 부인이올시다.”

공명이 거짓으로 깜짝 놀라는 척하며, “과연 모르고 실언<sup>862</sup>을 하였사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유가 대노<sup>863</sup>하여, “방자한 도적놈이 감히 우리를 엿보니, 이놈을 잡아가지고 설한<sup>864</sup>을 하오리다. 선생께서는 한 팔 힘을 주시오.” 주유가 이튿날 장중<sup>865</sup>에다 모사와 장수들을 모아놓고 군사회의를 하는데,

“조조 도적놈과 싸우자면 어떤 병기<sup>866</sup>를 먼저 쓸지요?”

공명이 나왔으며, “대강<sup>867</sup>을 격하여<sup>868</sup> 싸우자면 반드시 화살로 먼저 쏘아야 됩니다.”

주유가 무릎을 치며, “선생의 뜻이 나의 뜻과 같소이다. 그러면 선생께서는 십만 개 화살을 만들어 가지고 군용<sup>869</sup>에 쓰도록 하오.

이것은 양가를 위해서 하는 일이니 부디 사양치 마오.”

공명이 하는 말이, “도둑께서는 그 화살을 언제쯤 쓰려고 하십니까?”

“예, 열흘이면 완납<sup>870</sup>하시겠소?”

공명선생이 하는 말이, “만약 열흘 있다가 조조가 쳐들어오면 어찌하겠소? 삼일이면 완납하오리다.”

주유가 생각하니, ‘아무리 공명이 재주 있다 하더라도, 내가 공작요물<sup>871</sup>을 일체 대주지 못하게 하면, 제가 어찌 십만 개 화살을 만들리오?’

“군중은 무회안<sup>872</sup>이지요.” 공명 왈, “어찌 도둑을 데리고 화롱하오리까?”



**23. (Kong Ming(孔明) Gets 100,000 arrows.) Kong Ming(孔明) lures the enemy to shoot arrows on his ship and comes back leisurely with the arrows.**

[Aniri] Zhu Yu(朱瑜) says, “Sir, you don’t know the reality. The elder Qiao(大喬) is Sun Ce’s(孫策) wife, and the younger Qiao(小喬) is my wife.”

Kong Ming(孔明) pretends to be surprised. “I made an inappropriate remark due to my ignorance. Please forgive me.” Zhu Yu(朱瑜) is exasperated. “That rude bastard dares to be greedy for our women. I’ll catch him and avenge myself on him. Please help me.”

Zhu Yu(朱瑜) holds a military meeting in a tent with his strategists and generals.

“What kind of weapon should we use first to fight against the scoundrel, Cao Cao(曹操)?”

Kong Ming(孔明) steps forward. “We must use arrows first because there is a large river between us and the enemy.”

Zhu Yu(朱瑜) hits his knee. “I agree with you, Sir, please make 100,000 arrows and use them for a military purpose.

Please don’t decline because that is for the sake of the two countries.”

Kong Ming(孔明) says, “General, when will you use the arrows?” “Can you hand them over to me in ten days?”

Kong Ming(孔明) says, “What if Cao Cao(曹操) attacks us while we wait for ten days? I’ll give them to you in three days.”

Zhu Yu(朱瑜) thinks to himself, ‘If I don’t provide him with the material for arrows, how can he make 100,000 arrows, however smart he might be?’

“No kidding in the military.” Kong Ming(孔明) says, “How can I tease you, commander?”

만일 사흘 안에 십만 개 화살을 만들어내지 못할 것 같으면은, 이  
목으로 대항키로<sup>873</sup> 군령장<sup>874</sup>을 두오리다.”

주유 대희하<sup>875</sup> 군령장을 받았구나.

**[자진모리]** 하루 이틀 지나가고 삼일 째 되던 날 밤, 공명선생 거동  
보소.

노숙이를 청하더니, 날랜 배 이십 척에다 청포 장막,<sup>876</sup> 제웅<sup>877</sup> 등  
물<sup>878</sup> 모조리 장만하여 노숙의 손을 잡고,

“양<sup>879</sup>과 같이 동행하여 화살을 가져오사이다.”<sup>880</sup> 각 배에다 군사들  
을 이십 명씩 패<sup>881</sup>를 지어 노를 짓게 분부하고,

굵은 밧줄로 이십 척의 배를 서로 연결하여 단단히 묶은 후에 북쪽을  
바라보고 살같이<sup>882</sup> 저어 가는데,

그날 밤은 웬일인지 안개가 자욱하여 장강<sup>883</sup> 일대<sup>884</sup>에 얼굴을 대하  
여도 모를 지경이 되었구나.

그대로 밀고 들어가니 오경시<sup>885</sup>에 이르러 조조 수채<sup>886</sup> 당도하니,  
공명선생 거동 보소. 군사들께 호령한다.

뱃머리를 서쪽으로 대고, 꼬리는 동쪽으로 대고, 일자로 늘어세우고,  
“어서 급히 북을 쳐라!”

노숙이 깜짝 놀라, “아이고, 여보 선생,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소리치시  
오? 여기가 바로 조조 진중<sup>887</sup> 한복판이올시다.”

공명이 하는 말이, “제 아무리 조조라도 안개가 자욱한데 어찌 군사를  
동할<sup>888</sup> 것이오?

우리는 여기 가만히 앉았다, 술이나 먹다가 조조가 화살을 주거든  
가져잡시다. 어서 북을 급히 쳐라!”

이십 명의 군사들은 분부를 듣더니만 느닷없이 북을 치니, 북소리  
천지가 진동한다.

그 때여 조조는 장대<sup>889</sup>에 높이 앉아 술을 한참 퍼먹다가 가만히 들  
어 보니, 어디서 북소리가 천지를 진동한단 말이어.

Let me make a military pledge that if I don't come up with 100,000 arrows in three days, I'll offer my head instead."

Delighted, Zhu Yu(朱瑜) accepts the pledge.

**[Jajinmori]** One day and another day pass. It is the night of the third day. Behold Kong Ming(孔明)!

With Lu Su's(魯肅) help, he gets twenty fast ships loaded with blue cloth, tents, grass dummies, and so on. Kong Ming(孔明) grabs Lu Su's(魯肅) hands.

"Let's go together and bring arrows here." He commands each ship to be rowed by twenty soldiers.

After they fastened the twenty ships tightly with thick ropes, they face the north, and row the ships fast.

For some reason, the fog is so thick tonight that soldiers can't recognize each other's face on the Yangzi(揚子) River and in the nearby area.

Moving forward even in this condition, they reach Cao Cao's(曹操) military camp on the river early in the morning.

Behold Kong Ming(孔明)! He issues commands to soldiers.

He has the bows face the west, the sterns the east, and the ships stand in line. "Hit the drums quickly!"

Lu Su(魯肅) is astonished. "Hello, sir. Don't you know where we are? We are in the center of Cao Cao's(曹操) camp."

Kong Ming(孔明) responds, "How can he move his soldiers in this heavy fog, even if he is Cao Cao(曹操)?"

We'll just sit tight, drinking wine. If Cao Cao(曹操) gives us arrows, we'll take them home. Hit the drums quickly!"

Twenty soldiers suddenly hit drums at that order, shaking the sky and the ground.

Meanwhile, while drinking a lot of wine on the high commanding post, Cao Cao(曹操) hears drum sounds shaking the world.

깜짝 놀라 바라보니 강동<sup>890</sup>)에서 나는구나. “아이고, 이를 어쩔거나?  
강동군이 쳐들어왔다. 안개가 자욱하니 적병의 북병<sup>891</sup>)이 있을 것이니,  
경망히 동하지<sup>892</sup>) 말고 수군 공노수<sup>893</sup>)를 불러라. 수군 공노수를 불  
러들여 어서 바빠 활을 쏘라!”

허저,<sup>894</sup>) 장요,<sup>895</sup>) 서황,<sup>896</sup>) 우금,<sup>897</sup>) 이전,<sup>898</sup>) 악진,<sup>899</sup>) 하후돈,<sup>900</sup>)  
그저 대고서 군사 오십만을 거느리고 강중<sup>901</sup>)을 바라보고,  
강중을 바라보고 무턱대고 활을 쏘 제, 북소리 나는지라. 화살이 피르  
르 날아간다.

그 때여 공명은 가만히 바라보니 배가 모두 제웅에 화살이 꽂히어서  
배가 비스감치<sup>902</sup>) 되는구나.

다시 영을 내려 뱃머리 동쪽으로 대고, 꼬리는 서쪽으로 대고,  
바짝 조조 수채 앞에 가서 그저 북을 치고, 나발<sup>903</sup>) 불고, 고함을 지  
르고, 이런 야단 없겠구나.

날이 점점 밝아오니 안개가 걷히는데, “이제 그만 돌아가자.”  
공명선생이 군사들께 분부하여, “승상의 살<sup>904</sup>)을 사례<sup>905</sup>)하오. 승상  
의 살을 사례하오.”

조조가 대노<sup>906</sup>)하여, 조조가 대노하여 배를 내어 급히 쫓지만은, 강  
동 배<sup>907</sup>) 이십 척은 멀리 멀리 달아나고마네그려.

## 24. (조조 호기)<sup>908</sup>) 조조가 천여 척의 배로 연합계를 만들 어 두고, 병졸들에게 잔치를 베풀며 호기를 부린다.

[아니래] 그 때여 공명은 노숙과 같이 오면서 하는 말이,

He realizes that the sounds come from Wu(吳) Country. “Alas! What should I do?

Wu(吳) soldiers are invading us. Because the fog is thick, there will be an ambush.

Don’t act imprudently. Call the navy archers and have them shoot arrows quickly!”

Xu Chu(許褚), Zhang Liao(張遼), Xu Huang(徐晃), Yu Jin(于禁), Li Dian(李典), Le Jin(樂進), and Xia Jiao Dun(夏侯惇) hurriedly lead 500,000 soldiers and look at the water of the river.

While looking at the river, they start shooting arrows randomly. Drum sounds are heard. Arrows fly.

Meanwhile, Kong Ming(孔明) sees so many arrows stuck in the grass dummies that the ships lose their balance.

He issues a command again to have bows face the east and sterns the west.

They approach Cao Cao’s(曹操) installations closely, hit drums, play trumpets, and shout, creating quite a disturbance.

As the day breaks, the fog clears. “Let’s go back.”

Kong Ming(孔明) tells his soldiers to say, “Premier, thank you for the arrows.”

Enraged, Cao Cao(曹操) hurriedly chases the twenty ships of Wu(吳) Country, but they are already far away.

**24. (Cao Cao’s(曹操) Heroic Temper) Cao Cao(曹操) ties about a thousand ships together with iron chains. He plays the hero, throwing a party for his soldiers.**

[Aniri] On their way back with Lu Su(魯肅), Kong Ming(孔明) says,

“대개 화살이 십만 개가 넘소. 강동은 힘 한 점 안들이고 십만 개 화살을 얻었으니, 이 화살로 조조 도적놈을 도로 쏘면 어찌 재미있는 일이 아니겠소?”

노숙이 하는 말이, “선생은 참으로 신인<sup>909)</sup>이오. 어떻게 어제 밤과 오늘 새벽에 안개가 낄 줄을 알았소이까?”

공명이 답 왈, “장수된 자가 천문<sup>910)</sup>과 지리<sup>911)</sup>와 둔갑<sup>912)</sup>을 하지 못하면 그것은 용재<sup>913)</sup>라.

내가 삼일 후에 반드시 안개가 낄 것을 생각하고, 삼일 한<sup>914)</sup>을 한 것이오.

주유는 내 재주를 시기하여 나를 죽이려고 공작요물<sup>915)</sup>을 일체 대주지 못하게 했다가,

삼일이 지나서 내가 화살 십만 개를 못 만들어내면 반드시 나를 군법으로 엮어서 죽이려고 했지만은,

내 명이 하늘에 달렸는데 제가 어찌 감히 나를 해하리오?”<sup>916)</sup>

노숙이 생각하니 주유의 마음을 유리알 속같이 훤히 들여다보는 듯하지.

다시 일어<sup>917)</sup> 예<sup>918)</sup>를 하며, “선생의 신기묘산<sup>919)</sup>한 일은 측량치<sup>920)</sup> 못하겠내다.”<sup>921)</sup>

말을 마치자 배가 언덕에 닿으니,

주유가 그 소식을 듣고 버선발로 쫓아 나와 손을 잡고 칭찬하기를 마지 않더니,

그 때여 조조는 십만 개 화살을 잃어버리고 울화<sup>922)</sup>가 뒤집어져가지고 어찌할 줄을 모르는데,

공명선생이 슬그머니 양양사람 방통<sup>923)</sup>을 시켜서 거깃으로 항복하는 척하고,

조조 진중에 들어가 연환계<sup>924)</sup>를 모으게<sup>925)</sup> 하니,

“We have more than 100,000 arrows. Wu(吳) Country easily got the arrows. Wouldn't it be fun to shoot these arrows to Cao Cao's(曹操) own soldiers?

Lu Su(魯肅) responds, “You really have a divine power. How did you know that it would be foggy last night and this morning?”

Kong Ming(孔明) replies, “A warrior is supposed to have mastered the principles of heaven and earth, and to be able to transform into other objects.

I promised to get the arrows in three days because I knew it would be foggy.

Jealous of me, Zhu Yu(朱瑜) didn't give me the material for making arrows at all.

He intended to kill me in accordance with military law, if I failed to come up with the arrows in three days.

Given that my life is up to heaven, how could he hurt me?”

Lu Su(魯肅) thinks that Zhu Yu's(朱瑜) mind is transparent to Kong Ming(孔明).

He shows respect to Kong Ming(孔明) again. “I cannot fathom your divine talent.”

No sooner does Lu Su(魯肅) finish than the ships reach the bank.

Having heard the story, Zhu Yu(朱瑜) hurriedly comes out, grabs Kong Ming's(孔明) hands, and praises him.

Meanwhile, having lost 100,000 arrows, Cao Cao(曹操) is upset and at a loss about what to do.

Kong Ming(孔明) furtively sends Pang Tong(龐統) from Xiangyang(襄陽) to Cao Cao(曹操), pretending to surrender.

Pang Tong(龐統) enters Cao Cao's(曹操) camp, telling Cao Cao(曹操) to tie his ships together with chains.

그 때여 조조 군사들은 북방의 육군이라, 수질<sup>926)</sup>을 알지 못해 육군이  
 수군으로 변동하니,  
 병이 많이 생기고 죽는 자가 많더니만, 연환계를 모아<sup>927)</sup> 배 위가  
 육지와 같은지라,  
 조조가 좋아라고 백만 대군을 운집<sup>928)</sup>하여 놓고 군사 훈련을 시키  
 는데,  
 [진양조] 천여 척 전선 위에 연환계를 굳이 무어<sup>929)</sup> 강상육지<sup>930)</sup>를  
 삼어 두고,  
 일등명장 유진<sup>931)</sup>하야 말 달려 창 쓰기와 활쏘아 칼 쓰기며, 십팔  
 기<sup>932)</sup> 사습<sup>933)</sup>하기 만군중<sup>934)</sup>에 요란할 제,  
 조조 진중에 술도 많이 하고, 밥도 많이 하고, 떡도 많이 하고, 호  
 군<sup>935)</sup>이 낭자<sup>936)</sup>할 적에,  
 동산 월색<sup>937)</sup>은 여동백일<sup>938)</sup>이요,  
 장강<sup>939)</sup> 일대<sup>940)</sup>는 여횡소련<sup>941)</sup>이라.  
 조그마한 병교<sup>942)</sup> 하나 심중<sup>943)</sup>을 자아내어,<sup>944)</sup>  
 “여보아라 제장<sup>945)</sup>들아, 남병산색<sup>946)</sup> 그림병<sup>947)</sup>에 동을 가리켜 부  
 상<sup>948)</sup>이요,  
 서를 보니 하구경<sup>949)</sup>이요, 남을 보니 번성<sup>950)</sup>이요,  
 북을 보니 오림<sup>951)</sup>이라. 사방이 광활<sup>952)</sup>하니 어찌 아니가 좋을쏘냐?  
 내가 기병<sup>953)</sup>을 한 연후에 사해<sup>954)</sup>를 거의 쓸고<sup>955)</sup> 미득지강<sup>956)</sup>이라.  
 이제 백만을 응사<sup>957)</sup>하고 제군<sup>958)</sup>이 용병<sup>959)</sup> 작전을 잘하니 어찌 성  
 공이 없을쏘냐?  
 여봐라 제장들아, 술 많이 먹고, 밥 많이 먹고, 위한<sup>960)</sup> · 오한<sup>961)</sup> 삼  
 국싸움을 명일로다<sup>962)</sup> 결단하라.<sup>963)</sup>



Cao Cao's(曹操) troops are land soldiers from the north. They act like sailors without knowing much about water.

A lot of them get sick and die. As they tie the ships together with iron chains, the surface of the ships looks like the land. Delighted, Cao Cao(曹操) gathers a million soldiers and trains them.

**[Jinyangjo]** About a thousand ships are tied together with iron chains, creating land on the river.

Top officers practice riding horses, using spears, shooting arrows, using swords, and eighteen martial arts for themselves in multitudes.

In Cao Cao's(曹操) camp, soldiers are consoled with a lot of liquor, rice, and rice cake.

The moon light on the east mountain is as bright as the day light.

The Yangzi(揚子) River and its nearby area look spread out like a white silk cloth.

A certain feeling arises in Cao Cao's(曹操) mind.

"Listen, officers! Nanping(南屏) Mountain is as beautiful as a picture. In the east the sun rises.

In the west is the border of Xiakou(夏口) Castle. In the south is Fan(樊) Castle.

In the north is Wulin(烏林) Forest. Isn't it good that four directions are open?

Since I raised an army, I obtained all of China except Jiangnan(江南).

I have a million soldiers. You are operating them well. How can there be no success?

Hey, officers! Help yourselves to wine and rice. Finish the war tomorrow between the three nations: Wei(魏), Han(漢) and Wu(吳).

만승제업<sup>964</sup>)을 한 사람에게 맡겼으랴? 승부를 결단하여서 대공<sup>965</sup>)을 이루는 자는 천금상<sup>966</sup>)에 만호후<sup>967</sup>)를 봉<sup>968</sup>)하리라!”  
진중에 영<sup>969</sup>)을 슬그머니 넣으니, 백만군중<sup>970</sup>)이 취케<sup>971</sup>) 먹고 천 리 고향 각심소원대로<sup>972</sup>) 말하며 울음을 운다.

## 25. (군사 설움타령 1) 군사들이 술과 음식을 많이 먹고 슬피 우는 중에 한 군사가 부모와 아내를 그리워하며 탄식한다.

[중모레] 술도 먹고, 밥도 먹고, 떡도 먹고, 고기도 먹고,  
고향 생각 우는 군사, 부모 그리워서 우는 군사, 처자<sup>973</sup>) 보고저<sup>974</sup>)  
우는 군사,  
이야기로 웃기는 놈, 투전<sup>975</sup>)하다 다투는 놈,  
잠에 지쳐 서서 자고, 창끝에다 턱을 괴고 꾸벅 꾸벅 꾸벅 자는 군사,  
처처<sup>976</sup>)에 많은 군사 병루즉장위불행이라.<sup>977</sup>)  
어떠한 군사 하나가 반백<sup>978</sup>)이나 머리가 희었는데, 찾던 주자<sup>979</sup>)를  
선뜻 빼어 술 한 잔을 부어들고,  
또 한 손으로는 산적<sup>980</sup>)꼬치를 꿰어 들고 고향을 무뚜두루미<sup>981</sup>) 바라  
보고,  
“아이고, 아버지. 우리 고향에 있을 때는, 이런 음식이 생기면은 아버  
지께 먼저 드리고 남은 음식을 먹었더니,  
천리전장<sup>982</sup>) 나와서 내가 먼저 먹게 되니, 이런 불효가 어디 있소?”  
이리 앓아 우는 군사, 또 어떤 군사는 병치<sup>983</sup>) 벗어 내던지고 울음을  
붓물<sup>984</sup>)이 터지듯이 울음을 운다.  
“아, 아, 어쩔거나? 어이를 할거나?” 퍼버리고<sup>985</sup>) 울음을 운다.  
[아니레] 이리 한참 설리<sup>986</sup>) 울어 놓으니, 한 군사 썩 나서며,

Can I become a king alone? If you are brave and accomplish feats, I'll grant you a lot of money and feudal lord positions!" With the order, the million soldiers drink until they become drunk. Far away from their homes, they express their wishes and sadness in different ways.

**25. (Soldier's Sad Song 1) Soldiers help themselves to wine and rice. A soldier laments, missing his parents and wife.**

[Jungmori] Soldiers help themselves to wine, rice, rice cakes, and meat.

Some sob, missing their hometowns, their parents, their wives, and their children.

Some create laughter by telling stories. Some have quarrels while gambling.

Some sleep while standing because they are too tired. Some sleep, standing with their chins on the ends of spears.

If soldiers sob, unfortunate events occur.

There is a soldier whose hair is half grey. He pulls out a bowl that he was carrying and pours wine into it.

He holds a piece of fried meat and some vegetables and looks vacantly in the direction of his home.

"Oh, father! When I was at home, I gave such food to you first, and I ate the remaining food.

On a battlefield away from home, I am eating the food ahead of you. What a bad son I am!"

The soldier wails as said above. Another takes off his fur hat and cries as if a dam collapsed.

"Alas! What should I do?" He sobs, losing control of his legs.

[Aniri] As the soldiers cries, another steps forwards.

“야, 이놈아. 승상은 지금 대군을 거느리시고, 천리전장에 나오시어  
승부 미결하고<sup>987)</sup> 천하대사<sup>988)</sup>를 바라는데,

야, 이놈아. 사내자식이 울기는 방정맞게 왜 울어, 이놈아!”

“아이고, 이놈아. 너는 충신의 아들이지마는 내 설운<sup>989)</sup> 사정을 들어  
보아라.”

[진양조] “고당상<sup>990)</sup> 학발양친<sup>991)</sup> 배별<sup>992)</sup>한 지가 몇 날이나 되며,  
부혜여 생아시고, 모혜여 육아하시니,<sup>993)</sup> 육보지덕택이나 호천망극  
이라.<sup>994)</sup>

애중<sup>995)</sup>하신 우리 부모, 규중<sup>996)</sup>의 젊은 처자<sup>997)</sup>가 천리전장 나를  
보내고,

오늘이나 소식 오며, 내일이나 기별<sup>998)</sup>이 올거나 기다리고 바라다가,  
서산에 해는 떨어지고 출문망<sup>999)</sup>이 몇 번이나 되며, 바람 불고 비  
죽죽 오는데 의문망<sup>1000)</sup>이 몇 번이나 되더냐?

상사곡<sup>1001)</sup> 단장회<sup>1002)</sup>는 주야수심<sup>1003)</sup>이 맺혔구나.

칼과 창을 빼어 메고서 육전<sup>1004)</sup> 수전<sup>1005)</sup>을 섞어낼 적에<sup>1006)</sup> 생사가  
모두 다 조석이라.<sup>1007)</sup>

만일 객사<sup>1008)</sup>를 하게 되면, 게 뉘라 엄토<sup>1009)</sup>를 하여 주며,  
골폭사장<sup>1010)</sup>에 호여져서<sup>1011)</sup> 오작<sup>1012)</sup>의 밥이 된들, 어느 알뜰한 친  
구가 툇 차 후여 처<sup>1013)</sup> 날려줄 이가 뉘 있더란 말이나.”

일일사친십이시로구나.<sup>1014)</sup>

## 26. (군사 설움 타령 2) 또 한 군사가 집에 두고 온 자식을 그리워하며 탄식한다.

[아니레] 이리 한참 설리 올 제, 또 한 군사 나 앉으며,  
“너는 부모를 위한 설움이니 효성도 지극하고 기특하다.

“You coward! Our premier has led a huge army away from home. A battle is ahead of us, and he wishes to make a monumental achievement.

You rascal! How can a man cry imprudently? You coward!”

“You bastard! You are a son of a loyal subject. Listen to my sad story.”

**[Jinyangjo]** “Numerous days have passed since I left my old parents.

My father has begotten me, and my mother has reared me. I want to return their favor, but it is limitless.

My dear parents and young wife said goodbye to me leaving for the distant battleground.

She must be looking forward to hearing news about me.

Numerous times, she must have leaned against the gate, waiting for me as the sun set, and at windy and rainy nights.

I miss my family day and night so much that my intestines might disintegrate.

Carrying a sword and a spear, I fight on land and water, and I could die at any time.

If I die away from home, who will bury me?

If my bones are scattered on the sand and become food for crows and magpies, which of my close friends, if any, will chase the birds away by clapping his hands?

I miss my parents all day long.”

## **26. (A Soldier's Sad Song 2) A soldier grieves, while missing his child at home.**

**[Aniri]** While the soldier cries as said above, another soldier says,

“Your sorrow is related to your parents. You are a good son.

그러나 네 설움은 내 설움만 하려면<sup>1015</sup>) 아직 이빨도 안 난 놈이여.”

[중중모리] “너 내 설움 들어봐라. 너 내 설움 들어봐라.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남의 오대독신<sup>1016</sup>)으로 열일곱에  
장가들어,

오십이 장근토록<sup>1017</sup>) 슬하<sup>1018</sup>) 일점혈육<sup>1019</sup>)이 없어 매일 부부가 한  
탄이라.

아따,<sup>1020</sup>) 우리집 마누라가 온갖 공<sup>1021</sup>)을 다 드린다.

명산<sup>1022</sup>) 대찰,<sup>1023</sup>) 영신당<sup>1024</sup>)과 고묘,<sup>1025</sup>) 총사,<sup>1026</sup>) 석왕사<sup>1027</sup>)며,  
석불,<sup>1028</sup>) 보살,<sup>1029</sup>) 미륵<sup>1030</sup>)님께 허유허유<sup>1031</sup>) 다니면서 지극 정성  
드리니,

공든 탑이 무너지고, 심든 나무<sup>1032</sup>) 꺾어지랴! 아따, 우리집 마누라가  
과연 태기<sup>1033</sup>)가 있더구나.

십삭<sup>1034</sup>) 태육<sup>1035</sup>)을 배설<sup>1036</sup>)한다. 석부정부좌<sup>1037</sup>)하고,  
할부정불식<sup>1038</sup>)하고, 이불청음성<sup>1039</sup>)하고, 목불시악색<sup>1040</sup>)이라.

십삭을 곱게 채운 후에 하루는 해복<sup>1041</sup>) 기미가 있는데,  
‘아이고 배야, 아이고 허리야.’ 내 마음 생각하니, 한편은 겁나고 한편  
은 반갑다.

향취<sup>1042</sup>)가 진동하고 채운<sup>1043</sup>)이 두르더니마는 혼미중에<sup>1044</sup>) 탄생  
하니,

딸이라도 반가울 데<sup>1045</sup>) 아들을 낳았도다.

열 손에다 떠받쳐 땅에 누일 날이 전혀 없고, 오줌 똥을 다 가린 후  
삼칠일<sup>1046</sup>)이 지낸 후에, 오류 삭<sup>1047</sup>)이 지난 후, 장판방<sup>1048</sup>)에 살이  
올라 터덕터덕<sup>1049</sup>) 노는 양,

뽕긋 웃는 양, 애비 수염 검쳐 잡고<sup>1050</sup>) 엄마, 아빠  
도리도리,<sup>1051</sup>) 죄암죄암,<sup>1052</sup>) 잘깡잘깡,<sup>1053</sup>)

But my sorrow is so intense that your sorrow can't even be compared to mine."

**[Jungjungmori]** "Listen to my grief and sorrow.

As the only son for five generations, I got married at seventeen. Approaching fifty but not having a child, my wife and I sighed everyday.

Gee, my wife made every effort to have a baby.

She visited famous mountains, Buddhist temples, Buddhist shrines, Buddhist statues, and the statues of Buddhist Saints, praying hard to them.

Her conscientious efforts finally paid off. Gee, my wife became pregnant indeed.

She raised a baby in her womb for ten months. She did not sit on a seat, if it were not straight.

She did not eat food, if it were not cut straight. She did not hear indecent words. She did not see bad colors.

After ten months passed, there was an indication of childbirth one day.

'My belly hurts. My waist hurts.' I was scared on the one hand and glad on the other hand.

Fragrant smells and clouds of beautiful colors appeared. The baby was born when I was confused.

Even a daughter would have been good, but the baby was a son.

I always held him with my hands, so he never lay down on the ground. He was potty-trained.

After five or six months, he became plump and managed to play in the room.

He smiled, grabbed my beard, said 'Mommy' and 'Daddy.'

He shook his head, folded and unfolded his fingers. I dandled him.

서울 가 서울 가 밤 한 되 얻어다가 살강<sup>1054</sup>밑에 묻었더니,  
머리 검은 새앙쥐<sup>1055</sup>가 들락날락 다 까먹고 밤 한 톨<sup>1056</sup>을 남겼네.  
참기름에 달달<sup>1057</sup> 볶아 너하고 나하고 둘이 먹자,  
어허둥둥<sup>1058</sup> 내 아들이. 주야<sup>1059</sup> 사랑 애중한 계<sup>1060</sup> 자식밖에 또  
있느냐?

뜻밖에 난리 날 적에, 햇불이 번뜻, ‘위국땅 백성들아, 난리 났다.  
적벽강에 싸움 가자! 나오나라!’ 왜는<sup>1061</sup> 소리, 아니 갈 수 없더구나.  
사당문<sup>1062</sup> 열어놓고 통곡재배<sup>1063</sup>하고 전장<sup>1064</sup>에 나올 적에,  
간간한<sup>1065</sup> 내 새끼와 불쌍한 우리 아내 내 손목을 부여잡고,  
‘이제 가면 언제 와요? 만리전장<sup>1066</sup>에 나가는 사람 어느 때나 다시  
돌아오리?’

생이별<sup>1067</sup> 하직하고 전장에 잡혀 와서, 올해 장차 몇 해던가?  
언제나 다시 고향에 가서 그림던 자식을 품에다 안고, ‘악아,<sup>1068</sup> 악  
아’ 어를까?<sup>1069</sup> 아이고, 아이고, 내 팔자야.”

## 27. (군사 설움 타령 3) 또 한 군사가 아내를 그리워하며 탄식한다.

[아니레] 이렇듯 설리 올 제 또 한 군사 나서면서,  
“너는 전장에 나가 죽어도 제사나 지내줄 놈이 있으니 관계없다.”  
[중모레] “내 설움을 들어보시오. 내 설운<sup>1070</sup> 사정을 들어보시오.  
나는 일찍 부모를 조실하고,<sup>1071</sup> 일가친척 바이없이<sup>1072</sup> 혈혈단  
신<sup>1073</sup>

이 내 몸이 이성지합<sup>1074</sup> 우리 아내 얼굴도 어여쁘고, 행실도 암전하  
여 중가대사<sup>1075</sup> 같이 앓아 한시<sup>1076</sup> 떠날 줄을 모를 적에,



I went to Seoul to buy some chestnuts and put them below the shelf in the kitchen.

A mouse with a black head got in and out, eating them all except one.

Let's fry it with sesame oil and share it together.

Oh my son! What is more precious than a child?

All of a sudden a war broke out. Torches were bright. 'The people of Wei(魏) Country! War broke out.

Let's go to war in the Chibi(赤壁) River! Come out!' I had no choice but to go.

I left the door of the family shrine open, cried, bowed twice, and tried to set off to the battlefield.

My lovely young son and my poor wife grabbed my hands.

'If you go now, when are you coming back? You are leaving to the battlefield away from here. When are you coming back?'

After the hard separation, I was brought to this battlefield. How many years have passed?

When can I go back home and dandle the child that I miss? Alas! Woe is me!"

## **27. (A Soldier's Sad Song 3) Another soldier laments, missing his wife.**

[Aniri] While the soldier cries, another soldier moves forward. "Even if you die in this war, there is a person to hold an annual ritual for you, so your sorrow is nothing."

[Jungmori] "Listen to my grief. Listen to my sad story.

I lost my parents early and didn't have any relatives. I was alone, having nobody to turn to.

I married a beautiful woman. She behaved well, always busy with her duties as a daughter-in-law of a head family.

철 가는 줄<sup>1077)</sup> 모르는데, 불화변<sup>1078)</sup> 웨는 소리, ‘위국땅 백성들아,  
난리 났다.

적벽강에 싸움 가자!’ 천지간<sup>1079)</sup>에 웨는 소리, 꼭지<sup>1080)</sup> 잡아 나를  
끌어내니 아니 갈 수 없더구나.

군복 입고, 전립<sup>1081)</sup> 쓰고, 창대 끌고 나올 적에,  
우리 아내 나를 보고 버선발로 우루루루 달려들어 나의 목을 덜컥  
안고,

‘나도 가요. 나도 가요. 이팔청춘<sup>1082)</sup> 젊은 년을 나 혼자만 떼어놓고  
전장에 가려시오?’<sup>1083)</sup>

내 마음이 어떠하겠느냐? 우리 마누라를 달래보자.

‘허허, 마누라. 우지를 마시오. 장부가 세상에 생겨났다 전장 출  
진<sup>1084)</sup>을 못하고서 죽으면 장부 절개가 못 된다고 하니, 우지 말라면  
우지를 마오.’

달래도 아니 듣고, 화를 내도 아니 듣네그러.

잡았던 손길을 에후리쳐<sup>1085)</sup> 떨치고서 전장에 나왔으나,

아무리 가자해도 함정에 빠진 범이요, 그물에 얹힌 고기라.

어느 때나 고국 가서 그림던 아내 얼굴을 보고 만단정회<sup>1086)</sup> 살던  
정을 마음대로 풀어를 볼거나?

어쩔거나? 어이를 할거나?” 이렇듯이 울음을 운다.

## 28. (군사 설움 타령 4) 또 한 군사가 첫날밤에 전장에 잡혀 온 사연을 말하며 탄식한다.

[아니래 또 한 군사 나왔으며,

“대체<sup>1087)</sup> 처자<sup>1088)</sup>라는 것이 전장에 불가한<sup>1089)</sup> 것이니라. 내 설움  
을 한 번 들어봐라.”

Time flew unbeknownst to us. Because of the war, there was a shout: 'The people of Wei(魏) Country! War broke out. Let's go to the war in the Chibi(赤壁) River.' While the shouting sound shook the world, they grabbed me by the hair. I could not but come.

I put on military clothing and a helmet, grabbed a spear, and tried to leave.

My wife saw me, ran to me hurriedly, and hugged me around my neck.

'Let me follow you. How can you leave me, a sixteen year old woman, and go to the battlefield?'

Imagine how I would have felt. I attempted to appease her. 'Honey, please don't cry. If a man doesn't have an experience of fighting in war, he can't be a true man. Please don't cry.' Neither appeasing her nor getting angry with her stopped her from crying.

I came to this battleground after shaking her hands off cruelly. No matter how hard we try to escape, we are like a tiger in a pit and a fish in a net.

When can I go back home, hold my lovely wife's hands, and talk with her as much as I like?

What should I do?" He weeps as said above.

**28. (A Soldier's Sad Song 4) Another soldier moans, telling how he was forced to the battleground on his wedding night.**

[Aniri] Another soldier jumps in.

"A wife and a child are an obstacle in a battlefield. Listen to my sorrow."

**[중중모리]** “너 내 설움 들어봐라. 너 내 설움을 들어봐라.  
 나는, 나는 남의 집 오대독신<sup>1090</sup>)으로 열다섯 살에 장가들어, 스물다  
 섯 살에 상처<sup>1091</sup>)하고,  
 서른다섯 살에 구혼<sup>1092</sup>)하여 사주단자<sup>1093</sup>) 보냈더니  
 택일<sup>1094</sup>) 기별<sup>1095</sup>)이 왔더구나. 일습기구<sup>1096</sup>)를 다 차린다.  
 장풍헌내<sup>1097</sup>) 비루말<sup>1098</sup>)에, 이과수택<sup>1099</sup>) 줌안장<sup>1100</sup>)에,  
 공도령 쌍언청이,<sup>1101</sup>) 박도령 안판낙포,<sup>1102</sup>)  
 곱사등이 정동장<sup>1103</sup>) 함진애비,<sup>1104</sup>) 집안 좋은 외눈통이,<sup>1105</sup>)  
 전동다리<sup>1106</sup>) 피수아비,<sup>1107</sup>) 외삼촌은 상객<sup>1108</sup>)으로, 안장에다 뚜벅  
 뚜벅 건너갈 제,  
 사모품대<sup>1109</sup>) 능라호사<sup>1110</sup>) 흔들거리고 들어가서,  
 초례청<sup>1111</sup>)에 초례하고, 대례청<sup>1112</sup>)에 대례하고, 방방이<sup>1113</sup>) 들어가  
 차담상<sup>1114</sup>)을 먹은 후에,  
 일락함지<sup>1115</sup>) 해떨어지고, 월출동녕<sup>1116</sup>) 달 돌을 때, 갓은 반상<sup>1117</sup>)  
 저녁밥을 단단히 먹은 후에,  
 이경 초<sup>1118</sup>)에 앉았더니, 아따, 우리집 마누라 될 신부가 들어오는데,  
 명조<sup>1119</sup>)가 등등<sup>1120</sup>)하고 영풍<sup>1121</sup>)이 깃들었다.  
 상하 한번 훑어보니 녹의홍상<sup>1122</sup>)은 비여천지,<sup>1123</sup>)  
 갓은 패물<sup>1124</sup>) 머리에 꽂고, 몸에는 원삼<sup>1125</sup>)이라.  
 처삼촌댁 처남댁<sup>1126</sup>)이 등 밀거니, 옆 밀거니 호들거리고<sup>1127</sup>) 들어와서,  
 가만히 앉혀놓고 내<sup>1128</sup>) 나가듯 슬그머니 나가니, 마누라 혼자 앉었  
 구나.  
 담배 한 대 얼른 먹고, 가만히 살짝 뒤로 가서

[Jungjungmori] "Listen to my grief. Listen to my sad story."

As the only son for five generations in a row in my family, I got married at fifteen and lost my wife at twenty five.

I managed to make a proposal of marriage at thirty five. I sent a letter to the house of my future wife.

They responded with the wedding date. Things needed for the wedding were prepared.

I got on a sick horse with no hair. The saddle was moth-eaten. Mr. Gong was double hare-lip. Mr. Bak was a hunchback.

Mr. Jeong, another hunchback, carried a present box. A one-eyed servant was from a good family.

A lame man, a clever man, and my uncle followed me to the wedding hall. I sat on a saddle and moved slowly.

Wearing a helmet, a belt, and silk clothes for wedding, I went to my bride's house.

She and I bowed to each other and drank in the wedding hall. I entered the room and had a snack.

After the sun set in the west and the moon rose in the east, the dinner was brought in.

It was between 9 and 10 p.m. when I was waiting that my bride entered the room.

An auspicious sign and bright energy were seen.

I leered at her entire body. Her light green jacket and red skirt were similar to the sky and the ground.

All sorts of decorations were on her head. She wore ceremonial attire.

Her brothers' wives pushed her by the back and side wildly. They help her sit down slowly and left quietly. The bride sat there alone.

I quickly smoked a cigarette and moved slowly to her back.

죽두리,<sup>1129)</sup> 원삼<sup>1130)</sup> 곱게 벗겨 높은 곳에 걸어놓고,  
 저고리 벗기고, 치마 벗기고, 속옷 벗기고, 단의<sup>1131)</sup> 벗기고, 바지 벗  
 기고, 버선마저 뺀 연후에,  
 놀래지 않게 담쑥 안아 이불 속에 흠쳐 넣고, 한참 동안 노닐 적에  
 밤중만에<sup>1132)</sup> 웨는<sup>1133)</sup> 소리 ‘위국땅 백성들아, 적벽강에 싸움 가자.’  
 문 펄쩍 열뜨리고,<sup>1134)</sup> 상투 잡고 뺨을 치니,  
 혼비중천<sup>1135)</sup> 황급<sup>1136)</sup>하여 쑥 빼 들어메고<sup>1137)</sup> 나오다가 굽어보니,  
 저<sup>1138)</sup>도 설운 중에 섭섭히 이별을 하느라고 눈물을 철철 흘리더구나.  
 이런 급살<sup>1139)</sup> 맞고 오사<sup>1140)</sup>할 설움이 또 있느냐?”

## 29. (군사 설움 타령 5) 또 한 군사가 집에 두고 온 엽전이 걱정되어 운다고 말한다.

[아니레] 이리 한참 설리 올 제, 한 군데서 병거지<sup>1141)</sup>가 우는데,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하고 울어노니, 못군사<sup>1142)</sup> 기가 막혀,  
 “야들아, 천지개벽<sup>1143)</sup> 후에 병거지가 우는 것 보았냐?”  
 하고 병치<sup>1144)</sup> 꼭지를 툇 떼고 보니, 새끼손가락 윗마디만한 놈이 앞  
 아 우는데, 못군사 기가 막혀,  
 “야 야, 너는 부모가 보고 싶어 우냐?”  
 “아이고, 여보시오. 내 설움은 만군중<sup>1145)</sup>에도 없고 역대칠서<sup>1146)</sup>에  
 도 없는 설움이오.”  
 [중모레] “내 설움을 들어보시오. 내 설운 사정을 들어보시오.  
 이 몸이 전장에 나오기 전에 우리 외삼촌댁을 갔더니마는, 우리 외삼  
 촌이 나를 귀엽다고 노랑돈<sup>1147)</sup> 한 푼을 주십니다.

I took off the decoration in her hair and her formal clothes, and hung them on something high.

I took off her jacket, skirt, underwear, pants, trousers, and socks. I hugged her gently so that she might not get scared and put her under the blanket. We had a good time for a while.

Around midnight, there was a shout: 'The people of Wei(魏) Country! Let's go to the war in the Chibi(赤壁) River.'

They suddenly opened the door, grabbed my hair, and hit my cheek.

I was confused, pulled my thing out of her fast, and carried it along.

I saw it shedding a lot of tears too because of the sad separation. My sorrow is like a sudden death and a miserable death."

## **29. (A Soldier's Sad Song 5) Another soldier says that he weeps because he is worried about a coin he left at home.**

[Aniri] While the soldier sobs, a military hat cries.

"Alas! Alas!" Because of the cry, the soldiers are struck dumb. "Have you ever seen a military hat cry since the world was created?"

They cut off the top of the hat. There is a crying person as small as the upper part of a finger.

"Hey, are you weeping because you miss your parents?"

"Listen, folks! The kind of sorrow I feel can neither be found in the military nor in classic books."

[Jungmori] "Listen to my sorrow. Listen to my sad story.

Before I came to this battleground, I went to my uncle's house. He felt I was cute and gave me a yellow coin.

그놈을 사랑할 제, 안고 서고 눕고 자고 주야 사랑 어루다,<sup>1148)</sup>  
선반 위에 올려놓고 깜빡 잊고 나왔더니,  
잠을 자도 꿈에 뵈고, 밥을 먹어도 생각이 나서, 그래서 읊니다.”

### 30. (군사 호기) 한 군사가 나서서 호기를 부리고 또 한 군사는 싸움타령을 하는데, 군사들이 내일 있을 싸움 을 걱정한다.

[아니레] 못군사 대소<sup>1149)</sup>할 적에 또 한 군사 나서는데,  
요놈 상호<sup>1150)</sup>가 어떻게 생겼냐 하면 북통 대그뺨<sup>1151)</sup>에다 실노  
끈<sup>1152)</sup> 모가지,<sup>1153)</sup>  
장구통 배야지,<sup>1154)</sup> 수통다리<sup>1155)</sup> 쇠다리,<sup>1156)</sup>  
정갱이<sup>1157)</sup> 마당발<sup>1158)</sup>로 생겼는데, 쥐털수염<sup>1159)</sup> 거사리고<sup>1160)</sup> 우  
뚝 나서노니,  
못군사 그놈 잔망함<sup>1161)</sup>을 보고 뉘 아니 대소하랴!  
요놈이 조그마한 착도<sup>1162)</sup> 하나를 손에 들고 하는 말이 옹더니라.  
[중중모레] “이놈, 저놈 다 듣거라. 너희놈들, 다 듣거라.  
너그<sup>1163)</sup> 일제히<sup>1164)</sup> 줌놈<sup>1165)</sup>알다. ‘위국자는 불고가사라.’<sup>1166)</sup> 옛글  
에 일러 있고,  
남아하필연처자리오?<sup>1167)</sup> 막향강촌노장년하소.<sup>1168)</sup>  
우리 몸이 군사 되어 천리전장에 나왔다가  
공명을 못 이루고 숙절없이<sup>1169)</sup> 돌아가면은 부끄럽지가 아니하냐?



I liked it, carrying it day and night whether I was sitting, standing, lying, or sleeping.

I put it on a shelf and forgot to bring it here with me.

It shows up in my dream, and I can't get it off my mind even when I eat. That's why I am sobbing."

**30. (A Soldier Plays the Hero.) A soldier rebukes crying soldiers. He acts like a hero. Another soldier sings a war song. Soldiers are worried about tomorrow's battle.**

[Aniri] Soldiers burst into laughter. Another soldier moves forward.

His physical appearance is as follows: His head looks like a drum, and his neck like a string.

His belly looks like a double-headed drum, and his legs are thick and hard.

His shins are wide. His beard is thin and long whose end goes up. He stands up high.

Soldiers cannot but laugh at his flippancy behavior.

Holding a small commanding sword in his hand, he says the right things.

[Jungjungmori] "Look, cowards! Listen to me everybody.

You are all brats. An old saying holds that a patriot cannot take care of his family.

How can a man miss his wife and children? All of you, forget about your homes.

We became soldiers and were taken to this battleground away from home.

Wouldn't it be a disgrace to go back home without a meritorious deed?

너 내 설운 말을 들어라.

요하<sup>1170)</sup> 삼척<sup>1171)</sup> 드는 칼로 오한<sup>1172)</sup> 양진<sup>1173)</sup> 장수 머리를 한 칼로 텅그렁<sup>1174)</sup> 베어 들고, 승전고<sup>1175)</sup> 쿵쿵 울려 본국 천 리 돌아가면은, 어찌 아니가 좋더란 말이나?

아이고, 설움이야. 아이고, 설움이야.”

[아니리] 못군사<sup>1176)</sup> 그 말 듣고, “너 진실로 그렇다면 충신의 아들이다. 향도령<sup>1177)</sup>이라고 표 써줄 텐께,<sup>1178)</sup> 뒤쪽지<sup>1179)</sup>에다 탁 붙이고 다녀라.”

이렇듯 설리 울 제, 또 한 군사 내달으며 호기<sup>1180)</sup>있게 말을 하는데, [중중모래] “우리 병마<sup>1181)</sup>는 백만이라. 이 승세<sup>1182)</sup>를 뉘 당하랴? 이 승세를 뉘 당하랴?

금일<sup>1183)</sup> 호군<sup>1184)</sup> 즐겨 놀고, 명일<sup>1185)</sup> 싸움 한사<sup>1186)</sup>하자.”

또 한 군사 내달으며, “네가 싸움타령 말을 하니 싸움타령을 들어봐라. 습용간과<sup>1187)</sup> 현원씨<sup>1188)</sup>는 여염제로<sup>1189)</sup> 관천싸움.<sup>1190)</sup>

능작대무 치우작란<sup>1191)</sup> 사로잡은 탁록싸움.<sup>1192)</sup>

주나라 쇠한 천지<sup>1193)</sup>에 분분하다<sup>1194)</sup> 춘추싸움.<sup>1195)</sup>

붕기제장<sup>1196)</sup> 요란하니 팔년풍진<sup>1197)</sup> 초한싸움.<sup>1198)</sup>

태공<sup>1199)</sup> 여후<sup>1200)</sup>가 잡혔구나, 서북대풍 수수싸움.<sup>1201)</sup>

마상천하<sup>1202)</sup>는 하겠구나, 한 유방의 지혜싸움.

동남풍이 휘휘 불면 위태하다 적벽싸움.<sup>1203)</sup>

Listen to my sad story.

Wouldn't it be great if we go back home far away from here with the victory music after cutting off the heads of the generals of Wu(吳) Country and Han(漢) Country with one move of swords?

Alas! Woe is me. Alas! Woe is me.”

**[Aniri]** Soldiers respond, “If you think so, you are a son of a loyal subject.

We will attach the name tag, Xiang Yu(項羽), to the back of your head. Don't take it off.”

While the soldier above weeps, another soldier speaks confidently.

**[Jungjungmori]** “We have a million soldiers and horses. Who could defeat us?

Let's enjoy ourselves today and fight to the end tomorrow.”

Another soldier steps forward. “Let me sing the war song. Listen up.

In the Banquan(阪泉) War, Xuan Yuan Shi(軒轅氏) who invented the spear and the shield fought against Yan Di(炎帝). In the Zhuolu(涿鹿) War, Chi Wang(蚩尤) who could create fog was captured alive.

After the Zhou(周) Dynasty became weak, there were a lot of wars amongst ancient countries during the Chunqiu(春秋) era. Many generals fought fiercely in the war between Chu(楚) Country and Han(漢) Country for eight years.

Liu Bang's(劉邦) parents and wife were taken as hostages in a war during which a northwest wind blew hard in favor of Liu Bang(劉邦).

Liu Bang(劉邦) waged war wisely and obtained ancient China. Some will be in danger in the Chibi(赤壁) War where a southwest wind will blow.

공성신퇴<sup>1204</sup>) 하고지고.”<sup>1205</sup>)

[중모레] 또 한 군사가 내달으며<sup>1206</sup>) 하는 말이 옳더니라.

“너그들<sup>1207</sup>) 지금 술 잘 먹고, 밥 잘 먹고, 재담<sup>1208</sup>) 잘하고, 농담  
잘하고, 괴담,<sup>1209</sup>) 실담,<sup>1210</sup>) 모두 다 잡담<sup>1211</sup>)을 하지마는,

명일<sup>1212</sup>) 싸움을 시살<sup>1213</sup>)할 제 승부를 뉘 알쏘냐?

유능제강이요 약능제성<sup>1214</sup>)이며, 병가<sup>1215</sup>)의 징협이요,<sup>1216</sup>)

채덕홍망성쇠라.<sup>1217</sup>) 승부간에<sup>1218</sup>) 다 죽을 제

오사,<sup>1219</sup>) 급사,<sup>1220</sup>) 객사,<sup>1221</sup>) 즉사,<sup>1222</sup>) 수사,<sup>1223</sup>) 화사,<sup>1224</sup>) 분  
사<sup>1225</sup>)할 적에

야 이놈들아, 견디어 보아라. 야 이놈들아, 견디어 보아라.”

31. (오작남비)<sup>1226</sup>) 까마귀가 울고 날아가니, 조조가 취흥  
에 겨워 시를 읊는데, 장수 유복이 불길한 징조라 말하  
였다가 죽임을 당한다.

[아니레] 못군사 그 말 듣고 회심<sup>1227</sup>) 걱정 설리 올 제,

[진양조] 뗏다 보아라. 저 까마귀가,

달은 밝아 명랑<sup>1228</sup>)한데 공중 중천<sup>1229</sup>)에 높이 떠서 ‘까옥까옥까옥’  
울고 가니,

조조가 듣고 괴이하여, “여보이라 제장<sup>1230</sup>)들아, 저 까마귀 어찌하여  
밤에 떠서 울음을 우느냐?”

I wish to accomplish a feat and go back home.”

[Jungmori] Another soldier moves forward and says the right things.

“You helped yourselves to wine and rice, and tell witty stories, funny stories, grotesque stories, mistaken stories, and useless stories.

We will kill enemies mercilessly in the war tomorrow, but who will win?

A military expert knows from his experience that a soft thing might defeat a hard thing, and that a weak thing might beat a strong thing.

We will rise or fall, depending on whether we are virtuous or not. We will all die, whether we win or lose this war.

We will die disastrously, fast, away from home, instantaneously, of water, of fire, and of anger.

You villains, suffer from death.”

**31. (A Crow and A Magpie Fly in the South Sky) A crow flies, crying. Liu Fu(劉馥), a general, gets murdered by Cao Cao(曹操) after saying that a crow is an ominous sign.**

[Aniri] After hearing the soldier above, many soldiers are persuaded and worried.

[Jinyangjo] Lo, behold that crow!

When the sky is bright with the moon, a crow cries high in the sky and flies away.

Cao Cao(曹操) is puzzled. “Hello, officers. What makes that crow cry in the sky at night?”

[아니레] 제장들이 여짜오되, “달은 밝고 별은 듕성듬성한데, 까마귀가 낮인 줄 알고 밤에 떠서 우나이다.”

조조가 취중에<sup>1231)</sup> 글을 지어 읊었으되,

“월명성희 오작이 남비하니, 요수삼잡에 무지가의로다.”<sup>1232)</sup>

제장 중에 유복<sup>1233)</sup>이가 여짜오되, “월명성희 오작이 남비한 것은, 달은 밝고 별은 듕성듬성한데

까마귀가 낮인 줄 알고 밤에 떠서 울다가 무지가의라, 앓을 가지가 없어노니

그대로 떠서 방황하는 격이로소이다.

우리 진중<sup>1234)</sup>에 불길한 징조이오니 미리 저방<sup>1235)</sup>함이 좋을까 하나이다.”

[중모레] 조조 듣고 화를 내어 세웠던 창을 번쩍 들더니, 유복의 가슴을 콕 찔러노니,

유복이가 창을 맞고 그 자리에 거꾸러져서 발발발 떨어져 죽는구나.

진중에 장수 하나가 병치<sup>1236)</sup> 벗어 내던지고 우루루 달려들어 유복의 목을 안고,

“아이고, 이게 웬일이냐? 네가 이 죽음이 웬일이냐?

부모처자<sup>1237)</sup> 하직하고 천리전장 나올 적에, 너그<sup>1238)</sup> 모친이 나를 보고 ‘우리 유복이를 잘 좀 돌봐주게.’ 이렇듯이 부탁하였는데,

너는 죽고 내가 살아 고향을 돌아가면, 너의 모친이 문전<sup>1239)</sup>에 섰다가 나를 보고 묻는 말씀이, ‘우리 유복이는 어찌해서 안 오는가?’

이렇듯이 묻거드면<sup>1240)</sup> 무엇이라고 대답하라고, 이 죽음이 웬 일이며, 만군중의 군사<sup>1241)</sup>가 되어 똑똑이<sup>1242)</sup> 모두 다 무엇이나?”

죽은 장수 목을 안고 펴버리고 울음을 운다.

[Aniri] Officers answer, “Because the moon is bright, and stars are dim, the crow must be thinking that it is day, crying in the sky at night.”

Elated under the influence of drink, Cao Cao(曹操) writes and recites a poem.

“Crows and magpies fly to the south while the moon is bright and stars are sparse. They turn around a tree three times, but there is no branch to sit on.”

Liu Fu(劉馥), a general, responds, “The moon is bright, and stars are sparse.

Thinking it is day, a crow flies in the sky at night. There is no branch to sit on.

The crow must be wandering around in the sky.

This is an ominous sign ahead of a battle. A defensive preparation is advised.”

[Jungmori] Infuriated, Cao Cao(曹操) holds up a spear standing nearby and pierces Liu Fu’s(劉馥) chest.

Hit by the spear, Liu Fu(劉馥) bends forward, shudders, and dies.

A general in the multitude takes off his fur hat, runs to Liu Fu(劉馥), and hugs him by the neck.

“My goodness. What is this? I can’t believe your death.

When you say goodbye to your parents, wife and children to leave for this battlefield away from home, your mother said to me, ‘Please take good care of my Liu Fu(劉馥).’

If you die and I go back home alive, your mother will stand in front of the gate and ask me, ‘Why doesn’t Liu Fu(劉馥) come?’

What should I say to your mother? I can’t believe your death. What is the use of being a smart officer?”

He sobs, hugging the dead officer’s neck and losing control of himself.

### 32. (조조 장수 분발)<sup>1243</sup> 조조가 장수들을 지휘하며 싸울 준비를 한다.

[아니레] 이리 한참 울어노니,

조조가 술 깬 뒤에 가만히 생각하니 무단히<sup>1244</sup> 장수 하나를 죽였던  
말이여.

군심<sup>1245</sup>이 변동할까 염려되어 뜻밖에 밤중에 군사 훈련을 시키는데,

[자진모레] 차일<sup>1246</sup>에 수군도독<sup>1247</sup> 모개,<sup>1248</sup> 우금,<sup>1249</sup>

연쇄전선 필쇄하고<sup>1250</sup> 즉일<sup>1251</sup> 진병<sup>1252</sup> 재촉하니,

조조 누선<sup>1253</sup>에 높이 앉아 수륙제장<sup>1254</sup> 오색기<sup>1255</sup>를 분발<sup>1256</sup>한다.

수진<sup>1257</sup>에 중협총<sup>1258</sup> 모개 우금이요, 좌협총<sup>1259</sup> 문빙<sup>1260</sup>이며, 우  
협총<sup>1261</sup> 장합<sup>1262</sup>이며,

육진<sup>1263</sup> 전사파<sup>1264</sup> 서황<sup>1265</sup>이며, 좌사파<sup>1266</sup> 악진<sup>1267</sup>이요, 우사  
파<sup>1268</sup>는 이전<sup>1269</sup>이며,

수륙응접사<sup>1270</sup>는 하후돈,<sup>1271</sup> 허저,<sup>1272</sup> 장요<sup>1273</sup>라.

수진 발방왈,<sup>1274</sup> ‘관기청착 이청금고 목시정기

가선여마 건적쟁선 동주공명

종도적주면 군법부대 관초고동 기거야.’<sup>1275</sup>

육진에 분부하되, ‘유유소설하면,

적유소시하여, 시여청여라.’<sup>1276</sup>



### 32. (Cao Cao's(曹操) Officers Move.) Cao Cao(曹操) commands his officers, preparing to fight.

[Aniri] The officer cries as said above.

Cao Cao(曹操) sobers up, ponders what he has done, and realizes that he killed a general for nothing.

Worried that his soldiers might be upset, he suddenly orders them to do exercises at night.

[Jajinmori] Today, Mao Jie(毛玠) and Yu Jin(于禁) are in charge of Cao Cao's(曹操) navy.

They tied the warships together, ready to move the troops.

Cao Cao(曹操) is high on an observatory ship, sending signals with a five-colored flag to his army and navy officers.

Mao Jie(毛玠) and Yu Jin(于禁) are in the middle of the navy formation, Wen Pin(文聘) on the left, Zhang He(張郃) on the right,

Xu Huang(徐晃) in the front of the army, Le Jin(樂進) on the left, and Li Dian(李典) on the right.

Xia Jiao Dun(夏侯惇), Xu Chu(許褚) and Zhang Liao(張遼) are communications officers.

Cao Cao(曹操) issues an order to the navy. 'Follow the orders indicated by flags. Listen to gongs with ears and see flags with eyes.

Ride a ship as if you ride a horse. If you see enemies, fight and move forward. Live or die together with your ship.

If you just watch an enemy flee, the military law will not condone you! Let each post hit a drum and move forward!'

He issues an order to the army. 'Take your time and prepares for a war calmly little by little.

Give the impression that we are lenient to enemies. Act as if you were seeing and hearing.

가증여탈되면 적불급거이니 각대정제하여 불허참전 월후하라.’<sup>1277)</sup>  
각응성필<sup>1278)</sup>에 전선<sup>1279)</sup> 품범<sup>1280)</sup>으로 연결하고, 평지<sup>1281)</sup>같이 왕  
래하니,

조조 장대에 높이 앉아 연습을 관망<sup>1282)</sup>할 제,  
방사원<sup>1283)</sup>의 높은 계책 진중에 자랑하니,  
정욱<sup>1284)</sup>이가 여짜오되, “여보, 승상. 즐겨 말고 만일 적군이 불로 치  
면은 어찌 당하리까?”

[아니레] 조조가 ‘하하하하’ 웃고, “자네가 병서<sup>1285)</sup>를 읽지 못한 말이  
로구나.

동설<sup>1286)</sup> 서북풍에<sup>1287)</sup> 동남풍이 있을쏘냐? 내 진은 북진<sup>1288)</sup>이요,  
저놈들 진은 남진<sup>1289)</sup>이라.

만약에 불로 칠 것 같으면은 제놈들 진중이 탈 것이라,<sup>1290)</sup> 반드시  
승리할 묘법이다.”<sup>1291)</sup>

수륙군<sup>1292)</sup> 정돈하여 싸움을 재촉하는데,

### 33. (동남풍 기원) 주유가 조조의 진중을 살펴보며 동남풍 이 없음을 한탄하니, 공명이 남병산에 올라가 동남풍 을 빈다.

[중모레] 그 때에 대장 주유는 남병산<sup>1293)</sup> 높이 올라 지세<sup>1294)</sup>를 가만  
히 살필 적에,

광풍<sup>1295)</sup>이 일어나고 조조 진중 대장기<sup>1296)</sup>가 광풍에 부러지고,  
오진<sup>1297)</sup> 중에 깃발은 주유 면상<sup>1298)</sup>을 치고 가니 화공<sup>1299)</sup>할 징조로  
구나.

If enemies do not chase you when you get out of the enemy camp, get your unit ready for a fight. Don't get involved in the fight. Leave the enemies to the units behind you.

Soldiers take order, tie warships together, and walk on them like on the land.

On a high commanding post, Cao Cao(曹操) watches his soldiers practice.

He boasts of Pang Shi Yuan's(龐士元) strategy of tying ships together.

Cheng Yu(程昱) asks, "Hello, premier. What if the enemy attack us with fire?"

[Aniri] Cao Cao(曹操) laughs. "You say so because you didn't read military books.

How can a southeast wind blow when a northwest wind blows in snowy winter? I am in the north, and they are in the south. A fire attack will backfire on their camp, so this strategy will result in a victory without fail."

Cao Cao(曹操) prepares the navy and the army for a war.

**33. (Pray for a Southeast Wind.) Zhu Yu(朱瑜) laments over the absence of southeast wind, while gazing at Cao Cao's(曹操) camp. Kong Ming(孔明) climbs up Nanping(南屏) Mountain, and prays for a southeast wind.**

[Jungmori] Meanwhile, Zhu Yu(朱瑜) climbs up Nanping(南屏) Mountain and examines the situation.

A strong wind blows. The flagpole of a commander's flag in Cao Cao's(曹操) camp breaks off in the strong wind

A flag in Zhu Yu's(朱瑜) camp hits Zhu Yu's(朱瑜) face and flies away. That is a sign of a fire attack.

육과무계<sup>1300</sup>)하여 한 소리 크게 지르고, 마상<sup>1301</sup>)에서 거꾸러져서 피  
토하고 기절을 한다.

장수들이 달려들어 주유를 모시어다가 대채<sup>1302</sup>)로 옮긴 후에, 주유  
병이 점점 지치어 눕고 낫지를 못하는데,

공명이 자청<sup>1303</sup>)하고 주유의 병을 볼 적에, “양약<sup>1304</sup>)을 먹일지라.”<sup>1305</sup>)

좌우를 물리치고 글을 십육 자 써서 주유에게 주니,

그 글에 하였으되, ‘육과조병인댄 의용화공이니,

만사구비하되 지흠동남풍이라.’<sup>1306</sup>) 써서 놓으니 주유가 절절히<sup>1307</sup>)

탄식한다.

**[아니레]** “바람은 천지조화<sup>1308</sup>)인데 어찌 인력<sup>1309</sup>)으로 하오리까?”

공명이 답왈,<sup>1310</sup>) “모시는 재인이요, 궁달은 하늘이라.”<sup>1311</sup>)

남병산 올라가서 삼일 삼야<sup>1312</sup>)를 동남풍을 비오리다.”

주유 듣고, “군중은 무희언<sup>1313</sup>)이지요.” “예, 어찌 도독을 데리고 희롱  
을 하오리까?

만약에 동남풍을 빌지 못하면 목숨으로 대행기로 군령장<sup>1314</sup>)을 당하  
오리다.”

주유 대희하여<sup>1315</sup>) 공명에게 군령장<sup>1316</sup>)을 받았구나.

**[자진모레]** 공명선생 거동 보소.

오백 장졸<sup>1317</sup>) 거느리고 남병산<sup>1318</sup>) 건너가, 칠성단<sup>1319</sup>) 모으랄  
제,<sup>1320</sup>)

“일백이십 정군인<sup>1321</sup>)은 기를 잡고서 단을 지키어 청령사후<sup>1322</sup>)하라!”

노숙과 병마하고<sup>1323</sup>) 남병산<sup>1324</sup>) 올라가서 칠성단 모으랄 제,

He shouts, saying that he cannot defeat the enemy. He falls from his horse, throws up blood, and passes out.

Generals run to him and escort him to a large castle. His illness gets worse; he lies down and can't get up.

Kong Ming(孔明) voluntarily diagnoses Zhu Yu's(朱瑜) illness. "Give him cold medicine."

After asking the servants to leave, he gives him a note of sixteen letters.

The note reads 'Only a fire attack can demolish Cao Cao's(曹操) troops.

Everything is prepared except a southeast wind.' With the note, Zhu Yu(朱瑜) sighs deeply.

**[Aniri]** "Heaven controls wind. How can a human do something about it?"

Kong Ming(孔明) answers, "A human makes a plan, and heaven makes it work.

Let me climb up Nanping(南屏) Mountain and pray for a southeast wind."

Zhu Yu(朱瑜) responds, "There should not be a joke in the military." "Of course, not. How dare I play with you?"

Let me make a military pledge that if I fail to create a southeast wind, I will be punished to death."

Delighted, Zhu Yu(朱瑜) accepts the pledge from Kong Ming(孔明).

**[Jajinmori]** Behold Kong Ming(孔明)!

Leading 500 officers and soldiers to Nanping(南屏) Mountain, he builds an altar.

"One hundred twenty well-trained troops! Hold flags and wait for my order!"

Climbing up Nanping(南屏) Mountain with Lu Su(魯肅), Kong Ming(孔明) builds an altar.

남방에 붉은 흙을 군사로 취용하여<sup>1325</sup> 삼층단<sup>1326</sup>을 높이 쌓으니,  
방원<sup>1327</sup>은 이십사 장<sup>1328</sup>인데, 각 고<sup>1329</sup>가 삼 척이요, 합고<sup>1330</sup>가  
구 척이라.

하일층<sup>1331</sup> 이십팔수<sup>1332</sup> 각색 기<sup>1333</sup>를 꽃았으니,  
동방 칠면<sup>1334</sup> 청기<sup>1335</sup>에는 각항저방심미기,<sup>1336</sup>  
교룡학호토호표<sup>1337</sup>를 안검<sup>1338</sup>하여 청룡을 그려 꽃고,  
남방 칠면 홍기<sup>1339</sup>에는 정귀유성장익진<sup>1340</sup>  
안양장마녹사인<sup>1341</sup>을 안검하여 홍기를 그려 꽃고,  
서에 백기<sup>1342</sup>를 세웠으되, 서는 경신사구금<sup>1343</sup>이니 규루위묘필자  
삼<sup>1344</sup>을 응하여 백호를 그려 꽃고,  
북에 흑기 세웠으되, 북은 임계일육수<sup>1345</sup>니 두우여허위실벽<sup>1346</sup>을  
해우복서연저유<sup>1347</sup>로 안검하여 흑기를 그려 꽃고,  
한가운데 황신대기<sup>1348</sup>를 세웠으되,  
육도삼략<sup>1349</sup>허고 흑라포<sup>1350</sup> 봉의<sup>1351</sup>와 박대<sup>1352</sup> 주리<sup>1353</sup> 방  
군<sup>1354</sup>을 입히고,  
전좌<sup>1355</sup>의 입일인<sup>1356</sup> 수집장간<sup>1357</sup>하고, 간침상에<sup>1358</sup> 용계우보하  
여 이초풍신하고,<sup>1359</sup>  
후좌<sup>1360</sup>의 일인은 봉보검<sup>1361</sup>하고, 우후<sup>1362</sup>에 일인은 봉향로<sup>1363</sup>  
하고,  
단하에<sup>1364</sup> 이십사인<sup>1365</sup>은 각각 정기<sup>1366</sup> 보개<sup>1367</sup>하라!”  
대극,<sup>1368</sup> 장창,<sup>1369</sup> 황모,<sup>1370</sup> 백월<sup>1371</sup>과 주변<sup>1372</sup> 조독<sup>1373</sup>을 가져  
환요사면<sup>1374</sup>하고,  
차시에<sup>1375</sup> 공명선생 머리 풀고, 발 벗고 단상으로 오르더니, 노숙  
보고 하는 말이,  
“자경<sup>1376</sup>은 군중에 내려가서 조병<sup>1377</sup>함을 도웁고,

Kong Ming(孔明) makes the soldiers build a three-layered altar with red earth from the south.

The altar is 72 meters wide, and each story of the altar is 0.9 meters high. Its height is 2.7m.

There are 28 flags of diverse colors on the first tier.

Blue flags on the seven sides in the east represent seven constellations in the east.

On the blue flags are the figures of a salamander, a dragon, a badger, a fox, a hare, a tiger, and a leopard.

Red flags on the seven sides in the south represent seven constellations in the south.

On the red flags are the figures of a wild dog, a sheep, a deer, a horse, a snake, and an earthworm.

A white flag stands on the west side like a white tiger. On the flag are even constellations representing the principles of nature.

A black flag stands on the north side. On the flag are a mythical lion, a cow, a bat, a mouse, a swallow, a pig and a wolf.

A large yellow flag is erected in the middle of the altar.

In accordance with the classic military book, soldiers put on large clothes made of black silk, wide belts, red shoes, and clothes with four-sided sleeves.

On the left front, a man holds up a long pole. A chicken feather at the end of the pole indicates the direction of the wind.

On the left back, a man holds up a precious sword. On the right back, a man holds up an incense burner.

Twenty four soldiers below the altar hold flags and parasols.” They bring two-branched spears, large spears, yellow flags, white axes, red flags and black flags, forming a circle.

Kong Ming(孔明) unties his hair, takes off his shoes, steps up the altar, and says to Lu Su(魯肅),

“Sir, please go to the camp and help Zhu Yu(朱瑜) train his soldiers.

내가 만일 비는 바에 응합이<sup>1378)</sup> 없어도 괴이함<sup>1379)</sup>을 두지 마오.”  
약속을 한 연후에 장졸에게 분부한다.

“불허천리방위<sup>1380)</sup>하고, 불허실구난언<sup>1381)</sup>하고,  
불허대경소이<sup>1382)</sup>하되, 위령자<sup>1383)</sup>는 참<sup>1384)</sup>하리라!”  
이렇듯 영을 노니<sup>1385)</sup> 일시에 군중이 조용할 적에,  
[아니레] 제상<sup>1386)</sup> 들어 좌면지<sup>1387)</sup> 깔고,  
어동육서<sup>1388)</sup> 좌포우혜,<sup>1389)</sup> 홍동백서<sup>1390)</sup>를 벌여놓고,  
공명선생이 축문<sup>1391)</sup>을 지어 읽는데, 원삼국지<sup>1392)</sup>에는 그 축<sup>1393)</sup>이  
없지마는

옛날 정춘풍<sup>1394)</sup> 선생께서 지어 넣으셨겠다.

“유세차<sup>1395)</sup> 건안<sup>1396)</sup> 십이년 십이월 상보국승록대부<sup>1397)</sup> 장군은 유  
비, 모사<sup>1398)</sup> 제갈량<sup>1399)</sup>은 감소고우.”<sup>1400)</sup>

[중모레] “산천후토<sup>1401)</sup> 일월성신<sup>1402)</sup> 풍우신장<sup>1403)</sup> 화덕진군<sup>1404)</sup> 하  
태<sup>1405)</sup> 녹존<sup>1406)</sup> 성군전에<sup>1407)</sup> 지성<sup>1408)</sup>으로 비읍니다.

한운<sup>1409)</sup>이 불행하여 군이 병기<sup>1410)</sup>하니,  
황건적<sup>1411)</sup> 동탁<sup>1412)</sup> 흉<sup>1413)</sup>과 이각 궤사 난병<sup>1414)</sup>은 천운<sup>1415)</sup>으로  
멀하시고,<sup>1416)</sup>

간신 조조는 빙사정벌<sup>1417)</sup> 이용찬역<sup>1418)</sup>이라.

협천자이령제후<sup>1419)</sup>하되, 소탕자<sup>1420)</sup>는 유비와 손권이라.

오림<sup>1421)</sup>에 백만 응사<sup>1422)</sup>와 삼강구<sup>1423)</sup> 전전감<sup>1424)</sup>



Please don't be puzzled even if my prayer is not answered.”  
After the promise, Kong Ming(孔明) gives an order to the officers and soldiers.

“Don't leave your post at your own will. Don't speak thoughtless words.

You must not be surprised at bizarre things. Anybody disobeying this order will be put to death pursuant to the military law!”

With the order, the multitude is suddenly silent.

**[Aniri]** Kong Ming(孔明) puts a sheet of oiled paper on a ritual table.

Fish are put on the east, meat on the west, dried meat on the left, rice soda on the right, red fruit on the east, and white fruit on the west.

Kong Ming(孔明) reads a written spell. This is not in the original text.

But Jung Chun-pung(鄭春風) composed it into Pansori.

“I hereby begin. In December, 208, General Liu Bei(劉備) and Strategist Kong Ming(孔明) dare speak to you.”

**[Jungmori]** “I conscientiously pray to the gods of the mountain, sky, earth, sun, moon, stars, wind, rain, and fire.

The Han(漢) Dynasty is unlucky that the military revolted against it.

Heaven helped in quelling the Yellow-Hooded Robbers, Dong Zhou(董卓), heinous robbers, Li Jue(李傕), and Guo Si(郭汜). A wicked man, Cao Cao(曹操), repressed other rebellions with his own rebellious force.

He rules over feudal lords by taking advantage of the emperor. Liu Bei(劉備) and Sun Quan(孫權) together might sweep him off the battlefield.

One million strong soldiers are in Wulin(烏林) Forest and in the mouth of the San(三) River.

막비화공<sup>1425</sup>)이면 북진<sup>1426</sup>)은 행남<sup>1427</sup>)하고 남진<sup>1428</sup>)은 행복<sup>1429</sup>)  
 하여,  
 여무동남풍<sup>1430</sup>)이면 실난방화<sup>1431</sup>)니,  
 무감인성<sup>1432</sup>)하여 불시동남풍<sup>1433</sup>)을 삼일만 빌리시면,<sup>1434</sup>) 평천하이  
 령제후<sup>1435</sup>) 한실<sup>1436</sup>)을 회복함을 천만축수<sup>1437</sup>)로 비읍니다.”  
 머리 풀고, 발 벗은 채로 학창의<sup>1438</sup>)를 거듬거듬<sup>1439</sup>) 걷어서 흥  
 당<sup>1440</sup>)에다가 딱 붙이고,  
 가만가만히 자주 걸어 오강변<sup>1441</sup>) 내려가니,  
 강촌<sup>1442</sup>)은 요락<sup>1443</sup>)하고, 샛별<sup>1444</sup>)은 등실등실 지는 달빛 비졌는  
 데,<sup>1445</sup>)  
 오강변<sup>1446</sup>) 내려가니, 그 때에 조자룡<sup>1447</sup>)은 뱃머리 통통<sup>1448</sup>) 내려오  
 더니 두 손 들어 읊<sup>1449</sup>)을 하고,  
 “선생님은 위방진중<sup>1450</sup>)에 평안히 다녀오시니까?” 공명선생 반겨라  
 고<sup>1451</sup>) 손목을 덥석 잡고,  
 “현주<sup>1452</sup>) 평안하시웁고, 제장군줄<sup>1453</sup>)이 무사하오?”  
 그 배에 급히 올라 도용도용<sup>1454</sup>) 떠나간다.

### 34. (조자룡 탄궁)<sup>1455</sup>) 주유가 공명을 죽이려고 서성과 정 봉을 보내니, 조자룡이 활을 쏘아 격퇴한다.

[자진모레] 그 때에 주유와 노숙은, 그 때에 주유와 노숙은 일변<sup>1456</sup>)  
 군관<sup>1457</sup>)을 청래<sup>1458</sup>)하고, 군법으로 영접하고,  
 손권이 응접함<sup>1459</sup>)을 품보,<sup>1460</sup>) 황개 화선<sup>1461</sup>) 이십 척에다 대전<sup>1462</sup>)  
 을 선두<sup>1463</sup>)에 밀포하고,<sup>1464</sup>)

A fire attack will make the soldiers in the north move to the south and the soldiers in the south move to the north.  
Without a southeast wind, it is really hard to set a fire.  
A human cannot create an unseasonable southeast wind. But if it blows for three days, we will bring order to the world, rule over the feudal lords, and restore the Han(漢) Dynasty.  
Kong Ming(孔明) unties his hair, takes off his shoes, picks up his coat, and drapes it across his chest.  
He walks softly and fast to the side of the Wu(吳) River.  
A river village is seen in distance. The morning star is near the setting moon.  
When Kong Ming(孔明) reaches the side of the Wu(吳) River, Zhao Zi Long(趙子龍) jumps off the bow of a boat and greets Kong Ming(孔明).  
“Sir, are you okay in this dangerous enemy camp?” Glad, Kong Ming(孔明) grabs Zhao Zi Long’s(趙子龍) hands.  
“How is His Majesty? Are the officers and soldiers all right?”  
They get on the boat quickly. The boat rocks gently as it leaves.

**34. (Zhao Zi Long(趙子龍) Shoots an Arrow.) Zhu Yu (朱瑜) sends Xu Sheng(徐盛) and Ding Feng(丁奉) to kill Kong Ming(孔明). Zhao Zi Long(趙子龍) repels them by shooting an arrow.**

[Jajinmori] Meanwhile, Zhu Yu(朱瑜) and Lu Su(魯肅) call a meeting of officers, greeting them in accordance with the military law.  
Sun Quan(孫權) issues the order to fight. Huang Gai(黃蓋) leads twenty fire ships. Large arrows are attached along their bows.

화약 염초<sup>1465</sup>) 가득 싣고, 선두에 아기<sup>1466</sup>) 꽃고,  
 선미<sup>1467</sup>)에 소선<sup>1468</sup>) 매고 장졸에게 분부한다.  
 “적용소선<sup>1469</sup>)커든 이아대선<sup>1470</sup>)으로 자고시살<sup>1471</sup>)하고,  
 적선뵈아대선<sup>1472</sup>)커든 아용소선<sup>1473</sup>)은 대시연발<sup>1474</sup>)하라!”  
 그날 밤 삼경야<sup>1475</sup>) 천색<sup>1476</sup>)은 청명하고<sup>1477</sup>) 미풍<sup>1478</sup>)은 부동한  
 데,<sup>1479</sup>)  
 주유 노숙 보고 하는 말이, “공명이 하던 말 허담<sup>1480</sup>)이로구나. 엄동  
 백설<sup>1481</sup>)에 동남풍 있을쏘냐?”  
 노숙이 여짜오되, “공명의 상<sup>1482</sup>)을 보니 사람은 군자<sup>1483</sup>)요, 거짓말  
 을 아니 하니 잠깐 기다려 보사이다.”<sup>1484</sup>)  
 말이 맞들<sup>1485</sup>) 못하여, 말이 맞들 못하여서 바람 소식이 온다. 바람  
 소식이 온다.  
 장막<sup>1486</sup>)이 움직움직,<sup>1487</sup>) 깃발이 펄렁 펄렁 펄렁,  
 주유 대경실색<sup>1488</sup>)하여 장막 밖에 급히 나와 오방<sup>1489</sup>)에 신기<sup>1490</sup>)를  
 바라보니,  
 청룡<sup>1491</sup>) 주작<sup>1492</sup>) 양 깃발이 술해방<sup>1493</sup>)으로 펄렁펄렁. 북풍환작동  
 남풍<sup>1494</sup>)이라.  
 주유가 생각하니, “이 사람의 재주는 귀신도 난측<sup>1495</sup>)이라.  
 만일 오래 두었다 동오<sup>1496</sup>)에 화근<sup>1497</sup>)이로구나. 일찍 죽여 화근을  
 면하리라.”  
 진중에 서성,<sup>1498</sup>) 정봉<sup>1499</sup>) 양 장수 급히 불러,  
 “너 이제 남병산을 나는 듯이 빨리 가서,  
 공명을 만나거든 장단도<sup>1500</sup>) 묻지 말고 한 칼로 목을 텅그렁 베어  
 오너라!”  
 철기<sup>1501</sup>)를 내어주니, 철기를 받아 들고, 양장<sup>1502</sup>)의 거동 보라.

The ships are filled with gunpowder. A commander's flag is set up on the leading ship.

A small boat is tied to the stern of each ship. Huang Gai(黃蓋) gives an order to officers and soldiers.

"If the enemy uses small boats, we will use large ships, stabbing their legs and killing them ruthlessly.

If the enemy attacks our large ships, our small boats will wait for a chance to shoot arrows!"

The sky is clear and bright late at night. Not even a soft wind blows.

Zhu Yu(朱瑜) says to Lu Su(魯肅), "Kong Ming(孔明) told us a lie. How can there be a southeast wind in the snowy cold winter?"

Lu Su(魯肅) responds, "His look indicates that he is virtuous, and he doesn't tell a lie. Let's wait for a while."

Before Lu Su(魯肅) finishes his words, a wind begins to blow. Tents move, and flags flutter.

Petrified, Zhu Yu(朱瑜) gets out of the tent quickly and perceives a mysterious energy in the four directions and in the middle. The flags of the blue dragon and the red phoenix flap towards the northwest. A north wind turns into a southeast wind.

Zhu Yu(朱瑜) thinks to himself, "Even a god can't guess what Kong Ming(孔明) can do.

If he is left alone, he will be a source of trouble to Wu(吳) Country. I'll get rid of the future trouble in advance."

He calls Xu Sheng(徐盛) and Ding Feng(丁奉) quickly.

"Go to Nanping(南屏) Mountain as fast as you can.

If you encounter Kong Ming(孔明), cut his head off with a single slash without thinking and bring his head here."

He gives them iron weapons. They take them. Behold the two generals,

서성은 배를 타 수로로 쫓고, 정봉은 말을 달리어 남병산 올라갈 제,  
 영기대<sup>1503</sup> 차일<sup>1504</sup> 장막<sup>1505</sup>은 바람결에 훨훨 풍기어서<sup>1506</sup> 거  
 중<sup>1507</sup>에 떠나가고,  
 화극<sup>1508</sup> 조화<sup>1509</sup> 삼두창<sup>1510</sup>은 백일<sup>1511</sup>이 냉랭할 제,<sup>1512</sup> 크게 부  
 는 동남풍에 깃대 지끈 부러지고,  
 끈 떨어진 차일 장막 벽공<sup>1513</sup>에 떠나갈 적에,  
 공명은 간 데 없고 기 잡은 군사들이 이리저리 엮혔구나.<sup>1514</sup>  
 서성, 정봉 호통한다. “이놈, 군사야!” “예이.”  
 “공명이 어데 가더냐?”  
 저 군사 여짜오되, “선생이 바람을 얻으시고, 머리 풀고, 발 벗고 저  
 너머로 가더이다.”  
 양장이 그 말 듣고 날랜 창을 빼어들고 오강 어귀로 내려갈 제,  
 강촌은 요락<sup>1515</sup>하고, 샛별은 등실등실, 지는 달빛 비졌는데  
 오강변<sup>1516</sup> 내려가니, 원근<sup>1517</sup> 창파강상<sup>1518</sup>에 가는 배 전혀 없고,  
 대추풍경<sup>1519</sup> 어르렁 충천창파<sup>1520</sup>로다. 수줄<sup>1521</sup>이 들어 보고한다.  
 수줄이 보고한다.  
 “작일<sup>1522</sup> 일모시,<sup>1523</sup> 작일 일모시 갑주<sup>1524</sup>한 일원<sup>1525</sup> 대장 조그  
 마한 일엽편주<sup>1526</sup> 강구<sup>1527</sup>에 빚겨<sup>1528</sup> 매고,  
 이마 위에 손을 얹고 남병산을 바라보고  
 좌불안석<sup>1529</sup>을 하웁기에 만단의심<sup>1530</sup>을 하웁기를,  
 양양강수<sup>1531</sup> 맑은 물 고기낚는 어선배,  
 십리장강벽파상<sup>1532</sup>에 왕래하는 거루선,<sup>1533</sup>

Xu Sheng(徐盛) goes by a boat on a waterway. Ding Feng(丁奉) climbs up Nanping(南屏) Mountain, riding a horse.

A commander's flag, parasols, and tents fly away in the air by the wind.

When it is clear and cold, a figured spear and a three-forked spear get broken by the strong southeast wind.

Parasols and tents whose strings are untied fly away into the blue sky.

Kong Ming(孔明) has gone. Soldiers holding flags are lying on the ground.

Xu Sheng(徐盛) and Ding Feng(丁奉) shout at them. "Hey, soldiers!" "Yes."

"Where did Kong Ming(孔明) go?"

A soldier answers, "After he called up the wind, he went over there with his hair untied and with his feet bare."

After hearing the soldier, the two generals quickly hold out their spears and go to the mouth of the Wu(吳) River.

A river village is seen from the distance. The morning star is close to the setting moon.

They come down the side of the Wu(吳) River. There is no single ship in close or distant places of the blue river.

The scenery awaits autumn. The waves of the water are high. A sailor reports to the two generals.

"At sunset yesterday, a warrior wearing a helmet and armor tied a small boat at the dock of the river.

Putting his hand on his forehead, he looked at Nanping(南屏) Mountain.

I was suspicious of him because he was ill at ease.

I thought it might be a fishing boat on the clear water of a wide river,

a traveling boat on the Yangzi(揚子) River,

동강칠리탄<sup>1534</sup>) 엄자룻<sup>1535</sup>)의 낚싯배,  
 시절이 요란하니<sup>1536</sup>) 화약 실러 가는 배, 만단<sup>1537</sup>) 의심하였더니,  
 뜻밖에 어떤 사람 머리 풀고, 발 벗은 채, 학창의<sup>1538</sup>)를 걷어 안고  
 가만가만히 내려올 적에,  
 뜻밖에 배 안에서 일원<sup>1539</sup>)대장이 나오는데,  
 얼굴은 형산<sup>1540</sup>) 백옥<sup>1541</sup>)같고, 눈은 소상강<sup>1542</sup>) 물결이라.  
 한 번 보기 끔찍하고, 두 번 보기 기막힌 장수와  
 서로 손목을 부여잡고 고개를 까딱까딱하고, 귀에 대고 뵈이라고 소  
 근소근, ‘희희 하하’ 웃음 웃고 금방 떠났소이다.”  
 “웁다! 공명이다. 사공을 불러라!”  
 사공을 불러들여, “이놈 사공아! 말 들어라. 공명의 탄 배가 멀리 못  
 갔으니,  
 만약 이 배를 더우<sup>1543</sup>) 저어 공명을 못 잡으면, 태과<sup>1544</sup>)한 내 분  
 심<sup>1545</sup>)이 이 창으로 네 목을 푹 찔러 강상에 풍 던져놓으면,  
 네 백골<sup>1546</sup>)을 어느 누가 찾을쏘냐? 바빠 저어라!”  
 사공이 그 말 듣고, “어따,<sup>1547</sup>) 야들야. 까딱까딱하다가는<sup>1548</sup>) 우리가  
 모두 다 물귀신이 되겠네그려. 어기야 어기야 어기야.”  
 가뭇가뭇<sup>1549</sup>) 보이는데, 해상<sup>1550</sup>)에 뗏는 배 공명탄 배가 분명쿠나.  
 서성 정봉 크게 웨어,<sup>1551</sup>) “저기 가는 공명선생! 가지 말고 예<sup>1552</sup>)  
 머물러 나의 한 말을 듣고 가오!  
 우리 나라 주도독<sup>1553</sup>)이 친히 할 말이 있다하고 잠깐 청래<sup>1554</sup>)하오.”  
 공명이 ‘하하’ 웃고, “나는 유고<sup>1555</sup>)가 있어 본진<sup>1556</sup>)으로 돌아가니,  
 이 좋은 동남풍 때 잃지 말고 후일 상봉을 기다리라 회보하시오.”<sup>1557</sup>)  
 양장이 듣지 않고 거품거품<sup>1558</sup>) 쫓아오니,



Yan Zi Ling's(嚴子陵) fishing boat on a rapids,  
 a boat going to bring gunpowder given the troubled times.  
 Suddenly, a man came down slowly with his hair untied and  
 with his feet bare, carrying a coat.  
 To my surprise, a warrior came out of the boat.  
 His face looked like jade from Jing(荊) Mountain. His eyes  
 looked like the water of the Xiaoxiang(瀟湘) River.  
 I was scared to look at the general once and stunned to look  
 at him twice.  
 They grabbed each other's hands, nodded to each other,  
 whispered into each other's ears, laughed, and left immediately."  
 "Yes! He is Kong Ming(孔明). Call a boatman!"  
 They call a boatman. "Look, boatman! Kong Ming's(孔明) boat  
 is not far away from here.  
 If you row this boat slowly and fail to catch up with Kong Ming  
 (孔明), I'll be angry, pierce your neck with this spear, and throw  
 your head into the water.  
 And who will find your white bones? Row this boat quickly!"  
 The boatman responds, "Gosh! Hey folks! If things go wrong,  
 we might become the ghosts of the water. Yo-ho! Yo-heave-ho!"  
 Kong Ming(孔明) must be on a boat flickering in the distant  
 place of the water.  
 Xu Sheng(徐盛) and Ding Feng(丁奉) shout loudly. "Hi there,  
 Kong Ming(孔明)! Stay where you are and listen to me for a  
 moment!  
 Zhu Yu(朱瑜) is calling you because he wants to talk with you  
 in person."  
 Kong Ming(孔明) laughs. "I have special reason to go back to  
 my camp. Don't lose your opportunity in this good southeast  
 wind. Tell him to wait for a future occasion."  
 The two generals ignore what Kong Ming(孔明) says, continuously  
 chasing him.

자룡이 거동 보아라. 분기<sup>1559</sup>)가 탕천하여<sup>1560</sup> 선미<sup>1561</sup>)에 우뚝 서서,  
“서성, 정봉 네 들어라.

우리 선생 높은 재주 너의 나라로 건너가서 유공<sup>1562</sup>)하고 오시는데,  
주도독은 어떠한 놈으로 우리 선생을 살해코저<sup>1563</sup>) 너희들을 보내더  
냐? 내 소문을 못 들었나?

산양수 큰 싸움<sup>1564</sup>)에 조맹덕의 팔십만병 팔공산 초목 치듯<sup>1565</sup>) 내  
손으로 다 죽였는데,

네 조그만한 일엽선<sup>1566</sup>)을 내가 어찌 성케<sup>1567</sup>) 두랴?

우리 현주<sup>1568</sup>) 명을 받아서 선생님을 뒤흔는데,

네 감히 쫓아오니 너를 죽여 마땅하되,

양국 화친<sup>1569</sup>)을 생각하여 죽이든 앓거니와 나의 수단<sup>1570</sup>)이나 네  
보아라!”

장궁<sup>1571</sup>) 철전<sup>1572</sup>)을 맥여<sup>1573</sup>)들고, 흥허복실<sup>1574</sup>) 싯붓으며,<sup>1575</sup>)

비정비팔<sup>1576</sup>)에 대투<sup>1577</sup>)를 숙이고, 깍지손<sup>1578</sup>) 따르르 꿰어 귀밑  
을 아씩,<sup>1579</sup>)

좁통<sup>1580</sup>)이 터지거라<sup>1581</sup>) 주먹을 꼭 쥐고, 앞뒤가 노짱게<sup>1582</sup>) 귀밑은  
병평,<sup>1583</sup>)

좁 앞날까, 좁 뒤날까<sup>1584</sup>) 깍지손을 떼뜨리니,<sup>1585</sup>)

번개같이도 가는 살 수루루<sup>1586</sup>) 덩실 떠들어가 서성,<sup>1587</sup>) 정봉<sup>1588</sup>)

탄 배 돛대 중동<sup>1589</sup>) 딱 맞아 ‘와지끈’ 부러져,

물에 가 풍 떨어지고, 오던 배 가로서서 뱃머리 빙빙 돌아 월그렁  
출렁<sup>1590</sup>) 떠나간다.

Behold Zhao Zi Long(趙子龍). Exasperated, he stands up high on the bow.

“Xu Sheng(徐盛) and Ding Feng(丁奉), listen!

Talented Kong Ming(孔明) is coming back after performing a feat for your country.

Who is Zhu Yu(朱瑜) to send you two to murder him? Haven't you heard about me?

I killed Cao Cao's(曹操) 800,000 soldiers in the Changban(長坂) Battle like an ancient Chinese king cut the trees and grass of Bagong(八公) Mountain.

Why would I leave your small boat in tact?

I am protecting Kong Ming(孔明) with Liu Bei's(劉備) order.

Given you dare chase us, you deserve to die.

But I won't kill you for the rel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Just watch my skill!”

Zhao Zi Long(趙子龍) loads a large bow with an iron arrow, breathes out, and contracts his belly muscles.

He spreads his legs and turns his head down. He puts on a band on his thumb, feeling cold around his ears.

After holding the center of the bow firmly with his fist, he fixes the arrow and pulls the bowstring to his ear.

After calculating the distance, he releases his thumb.

The arrow flies fast, hitting the middle of the mast of Xu Sheng(徐盛) and Ding Feng's(丁奉) boat.

The mast falls into the water. The oncoming boat turns its bow around and goes back along with the current of the water.

### 35. (주유와 공명, 제장 분발) 주유는 적벽강 불지를 차비를 하고, 공명은 여러 장수들에게 임무를 맡긴다.

[중모레] 서성, 정봉 혼이 나서 겁주하여<sup>1591</sup>) 달려와서 그 사연을 회보하니,<sup>1592</sup>

주유가 듣고 대경<sup>1593</sup>)하여, “천하의 영웅이라. 조조를 먼저 치고서 현덕을 후도<sup>1594</sup>)로 도모하자.”

약속을 한 연후에 수륙군<sup>1595</sup>) 정돈하여 싸움을 재촉할 제, 주유가 삼국 영장<sup>1596</sup>) 중에 수전<sup>1597</sup>)은 제일 명장인데, 감녕<sup>1598</sup>)은 채충 항줄<sup>1599</sup>) 거느리고, 조조 진중에 들어가서 거화위호<sup>1600</sup>)하고,

전영의<sup>1601</sup>) 태사자<sup>1602</sup>) 우영<sup>1603</sup>) 동습<sup>1604</sup>) 반장<sup>1605</sup>) 등은 각처 수륙군<sup>1606</sup>) 매복<sup>1607</sup>)하고,

병영관<sup>1608</sup>) 제일대<sup>1609</sup>) 한당<sup>1610</sup>)이요, 제이대<sup>1611</sup>)는 주태<sup>1612</sup>)요, 제삼대<sup>1613</sup>) 장흠<sup>1614</sup>)이요, 제사대<sup>1615</sup>) 진무<sup>1616</sup>) 등은 삼백 전선 파열<sup>1617</sup>)하고

상부도독<sup>1618</sup>) 서성, 정봉, 선봉장<sup>1619</sup>)에 육손<sup>1620</sup>)이라.

주유가 장중<sup>1621</sup>)에 호령한다. “병법에 이르기를 승화연여운하여 일제 응진하였으니,<sup>1622</sup>

황개<sup>1623</sup>) 화선<sup>1624</sup>) 보아 각선에<sup>1625</sup>) 청후하라!”<sup>1626</sup>)

이렇듯이 분별을 하여서 각처로 모두 다 보낼 적에,

35. (Zhu Yu(朱瑜) and Kong Ming(孔明) Get thier Officers Ready for War.) Zhu Yu(朱瑜) prepares to burn the Cao Cao's(曹操) warships on the Chibi (赤壁) River. Kong Ming(孔明) assigns tasks to his generals.

[Jungmori] Startled, Xu Sheng(徐盛) and Ding Feng(丁奉) return to their camp and report what happened to Zhu Yu(朱瑜).

Zhu Yu(朱瑜) is astonished. "Kong Ming(孔明) is a rare hero. I'll get rid of Cao Cao(曹操) first and then Liu Bei(劉備)."

He makes a promise to himself and gets the navy and the army ready for war.

Zhu Yu(朱瑜) is the best general among the three countries in naval warfare.

Leading Cai Zhong(蔡中) and the prisoners of war, Gan Ning(甘寧) enters Cao Cao's(曹操) area and sends a signal with a torch. Tai Shi Ci(太史慈) is in the front. Dong Xi(董襲) and Pan Zhang(潘璋) are on the right. The naval and army troops lie in ambush everywhere.

Han Dang(韓當) is the officer in charge of the first unit. Zhou Tai(周泰) is in charge of the second unit.

Jiang Qin(蔣欽) is in charge of the third unit. Chen Wu(陳武) is in charge of the fourth unit. 300 warships stand in line.

Cheng Xu Sheng(徐盛) and Ding Feng(丁奉) are high officers. Lu Xun(陸遜) is the vanguard officer.

Zhu Yu(朱瑜) gives a stern order in his place. "Military strategy says that we have to move when fire and smoke rise up like a cloud.

Each ship has to keep an eye on Huang Gai's(黃蓋) fire ship and wait for an order!"

Zhu Yu(朱瑜) assigns missions to his troops as said above.

[진양조] 그 때여 공명선생 일엽편주<sup>1627</sup> 빨리 몰아 하구에 당도하야  
 현덕과 상면<sup>1628</sup>하고,  
 장대<sup>1629</sup>에 높이 앉아 제장 불러서 분발<sup>1630</sup>한다.  
 상산 땅의 조자룡<sup>1631</sup> 불러서, “그대는 삼천군 거느리고 오림<sup>1632</sup>산  
 에 복병을 하였다가,  
 조조 대군이 지나거든 불을 놓아<sup>1633</sup> 엄살<sup>1634</sup>하라.”  
 거기장군<sup>1635</sup> 장비를 부르더니, “그대는 삼천군 거느리고 호로곡<sup>1636</sup>  
 에 가 복병을 하였다가,  
 조조 대군이 지나거든 불을 놓아 엄살하라.”  
 미방,<sup>1637</sup> 미축,<sup>1638</sup> 유봉,<sup>1639</sup> 관평<sup>1640</sup>을 부르더니,  
 “그대는 각각 전선을 타고, 강상<sup>1641</sup>에 멀리 뗏다가 조조 기계<sup>1642</sup>를  
 앗아오너라.”  
 약속하여 분발할 적에 기치와 창검<sup>1643</sup>은 일월을 희롱하고,<sup>1644</sup> 고각  
 성<sup>1645</sup>은 천지를 움직이는구나.

### 36. (관운장 항의) 관운장이 전투에서 빠지자 공명에게 조 조를 사로잡아 올 것을 다짐한 후 화용도로 행군한다.

[엇모래] 한 장수 나온다. 한 장수 나와. 저 장수 거동을 보아라.  
 얼굴은 무른<sup>1646</sup> 대추빛<sup>1647</sup> 같고, 삼각수<sup>1648</sup>를 거사리고,<sup>1649</sup>  
 봉<sup>1650</sup>의 눈 부릅뜨고, 적토마<sup>1651</sup>에 두렷이<sup>1652</sup> 앉아,

[Jinyangjo] Meanwhile, Kong Ming(孔明) moves his sailing boat fast, arrives at Xiakou(夏口), and meets with Liu Bei(劉備). He sits high on the commanding post, calling his officers and assigning missions.

Kong Ming(孔明) calls Zhao Zi Long(趙子龍) from Changshan(常山). “You, lead three thousand soldiers and lie in ambush in Wulin(烏林) Forest.

If Cao Cao’s(曹操) soldiers pass by, set fire to them and kill them.”

Kong Ming(孔明) calls the great general, Zhang Fei(張飛). “You, lead 3,000 soldiers and hide in ambush in Hulu(葫蘆) Valley. If Cao Cao’s(曹操) troops pass by, burn them to death.

Kong Ming(孔明) calls Mi Fang(糜芳), Mi Zhu(糜竺), Liu Feng(劉封), and Guan Ping(關平).

“You, stand by on the warships on the river away from here. Deprive Cao Cao’s(曹操) troops of their weapons and bring them here.”

As they prepare for war, their flags, spears, and swords outshine the lights of the sun and the moon. The sounds of drums and trumpets quake the world.

**36. (Guan Yu(關羽) Complains.) With no mission assigned to him, Guan Yu(關羽) pledges to catch Cao Cao(曹操) alive, and marches to Huarong(華容) Road.**

[Eonmori] A general comes out. Behold the general.

His face is red like a mature jujube. His whiskers and beard form a triangle whose goes up.

He opens his eyes wide which look like those of a phoenix. He sits high on his red horse.

청룡도<sup>1653</sup>) 질질 끌고, 우레같은 고향소리 천둥같이 뒤지르며,<sup>1654</sup>  
“형장<sup>1655</sup>)을 모시고서 진중을 다녀도 군사 쓰는 법이 실수함이 없었  
는데,

오늘날 선생께서 소장<sup>1656</sup>)을 안 보내시니 죽기만 못하외다.”<sup>1657</sup>  
공명선생 하는 말, “장군을 논지하면<sup>1658</sup>) 용맹이 절륜<sup>1659</sup>)하고, 지혜  
가 무궁무진<sup>1660</sup>)한 줄은 내 이미 알지마는,  
그대 합비<sup>1661</sup>)에 패를 만나<sup>1662</sup>) 조조 진중에 들어가서 전공<sup>1663</sup>)이  
있는 고로,

이번 소임은 정치<sup>1664</sup>) 얹으니 허물치<sup>1665</sup>) 마사이다.”<sup>1666</sup>)

[아니레] 운장이 여짜오되, “재연후 지경중이요, 도연후 지장단이  
라.”<sup>1667</sup>)

군중에 무슨 사정<sup>1668</sup>)을 두오리까?

만일에 군중에 사정을 두고 조조를 잡고 도로 농사오면, 소장이 목숨  
으로 대령키로<sup>1669</sup>) 군령장<sup>1670</sup>)을 당하오리다.”

군령장에 하였으되, ‘살등<sup>1671</sup>) 소장<sup>1672</sup>) 관모<sup>1673</sup>)는 지별이 수미  
나<sup>1674</sup>) 충의는 진성이라,<sup>1675</sup>)

도원<sup>1676</sup>) 결의<sup>1677</sup>)하니 망사생지동심이요,<sup>1678</sup>)

전장출이간고하니<sup>1679</sup>) 불위기령이갈력이라.<sup>1680</sup>)

기병이공토하니<sup>1681</sup>) 방조이하착고?<sup>1682</sup>)

여피소아생금함이 무이탐낭취물이니,<sup>1683</sup>)

약이위령이옉거든,<sup>1684</sup>) 상고<sup>1685</sup>) 처치 의당사라.”<sup>1686</sup>) 착함<sup>1687</sup>)이 분  
명하지.

공명이 하는 말이, “장군은 화용도<sup>1688</sup>) 좁은 길에 산에 불을 놓고,  
조조를 유인해서 잡아오시오.”



He drags his Blue Dragon Sword and hollers like thunder.  
“I have been to many battlegrounds with my brother, never making a mistake in my use of soldiers.  
Today, you don’t send me to the battleground. I would rather die.”

Kong Ming(孔明) responds, “As for you, I know you are exceptionally brave and infinitely wise.

Defeated in Hefei(合肥), you went to Cao Cao’s(曹操) area and received benefits from him.

Therefore, I didn’t assign any mission to you this time. Please don’t blame me.”

[Aniri] Guan Yu(關羽) responds, “We can know the weight of a bag and the length of a thing only after we measure them.”  
How can I act on a personal feeling as a soldier?

I make a military pledge that if I act on a personal feeling and release Cao Cao(曹操) after catching him, I will be put to death.”  
The pledge reads, “I, Guan Yu(關羽), am a man of low status, but my loyalty and fidelity are high.

I made the firm resolution in a peach orchard that we lived and died together.

I suffered from all sorts of hardships in wars, obeying orders and doing my best.

We raised an army and quelled an enemy together. How can I set Cao Cao(曹操) free and come back?

To catch Cao Cao(曹操), a small child, is as easy as finding something in a pocket.

If I disobey your order, I’ll report to my boss and be put to death.” Guan Yu(關羽) signs clearly.

Kong Ming(孔明) says, “General, set fire to the mountain top above narrow Huarong(華容) Road. Lure Cao Cao(曹操) there and bring him here alive.”

운장이 하는 말이, “남군<sup>1689</sup>)으로 가는 길에 이릉<sup>1690</sup>)과 그 사이에  
 좁은 화용도가 있고, 또 대로<sup>1691</sup>)가 있사운데,  
 만일 조조가 그 산에 연기를 보고서 대로로 도망가면 어찌하오리까?”  
 공명 하는 말이, “장군이 조조와 친하지마는 그 간사한 것은 모르오.  
 내가 저마냥으로<sup>1692</sup>) 소로<sup>1693</sup>)에 복병해놓고 대로에는 비워냈다고,  
 그리 오다가 잡힐 테니,  
 만일 나도 조조가 소로로 오지 않고 대로로 도망을 가면 군령장<sup>1694</sup>)  
 에 다짐을 두오리다.”

[회포레] 관운장 거동보소. 군령장 다짐 쓰고 청도<sup>1695</sup>)로 들어간다.

청도 한 쌍, 홍문<sup>1696</sup>) 한 쌍, 동남각,<sup>1697</sup>) 동북각,<sup>1698</sup>)

청고초 청문<sup>1699</sup>) 한 쌍, 주작,<sup>1700</sup>) 남동각,<sup>1701</sup>)

남서각,<sup>1702</sup>) 홍고초,<sup>1703</sup>) 홍문<sup>1704</sup>) 한 쌍, 현무,<sup>1705</sup>)

북동각,<sup>1706</sup>) 북서각,<sup>1707</sup>) 흑고초,<sup>1708</sup>) 흑문<sup>1709</sup>) 한 쌍,

백호,<sup>1710</sup>) 서남각,<sup>1711</sup>) 서북각,<sup>1712</sup>) 백고초,<sup>1713</sup>) 백문<sup>1714</sup>) 한 쌍,

황신,<sup>1715</sup>) 표미,<sup>1716</sup>) 금고<sup>1717</sup>) 한 쌍, 나<sup>1718</sup>) 한 쌍,

적<sup>1719</sup>) 한 쌍, 고<sup>1720</sup>) 두 쌍, 새납<sup>1721</sup>) 두 쌍, 기패관<sup>1722</sup>) 두 쌍,

군뢰직열<sup>1723</sup>) 두 쌍, 좌마<sup>1724</sup>) 독<sup>1725</sup>)이요,

난후,<sup>1726</sup>) 친병,<sup>1727</sup>) 교사<sup>1728</sup>) 당보<sup>1729</sup>) 각 두 쌍이다.

통괘 재르르 이리 좌우로 가는 거동,

Guan Yu(關羽) speaks, “There are Yi Ling(彝陵), narrow Huarong(華容) Road, and a wide road on the way to the south. What if Cao Cao(曹操) flees to the wide road after seeing the smoke on the mountain?”

Kong Ming(孔明) responds, “You are in good terms with Cao Cao(曹操), but you don’t know that he is wicked.

He will suppose that I will place ambush on a small road as he would, and that I will leave the wide road unmanned. He will come to the narrow road and be caught.

I also make a military pledge that I will be punished if he does not come to the narrow road and flees instead to the wide road.”

**[Hwimori]** Behold Guan Yu(關羽). After signing the military pledge, he marches along with

a pair of cheongdoes(淸道), a pair of hongmuns(紅門), dongnamgak(東南角), dongbuggak(東北角),

cheonggocho(靑縞綃), a pair of cheongmuns(淸門), jujak(朱雀), dongnamgak(南東角),

namseogak(南西角), honggocho(紅縞綃), a pair of hongmuns(紅門), hyeonmu(玄武),

dongbukkak(北東角), bukseokak(北西角), heuggocho(黑縞綃), a pair of heungmuns(黑門),

baeko(白虎), seonamgak(西南角), seobukkak(西北角), baeggocho(白縞綃), a pair of baengmuns(白門),

hwangsin(黃神), pyomi(豹尾), a pair of geumgos(金鼓), a pair of brass instruments,

a pair of flutes, two pairs of drums, two pairs of instruments, two pairs of training officers,

two pairs of prison guards, an extra horse, a commander’s flag, two pairs of guards in the back, two pairs of royal guards, two

pairs of training officers, and two pairs of scouts.

Behold how they march in a formation.

기색<sup>1730</sup>)은 영웅이라. 현덕 공명 칭찬하고,  
주유 용병<sup>1731</sup>) 간심차로<sup>1732</sup>) 번구<sup>1733</sup>)에 올라가니 동남풍이 대기로  
다.<sup>1734</sup>)

### 37. (화공) 황개가 조조의 진영에 불을 지르자 싸움터는 온 통 이수라장이 되고, 조조는 패하여 도망한다.

[아니리] 동남풍이 그저 훽훽 부니 정욱이 꺾적지근해서,<sup>1735</sup>)  
“승상님, 들어보십시오. 동남풍이 일어났사오니 미리 저방<sup>1736</sup>)하사  
이다.”

조조가 ‘하하하’ 웃더니만, “네가 병서<sup>1737</sup>)를 읽지 못한 말이여.  
동지 후에는 일양이 생<sup>1738</sup>)이라 하였으니, 동남풍은 가지<sup>1739</sup>)로다.  
너무 의심하지 말라.”

이렇듯이 분부하고, 황개<sup>1740</sup>) 약속을 기다릴 제,  
[중모레] 그 때에 대장 황개는 이십 택선<sup>1741</sup>) 거느리고,  
청룡아기<sup>1742</sup>) 선기상<sup>1743</sup>)에 ‘선봉대장<sup>1744</sup>) 황개’라 두렷이<sup>1745</sup>) 그려  
꽃고,  
청포장<sup>1746</sup>)을 검게 덮고,  
오강<sup>1747</sup>) 어귀<sup>1748</sup>) 바람 맞춰 조조 진중을 바라보고 은은하게<sup>1749</sup>)  
떠들어오니,<sup>1750</sup>)

조조가 보고서 좋아라고, “하하하하, 저기 오는 저 배 보아라.  
황공복<sup>1751</sup>)이 나를 위해 양초<sup>1752</sup>)를 싣고 오는 배니, 하늘이 나를 도  
움이라.

정욱아, 정욱아, 정욱아, 정욱아. 저기 오는 저 배 보아라.”

Guan Yu(關羽) looks like a hero. Liu Bei(劉備) and Kong Ming(孔明) praise him.

Zhu Yu(朱瑜) moves to Fankou(樊口) to look around. A southeast wind is strong.

**37. (Fire Attack) As Huang Gai(黃蓋) sets fire to Cao Cao's(曹操) ships, the battleground turns into chaos and Cao Cao(曹操) flees.**

[Aniri] As a southeast wind blows hard, Cheng Yu(程昱) is worried.

“Premier, look. A southeast wind blows. Let’s take an action in advance.”

Cao Cao(曹操) laughs. “You say so because you didn’t read any military books.

The day gets longer after the winter solstice. The southeast wind is expected. Don’t worry about it.”

After saying that, Cao Cao(曹操) waits for Huang Gai(黃蓋) to show up as promised.

[Jungmori] Just then, Huang Gai(黃蓋) comes, leading twenty fire ships.

He carries a blue dragon flag which clearly reads: ‘Huang Gai(黃蓋), the vanguard officer.’

His ship are covered with blue cloth.

Huang Gai(黃蓋) moves to Cao Cao's(曹操) area slowly with the help of the wind from the mouth of the Wu(吳) River.

Cao Cao(曹操) is exuberant. “Hahaha. Look at that ship over there.

Huang Gai(黃蓋) is coming to me with the food for men and horses. Heaven is helping me.

Cheng Yu(程昱), look at that ship over there.”

의기가 양양하야 어찌할 줄을 모르는구나.

[자진모래] 정옥이 여짜오되, 정옥이 여짜오되, “여보 승상님, 너무 즐거 마시고 저 배를 바라보오.

군량<sup>1753</sup>) 실은 배량이면<sup>1754</sup>) 물에 잠겨 놀<sup>1755</sup>) 터이고, 선중<sup>1756</sup>)이 온중<sup>1757</sup>)한데,

등당실 높이 떠 요요하고<sup>1758</sup>) 범류하니,<sup>1759)</sup>

만일 간교<sup>1760</sup>) 있으면 어찌 당하리까?”

조조가 그 말에 얼른 깨달으며, “여보아라, 장졸들아. 뉘가 가서 저 배를 못 오게 막을쏘냐?”

장하<sup>1761</sup>)에 한 장수가 장창<sup>1762</sup>)을 빼어 들고, “예. 이놈 소장<sup>1763</sup>)이 막소리다.”<sup>1764)</sup>

조조가 자세히 보니 문빙<sup>1765</sup>)이로다.

문빙이 거동 보아라. 장창에 대검<sup>1766</sup>)을 빼어 들고,

소선<sup>1767</sup>)에 뛰어 내려

한 손에 상앗대<sup>1768</sup>)를 잡고, 또 한 손에 장창, 검 들고 바빠 저어 쫓아가며,

“저 배가 어데<sup>1769</sup>) 배여? 저 배가 어데 배여?”

감감.<sup>1770</sup>) 지금 곧 불 지르러 오는 배니 대답할 수가 있겠느냐?

“저 배가 어디 배여?”

말이 맞들<sup>1771</sup>) 못하야 황개 거동 보라.

활에 살을 메겨<sup>1772</sup>) 들고 각지손<sup>1773</sup>)을 떼뜨리니,<sup>1774)</sup>

가련하다 문빙<sup>1775</sup>)이 가슴에 살을 맞고 배 아래 꺼꾸러져 물에 가 풍 떨어지고,

황개<sup>1776</sup>) 화선 이십 척에다 불을 모두 땡겨노니,<sup>1777)</sup>

불은 바람의 힘을 빌고, 바람은 불을 도와 살같이<sup>1778</sup>) 달려들으며,

Elated, he is beside himself.

**[Jajinmori]** Cheng Yu(程昱) speaks, “Hello, premier. Don’t be too excited. Look at that ship carefully.

If the ship were loaded with food, it should be submerged in the water, and its middle should be massive.

But it floats high, moving left, right, and along with the waves. What if it involves a wicked plan?”

Cao Cao(曹操) quickly realizes something. “Hey officers and soldiers! Who wants to block that ship?”

An officer under a tent pulls out a long spear. “Yes. Let me block it.”

Cao Cao(曹操) takes a hard look at him. He is Wen Pin(文聘). Behold Wen Pin(文聘). He pulls out a long spear and a long sword.

He jumps down onto a small boat,

Holding a long oar in the one hand, and the long spear and the long sword in the other hand, he chases Huang Gai’s(黃蓋) ship fast.

“Which side are you on?”

There is no answer. How can there be an answer when it is coming to set fire to Cao Cao’s(曹操) ships?

“Which side are you on?”

Before Cao Cao’s(曹操) finishes the sentence, Huang Gai(黃蓋) moves.

He loads a bow with an arrow and releases the arrow with his thumb.

Shot in the chest, poor Wen Pin(文聘) falls into the water upside down under the boat.

Huang Gai(黃蓋) sets fire to twenty fire-ships.

Fire is helped by the wind, and the wind helps the flames to move fast.

‘뛰뛰뛰’ 나발<sup>1779)</sup> 소리, ‘두리둥둥’ 북을 치며,  
 번개같이 달려들며 한 번 불이 버쩍,<sup>1780)</sup> “적벽강에 불이야!”  
 두 번 불이 버쩍, “적벽강에 불이야!”  
 한 번 웨는<sup>1781)</sup> 소리 우주가 바뀌는 듯, 불을 지르니 강상이 우루루,  
 물결은 출렁출렁, 전선<sup>1782)</sup>은 뒤뚱뒤뚱,  
 돛대 와지끈 부러지고, 삼판나리,<sup>1783)</sup> 노사옥대<sup>1784)</sup>가 배 아래 거꾸  
 러져,  
 기치<sup>1785)</sup> 펄펄, 장막,<sup>1786)</sup> 화전,<sup>1787)</sup> 궁전,<sup>1788)</sup> 방패, 거말장,<sup>1789)</sup> 마  
 림쇠<sup>1790)</sup>가 배 아래로 거꾸러져 풍파강상<sup>1791)</sup> 화광<sup>1792)</sup>중에 덩덩실  
 떠나간다.  
 황개 제장<sup>1793)</sup> 일등무사<sup>1794)</sup> 여덟 팔자로 빗겨<sup>1795)</sup> 서서 편전<sup>1796)</sup>을  
 따르르르,  
 귀밑을 아씩,<sup>1797)</sup> 사모<sup>1798)</sup> 찢러<sup>1799)</sup> 건너가고,  
 쇠도리개<sup>1800)</sup> 뿔뿔 둘러, 어릅과<sup>1801)</sup> 어릅과, 신기전<sup>1802)</sup>은 픽 쓰러  
 지고,  
 장궁<sup>1803)</sup> 철전<sup>1804)</sup>을 맥여 들고 삼동의 법을 차려<sup>1805)</sup> 깎지손<sup>1806)</sup>  
 떼뜨리니,<sup>1807)</sup> 방패 맞아 박살하고, 일등명장<sup>1808)</sup> 다 죽는다.  
 창 들고 웃고, 활 들고 기는 놈과 살 들고 옆치는<sup>1809)</sup> 놈,  
 적벽강 수진<sup>1810)</sup> 군사 화염<sup>1811)</sup> 중에 다 죽는다.  
 숨 막히고, 기막히고, 살도 맞고, 불에 타고, 물에 빠져 일시에 다  
 죽는다.  
 앓아 죽고, 서서 죽고, 가다 죽고, 오다 죽고,  
 무단히<sup>1812)</sup> 죽고, 남이 죽으니 따라서 죽고, 죽어보면 어떤가 하고  
 죽고,  
 오사,<sup>1813)</sup> 급사,<sup>1814)</sup> 객사,<sup>1815)</sup> 즉사,<sup>1816)</sup> 수사,<sup>1817)</sup> 화사<sup>1818)</sup>를 하는데,



Trumpets are played, and drums are hit.

A fire attack is swift, creating a burning sound. "A fire broke out on the Chibi(赤壁) River."

The second fire attack is launched. "A fire broke out on the Chibi(赤壁) River."

The hollering changes the universe. The river quakes due to the fire.

Warships falter on the strong waves.

Masts are broken. Small boats and long oars fall down from the ships.

Fluttering flags, tents, fire arrows, arrows, bows, shields, pieces of supporting wood, and sharps piece of iron fall down by ships and move away along with flames on the windy surface of the river.

Huang Gai's(黃蓋) officers and top warriors stand obliquely in a V formation, shooting sharp arrows.

The arrows fly fast and hit the enemy's helmets.

They wield iron flails, as they charge vigorously. Arrow rockets fly overhead.

They load large bows with iron arrows and release their thumbs, breaking shields into pieces and killing all the top officers.

Some smile, while holding spears. Some crawl, carrying bows.

Some lie down, holding arrows.

All the sailors die by fire in the Chibi(赤壁) River.

Some are suffocated. Some are struck dumb. Some are shot by arrows. Some are burned. Some are drowned. All die at once.

Some die, sitting. Some die, standing. Some die, coming. Some die, going.

Some die without reason. Some die, following others dying.

Some die, trying to die.

Some die tragically, suddenly, away from home, instantly, by water, and fire.

어떤 군사는 저 죽을 걸 생각하고 비상<sup>1819</sup>)덩이를 손에다 들고,  
 “내가 요런 때 먹고 죽을라고 비상 사다 넣었네.”  
 입에 넣고 아드득 깨물어 사약하여<sup>1820</sup>) 죽고,  
 어떤 군사는 적벽강 뱃머리 잡고, “아이고 용왕님, 나 참말로 오대독  
 신<sup>1821</sup>)이오. 살려주시오.” 하고 죽고,  
 어떤 군사는 앞으로 통통<sup>1822</sup>) 나와 보니 앞은 창해망망<sup>1823</sup>) 대해<sup>1824</sup>)  
 가 있고, 뒤에는 화염<sup>1825</sup>)이 충천<sup>1826</sup>)하니  
 갈 곳이 바이없어<sup>1827</sup>) 돛대 끝으로 올라간다.  
 기엄 기엄 기엄 기엄<sup>1828</sup>) 돛대 끝끝트리<sup>1829</sup>)로 올라가서 고향을 바라  
 보며,  
 “아이고, 어머니! 나는 여기서 죽습니다.”  
 물에 가 풍 빠져노니 거품이 부그르르 올라와 죽고, 어떤 군사는 뱃전  
 을 부여잡고,  
 “님아, 정든 님아, 북당<sup>1830</sup>)에 학발양친<sup>1831</sup>)과 홍안<sup>1832</sup>)의 젊은 처를  
 어찌 두고 죽느냐?” 물에 가 풍 빠져노니,  
 사람을 모두 다 국수가닥 풀듯이 풀어, 적벽강이 뻑뻑.<sup>1833</sup>)  
 일등명장<sup>1834</sup>)이 쓸 데가 없고, 날랜 장졸이 무용<sup>1835</sup>)이라.  
 조조 신체는 숯빛이고, 정욱이는 뚱빛이라.  
 허저<sup>1836</sup>)는 창만 들고, 장요<sup>1837</sup>)는 활만 들고,  
 죽을 뻔<sup>1838</sup>) 도생<sup>1839</sup>)하여 겨우겨우 도망한다.  
 황개 거동 보소. 황개가 화염 중으로 쫓아오며, “붉은 홍포<sup>1840</sup>) 입은  
 놈이 조조다.”  
 조조가 황급<sup>1841</sup>)하여 붉은 홍포를 훌쩍 벗고 다른 군사 가리키며,  
 “참 조조 저기 도망간다. 날 보고 조조라 하는 놈은 제 놈이 참  
 조조다.”

A soldier thinks he will die, holding poison in his hand.  
 "I was carrying poison to take in such circumstances."  
 He wildly crunches the poison between his teeth and dies.  
 Grabbing the bow of a boat, another soldier says, "Dragon King,  
 help me! I am the only son for five generations in a row in  
 my family." He dies.  
 Another soldier jumps forward and realizes that the wide and  
 vast water is in front of him and flames surge at his back.  
 Having nowhere else to go, he climbs up to the top of a mast.  
 He slowly reaches the top and looks in the direction of his  
 hometown.  
 "Oh my mother! I am dying here."  
 He falls down into the water. Foam come up. He dies. Another  
 soldier grabs the bow of a boat.  
 "Oh my darling! How can I die leaving my old mother and pretty  
 wife behind?" He falls down into the water.  
 The Chibi(赤壁) River is filled with bodies like noodles in a  
 soup.  
 Top generals are useless, and fast officers and soldiers are of  
 no use.  
 Cao Cao's(曹操) face is black, and Cheng Yu's(程昱) face is  
 yellow.  
 Xu Chu(許褚) holds only a spear, and Zhang Liao(張遼) holds  
 only a bow.  
 They struggle to survive and manage to flee.  
 Behold Huang Gai(黃蓋). He chases them through flames and  
 smoke. "That man in the red clothes is Cao Cao(曹操)."  
 Petrified, Cao Cao(曹操) takes off his red coat and points to a  
 soldier.  
 "The real Cao Cao(曹操) is going over there. The man calling  
 me Cao Cao(曹操) is real Cao Cao(曹操)."

피탈양탈<sup>1842</sup>) 도망할 제, 황개 거동 보소. 급히 쫓아오며,  
 “네 이놈 조조야! 단지<sup>1843</sup>) 말고 창반아라.”  
 조조 황급하여 이 배로 저 배로, 저 배로 이 배로, 이 배로 저 배로  
 도망할 제, 황개 거의 조조를 잡게 되었는데,  
 그 때여 장요<sup>1844</sup>)가 조조 옆에 섰다가 오는 황개 바라보고 깍지손  
 떼뜨리니,  
 가련하다 황개 어깨에 살을 맞고 배 아래로 거꾸러지며,  
 “궁근<sup>1845</sup>)아, 날 살려라!” 하는 소리 한 장수 듣고서 살 빼어 본진<sup>1846</sup>)  
 으로 돌아가고,  
 서성,<sup>1847</sup>) 정봉,<sup>1848</sup>) 주태<sup>1849</sup>)가 합병<sup>1850</sup>)하여 쫓아오니,  
 조조 여혼<sup>1851</sup>)이 기급<sup>1852</sup>)하여 오림<sup>1853</sup>)으로 도망한다.  
 조조 잔말<sup>1854</sup>)이 비상하여, “둔중<sup>1855</sup>)났다고 지체 마라. 까딱하면 똥  
 싸겠다.”  
**[중모레]** 피탈양탈<sup>1856</sup>) 도망할 제,  
 새만 펴쩍 날아가도 복병<sup>1857</sup>)인가 의심을 내고,  
 나뭇잎만 벗쩍 하여도 한장<sup>1858</sup>)인가 의심하며,  
 “아이고, 정육아! 귀 뒤로 화살이 피르르, 목 넘어 창칼이 번뜻, 사  
 람의 간장<sup>1859</sup>)이 다 녹는다.”

He plays a trick and complains while running away. Behold Huang Gai(黃蓋). He chases Cao Cao(曹操) fast.

“Cao Cao(曹操), you villain! Don’t flee. Here goes my spear.” Cao Cao(曹操) flees hurriedly from ship to ship. Huang Gai(黃蓋) almost catches Cao Cao(曹操).

Just then, Zhang Liao(張遼) standing by Cao Cao(曹操) shoots an arrow to Huang Gai(黃蓋).

Poor Huang Gai(黃蓋) is shot by the arrow in his shoulder, and falls down upside down below the ship.

He says, “Zhu Yu(朱瑜), help me!” A warrior hears him, pulls the arrow out of him, and sends him to their headquarters.

Xu Sheng(徐盛), Ding Feng(丁奉), and Zhou Tai(周泰) chase Cao Cao(曹操) together.

Horried, Cao Cao(曹操) flees to Wulin(烏林) Forest.

Cao Cao(曹操) says nonsensical words. “Don’t run slowly just because you have a tumor on your buttocks. You might take a shit.”

**[Jungmori]** Cao Cao(曹操) plays a trick and complains as he flees.

When birds fly, he takes them to be soldiers lying in ambush. When leaves fly, he takes them to be the warriors of the Han(漢) Country.

“Hey Cheng Yu(程昱)! I feel as if an arrow flies behind my ears, and as if spear and a sword flash behind my neck. My mind is spilit.”

### 38. (새타령) 조조가 오림으로 달아나며 경계를 살피보는 데, 죽은 병사들의 원혼이 새가 되어 울음을 운다.

[아니리] 정욱이 여짜오되, “승상님, 이제 이릉<sup>1860</sup> 골짜기로 들어왔습니다. 어서 목을 들어서 사방을 좀 살피시오.”

“아이, 참말로 이릉 골짜기냐?” “예.”

조조가 막 모가지를 들어서 사방 산천을 살피려고 하는 판인데, 느닷없이 메추리<sup>1861</sup>란 놈이 말밭굽 밑에서 표르르르<sup>1862</sup> 날아가니, 조조가 깜짝 놀라,

“아이고, 정욱아. 내 모가지 있나 보아라. 귀 뒤로 화살이 푸르르 날아간다.”

정욱이 기가 막혀, “승상님 눈치 밝소그려. 메추라기 보고 놀랐을 적에야 독수리 보았으면 똥 싸고 나자빠지겠어요.”

조조 무색하여,<sup>1863</sup> “그놈이 메추라기냐? 그놈 소금 발라 바짝 구워노면 술안주 좋으니라.” 조조가 정신 차려 사면을 살피본즉,

[중모레] 산천은 험준<sup>1864</sup>하고 수목<sup>1865</sup>은 총잡한데,<sup>1866</sup>

만학에<sup>1867</sup> 눈 쌓이고, 천봉에<sup>1868</sup> 바람이 칠 제,<sup>1869</sup>

화초목실<sup>1870</sup> 바이없어<sup>1871</sup> 앵무 원앙이 꿇렸는데<sup>1872</sup> 새가 어찌 올라마는,

적벽대전<sup>1873</sup>에 죽은 군사 원조<sup>1874</sup>라는 새가 되어, 조승상<sup>1875</sup>을 원망한다.

나무 나무 끝끝트리<sup>1876</sup> 앓아 우는 각 새 소리,

도탄<sup>1877</sup>에 쌓인 군사 고향 이별이 몇 해던가?

귀촉도<sup>1878</sup> 불여귀<sup>1879</sup>라 슬피 우는 저 촉훈조.<sup>1880</sup>

여산군량<sup>1881</sup> 소진<sup>1882</sup>하여 춘려노략<sup>1883</sup>이 한 때로다.<sup>1884</sup> 소탕 소탕 저 흉년새.

38. (Bird Song) As Cao Cao(曹操) looks around the surroundings, birds cry which are the malignant spirits of the dead officers and soldiers.

[Aniri] Cheng Yu(程昱) responds, “Premier, we are now in Yiling(彝陵) Valley. Please stick your neck out and look around.”

“Is this really Yiling(彝陵) Valley?” “Yes.”

Cao Cao(曹操) is about to stick his neck out and look around. All of a sudden, a quail flies up from under his horse. Cao Cao(曹操) is scared.

“Oh, Cheng Yu(程昱)! See if I still have a neck. An arrow flew behind my ears.”

Cheng Yu(程昱) is dumfounded. “Premier, you are sensitive. You are startled at a quail. If you see an eagle, you might take a shit and fall over.”

Cao Cao(曹操) feels ashamed. “Was it a quail? It goes well with wine if it is roasted with salt.”

[Jungmori] Mountains are steep, and forests are thick.

Snow is piled up in numerous valleys, and a wind blows on many mountain tops.

Because there are no flowers, grass, or fruit, neither a parrot nor mandarin duck flies any longer. So there can't be sounds of birds  
The troops who died by fire in the Chibi(赤壁) River became resentful birds and complain against Cao Cao(曹操).

Birds cry, sitting at the ends of branches.

How many years are the painful soldiers away from their homes?

The cuckoo says sadly that it cannot go back home.

The huge military food store is exhausted, and soldiers are looting villages. So cries a hungry bird.

백만 군사 자랑터니 금일 패군<sup>1885</sup>)이 웬일인가? 희뻗죽 저 뻗죽새.  
자칭 영웅 간 데 없고, 백계도생<sup>1886</sup>)을 피로만 한다.<sup>1887</sup>) 피꼬리 수루  
루 저 피꼬리.

초평대로<sup>1888</sup>)를 마다하고 심산총림<sup>1889</sup>)에 까마귀 까옥 까옥 가련하  
구나, 저 까마귀.

주린<sup>1890</sup>) 장줄이 냉병<sup>1891</sup>)인들 아니 들랴? 병에 좋다 쑥쑥 쑥쑥.  
장요<sup>1892</sup>)는 활만 들고, 살이 있다 걱정마라, 살 간다 수루루 저 호반새.<sup>1893</sup>)  
반공<sup>1894</sup>)에 동덩실 높이 떠 동남풍에 놀랜 장줄 하루바람<sup>1895</sup>) 염려를  
마라, 내 아니 막아주랴? 두 날개에 떡 벌리고 너울너울 저 바람막이.<sup>1896</sup>)  
철망<sup>1897</sup>)을 벗어났다. 화병<sup>1898</sup>)아 우지마라, 노고지리 노고지리, 저  
종달새.

황개 호통<sup>1899</sup>)에 겁을 내어 버린 홍포<sup>1900</sup>)를 내 입었네. 따옥 따오기,  
저 따오기.<sup>1901</sup>)

오림이 불원이라<sup>1902</sup>) 적벽풍파<sup>1903</sup>)가 밀어온다, 어서 가자 저 해오리  
새.<sup>1904</sup>)

웃는 끝에는 놀랜 장줄, 갈수록이 알망굿다.<sup>1905</sup>) 복병<sup>1906</sup>)을 보고 도  
망한다.

이리 가며 팽당그르르,<sup>1907</sup>) 저리 가며 팽당그르르, 사설<sup>1908</sup>) 많은 저  
할미새.

적벽 오전<sup>1909</sup>) 패한 장줄, 순금 갑옷을 어데 두고 살도 맞고 창에  
찔려,

기한<sup>1910</sup>)에 골몰<sup>1911</sup>)되어 내 단장<sup>1912</sup>) 보려 말고 상처 독기<sup>1913</sup>)를  
쫓아주마.

속 텅 비인 고목 속에 뽕죽한 가지 위에 오르며, 찌꺼 굽벽 똑딱 떼그  
르르,<sup>1914</sup>) 내리며<sup>1915</sup>) 찌꺼 굽벽 똑딱 떼그르르르 떼떼그르르르 울음  
을 우니,



How can Cao Cao(曹操) be defeated after bragging about one million soldiers? So cries a sarcastic bird.  
 The self-proclaimed hero has gone only after playing a trick to survive. So cries a parrot.  
 Cao Cao(曹操) chose a deep mountain with green trees over a wide road with thick grass. So cries a pitiful crow.  
 Hungry soldiers must have suffered from the cold weather. So consoles a cuckoo.  
 Zhang Liao(張遼) holds only a bow. Don't worry about an arrow. Here go arrows. So cries a kingfisher.  
 I will fly high in the sky and block the southeast wind to protect the frightened officers and soldiers. Don't worry. Wouldn't I block it? So cries a bird with its wings wide open.  
 Don't weep, cook soldier. You escaped from an iron net. So cries a skylark.  
 I put on a red coat after Huang Gai's(黃蓋) horrifying shout. So cries a sacred ibis.  
 Wulin(烏林) Forest is close. The strong waves of the Chibi(赤壁) River are coming. Let's go quickly. So cries a heron.  
 Soldiers were intimidated after laughing, and then became ill-tempered. They see ambush soldiers and run away.  
 So cries a talkative wagtail, turning around here and there.  
 Officers and soldiers were defeated in the fierce Chibi(赤壁) War. Without golden body armors, they were shot by arrows and spears.  
 They were hungry and cold. Don't envy my neat look. Let me peck your poisonous wounds.  
 A bird climbs up and down a sharp branch of an old hollow tree, creating sounds with its sharp long beak.

조조가 듣고서 탄식한다.

“저것이 모두 다 나의 제장<sup>1916)</sup> 죽은 군사혼<sup>1917)</sup>이 나를 보고 원망을 하네. 어쩔거나? 어이를 할거나?”

퍼버리고<sup>1918)</sup> 울음을 운다.

### 39. (조조 조자룡 피해 도망) 조조가 헛웃음을 웃다가 조자룡을 만나 죽게 되었는데, 장수들의 도움으로 간신히 살아 도망한다.

[아니레] 이리 한참 설리 울다, 조조가 사방 산천을 둘레둘레<sup>1919)</sup> 보다가 느닷없는 웃음을 한 번 웃어노니,

정욱이 기가 막혀, “승상님, 근근도생<sup>1920)</sup> 창황중애<sup>1921)</sup> 슬픈 신세 생각지 않고 뭐할라고 웃소?”

조조 왈, “아들아, 내가 웃는 게 다른 것이 아니다. 주유는 피가 없고, 공명은 슬기 없음을 보고 웃었어.

이 병 모가지<sup>1922)</sup>같은 곳에다가 군사 천 명만 세워 놓았으면, 우리가 다 죽든 안하지만 중상<sup>1923)</sup>은 면치 못할 것이니라.”

[엇모레] 말이 맞들<sup>1924)</sup> 못하여, 말이 맞들 못하여서 오림산곡<sup>1925)</sup> 양편에서<sup>1926)</sup> 고성<sup>1927)</sup> 화광<sup>1928)</sup>이 충천<sup>1929)</sup>하고,

좌우 복병 날랜 군사 사방으로 엄살<sup>1930)</sup>할 적에,

한 장수 나온다. 한 장수 나와. 저 장수 거동을 바라.

얼굴은 형산<sup>1931)</sup> 백옥<sup>1932)</sup>같고, 눈은 소상강<sup>1933)</sup> 물결이라.

허리 금포,<sup>1934)</sup> 팔에 녹포<sup>1935)</sup> 엄신갑옷,<sup>1936)</sup> 장창,<sup>1937)</sup>

당당<sup>1938)</sup> 위풍<sup>1939)</sup> 일포성<sup>1940)</sup>으로,

Hearing the birds, Cao Cao(曹操) laments.  
“They were all my officers. They died, became evil spirits, and  
resent me. What should I do?”  
He wails, losing control of himself.

**39. (Cao Cao(曹操) Flees from Zhao Zi Long(趙子龍).)**  
**Cao Cao(曹操) laughs without reason, comes across**  
**Zhao Zi Long(趙子龍), and narrowly escapes his**  
**death with the help of his generals.**

[Aniri] Cao Cao(曹操) sobs as said above, looks around carefully,  
and all of a sudden he bursts into a laughter.

Cheng Yu(程昱) is dumfounded, “Premier, we are barely hanging  
on. How can you laugh instead of worrying about the sad fate?”  
Cao Cao(曹操) responds, “Folks, I laugh because Zhu Yu(朱瑜)  
is stupid, and Kong Ming(孔明) is dumb.

An ambush of thousand soldiers in this narrow place might not  
kill us all but it will hurt us severely.”

[Eonmori] Before Cao Cao(曹操) finishes his sentence, loud  
sounds and flashes of flame rise to the sky from the two peaks  
of Wulin(烏林) Forest.

Fast ambushing soldiers kill Cao Cao's(曹操) soldiers in the four  
directions.

A warrior comes out. Behold the warrior.

His face looks like the white jade from Jing(荊) Mountain. His  
eyes look like the water of the Xiao Xiang(瀟湘) River.

A silk overcoat is around his waist, and dear skins cover his  
arms. He wears protective armor, and holds a long spear.  
He looks confident and majestic as he hollers.

“어따<sup>1941)</sup>, 이놈 조조야! 상산에 조자룡이를 아느냐? 모르느냐? 조조는 단지<sup>1942)</sup> 말고 어서 내 창 받아라!”

말을 몰아서 들어오며, 동을 얼리<sup>1943)</sup> 서를 치고,  
남을 얼리 북을 치며, 생문<sup>1944)</sup>으로 들어와 사문<sup>1945)</sup>에 번뜻번뜻,<sup>1946)</sup>

예<sup>1947)</sup>가 번뜻하면은 저 장<sup>1948)</sup>의 머리 똑 떨어지고,  
제가<sup>1949)</sup> 번뜻하면 이 장의 머리 똑 떨어질 적에,  
백송골<sup>1950)</sup>이 핑 차듯,<sup>1951)</sup> 두꺼비 파리 잡듯, 은장도<sup>1952)</sup> 칼 빼듯,  
여름날 번개 치듯 횡행하여<sup>1953)</sup> 다닐 적에,  
군사의 머리는 추풍낙엽<sup>1954)</sup>이요, 피 흘러 시내 되고, 주검이 태산이  
로구나.<sup>1955)</sup>

서황,<sup>1956)</sup> 장합<sup>1957)</sup> 쌍접하여<sup>1958)</sup> 겨우 방어하고,

#### 40. (조조 신세 한탄) 병졸들과 도망하던 조조가 신세를 한탄하다가 장비의 공격을 받고 겨우 살아 도망한다.

[진양조] 호로곡<sup>1959)</sup>으로 들어간다.

바람은 지동치듯<sup>1960)</sup> 불고, 곳은비는 퍼붓는데,  
갑옷 젖고, 기운 없어 어느 곳으로 간단 말이나.  
조조가 영을 내리어서, 말도 잡어 군사들을 구급<sup>1961)</sup>하고,

“Cao Cao(曹操)! You bastard! Do you know about Zhao Zi Long(趙子龍) from Changshan(常山)? Don’t run away. Here goes my sword!”

Riding his horse, he threatens them in the east and destroys them in the west.

He threatens them in the south and destroys them in the north. He goes vigorously through a lucky gate and shows up at an unlucky gate.

He shows up here abruptly and cuts off a general’s head there. He appears there abruptly and cuts off a general’s head here. He attacks them around, as a hawk attacks a pheasant, a toad snatches a fly, as a woman pulls out a silver knife, and as lightning destroys something in the summer sky.

Soldiers’ heads fall down like autumn leaves. The blood becomes a river, and the bodies become a mountain.

Xu Huang(徐晃) and Zhang He(張郃) manage to confront Zhao Zi Long(趙子龍) together.

**40. (Cao Cao(曹操) Laments over His Fate.) Cao Cao(曹操) laments over his fate, while fleeing to Hulu(葫蘆) Valley with his troops. Attacked by Zhang Fei(張飛), he manages to flee.**

[Jinyangjo] Cao Cao(曹操) enters Hulu(葫蘆) Valley.

The wind blows hard, making loud sounds, and perverse rain pours heavily.

Cao Cao’s(曹操) soldiers’ armor is wet, and they are dispirited. Where should they go?

With Cao Cao’s(曹操) order, horses are killed to relieve soldiers of hunger as a temporary measure.

굵은 말은 짚을 주며 한 곳을 당도하니, 한수<sup>1962)</sup> 여울<sup>1963)</sup> 내리는  
 물은 이릉<sup>1964)</sup>으로 닿았는데,  
 적적산중<sup>1965)</sup> 청계상에<sup>1966)</sup> 쌍쌍 백구<sup>1967)</sup>는 홀리 뒀구나.<sup>1968)</sup>  
 “우후청강<sup>1969)</sup> 좋은 흥미,<sup>1970)</sup> 문노라, 저 백구야. 흥요월색<sup>1971)</sup>이 어  
 디메냐?<sup>1972)</sup>  
 어적수성<sup>1973)</sup>이 적막한데 뉘<sup>1974)</sup> 기약<sup>1975)</sup>을 기다리고,  
 범피창과<sup>1976)</sup> 홀리 떠서 오락가락 승유하고,<sup>1977)</sup> 나는 어찌 분주<sup>1978)</sup>  
 하여, 천 리 전장에 나왔다가  
 백만 대병을 몰사<sup>1979)</sup>를 시키고 어느 곳으로 가더란 말이냐?”  
**[아니레]** 이리 한참 울음 울다 또 사방 산천을 바라보더니, 또 ‘하하하  
 하’ 웃어노니,  
 정육이 기가 막혀, “야들아, 승상님 또 웃었다. 정신들 바짝 차려라.”  
 조조 얇은 속아지<sup>1980)</sup>에 화를 내는데, “너 이놈, 내가 웃으면 복  
 병<sup>1981)</sup>이 일어난단 말이냐?”  
 “승상님 웃음 몇 번에 백만 군사 다 죽었소.”  
 조조 기가 막혀, “야 이놈아, 내가 우리집에 있을 적에 그렇게 웃어도,  
 원, 복병은 말고 뱃병<sup>1982)</sup>도 안 일어나더라.  
 이놈들이 승상인지 망상<sup>1983)</sup>인지 하면서, 평생에 좋아하는 웃음도 못  
 웃게 하네그려.”  
**[회포레]** 말이 맞들<sup>1984)</sup> 못하여 호포<sup>1985)</sup> 함성 일어나고, 좌우 복병  
 날랜 장졸 사면으로 엄살<sup>1986)</sup>한다.  
 정육이 기가 막혀, “아이고, 여보 승상님, 이제는 다 죽었내다.<sup>1987)</sup>  
 웃음이나 실컷 웃으시오. 죽어도 한 없게.”  
 “오는 장수가 누구냐?” 정육이 겁이 나서 끝만 대서 부르는데, “떡  
 이요.”

As they feed grass to hungry horses, they arrive at a certain place where the water of a rapids of Hanshui(漢水) River flows and reaches Yiling(彝陵).

White herons fly in pairs over a clear stream of a quiet valley. The clear river after the rain gives rise to a good feeling. I ask you, white herons! Where is the moon reflected on water pepper leaves?

This place is quiet except for the sounds of flutes by fishermen. Who are you waiting for?

You have fun, moving back and forth on the blue water. I had a bad fate to be on a battlefield away from home.

I massacred a million soldiers. Where am I going?"

**[Aniri]** After sighing as said above, Cao Cao(曹操) looks around and laughs loudly again.

Stunned, Cheng Yu(程昱) says to the soldiers, "Soldiers, the premier laughed again. Watch out."

Narrow-minded, Cao Cao(曹操) loses his temper. "You fools! Are we ambushed when I laugh?

"Your several laughs killed a million soldiers."

Cao Cao(曹操) is stunned. "No matter how hard I laughed at home, I was not ambushed at all.

These rascals are trying to stop me from laughing when I have liked laughing my whole life."

**[Hwimori]** Before Cao Cao(曹操) finishes talking, the sounds of gunfire and shouts arise. Fast ambush soldiers surround and kill Cao Cao's(曹操) soldiers.

Cheng Yu(程昱) is confused. "Hello, premier. We'll all die now. Laugh heartily. Laugh to your satisfaction."

Cao Cao(曹操) asks, "Who is the warrior coming over there?"

Cheng Yu(程昱) is so startled that he mispronounces his name. "He is a cake."

조조가 그 말 듣고, “떡이라니 무슨 떡이냐? 찰떡이냐? 메떡<sup>1988)</sup>이냐?  
강냉이떡이냐? 수수떡이냐? 배고픈데 먹어보자.”

“아이고, 먹는 떡이 아니라 백만 대군 중에서 장수머리를 싹싹<sup>1989)</sup>  
베는 장비,<sup>1990)</sup> 장익덕이오.”

조조가 깜짝 놀라 장비란 말 듣더니 두 눈이 휘둥그레질 제,  
한 장수 나오는데, 저 장수 거동 보라. 낮빛은 거뭇푸룻,<sup>1991)</sup> 사모장  
창<sup>1992)</sup> 빗겨 들고,

불꽃같이 급한 성장<sup>1993)</sup> 맹호<sup>1994)</sup>같이 뛰나오며<sup>1995)</sup> 큰 소리로 하는  
말이,

“어따, 이놈 조조야! 단지<sup>1996)</sup> 말고 창 받아라! 날다?<sup>1997)</sup> 길다?<sup>1998)</sup>  
길다? 날다?

팔랑개비<sup>1999)</sup>라 비상천,<sup>2000)</sup> 두지기<sup>2001)</sup>라 땅 될까?<sup>2002)</sup> 네 어디로  
가느냐?”

조조가 기가 막혀 아래턱을 가불가불<sup>2003)</sup> 떨며,

“아이고 정욱아, 전일<sup>2004)</sup> 운장 말쑥하기를, ‘내 아우 장비는 만군  
중<sup>2005)</sup> 장수 머리를 풀같이 벤다’는데

내 어찌 살아가랴? 날 살려라. 날 살려라. 허저,<sup>2006)</sup> 장요,<sup>2007)</sup> 서  
황,<sup>2008)</sup> 장합<sup>2009)</sup>아, 날 살려라.”

허저, 장요, 장합 등이 안장 없이 말을 타고, 한사협공<sup>2010)</sup> 막아내고,  
조조는 갑옷 벗고 군사와 한 데 섞여 엎어지고 자빠지며 한 곳을 당도  
하니,

미방,<sup>2011)</sup> 미축,<sup>2012)</sup> 유봉<sup>2013)</sup> 삼장<sup>2014)</sup>이 전로<sup>2015)</sup>를 가로막고 군사  
기물<sup>2016)</sup>을 다 뺏는다.

순시,<sup>2017)</sup> 영기,<sup>2018)</sup> 사모장창,<sup>2019)</sup> 대검,<sup>2020)</sup> 쇠도리끼,<sup>2021)</sup> 어연  
한<sup>2022)</sup> 도가니<sup>2023)</sup>며

궁전,<sup>2024)</sup> 방패, 거멸장,<sup>2025)</sup> 마름쇠,<sup>2026)</sup> 화승,<sup>2027)</sup> 송곳, 독바늘<sup>2028)</sup>  
까지 싹<sup>2029)</sup> 다 뺏기고,



Cao Cao(曹操) responds, “What cake? A sweet rice cake? A regular rice cake? A corn cake? A kaoliang cake? I am hungry. Let me eat it.”

“My goodness! He is not a cake, the edible thing. He is Zhang Fei(張飛) that cuts off the heads of generals among a million soldiers.”

The name ‘Zhang Fei’(張飛) makes Cao Cao(曹操) open his eyes in fear.

A warrior comes out. Behold the warrior. His face is bluish black. He raises a long triangle-shaped spear obliquely.

Hot-tempered, he comes out ferociously like a tiger and hollers.

“Cao Cao(曹操), you scoundrel! Don’t flee. Here goes my sword! Will you fly or crawl? Will you crawl or fly?

Can you fly like a pinwheel or dig like a mole? Where will you go?”

Horried, Cao Cao’s(曹操) chin quivers.

“Hey Cheng Yu(程昱). Guan Yu(關羽) said a few days ago his brother, Zhang Fei(張飛), can cut off officers’ heads as he cuts grass. How can I survive? Help me! Xu Chu(許褚), Zhang Liao(張遼), Xu Huang(徐晃), and Zhang He(張郃)! Help me.”

Riding horses without saddles, Xu Chu(許褚), Zhang Liao(張遼), Xu Huang(徐晃) and so on attack Zhang Fei(張飛) collectively at the risk of their lives.

Cao Cao(曹操) takes off his armor, gets mingled with his soldiers, falls over repeatedly, and arrives at a certain place.

The three generals - Mi Fang(糜芳), Mi Zhu(糜竺), and Liu Feng(劉封) - block the road and deprive Cao Cao’s(曹操) soldiers of their weapons and other things:

patrolling flags, commander’s flags, triangled spears, large swords, iron flails, clear iron pots,

bows, arrows, shields, pieces of clamps, fire strings, awls, and poisonous needles.

#### 41. (군사들 탄식) 화용도로 도망하던 정욱과 군사들이 자신의 신세를 생각하며 탄식한다.

[중모리] 산고곡심<sup>2030</sup> 무인한데<sup>2031</sup>

취 숨듯 도망치며 한 곳을 가만히 당도하니, 전면<sup>2032</sup>에 두 길이 있는 지라.

조조가 보고 묻는 말이, “이 길이 어디로 가며, 저 길은 어디로 가냐?” 장수들이 여짜오되, “양 길<sup>2033</sup>이 모두 남군<sup>2034</sup>으로 가는 길인데, 대로는 오십 리가 머우고, 소로<sup>2035</sup>는 가까오되<sup>2036</sup> 길이 협소<sup>2037</sup>합니다.”

조조가 급한 생각으로, “소로로 가자.”

장수들이 영을 듣고 화용도<sup>2038</sup>로 들어갈 제,

그 때 인마<sup>2039</sup>는 기진<sup>2040</sup>하여 데인<sup>2041</sup> 노약<sup>2042</sup> 막대 짚고,

눈비 섞어 오는 날에 산고곡심 무인한데,

휘어진 잡목과 얼크러진 칙녕쿨을 휘청휘청<sup>2043</sup> 휘어잡고, 후유 끝끝 허를 차며,

“축도지<sup>2044</sup>이 험타한들<sup>2045</sup> 이에서<sup>2046</sup> 더할쏜가?”

장요,<sup>2047</sup> 허저,<sup>2048</sup> 서황<sup>2049</sup> 등이 뒤를 보아 방어하고, 정욱이 앞서 울음을 운다.

“평생 소약지<sup>2050</sup>심<sup>2050</sup>하여 운주결승<sup>2051</sup>을 하겠더니 제부종시불여의로 다.<sup>2052</sup>

초행노숙<sup>2053</sup>이 웬 일인가? 망상<sup>2054</sup>하신 우리 승상, 일빈일소<sup>2055</sup> 탓이로구나.”

아이고 아이고 울고 나니, 파총<sup>2056</sup>이 울고 난다.<sup>2057</sup>

“변덕스런 우리 승상, 패업<sup>2058</sup>을 하자더니 인력<sup>2059</sup>으로 어쩔거냐?

41. (Soldiers Lament.) While fleeing Huarong(華容) Road, Cheng Yu(程昱) and soldiers lament over their fates.

[Jungmori] Mountains are high, valleys are deep, and there is no human being.

While fleeing silently, Cao Cao(曹操) furtively arrives at a certain place where two roads are ahead of him.

He asks, "Where does this road take us? Where does that road take us?"

Generals answer, "Both roads lead to Nanjun(南郡).

The wide road is long. The small road is short, but narrow."

Cao Cao(曹操) thinks he is in a hurry. "Let's choose the small road."

Acting on his order, generals enter Huarong(華容) Road.

Meanwhile, men and horses are tired. Old men suffering from burns use canes.

When it snows and rains, mountains are high, valleys are deep, and there is no human being.

Soldiers stagger and cluck their tongues, grabbing crooked bushes and entangled vines.

"Isn't this the most rugged road ever in the world?"

Xu Chu(許褚), Zhang Liao(張遼) and Xu Huang(徐晃) protect the back of the formation. Cheng Yu(程昱) sits and weeps.

"I promised myself I would win this war, using various methods, but things didn't work out.

I can't believe I wander around the field and sleep outdoors.

All this happened because my wicked premier is capricious."

Because Cheng Yu(程昱) cries, so does an officer.

"Our fickle premier planned to unify China. How can he do that?"

패군제장<sup>2060</sup> 도망하니 전후초<sup>2061</sup> 간 데 없고, 좌우초<sup>2062</sup>는 쓸데없네.  
 전후 복병 일어나면 저 괴악<sup>2063</sup>을 뉘 당할까?  
 병든 군사 두세 명은 날 없는 창대 메고, 화살조차 없었으니 오차  
 연방어<sup>2064</sup>를 어쩔거나?”  
 아이고 아이고 울고 나니,<sup>2065</sup> 초관<sup>2066</sup>이 통곡한다. “전탐후보<sup>2067</sup>  
 하겠더니 사중구생<sup>2068</sup> 되었으니,  
 충량이가<sup>2069</sup> 뜻이 없고, 영솔삼경<sup>2070</sup> 뜻이 없네.  
 채<sup>2071</sup> 없는 우리 승상, 용병<sup>2072</sup>은 남아나되<sup>2073</sup> 방통<sup>2074</sup> 황개<sup>2075</sup>  
 계술<sup>2076</sup> 듣고 일야풍진<sup>2077</sup> 탕멸하니,<sup>2078</sup>  
 삼기<sup>2079</sup> 군대, 정병<sup>2080</sup> 군사, 일삼오칠 간 데 없고,<sup>2081</sup> 이사육팔  
 죽단 말가?<sup>2082</sup>  
 남은 군장<sup>2083</sup> 두세 명은 근력<sup>2084</sup>없이 기어가니 살아갈 길이 바이없  
 구나.”<sup>2085</sup> 아이고 아이고 울고 난다.  
 화병<sup>2086</sup>이 우는 말이, “수인씨 교인화식,<sup>2087</sup> 나 혼자 맡았던가?  
 가련하다 이 내 신세, 세 말 남은 편담창<sup>2088</sup>에 취반화기<sup>2089</sup> 들어메  
 고,<sup>2090</sup> 십 명 군사 구급<sup>2091</sup>하고,  
 남은 군장<sup>2092</sup> 안담<sup>2093</sup>터니, 통노구<sup>2094</sup> 깨어지고 양식조차 없어  
 졌고,  
 다만 행장<sup>2095</sup> 남은 것은 조리 박적<sup>2096</sup> 뿐이로다.  
 내 일신이 기진하여<sup>2097</sup> 열 명 구급<sup>2098</sup>은 어떻게 하겠느냐?” 아이고  
 아이고 울고 난다.  
 봉마군<sup>2099</sup>이 울고 난다. “대한총<sup>2100</sup> 좋은 말께<sup>2101</sup> 군량<sup>2102</sup>을 모  
 두 다 싣고, 떠오는 배를 바라보고 강변에 나갔다가,  
 급한 불에 말을 잃고 말채<sup>2103</sup>만 손에다 들고 황망히<sup>2104</sup> 뛰어올 제,  
 뜻밖에 살 한 개가 떠들어<sup>2105</sup> 닿더니, 팔에 맞아 작신<sup>2106</sup> 부러져  
 뒤통뒤통 창에 찔려,

As defeated officers flee, units in the front and back disappear,  
and units on the left and right become useless.

Who could repel a cruel ambush in the front and back?

A few sick soldiers carry spears having no blade. How can they  
defend themselves when they don't even have an arrow?"

After the officer sobs, another officer wails. "We promised to  
defend ourselves well, but we are barely hanging on.

We lost the desires to be loyal to the premier and to gain  
government positions.

Our premier was rash. Although he had a lot of useful soldiers,  
he listened to Pang Tong(龐統) and Huang Gai's(黃蓋) scheme.  
We are destroyed in the war overnight.

Half of three units and well-trained soldiers are gone. Did the  
other half die?

A few remaining officers are weak, so they crawl. There is no  
way they could survive." The officer weeps.

A cook sobs. "Sui Ren Shi(燧人氏) taught us how to use fire to  
cook. Was I the only cook?

How poor my fate is! I carry a spear and cooking utensils,  
relieving ten soldiers of hunger.

I am in charge of other's equipment. A brass pot is cracked,  
and there is no food.

The only thing I have is a gourd.

I am exhausted. How can I relieve ten soldiers of hunger?" The  
cook weeps.

A cavalryman cries. "When I was carrying provisions on good  
horses, I saw ships coming and moved forward to the side of  
the river.

Amid the abrupt fire attack, I lost the horses and hurriedly ran  
away, carrying only a whip in my hand.

Suddenly, an arrow came and broke my arm. While tottering,  
I was hit by a spear.

다리 절고, 활에 맞아 팔 못 쓰니 위국<sup>2107</sup> 천 리 어떻게 가겠느냐?”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울고 난다.

범군<sup>2108</sup>이 울고 난다. “환도<sup>2109</sup>는 집<sup>2110</sup>만 남고, 화살은 통만 남고,  
군복조차 마저 잃고, 우그릭<sup>2111</sup> 전립<sup>2112</sup> 불에 타고,  
적수공권<sup>2113</sup> 외상투에<sup>2114</sup> 질름질름 하는 몸이 위국 고향을 어떻게  
가겠느냐?”

문무장졸<sup>2115</sup> 우는 소리 화용산천<sup>2116</sup>이 막막하구나.

#### 42. (장승타령) 조조가 장승을 보고 놀라 문초하라 하니, 장승이 조조의 꿈 속에 나타나 신세타령을 한다.

[아니리] 조조가 한참 동안 듣더니만 대노<sup>2117</sup>하여,  
“이제 다시 우는 놈은 군법으로 목을 베리라!”하고  
한 편을 바라보니, 송림<sup>2118</sup> 사이로 키 큰 장수가 봉의 눈 부릅뜨고,  
삼각수<sup>2119</sup> 거사리고<sup>2120</sup> 떡<sup>2121</sup> 섰지.

조조가 깜짝 놀라, “아이고, 정욱<sup>2122</sup>아. 저 장수 보아라. 날 보는 기  
색<sup>2123</sup>이 어디서 본 듯한데, 만일 관운장이면 내 어찌 살아가랴?”  
정욱이 기가 막혀, “아니 그게 장수가 아니오라, 화용도 십리허<sup>2124</sup>에  
나무로 깎아 세워놓은 장승<sup>2125</sup>입니다. 장승.”

조조가 그제야 알고 화를 내며, “네 이 몸썬 장승을 빼어 들여라.”  
군사들이 달려들어 장승을 빼왔겠다.

Hobbling, I can't use my arm because I shot by the arrow. How can I go back to Wei(魏) Country away from here?" The cavalryman cries.

All soldiers cry. "My sheath lost my sword. My quiver lost my arrows.

I lost even my uniform. My dented hat was burned.

My hands are empty. I have nothing. I walk lame. How can I go back home to Wei(魏) Country?"

The crying sounds of the officers, soldiers, and civilians fill up Huarong(華容).

**42. (Song of a Wooden Statue) Frightened by a wooden statue, Cao Cao(曹操) tells his soldiers to interrogate it. The statue shows up in his dream and laments over its fate.**

[Aniri] After listening to the soldiers, Cao Cao(曹操) is infuriated. "Anybody weeping from now on will be beheaded by the military law!"

Cao Cao(曹操) sees a certain place where a tall warrior stands clearly in the pine grove, opening his glaring eyes wide. His beard forms a triangle pointing up.

Cao Cao(曹操) is frightened. "Oh god! Cheng Yu(程昱)! Look at the warrior. I am familiar with the way he looks at me. If he were Guan Yu(關羽), how can I survive?"

Cheng Yu(程昱) is dumfounded. "That is not a warrior. It is a wooden statue indicating how far Huarong(華容) Road is."

Cao Cao(曹操) now realizes and gets indignant. "Pull out that damn wooden statue."

Soldiers run to the statue, pull it out, and bring it to Cao Cao(曹操).

조조가 호령을 하며, “네 이 몫쓸 장승놈아! 복병에 놀랜 장졸들이  
 겨우겨우 살아 오는데,  
 네가 나를 놀래게 했으니, 군법으로 네 목을 썰어버리리라!” 하령<sup>2126)</sup>  
 하고 끌어낼 제,  
 조조는 여러 날 잠도 못 자고, 적벽강에서 그냥 쫓기기를 개 쫓기듯  
 쫓기다가,  
 어떻게 곤하든지 마상<sup>2127)</sup>에서 깜빡 졸았는지라,  
 비몽사몽간에<sup>2128)</sup> 귀신인지 목신<sup>2129)</sup>인지 눈물 흘려 하는 말이 있겠다.  
**[중중모레]** “천지만물<sup>2130)</sup> 생긴 후에, 천지만물 생긴 후에, 각색초  
 목<sup>2131)</sup>이 먼저 나  
 유소씨<sup>2132)</sup> 신농씨<sup>2133)</sup> 구목위소<sup>2134)</sup>를 하여 있고,  
 현원씨<sup>2135)</sup> 작주거<sup>2136)</sup>하야 이제불통<sup>2137)</sup> 하였으니, 그 나무가 편  
 타<sup>2138)</sup>하며,  
 석상<sup>2139)</sup>에 벽오동<sup>2140)</sup>은 오현금<sup>2141)</sup> 복관<sup>2142)</sup>이 되어 대순<sup>2143)</sup> 슬  
 상에<sup>2144)</sup> 빗겨 놓고<sup>2145)</sup> 남풍가<sup>2146)</sup>를 지어낼 제, 시르렁 등덩<sup>2147)</sup>  
 하는 소리 봉황이 춤을 추니 이 아니 태평이며,  
 문왕지감당목<sup>2148)</sup>은 비파성<sup>2149)</sup> 띠어 있고, 진황제 오후목<sup>2150)</sup> 춘  
 홍<sup>2151)</sup>이 그지없고,  
 고각거루<sup>2152)</sup> 동량목<sup>2153)</sup>은 용성화채<sup>2154)</sup>가 찬란하여 반공<sup>2155)</sup>에 솟  
 아 있고,  
 사후<sup>2156)</sup>신체 관판목<sup>2157)</sup>은 백골신체<sup>2158)</sup> 안장<sup>2159)</sup>하며,  
 신발실당<sup>2160)</sup>하울 적에 율목<sup>2161)</sup>은 신주<sup>2162)</sup>가 되어  
 사시절<sup>2163)</sup> 기고일<sup>2164)</sup>에 만반진수<sup>2165)</sup>를 세워<sup>2166)</sup>하며,  
 분향<sup>2167)</sup> 독축<sup>2168)</sup> 설리 올 제, 그도 좋다 하지마는,



Cao Cao(曹操) rants at it. “Statue, you scoundrel! After being surprised by an ambush, the officers and soldiers managed to come here alive.

Since you scared me, I’ll cut your head off in accordance with the military law.” He gives the order and takes it out.

He couldn’t sleep for several days and he was chased like a dog from the Chibi(赤壁) River.

He is so tired that unbeknownst to him, he dozes off on his horse.

Between being asleep and awake, a ghost or a god of wood speaks in tears.

**[Jungjungmori]** “Grasses and trees were the first things created in the world.

You Chao Shi(有巢氏) and Shen Nong Shi(神農氏) taught us how to make a house with trees.

Xuan Yuan Shi(軒轅氏) taught us how to make a ship and a wagon, making it possible to travel to an untrodden place, so wood brought about convenience.

A paulownia tree on a rock became the body of a pentachord and was sat obliquely on King Shun’s(舜) knee when it was played. Even a phoenix danced. Isn’t this peace?

King Wen’s(文) wild pear tree became a lute. Qin Shi Huang’s(秦始皇) Wujiao(五侯) Tree gives rise to a spring mood endlessly.

A crossbeam of a grand house on which a picture of a dragon is engraved rises high to the sky.

Boards of a coffin in which white bones are kept bring peace to a dead person.

When a person dies, a chestnut tree becomes a divine tag in a family shrine.

The divine tag receives good food every year on ritual days. Incense is burned and a written prayer is recited, which is good.

내 일신<sup>2169</sup>)은 궤이하여 상중하품 벗어나<sup>2170</sup>)  
 하산작량<sup>2171</sup>) 며칠인가?  
 궁궐 동량 못 뿔망정 차라리 떨쳐버리고 대광판<sup>2172</sup>)이나 바랬더니마는,  
 무지한 어떤 놈들이 이내 몸을 잘라내어 가지가지 방천말<sup>2173</sup>)이며,  
 동동이<sup>2174</sup>) 잘라내어 마판<sup>2175</sup>) 아니면 개밥 구수<sup>2176</sup>) 소용대로<sup>2177</sup>)  
 다한 후,  
 남은 동<sup>2178</sup>)은 목수 보여, 어느 귀신 얼굴인가 주먹코,<sup>2179</sup>)  
 주토표<sup>2180</sup>)과 방울눈,<sup>2181</sup>) 다박수염,<sup>2182</sup>) 팔자 없는<sup>2183</sup>) 사모품  
 대,<sup>2184</sup>)  
 장승이라고 이름 지어 행인거래<sup>2185</sup>) 대로상에다<sup>2186</sup>) 업연히<sup>2187</sup>) 세  
 워노니,  
 입 있으니 말을 하며, 발 있으니 도망하오리까?  
 불피풍우<sup>2188</sup>)하고 우두머니<sup>2189</sup>) 서서 진퇴유곡<sup>2190</sup>) 하는 나를 승상  
 은 모르시고 이다지<sup>2191</sup>) 놀래시니,  
 목신<sup>2192</sup>)이 무슨 죄요?  
 물구즉신<sup>2193</sup>)이오니, 심량<sup>2194</sup>)처분하옵기를 천만축수<sup>2195</sup>)로 비옵  
 니다.”

#### 43. (군사 점고) 조조가 유비·관우·장비·조자룡·제갈공명의 협담을 늘어놓다가 군사 점고를 한다.

[아니리] 조조가 놀라 깨서, “내가 장승한테 놀랜 것이 도리어 실  
 체<sup>2196</sup>)로다. 네 장승 방송<sup>2197</sup>)해라.

I became neither a high product or a low product.  
 How many days have passed since I was taken down from a  
 mountain and I wished to become a pillar of a small house?  
 Although I did not wish to be a pillar in a palace, I wished to  
 be a wide board.  
 But cruel people cut me down and used my branches to make  
 stakes.  
 They broke me into pieces, using them for boards of barns and  
 mangers to their satisfaction.  
 The remaining part of my body was taken to a carpenter who  
 made a ghostly face and a flat nose out of it.  
 He pasted red dirt over me, made big eyes and short beard, and  
 put an official hat on my head that I was not fated to put on.  
 I was named 'Jangseung' and was set up clearly on a wide road  
 where passersby come and go.  
 Can I speak when I don't have a mouth? Can I run away when  
 I don't have legs?  
 I can't avoid the rain and the wind, standing up vacantly without  
 moving forward or backward. Mr. Premier, you didn't know  
 about me and was scared by me.  
 What am I, the god of wood, guilty of?  
 If a thing goes old, it becomes a ghost. I sincerely wish that  
 you think harder about me."

**43. (Inspection of Soldiers) After speaking ill of Liu  
 Bei(劉備), Guan Yu(關羽), Zhang Fei(張飛), Zhao  
 Zi Long(趙子龍), and Kong Ming(孔明), Cao Cao(曹  
 操) inspects his soldiers.**

[Aniri] Surprised, Cao Cao(曹操) wakes up. "I am ashamed to  
 be frightened by the statue. Set the statue free.

그리고 지금 내 속이 속 아니다. 시끌땡땡한께<sup>2198</sup> 술 있거든 한 잔 가져오너라.”

그 때여 군사 하나가 제가 먹으려고 술을 감춰 두었다가 아, 요놈이 조조에게 잘 보일 양으로 딱 갖다 바쳤단 말이여.

조조가 술을 식전<sup>2199</sup> 아침에 빈 속에다 너댓 잔 먹더니마는 주정<sup>2200</sup>을 하기 시작하는데,

“야야, 봐라, 요<sup>2201</sup> 손<sup>2202</sup>들아. 내가 이 싸움에 패는<sup>2203</sup> 했으나, 도무지 그놈들이 어떤 놈들인고 하니, 쥐새끼 같은 놈들이다.

한중실<sup>2204</sup> 유허숙 유비는 제가 천자의 종친<sup>2205</sup>이라 하고 거래<sup>2206</sup>는 잘 하지만,

양산 두엄<sup>2207</sup>에서 돛자리 짜고 채마전<sup>2208</sup>하던 손이요,

공명이 제 놈이 슬기 있는 척하고 말은 잘하지마는,

남양<sup>2209</sup> 초당<sup>2210</sup>에서 밭 갈아먹던 농토한<sup>2211</sup>의 자식이로구나.

현덕의 모사<sup>2212</sup>가 용렬하여<sup>2213</sup> 선생인지, 후생<sup>2214</sup>인지, 고생인지 하지마는 그것 다 가소이고,<sup>2215</sup>

관공이, 운장 말이다. 제가 기운 센 척하고 사람은 잘 죽이지마는, 하동<sup>2216</sup> 그릇장수하던 점놈<sup>2217</sup>의 자식이요,

또 이 장비 그놈이 시키면 얼굴 해가지고, 고리눈<sup>2218</sup>에다가 소리는 뻑뻑 잘 지르지만,

제 근본이 탁군<sup>2219</sup>땅에서 돼야지<sup>2220</sup> 잡어가지고 제육전<sup>2221</sup> 보던 순 상놈의 자식이로구나.

원 지체<sup>2222</sup>는 고사하고 내 나이가 저보다 실존장<sup>2223</sup>인데,

아, 이 요새 인심은 주먹 힘만 좀 단단하면<sup>2224</sup> 요놈들이 기운만 믿고,

나만 보면 뒤를 줄줄 따라다니며 ‘조조야, 조조야.’

그놈들 말만 들으면 세욕<sup>2225</sup>에 뜻이 없어진단 말이여.

By the way, my stomach is not normal. Bring me a glass of some wine, if we have any.”

Just then, there is a soldier who hid wine so that he can drink it later. He gives it to Cao Cao(曹操) to curry his favor.

Cao Cao(曹操) puts several glasses of wine into his empty stomach before breakfast. Drunk, he begins to speak gibberish. “Hey folks! I am defeated in this war. Let me tell you about the villains. They are rats.

Liu Bei(劉備) acts as if he were a relative of the emperor.

But his family used to weave mats and grow vegetables in a manure field in Yangshan(陽山).

Kong Ming(孔明) acts and speaks as if he were brilliant.

But he is a son of a low peasant cultivating a field and living in a cottage in Nanyang(南陽).

Liu Bei(劉備) is an idiot. So Kong Ming(孔明) is respected as a teacher or something like that, which is all ridiculous.

Guan Yu(關羽) acts as if he were strong, killing people easily.

But he is a son of a low merchant who used to sell pottery in Hedong(河東).

Zhang Fei(張飛) has a black face. White circles surround his eyes. He bawls often.

But he is a son of a low butcher who used to kill pigs and sell pork in Zhuojun(涿郡).

I am older than they not to mention the fact that I outrank them. These days people act only on their physical strength, once they are physically strong.

Once they see me, they pursue me and say, ‘You villain, Cao Cao(曹操).’

When they say things like that, I want to give up all my worldly ambition.

그리고 이 또 상산 조자룡이란 놈, 내 그렇게 날래게 생긴 놈 보다  
처음 봤지.

이놈이 진중에 폴폴 날아다니며 아까운 장수 모가지만 싹싹 베어가니,  
우리끼리 있으니 말이지만 자룡이 선대<sup>2226</sup>)가 누구며 제 애비놈이  
누군지 아는가?

상산<sup>2227</sup>) 돌구녕<sup>2228</sup>)에서 쑥 빠진 놈의 자식이요,  
서량태수 마초<sup>2229</sup>)는 제가 지감<sup>2230</sup>)이 있다 해도 제 사촌을 죽인 놈  
이요,

미방,<sup>2231</sup>) 미축,<sup>2232</sup>) 유봉<sup>2233</sup>) 삼장,<sup>2234</sup>) 이 오합지졸<sup>2235</sup>)로  
생긴 좀놈<sup>2236</sup>)의 자식들한테 요번 싸움에 패를 한 것을 생각하면 피  
를 토하고 죽을 것이로되,

일후<sup>2237</sup>)에 내 한 마디 말만 할 것 같으면은 제 놈들이 갓을 못 쓰  
고<sup>2238</sup>) 두문불출<sup>2239</sup>)하렸다!”

정욱이 기가 막혀, “승상님 속 더럽게 못 차리시오. 왕후장상이 영유  
중호아?<sup>2240</sup>) 왕후장상이 씨가 있으니껴?<sup>2241</sup>)

자룡, 장비 호통소리에 승상님 바지에다 똥을 짹 싸고,  
공명 제술<sup>2242</sup>)에 백만 군사 적벽강에다 싹 다 죽이고,  
승상님 그 노란 수염까지 싹 다 끌어들소.<sup>2243</sup>) 그런 소리 하지 마시오.”  
조조가 무색하여,<sup>2244</sup>) “너는 꼭 빈틈없는 말만 하더라.”

“지난 일 쓸 데 있습니까? 군사 점고<sup>2245</sup>)나 합시다.”

“군사 점고는 할 게 뭐 있냐? 저놈, 저놈, 정욱이 너, 나, 합하니 열다  
섯 밖에 더 되냐?”

“그래도 점고나 합시다.” “그래라.” 통쾌 처르르르.

**[중모레]** 허튼<sup>2246</sup>) 군사 모여든다.

Let me speak of Zhao Zi Long(趙子龍) from Changshan(常山).  
 Nobody is faster than he as far as I know.  
 He runs around, killing my good officers on the battlefield to  
 my disappointment.  
 Frankly speaking, who knows about his ancestors and father?  
 He popped up from a hole of a rock on Changshan(常山).  
 The Governor of Xiliang(西涼), Ma Chao(馬超), can recognize  
 a person, but he killed his cousin.  
 The three generals - Mi Fang(糜芳), Mi Zhu(糜竺), Liu Feng(劉  
 封) - are rabble.  
 Thinking that I was defeated by these punks, I feel like throwing  
 up blood and dying.  
 Let me say one more thing today. They should all stay home  
 and shouldn't go outside of their houses!"  
 Cheng Yu(程昱) is stunned. "Premier, you wouldn't wise up.  
 Anybody, regardless of his family background, can become a  
 king, a feudal lord, a general, and a premier.  
 You shit your trousers when Zhao Zi Long(趙子龍) and Zhang  
 Fei(張飛) hollered at you.  
 You let Kong Ming's(孔明) strategy kill a million soldiers in the  
 Chibi(赤壁) River.  
 Even your yellow beard is burned completely. Stop the foolish  
 words."  
 Cao Cao(曹操) is ashamed. "Your point is always defensible."  
 "It is useless to talk about the past. Let's just inspect our  
 soldiers."  
 "Are there enough people to be inspected? That man, this man,  
 Cheng Yu(程昱), you, and me. Are there more than fifteen in  
 total?"  
 "Even so, let's do it." "Okay." Inspection begins.  
**[Jungmori]** The scattered soldiers fall in.

살 맞아 다리 절고, 불에 데어 눈먼 놈과 설움 겨워 곡하는 놈.  
 문노라, 한국<sup>2247)</sup> 사람이 한신,<sup>2248)</sup> 팽월<sup>2249)</sup> 죽인단 말이냐?  
 청신당<sup>2250)</sup> 무슨 일로 보국충신<sup>2251)</sup> 죽일쏘냐? 두어라, 적주의 파하  
 먼 못신맹이라.<sup>2252)</sup>  
 또 한 놈이 들어온다 부러진 창, 꺾어진 화살, 깨진 통노구 들어메고  
 절름절름<sup>2253)</sup> 들어오며,  
 “원하느니<sup>2254)</sup> 제갈량의 동남풍이 아니어든 팔십만병 죽일쏘냐?”  
 부러진 창대를 거꾸로 메고 절름절름 들어온다.

#### 44. (허무적이) 허무적이가 들어와 항변하며 고향에 가고 싶다고 운다.

[아니레] 조조가 보더니, “야, 그놈 넓은 마당 쓰는 것같이<sup>2255)</sup> 무던하  
 다.<sup>2256)</sup> 점고하여라.”  
 정욱이 장대<sup>2257)</sup>에 높이 올라, 좌수<sup>2258)</sup>에 흘기<sup>2259)</sup> 들고, 우수<sup>2260)</sup>  
 에 칼을 들어 진중에<sup>2261)</sup> 호령하는데,  
 “만약 군중 점고에 불참자<sup>2262)</sup>는 군법으로 목을 베리라!”  
 하여노니, 한 군사 떡<sup>2263)</sup> 돌아앉으며, 제 손수 하는 말이 있겠다.  
 “흥, 후후이 몽생이<sup>2264)</sup> 같은 소리, 이게 어디 군중이냐? 멀그런<sup>2265)</sup>  
 산중이지.”  
 “대장 허무적이!”

[진양조] 허무적이가 들어온다. 허무적이가 들어온다.  
 투구<sup>2266)</sup> 벗어 말깨<sup>2267)</sup> 엇고, 갑옷 벗어 질질 끌고 걱정없이 들어  
 오며,  
 “고향을 하직하고 천리전장에 나왔더니 편할 날이 전혀 없고,



Shot by arrows, some soldiers hobble. Some became blind by fire. Some weep, overtaken by grief.

Did people of Han(漢) Country kill Han Xin(韓信) and Peng Yue(彭越)?

What on earth did they kill the loyal subjects for?

A soldier hobbles in, carrying a broken spear, a broken arrow, and a cracked brass pot.

"I resent that Kong Ming's(孔明) southeast wind killed eight hundred thousand soldiers."

The soldier hobbles in, as he carries a broken spear on his shoulder.

#### **44. (Heomujeok) Heomujeok comes in and complains in tears that he wants to go back home.**

[Aniri] Cao Cao(曹操) says, "This man is ready to sweep a yard with his spear. Inspect soldiers."

Cheng Yu(程昱) stands up high in a commanding post and issues an order, carrying a written order in the left hand and a sword in the right hand.

"Those who don't take part in inspection will be beheaded in accordance with the military law!"

With the command, a soldier steps forward and speaks directly.

"He acts as if we were on a battlefield. Are we on a battlefield? We are on a mountain!"

"Officer Heomujeok!"

[Jinyangjo] Heomujeok comes in. He comes in.

He takes off his helmet and puts it on a horse. He takes off his armor and drags it along, as he comes in without anxiety.

"I said goodbye to my family and left for this distant battlefield. Not even a day passed during which I felt at ease.

병영<sup>2268</sup>)에 불의지변<sup>2269</sup>)을 당한 군사 갈 도리<sup>2270</sup>)는 생각잡고 점고는 뭐할라고 하시오?”

부러진 창대를 거꾸로 잡고 절름절름 들어를 온다.

[아니래] 조조가 보더니 화를 내며, “네 이 천충<sup>2271</sup>) 잡어 들어라!” 군사들이 달려들어 천충을 잡아 들어노니, 조조가 호령을 하는데, “네 이 몸쓸 천충놈아, 너는 천충지도리<sup>2272</sup>)로 하여 군례<sup>2273</sup>)도 앓고 엄연히<sup>2274</sup>) 뺨뺨이 서서 들어오니, 군법도 그리하나? 네 천충 허무적이 목을 베어라!”

[중모레] 허무적이가 여짜오되, “여보 승상, 듣조시오. <sup>2275)</sup>

적벽강 급한 싸움에 살 한 개가 떠들어 당더니만 팔에 맞아 작신<sup>2276</sup>) 부러지고,

이 다리는 창에 찢려 군례<sup>2277</sup>)도 못했내다. <sup>2278)</sup> 어서 바빠 죽여주오. 어서 바빠 죽여주오.

이 내 죽은 혼이라도 허공 중천<sup>2279</sup>) 높이 떠 우리 고향을 찾아가서, 부모형제 만단정회<sup>2280</sup>)를 풀자 하니, 어서 당장에 죽여를 주시오.” 조조가 듣고서 막말<sup>2281</sup>) 한다. “우지마라, 우지마라. 불쌍한 장졸들아, 제발 덕분 우지마라.

네 부모가 내 부모요, 내 부모가 네 부모요,

네 권속<sup>2282</sup>)이 내 권속이요, 내 권속이 네 권속이니라. 설위 말고 살아가자.”

**45. (골래종이) 골래종이는 성한 데가 없는 몸으로 들어와서 신세한탄을 하고, 자신을 국 끓여 먹자는 조조를 비웃는다.**

[아니래] “물러서라. 대장 중에 허역이!”

Soldiers fell into disaster. We should think about going back home. What is the inspection for?"

He hobbles in, carrying a broken spear upside down.

[Aniri] Cao Cao(曹操) is exasperated. "Arrest that officer and bring him here!"

Soldiers arrest the officer and bring him in. Cao Cao(曹操) rants at him.

"Listen, you bastard officer! You should have saluted me as an officer. You came in without saluting me. You flouted the military law. Cut this officer's head off!"

[Jungmori] Heomujeok responds, "Hello, premier. Listen to me. In the urgent battlefield of the Chibi(赤壁) River, an arrow flew at me and destroyed my arm.

This leg was shot by a spear. So I couldn't salute you. Please kill me immediately.

My soul will fly high in the sky to my hometown, see my parents, wife, and children, and then share my inner thoughts with them. Please kill me right away."

Cao Cao(曹操) speaks thoughtlessly. "Don't cry. My poor officers and soldiers. Don't weep.

Your parents are my parents, and vice versa.

Your family members are my family members, and vice versa. Don't sob. Let's move on."

**45. (Gollaejong) Seriously wounded, Gollaejong comes in and laments over his fate. He makes fun of Cao Cao(曹操) for trying to make a soup out of him and eating it.**

[Aniri] "Step back, Commander Heo Yeok!"

“물고<sup>2283)</sup>요. 없소.” 조조 듣다가 “야, 그놈 잘 죽었다. 잘 죽었어.” 정욱이 기가 막혀, “아니, 승상님. 허역이하고 승상님하고 무슨 불공 대천지원수<sup>2284)</sup>진 적이 있소?”

“네 여봐라. 그놈 이름이 쓸 데 없이 허역이로구나. 성은 허가고 이름은 역이라.

제가 허역, 허역, 하니 안 죽을쏘냐? 시원히 잘 뒤졌다.”<sup>2285)</sup>

“좌부좌사<sup>2286)</sup> 골래종이!”<sup>2287)</sup>

[진양조] 골래종이가 들어를 온다. 골래종이가 들어를 온다.

안판낙포<sup>2288)</sup> 곱사등이 다리조차 절름절름, 눈은 한 쪽 비뚤어지고, 입술할라<sup>2289)</sup> 돌아가고, 곰배팔<sup>2290)</sup>이 뺨정다리<sup>2291)</sup> 걸음으로 비실비실<sup>2292)</sup> 들어오며,

“뭐 할라고 날 불렀소? 뭐 할라고 날 불렀소?”

[아니레] 조조가 한참을 보더니, “야, 그놈, 병신 부자네그려.

허허, 야 이놈아, 네 이놈 진중에서 말 소 죽은 안 쏘고, 따듯한 양지 쪽에 가서 드러누워 낮잠을 펴 자다가 아, 요놈이 산벼락<sup>2293)</sup>을 맞은 놈이로구나.”

[중모레] 골래종이 여짜오되, “여보, 승상. 듣조시오. 적벽강 급한 불에 다 타서 낙포<sup>2294)</sup>될 제,

이 눈은 이리 꼬맹기고,<sup>2295)</sup> 입술할라<sup>2296)</sup> 돌아가고,

두 귀 막막, 정신없이 반생반사<sup>2297)</sup> 되어놓을 제,

좌우편 팔 살을 맞고, 이 다리는 창에 찔려 생사가 조석인데,<sup>2298)</sup>

만일 객사<sup>2299)</sup>를 하거드면 뉘를 원망해야 웁소?

보고지고,<sup>2300)</sup> 보고지고. 부모처자 권속<sup>2301)</sup>을 보고지고.”

[아니레] 조조 기가 막혀, “허허, 야들아. 네 이것 두었다 큰일 나겠다.

“He is dead.” Cao Cao(曹操) says, “It serves him right he is dead.”

Cheng Yu(程昱) is struck dumb. “Hello, premier. Was Heo Yeok your eternal foe?”

“Listen! That bastard’s name is bad. His last name is Heo, and his first name is Yeok.

We say ‘heoyeok’ when we are dying. How can he avoid death? I feel good about his death.”

“Gollaejong, an officer in charge of the left flank!”

**[Jinyangjo]** Gollaejong comes in. He comes in.

His chest and back are swollen. He hobbles. One of his eyes is crooked.

His lips are spread out. His arms are deformed. His legs don’t bend. He walks in unsteadily.

“Why did you call me? What made you call me?”

**[Aniri]** Cao Cao(曹操) takes a hard look at him. “You are filled with deformations.

You fool. Not giving food to cows and horses, you were hit by lightning while taking a deep nap on a shiny place.”

**[Jungmori]** Gollaejong responds, “Please listen, premier. When the Chibi(赤壁) River was burning, I became a hunchback.

My eyes were pulled hard in this direction. My lips turned around.

My two ears were blocked. I was confused, half alive and half dead.

My arms were shot by arrows. This leg was shot by a spear. I might die at any time.

Whom should I resent if I die away from home?

I miss my parents, wife, children, and other family members.”

**[Aniri]** Cao Cao(曹操) is struck speechless. “Hey folks! We will get into trouble if we leave him alone.

우리는 성하니<sup>2302</sup>) 급히 도망가고, 요놈은 꼭 뒤에 처졌다가 용케<sup>2303</sup>) 우리 온 데만 꼭 일러줄 놈이다.

너희들 요새 고기맛 봤냐?

요놈을 시냇물애다 잘 씻어 큰 가마솥에 넣고 푹 푹 삶아 한 그릇씩 퍼먹고 가자.”

골래종이 그 말 듣고, “허허, 승상님 눈구녕<sup>2304</sup>)이 인장식<sup>2305</sup>)하게 생겼소그려.”

“여봐라, 네 이것 엇다<sup>2306</sup>) 몰아내라!” “전부우사<sup>2307</sup>) 허덜링이!”

#### 46. (허덜링이) 허덜링이가 성한 몸으로 온 사연을 말하면서, 창날을 팔아 아내에게 줄 바늘 한 쌍<sup>2308</sup>)을 샀다고 한다.

[자진모리] 허덜링이 들어온다. 허덜링이 들어온다.

부러진 창대 메고, 세 발 걸음 중뛰엄,<sup>2309</sup>) 경충 들어오며, “뭘 할라고 날 불렀소?”

[아니리] 조조 깜짝 놀라며, “아니 이놈이, 장비 군사 아니여!”

“허허, 승상님 정신 보소. 누구보고 장비 군사라고?”

“너 이놈, 너는 어찌 이리 성하냐?”<sup>2310</sup>) “성하면 회쳐<sup>2311</sup>) 잡수시오.”

조조 기가 막혀, “어따,<sup>2312</sup>) 이놈아, 그게 무슨 말이냐?”

“승상님께서 병신 군사 모두 국 끓여 먹는다고 했으니, 성하면은 회쳐 잡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조조 기가 막혀, “아따, 이놈아! 아까운 군사들이 눈 상한 놈, 박<sup>2313</sup>) 터진 놈, 팔다리 부러진 놈, 죽은 놈,

We are not wounded, so we can flee rapidly. But he will fall behind and tell the enemy where we go.

Folks, have you eaten meat recently?

Let's wash this rascal in the stream, put him in a big iron pot, boil him well, eat a bowl of the soup, and take off."

Gollaejong responds, "Your eyes look as if you will eat a human body."

"Guards, get him out of here!" "Heodeolleong, an officer in the right of the formation!"

#### **46. (Heodeolleong) Heodeolleong says how he is not wounded, and that he sold the blade of his spear to buy a pack of needles for his wife.**

[**Jajinmori**] Heodeolleong comes in. He comes in.

Carrying a broken spear, he jumps in varying speeds. "Why did you call me?"

[**Aniri**] Cao Cao(曹操) is scared. "My god! Isn't he Zhang Fei's(張飛) soldier?"

"Gosh! Premier, you must be out of your mind. Who is Zhang Fei's(張飛) soldier?"

"You villain! Why aren't you wounded?" "If I am intact, please eat me raw."

Cao Cao(曹操) is at a loss. "What? You scoundrel! What are you saying?"

"You were going to cook a wounded soldier, so you should eat an unwounded soldier raw."

Cao Cao(曹操) is struck speechless. "You villain! Good soldiers are wounded in their eyes, heads, arms, or legs. Some are dead.

무수한 병신 중에 너는 하도 성하기로, 내가 기특해서 하는 말이다.”

“군사놈들이 피가 없어 멍청해갖고 병신되고 돼지지요.”<sup>2314)</sup>

조조 반겨<sup>2315)</sup> 듣고, “너 대관절<sup>2316)</sup> 피 있냐?” “아, 있지요.”

“무슨 피냐?” “예, 싸움할 때는 말이지요, 깊이깊이 들어가 숨고요, 싸움 안 할 때는 살짝 나와갖고 먹을 것이나 배아지<sup>2317)</sup> 단단하게 먹고, 가만가만 다니면 신발 덜 떨어지고 좋지요.”

조조 기가 막혀, “천하에<sup>2318)</sup> 때려죽일 놈이다. 창날은 어디다 두고 창대만 갖고 왔느냐?”

“예, 창날은 오다가 시장해서 팔아서 밥 사먹고, 송곳, 화승<sup>2319)</sup> 마저 팔아 바늘 한 쌍<sup>2320)</sup> 사서 넣었습니다.”

“이놈아, 전장에 무슨 바늘이여?” “아, 이놈은 매양<sup>2321)</sup> 전장에만 다니란 말이오?”

**[중중모레]** “바늘 산 뜻을 들어보오. 바늘 산 뜻을 들어보오.

우리 마누라가 일색<sup>2322)</sup>이지요. 주아사랑 간간한<sup>2323)</sup> 정, 분수에<sup>2324)</sup> 작별하고 나온 지 몇 달이며, 떠난 지가 몇 해던가?

우리 집을 내가 나온 후로 우리 마누라가 날 기다릴 제, 대인난<sup>2325)</sup> 출문망<sup>2326)</sup> 기다리고 바래다가,

우리 집을 내가 들어가면 우리 마누라가 나를 보고 우루루루루 달려들어, 내 목을 덜컥 안고, ‘반갑소, 반가워. 천 리 전장 갔던 낭군 살아오니 반가워.’

좌수<sup>2327)</sup>로 목을 안고, 우수<sup>2328)</sup>로 손을 잡고, 참고 참고 참았던 거 그냥 하지요.”



Numerous soldiers are crippled. So I am praising you because you are unwounded.”

“The soldiers were crippled because they were stupid.”

Cao Cao(曹操) is interested. “Did you have a smart idea?” “Yes, I had.”

“What was it?” “When the combat went on, I hid in a deep place.

When there was no combat, I furtively came out, helped myself to food, and walked softly so that my shoes might not wear out.”

Cao Cao(曹操) is speechless. “That bastard deserves to be beaten to death. What did you do to the blade of your spear? Why did you bring only the spear-shaft?”

“On my way here, I was hungry, so I sold the blade to buy food. I also sold an awl and a fire string, and bought a pack of needles.”

“You fool! What is the use of needles in war?” “Should I always take part in war?”

**[Jungjungmori]** “Let me tell you why I bought the pack of needles.

My wife is a rare beauty. I loved her day and night. How many months and years have passed since I left her near the Fen(汾) River?

Since I left home, my wife has been waiting for me. It is painful for my wife to wait for me in front of the gate.

If I go back home, she will run to me and hug me around the neck. ‘I am so glad to see you again. My husband is back alive from the battlefield away from home.’

She will hug my neck with her left hand and grab my hand with her right hand. We will just do what we wanted to do for a long time.”

47. (구먹쇠, 장터진이) 구먹쇠는 유비의 군사에게 말을 팔  
았다고 말하고, 장터진이는 목이 움츠러든 사연을 이  
야기한다.

[아니레 “원, 너 참 잘했다. 잘했어. 안방 오입<sup>2329</sup>)이 편해서 좋으니라.”  
“마병장<sup>2330</sup>)에 구먹쇠!” 불러노니, 이놈은 말은 었다<sup>2331</sup>) 둔 듯이 말  
채만 들고 휘적휘적<sup>2332</sup>) 들어오니

조조가 보고, “너는 말 잃은 것 없냐?” “예, 없소이다.”

“아따, 그놈 참말로 신통 방통 꼬부랑통 해금통 복통<sup>2333</sup>)이다.”

“아, 왜 없겠소? 군량<sup>2334</sup>)을 맡게 싣고 오다보니, 말도 없고 군량도  
없습디다.”

“아따,<sup>2335</sup>) 이놈아. 쓸 것은 다 잃고 없다고 하냐?”

“이를테면 말이지요.” “그래, 말은 었다 두었냐?” “예, 말 팔았습니다.”

“아따, 이놈아. 말을 팔 양이면<sup>2336</sup>) 나한테 묻지도 않고 팔며, 또 난중  
예<sup>2337</sup>) 말 사는 놈이 있더냐?”

“승상님은 태고적<sup>2338</sup>) 말씀만 하시오. 아, 우리는 난중이라도, 한나라  
놈들은 우리를 알기를 버려지<sup>2339</sup>) 새끼, 돼야지 새끼로 압니다.”

“아이고, 이놈아. 그 좋은 말을 얼마씩 받고 팔았냐?”

“예, 말도 볼 것 없고요. 또 공명선생이 군사를 보내갖고 말 사러 왔는  
데, 어디 팔시<sup>2340</sup>)할 수 있습디껴?<sup>2341</sup>) 그래서 말 두 돈<sup>2342</sup>)씩 받고  
팔았습니다.”

“아따, 이놈아, 내 아무리 패군지장<sup>2343</sup>)인들 무엇 타고 고국 가랴?”

“말 없는 것은 걱정 마시오.

근래에<sup>2344</sup>) 좋은 가마<sup>2345</sup>)가 잘 난다니, 맞들것<sup>2346</sup>)을 잘 만들어가지  
고 떠메고 가든지,

47. (Gumeoksoe and Jangteojin) Gumeoksoe says that he sold horses to Liu Bei's(劉備) soldiers. Jangteojin explains how his neck shrank.

[Aniri] "Fantastic. Bravo. Sex in a main room is fabulous." They call "Gumeoksoe, the officer in charge of horses!" He must have lost horses somewhere. Carrying only a whip, he comes in shaking his arms wildly.

Cao Cao(曹操) says, "Did you lose any horse?" "No, I didn't." "Great! How praiseworthy you are!"

"How could I not lose horses? I lost my horses and provisions on them on my way here."

"You villain. You lost everything useful. How could you say you didn't lose a horse?"

"Strictly speaking, I didn't lose a horse." "Then, where are your horses?" "I sold them."

"My goodness! How could you sell them without asking me first? Was there a person to buy a horse during the war?"

"Premier, what you say is a fairy tale. Even if we are in a war, the people of Han(漢) Country think of us as baby worms and pigs."

"How much money did you get for the good horses?"

"The quality of the horses didn't count. Kong Ming(孔明) sent his soldier to buy horses. I couldn't look down on him. So I sold them at a low price."

"Gosh! I admit I lose the war. But what should I ride to my country?"

"It is not a problem that we don't have a horse.

Since sedan chairs are popular these days, we can make a stretcher and carry you on it.

정 편하게 갈려면은 등짐<sup>2347)</sup> 잘하는 놈으로다 지게에다 담아 지고서 설렁설렁<sup>2348)</sup> 가면 길 분고<sup>2349)</sup> 좋지요.”

조조가 기가 막혀, “야 이놈아, 내가 지게송장이냐? 지게에다 담아 지고 가게. 그놈의 자식 눈구녕<sup>2350)</sup>이 큰 일 낼 놈일세.”

“승상님 눈은 내 눈 안 같아도<sup>2351)</sup> 일만 통통 저지르고 다니시오. 그래서 백만 군사 적벽강에다 싹 다 죽였소?”

조조가 기가 막혀, “네 여봐라, 이것 엇다<sup>2352)</sup> 몰아내라.” “대거수<sup>2353)</sup>에 장터진이!”

**[진양조]** 목 움쳐진<sup>2354)</sup> 놈이 들어온다. 목 움쳐진 놈이 들어온다. 노독<sup>2355)</sup>에 지친 행인같이 걱정 없이 들어오며,

“고향을 하직하고 천리전장에 나왔다가 편할 날이 전혀 없고, 엇그제 모진 불에 거의 죽다 살아났으나, 자룡, 장비 호통소리 내 간장이 다 녹았네.

만일 복병이 일어나면 저 괴악<sup>2356)</sup>을 뉘 당할까?

아이고, 목이야. 아이고, 목이야. 목이 아파 내가 죽겠네.”

**[아니레]** 조조가 바라보더니만, “이놈아, 너는 어쩌서 모가지가 자라 모가지 들어가듯 쑥 들어갔냐?”

저놈이 그래도 말 않고 고개만 팍 수그리고 있은께,<sup>2357)</sup> “아 이놈아, 어쩌서 모가지가 쑥 들어갔어?”

“아따, 들어보시오. 요 넘어서 어떤 장수가 ‘너 이놈, 게 쏘거라.’하는 소리가 천지가 진동합니다.

아, 그러더니 그 장수가 내 앞에 우뚝 서더니, ‘네 이놈, 요 조조 쥐새끼 같은 놈 어디로 가더냐?’”

조조 듣다, “똥이 어쩌? 아이, 저놈이 누구보고 조조라 그래? 저런 때려죽일 놈이 있는가 여.”

“아니, 그 장수가 그러더라 그 말씀이요.” “그래 일렀느냐?”

If you request a convenient ride, a strong man can carry you on an A-frame carrier. It is a good ride because the road gets shorter.”

Cao Cao(曹操) is stunned. “You bastard! Did I die? Why would I ride an A-frame carrier? Your eyes indicate you will cause big trouble.”

“Your eyes don’t look like mine. But they actually cause trouble. After all, they killed a million soldiers in the Chibi(赤壁) River.” Cao Cao(曹操) is dumfounded. “Hey guards! Get him out of here.” “Jangteojin!”

**[Jinyangjo]** A person comes in whose neck has shrunk. It looks like he is tired because of the long journey, but he is light-hearted.

“Not even a day has passed in which I felt at ease since I left for this battlefield away from home.

I narrowly survived a cruel fire the other day. Zhao Zi Long(趙子龍) and Zhang Fei’s(張飛) shouts ruined my intestines.

If we are ambushed cruelly, who could survive?

My neck hurts. I am dying because of my neck.”

**[Aniri]** Cao Cao(曹操) looks at him. “Hey villain. Why is your neck stuck in like a terrapin’s neck?”

Jangteojin turns his head down without saying anything. “You bastard. Why has your neck shrunk?”

“Listen, premier. A warrior over the mountain shouted loudly, ‘You villain. Stay where you are!’

He showed up clearly in front of me. ‘You villain. Where did the rat, Cao Cao(曹操), go?’“

Cao Cao(曹操) responds, “What? How dare you call me a rat, Cao Cao(曹操)? You should be beaten to death.”

“Hold on, premier. The warrior said so.” “Okay. Did you tell him where I went?”

“들어보시오. 그 장수가 칼을 싹 빼어 목에다 탁 댄서<sup>2358</sup> ‘네 이놈, 요 조조 어디로 가더냐?’”

“마, 아이 저놈이 또 조조라 하네, 요.” “아따, 그 장수가 그러더란 그 말씀이오.”

“그래 일렀느냐?” “아따, 좀 들어보시오. 승상님 간 곳만 일르라고 하니, 어디 강약이 부동<sup>2359</sup>한데 안 이룰 수 있습디껴?”

조조가 기가 막혀, “어따, 이놈아. 급하다. 어서 말해라. 일렀느냐? 안 일렀느냐? 이 천륜<sup>2360</sup> 장가<sup>2361</sup>놈아!”

“아따, 들어보시오. 그래서 나중에 죽냐 하고 눈 딱 감고 ‘모르겠소.’ 했더니만,

원, 주먹으로 안 때리고 손톱으로다 탁 튕긴개<sup>2362</sup> 모가지가 자라 모가지 들어가듯 쑥 들어가 버렸소.”

조조 줄리다가,<sup>2363</sup> “후유, 내 수양아들<sup>2364</sup>이야.”

“군량지기<sup>2365</sup> 웅돌쇠!”

#### 48. (웅돌쇠) 웅돌쇠가 들어와 거짓 사연을 이야기하며 조조에게 술을 얻어 마신다.

[중중모레] 웅돌쇠란 놈이 들어온다. 웅돌쇠란 놈이 들어온다.

몽당자루<sup>2366</sup>에 쌀 한 되쯤 넣어서 화화 돌리며 들어온다.

조조 앞을 바라보니 술병이 놓였구나.

웅돌쇠가 생각하고 조조에게 술잔이나 뺏어 먹을 양으로 거짓말 공부 를 하는데,

조조가 바라보고, “너는 군량<sup>2367</sup> 잃은 것 없냐?”

“예. 없소이다.” 조조가 좋아라고, “그 많은 군량을 어떻게 다 영 거<sup>2368</sup>했냐?”

“Listen, sir. The warrior pulled out a sword and put it near my neck. ‘You villain. Where did Cao Cao(曹操) go?’

“You bastard. How dare you call me Cao Cao(曹操) again?”

“Gosh. The warrior said so.”

“Okay. Did you tell him where I went?” “Gosh! Listen more, premier! The warrior told me to tell him where you went. Given he was strong and I was weak, how could I not tell him?”

Cao Cao(曹操) is stunned. “God! You scoundrel. Tell me now. Did you tell him where I went? You worthless scum!”

“God. Keep listening, premier. At last I ran the risk of my life and said, ‘I don’t know.’

He didn’t hit me with his fist. Rather, he flipped his fingernail on my head. As a result, my neck has shrunk like a terrapin’s neck.”

Cao Cao(曹操) was feeling tense. “Whew! You are my son!”

“Ongdolsoe in charge of provisions!”

#### **48. (Ongdolsoe) Ongdolsoe comes in, tells a lie, gets a drink from Cao Cao(曹操).**

[Jungjungmori] Ongdolsoe comes in. He comes in.

He comes in, turning a small bag around where there is a little bit of rice.

He spots a bottle of wine in front of Cao Cao(曹操).

He intends to drink the wine from Cao Cao(曹操), getting ready to tell a lie.

Watching him, Cao Cao(曹操) says, “Didn’t you lose any provisions?”

“No, I didn’t.” Cao Cao(曹操) is pleased. “How did you carry the huge amount of provisions?”

“승상님 들어보오. 적벽강 모진 불에 백만 군사 타 죽을 적에 양식인  
들 온전하오리까?

가만히 생각하니 먹을 것이 없어서는 안 되겠기에,  
상선배<sup>2369)</sup> 닻줄<sup>2370)</sup> 굵은 놈으로 골라내어  
사백오십 석 쌀을 실은 배를 거기다 그냥 두고, 한가운데 질끈 묶어갖  
고 왼 어깨에다 들어메고 오림<sup>2371)</sup>을 당도하니,  
조자룡이가 보더니 그냥 질겁<sup>2372)</sup>을 하고 도망을 합디다. 허허허.”  
조조가 딱 반해 갖고, “너, 기운 세구나.” “예. 힘꼴<sup>2373)</sup>이나 좀 쓰지요.”  
“그게 어찌 됐냐?” “이릉<sup>2374)</sup>을 당도하니 장비가 그냥 바지에다 똥을  
꽂 싸고 도망을 합디다.”

“그럴 것이다. 장비는 별놈이냐?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너를 선  
봉<sup>2375)</sup>을 세워 놓았으면 이런 봉패<sup>2376)</sup>를 안 보았지.”

“그 말이 났으니 말이지요, 승상님께서 만일 저를 선봉을 딱 세워 놓  
았으면 아, 그까짓 것들이 다 무엇입니까? 그냥 쥐새끼 잡듯 썩 다  
잡아버리지요.”

“그래 어찌 됐냐?” “그놈을 짊어지고 이리 저리 도망하니 어깨도 아프  
고,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목도 마르고.

아이고, 승상님, 나 목 말라서 말 못 하겠소. 누가 요런 때 술이라도  
한 잔 쥘으면 내가 목을 축이고 말을 할 것인데.”

조조가 딱 반해갖고, “아나, 내가 먹던 술 먹어라.”

그놈이 한 잔 먹고 나니, “그래, 어찌 됐냐?”

“예. 짊어지고 한참 올라오는데, 어깨가 다시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배도 고프고.

아이고, 승상님, 나 목 말라 말 더 못 하겠소. 술 한 잔 더 주실랍니  
껴?”<sup>2377)</sup>

“그래라.” “아이고, 거 주실라면 거푸<sup>2378)</sup> 주시지요.”



“Premier, please listen. Would the provisions be safe when the cruel fire killed a million soldiers on the Chibi(赤壁) River?

I thought our soldiers would fall into trouble without the provisions.

I selected the largest ship having a thick anchor rope.

The ship was loaded with 450 bags of rice. I tied the middle of the ship with a rope, carried it on my left shoulder, and arrived at Wulin(烏林) Forest.

Zhao Zi Long(趙子龍) was frightened at me and ran away.”

Cao Cao(曹操) is impressed. “You are strong.” “Yes, I am a little strong.”

“What happened next?” “As I arrived in Yiling(彝陵), Zhang Fei(張飛) took a shit in his trousers and fled.”

“That makes sense. Zhang Fei(張飛) is nothing. If I had put you in the vanguard, I would have avoided this trouble.”

“Speaking of the vanguard, if you had put me in the vanguard, I would have killed them all as I kill rats.”

“What happened next?” “I fled around, carrying them. My shoulder, waist, and legs were sore. I also thirsty.

By the way, premier, thirst prevents me from talking. If somebody gives me a glass of wine, I can continue to talk.”

Cao Cao(曹操) is intrigued. “Here you go! This wine is what’s left after I drank.”

After Ongdolsoe drinks the wine, Cao Cao(曹操) says, “What happened next?”

“When I was carrying the rice, my shoulder and waist were sore, and I was hungry.

Alas, premier. I can’t talk anymore because I am thirsty. Would you give me another glass of wine?”

“Okay.” “If you want to, please give me more glasses of wine.”

“그래라. 이놈을 먹은 후에 말을 해라.”  
 “예. 쌀섬<sup>2379</sup>을 삶어지고 요 너머를 당도하니  
 치어다보니<sup>2380</sup> 만학천봉<sup>2381</sup>이요,  
 내려 굽어보니 백사지장<sup>2382</sup>이라.  
 한참 동안 올라오다가 뒤로 슬쩍 바라보니,  
 어깨 닳줄이 화닥<sup>2383</sup> 지끈<sup>2384</sup> 딱 끊어지며  
 사백오십 석 실은 쌀이 데굴데굴데굴 굴러 백사지<sup>2385</sup>에 내려치는데,  
 벼락치는 소리 나 깜짝 놀라 깨어보니,  
 [아니레 “아, 글썄. 저 건너 따뜻한 양지쪽에 가 드러누웠더니마는,  
 잠이 솔곳이<sup>2386</sup> 들어 아, 꿈을 그렇게 꾸었습니다요.”  
 조조 기가 막혀, “저런 때려죽일 놈이 있는가, 여. 저놈한테 돌려갓  
 고<sup>2387</sup> 아까운 술만 땃 잔 뺏겼네그려.”  
 화병지기<sup>2388</sup> 불러 밥지어 감식<sup>2389</sup>하고,

#### 49. (조조 탄식) 조조가 탄식하다 헛웃음을 웃으니 제장들이 겁을 낸다.

[중모레 진중<sup>2390</sup>]을 가만히 살펴보니 가련하고 불쌍하구나.  
 투구 벗고, 갑옷 벗고, 말 잃고, 창 잃은 놈,  
 앓는 놈, 기는 놈과 엎어진 놈, 잣혀진<sup>2391</sup> 놈,  
 고향을 바라보고 양천통곡<sup>2392</sup> 각심소원,<sup>2393</sup>  
 “어느 때나 고국을 가서, 그림던 부모를 만나볼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울고 나니, 조조 듣고 기가 막혀,  
 “우지 마라. 우지 마라. 불쌍한 장졸<sup>2394</sup>들아, 우지를 말어라.

“Okay. Drink this glass of wine and talk to me.”

“Yes. Carrying the rice, I arrived at the mountain over there. I looked around. Numerous valleys and mountain peaks were in my view.

I looked below. A white sandy plain was in my view.

After climbing up the mountain for a while, I looked behind. The rope on my shoulder was cut off abruptly.

450 bags of rice rolled over and over down to the white sandy plain.

I heard thunder and woke up, surprised.”

[Aniri] “Well, I lay on the warm sunny place over there. I slowly fell asleep. I had a dream as I told you.”

Cao Cao(曹操) is stunned. “You should be beaten to death. Fooled by that bastard, I lost several glasses of precious wine.”

Cao Cao(曹操) has cooks prepare food and eats a nice meal.

#### **49. (Cao Cao(曹操) sighs.) As Cao Cao(曹操) sighs and laughs without reason, officers are frightened.**

[Jungmori] Cao Cao(曹操) looks at his troops. They are pitiful. Some took off their helmets. Some took off their armor. Some lost their horses. Some lost their spears.

Some sat. Some crawled. Some turned upside down. Some lie face down.

Some look in the direction of their homes, wail, and express their wish.

“When can we reach our country and see our parents that we miss? Alas!”

Because they cry, Cao Cao(曹操) is struck dumb.

“Don’t sob. My poor officers and soldiers! Don’t weep.

나의 제장 영웅들아, 팔십삼만 병 거느리고 천리타국에 급히 나와,  
오한양국<sup>2395</sup> 항복받고 회군<sup>2396</sup> 주태<sup>2397</sup> 승전<sup>2398</sup>하면, 억조창  
생<sup>2399</sup> 만민<sup>2400</sup>이며 태평세계 격양가<sup>2401</sup>로 만세유전<sup>2402</sup>을 하올  
것을, 복이 없어 이러는가?

방통<sup>2403</sup>의 연환계<sup>2404</sup>와 황개<sup>2405</sup>의 교육계,<sup>2406</sup> 네 계략을 어찌 몰  
라 팔십만 명 다 죽이고,

만리고국<sup>2407</sup>을 내가 돌아간들 어느 백성들이 반겨할거나?

분하구나. 못 살겠네. 내가 분하여서 못 살겠네.”

[아니레] 한참 울다가 조조가 시방을 바라보고, 또 느닷없이 ‘하하하’  
하고 웃어노니,

정욱이 기가 막혀, “야들아, 승상님 또 웃으셨다. 정신 바짝 차리고  
무장해라.”<sup>2408</sup> 왜 웃었소?”

“네, 여봐라. 주유는 피가 없고, 공명이 슬기 없음을 보고 웃었노라.  
아, 여기다가 병든 군사라도 한 삼백 명만 세워 놓았으면, 제 놈이  
조조는 말고 메조<sup>2409</sup>놈이라도 살아날 길 있나?”

## 50. (관운장 출현) 관운장이 나타나자 정욱이 조조에게 빌 어보라고 한다.

[엇모레] 말이 맞들<sup>2410</sup> 못하여, 방포일성<sup>2411</sup>이 ‘쿵!’

조조가 깜짝 놀라, “아이고, 이게 무슨 소리냐?” “호통<sup>2412</sup>에 돼지사냥  
이오니 너무 걱정 말으시오.”

이윽고 방포<sup>2413</sup>가 ‘쿵!’ “허허, 돼지사냥이 아니라, 내 사냥<sup>2414</sup> 났나  
보다.”<sup>2415</sup>

My great officers, I led a million soldiers to this foreign land away from home.

If I had won this war and had gone back to my country with my troops, my people and their descendents would live in peace, singing the song of good harvest. But it seems I am not lucky.

I didn't know about Pang Tong's(龐統) plot to burn ships by tying them up together and Huang Gai's(黃蓋) plot to sacrifice himself. As a result, I let 800,000 troops be killed.

Which of my people will welcome me back in my country away from here?

I am angry! I am so resentful that I can't live."

**[Aniri]** After wailing for a while, Cao Cao(曹操) looks around and suddenly laughs.

Cheng Yu(程昱) is astonished. "Hey folks. The premier laughed again. Guard yourselves. What made you laugh?"

"Hey, I laughed because Zhu Yu(朱瑜) is stupid, and Kong Ming(孔明) is dumb.

Only 300 sick soldiers in an ambush here would kill me, no matter how great I am."

**50. (Guan Yu(關羽) Shows Up) As Guan Yu(關羽) shows up, Cheng Yu(程昱) asks Cao Cao(曹操) to beg Guan Yu(關羽) for mercy.**

**[Eonmori]** No sooner does Cao Cao(曹操) finish talking, a booming sound is heard.

Cao Cao(曹操) is startled. "Gosh, what is this sound?" "They are hunting a pig with a cannon. Don't worry."

It is not long before another booming sound is heard. "Gosh, they are out there, hunting not a pig but me."

북소리 ‘쿵! 쿵!’ “아이고, 이게 무슨 소리냐?”  
 “깊은 산에 절 있으니 공양<sup>2416</sup> 올리는 북소리요.”  
 조조 진중이 일시에 황급<sup>2417</sup>할 제,  
 뜻밖에 동에 청기<sup>2418</sup> 번뜻, 남에서 적기<sup>2419</sup> 번뜻, 서에서 백기<sup>2420</sup>  
 번뜻, 북에서 흑기<sup>2421</sup> 번뜻.  
 사방 산골에 예서도<sup>2422</sup> ‘쿵!’ 제서도<sup>2423</sup> ‘쿵!’ 기고함성<sup>2424</sup>이 천지를  
 움직인다.  
 정욱이 황급하여 기색<sup>2425</sup>을 바라보니, 한수정후<sup>2426</sup> 운장<sup>2427</sup>이라  
 동두렷이<sup>2428</sup> 새겼거늘,  
 정욱이 기가 막혀, “아이고 여보, 승상님. 이제는 다 죽었소. 웃음이나  
 실컷 웃으시오. 죽어도 한이나 없게.”  
 “오는 장수가 거 누구냐?” “한나라 대장 운장이오.”  
 “운장이면 옥탈무계<sup>2429</sup>요, 옥퇴무처<sup>2430</sup>라 하였으니, 죽기로 대  
 적<sup>2431</sup>하라!”  
 장졸들이 하는 말이, “관공의 높은 재주 호통소리 한 번 나면 길짐  
 승<sup>2432</sup>도 날지 못하고, 검광<sup>2433</sup>이 번뜻하면 나는 새도 떨어지고,  
 적수단검<sup>2434</sup>으로 오관참장<sup>2435</sup>하던 수단<sup>2436</sup> 감히 어찌 당하리까?”  
**[아니레]** “전알<sup>2437</sup> 운장에게 은혜를 많이 베풀었으니, 한번 빌어 보시오.”  
 “야들아, 빌 마음은 있다미는 내 명이<sup>2438</sup> 삼국에서 으뜸 아니냐?  
 후세에 문장<sup>2439</sup>들이 나를 가왈부왈<sup>2440</sup> 하겠기로 내가 빌지는 못  
 하겠고, 그 쓸 띠 있다.”  
 “무슨 피입니까?” “나를 죽었다고 장막<sup>2441</sup> 덮고, 여기서 머리 풀고  
 너희들이 통곡을 하여라.”  
 정욱이 기가 막혀, “참 신통한<sup>2442</sup> 말씀이오.  
 아, 지금 산 승상님 모가지 베려고 눈구녕<sup>2443</sup>이 별견해가지고<sup>2444</sup>  
 다니는데,

Drum sounds are heard. “God, what are those sounds?”

“There is a buddhist temple in this deep mountain. They must be offering food to Buddha.”

Cao Cao’s(曹操) soldiers panic instantly.

All of a sudden, a blue flag is seen in the east, a red flag in the south, a white flag in the west, and a black flag in the north. Drum sounds and hollering sounds from every valley of the mountains shake the world.

Confused, Cheng Yu(程昱) observes the flags. A flag clearly reads, ‘General Guan Yu(關羽).’

Cheng Yu(程昱) is startled. “Look, premier! We’ll all die. Why don’t you laugh to your satisfaction?”

“Who is the general coming to us?” “He is General Guan Yu(關羽) of the Han(漢) Country.”

“It is said there is no way to escape from Guan Yu(關羽). Fight to the end!”

Officers and soldiers say “If Guan Yu(關羽) yells, even animals with four legs can’t walk. If his sword flashes, even birds fall down.

He once killed our six warriors only with a sword, going through five gates. How can we beat him?”

**[Aniri]** “You did him a favor in the past. Why don’t you beg him for mercy?”

“Folks, I am willing to beg. But isn’t my name the greatest in the three countries?

I can’t beg because future writers will argue over me. I’ve got a great idea.”

“What is the idea?” “Cover me with a tent as if I died. Untie your hair and wail here.”

Cheng Yu(程昱) is stunned. “Your idea is really great. Premier, he is running around out there to cut your head off while you are alive.

죽은 승상님 목 좀 잘 베겠소?

‘조조는 기왕에 죽었으니 목이나 가져가자.’ 하고 그 잘 드는 청룡도<sup>2445</sup>로 승상님 모가지를 돼야지<sup>2446</sup> 모가지 베듯 싹 베어노면, 그 목 벤 데서 움<sup>2447</sup> 나겠소? 싹 나겠소? 벌어나 보시오.”

## 51. (조조 애걸) 조조가 애걸하며 과거사를 이르니, 관운장이 과거의 은혜는 다 갚았다며 호통친다.

[옛모래] 조조가 하릴없이,<sup>2448</sup> 조조가 하릴없이 백계도생<sup>2449</sup> 하울 적에, 한 장수 나온다. 저 장수 거동 보라.

얼굴은 무른<sup>2450</sup> 대추빛<sup>2451</sup> 같고, 삼각수<sup>2452</sup>를 거사리고,<sup>2453</sup> 봉의 눈 부릅뜨고, 청룡도 높이 들고, 적토마<sup>2454</sup>에 두렷이<sup>2455</sup> 앉어, “아따, 이놈 조조야. 네 나를 모르리라. 한수정후<sup>2456</sup> 운장이다. 조그마한 종달새가 망령<sup>2457</sup> 그물에 걸렸으니, 네 어디로 뚫고 새랴? 좀피<sup>2458</sup>를 쓰지 말고, 내 앞에 썩 나서서 드는<sup>2459</sup> 청룡도를 방어하라.”

[진양조] 조조가 하릴없이 백계도생<sup>2460</sup> 비는구나.

갑옷 벗어 말깨<sup>2461</sup> 었고, 투구 벗어 내던지고, 칼 빼어 땅에 꽂고, 대하머리<sup>2462</sup> 고추상투<sup>2463</sup> 큰 키를 움츠리고, 가는 목을 움츠리며



It would be easier for him to cut your head off once you are dead.

Thinking ‘Since Cao Cao(曹操) is dead, I’ll bring his head to my country’, he will cut your head off with Blue Dragon Sword as he cuts a pig’s head off.

Would a new head sprout where your head is cut off? Beg for mercy.”

**51. (Cao Cao(曹操) Implores.) Cao Cao(曹操) begs for his life, talking about the past. Guan Yu(關羽) hollers at him, saying that he returned his favor.**

[Eonmori] As Cao Cao(曹操) does his best to survive, a general shows up. Behold that warrior.

His face is red like a mature jujube. His whiskers and beard form a triangle pointing up.

He opens his eyes wide which look like those of a phoenix, carrying Blue Dragon Sword on a high red horse.

“Cao Cao(曹操), you villain! You may not know me? I am General Guan Yu(關羽).

A little skylark is caught in a net. What hole can you go through?

Don’t play a little trick on me. Come out and block my sharp Blue Dragon Sword.”

[Jinyangjo] Cao Cao(曹操) inevitably begs for mercy, doing his best to live.

Cao Cao(曹操) takes off his armor, puts it on his horse, takes off his helmet and throws it on the ground.

He pulls out his sword and pushes it into the ground. He is bald. His topknot looks like a pepper. He shrinks his tall body and his slim neck.

간교한 웃음으로, “헤헤헤, 소장<sup>2464</sup> 문안이요. 장군 뵈 지 거년<sup>2465</sup>이나, 기체<sup>2466</sup> 안녕하옵시오?”

운장이 후한 양반이라, 마상에서<sup>2467</sup> 몸을 굽히어 호언<sup>2468</sup>으로 대답하시는데,

“나는 우리 형장<sup>2469</sup>의 명령과 공명선생의 하명<sup>2470</sup>을 받고, 이곳에 복병하고 그대를 기다린 지가 오래로다.”

조조가 다시 애걸<sup>2471</sup>한다. “여보 장군, 듣조시오.<sup>2472</sup> 여보 장군, 듣조시오.

목하<sup>2473</sup>에 조맹덕은 천자<sup>2474</sup>님의 명을 받고 만군<sup>2475</sup>을 몰살시키고<sup>2476</sup> 창황분주<sup>2477</sup> 지내다,

장군님을 다시 보니 반갑삽고<sup>2478</sup> 좋지마는, 장군은 노색하여<sup>2479</sup> 원수 보시듯 보시오니 썩고도 다시 썩소이다.

옛일을 모르시오? 절흥<sup>2480</sup>같은 흉노<sup>2481</sup>로되 백등칠일지위<sup>2482</sup>하여 한고조<sup>2483</sup>를 살리었고,

지백지신 예양<sup>2484</sup>이도 조양자<sup>2485</sup>를 죽이려고 협비수<sup>2486</sup> 하옵시고 궁중도축<sup>2487</sup>을 하였으나,

의인<sup>2488</sup>이라 이르시고 오근피지<sup>2489</sup> 하였으니, 장군님의 어진 뜻으로 소장을 살려주오.”

관공이 대노하여<sup>2490</sup> 꾸짖어 하는 말씀이,

“예양은 의인이요, 한고조는 천중대인<sup>2491</sup>이라 일이 그러하거니와, 그대는 한나라 적신<sup>2492</sup>이고, 나는 한나라의 의장<sup>2493</sup>이라.

너 잡으려 내 왔으니 잔말 말고 쉬 죽어라!” 조조 다시 애걸한다. “여보 장군, 듣조시오.

장군은 영웅이라 하비<sup>2494</sup>에서 몰리시어 형제가 서로 분산하여<sup>2495</sup> 거주<sup>2496</sup>를 모를 제,

소장<sup>2497</sup> 나라로 모셔 들어 미부인,<sup>2498</sup> 감부인<sup>2499</sup>을 별궁<sup>2500</sup>지어 드렸고,

He laughs wickedly ‘Hehehe.’ Let me greet you, sir. “General, long time, no see! How are you doing?”

Virtuous, Guan Yu(關羽) bows on his horse and replies nicely, “I received an order from my brother and Kong Ming(孔明) to lie in ambush here to catch you. I waited for you here for a long time!”

Cao Cao(曹操) implores again. “Listen to me, general.

I got an order from the emperor, massacred numerous soldiers, and wandered around.

I am glad and delighted to see you again. But you are angry and think of me as your enemy, which is sad.

Don’t you know the past? Although heinous, the Xiungnu(匈奴) Tribe released the first king of the Han(漢) Dynasty after surrounding him for seven days in Baideng(白登).

Zhi Bo’s(智伯) subject, Yu Rang(豫讓) tried to kill Xiang Zi(襄子) of Zhao(趙), carrying a dagger secretly. But he was caught. Xiang Zi(襄子) was thought of as a righteous man and was avoided. General, please be merciful and set me free.”

Infuriated, Guan Yu(關羽) rants at Cao Cao(曹操).

“The pardon was possible because Yu Rang(豫讓) was a righteous man and the first king of the Han(漢) Dynasty was a virtuous king.

You are a rebel against the Han(漢) Dynasty, but I am a righteous general of the Han(漢) Dynasty.

I am here to catch you. Don’t argue with me. Just die!” Cao Cao(曹操) begs again. “Hello, general. Listen to me.

Since you are a hero, you were pushed to Xiapi(下邳). You and your brothers were separated and wandered around.

I invited you to my country and built a separate palace for Lady Mi(糜) and Lady Gan(甘).

장군을 진심으로 위로할 제, 삼일에 소연<sup>2501</sup>)이요, 오일에 대연<sup>2502</sup>)  
 으로 미녀 삼십을 골라내어 색 갈아<sup>2503</sup>) 시워<sup>2504</sup>)하고,  
 여포<sup>2505</sup>) 첩 초선<sup>2506</sup>)이를 별방<sup>2507</sup>)으로 드렸더니,  
 한 말씀 간사타고 청룡도로 목을 베어 죽이어도 무슨 말씀 하더이까?  
 상마할 때 황금 천 냥,<sup>2508</sup>) 하마할 때 백금 천 냥,<sup>2509</sup>) 말로 되어<sup>2510</sup>)  
 드렸더니,  
 고치 앓고<sup>2511</sup>) 떠나갈 제 오관 육장<sup>2512</sup>)을 다 죽여도,  
 나는 그래도 원심<sup>2513</sup>)이 없어 공문 닦어<sup>2514</sup>) 보냈잖소이까?<sup>2515</sup>)  
 나의 도리가 어떠하오. 살려주시오. 살려주시오. 제발 덕분에 살려  
 주오.”

[중모레] 관공이 듣고서 화를 내며,  
 “그 때 운수가 불길하여 그대 나라에 갔을 적에, 그대가 주던 은금보  
 화 다 도로 내주었고,  
 하북대장<sup>2516</sup>) 안량,<sup>2517</sup>) 문추<sup>2518</sup>)가 기용이 상범하여,<sup>2519</sup>) 그대 나라  
 수다<sup>2520</sup>) 장졸<sup>2521</sup>) 일제히 다 죽는데,  
 내가 보다가 민망하여 청룡도 부여잡고 전장에 나갈 적에,  
 그대 손으로 술을 들어 내 안전에<sup>2522</sup>) 들이거늘, 일공<sup>2523</sup>)이 없기 전  
 에 잔 잡기 괴이하여,<sup>2524</sup>)  
 일고함성<sup>2525</sup>) 한 갈 끝에 안량, 문추 베어들고 본진으로 돌아오니 더  
 운 술이 식지 아니하고,  
 벽산도<sup>2526</sup>) 땅을 앗아<sup>2527</sup>) 그 안책<sup>2528</sup>)에 기록하니 그 은혜를 갚은지  
 라. 잔말 말고 쉬<sup>2529</sup>) 죽어라!”  
 조조가 듣고서 애걸한다. “여보 장군, 듣조시오.  
 장군 타신 적토마<sup>2530</sup>)는 여포<sup>2531</sup>) 타던 적토마라. 소장이 뺏어다가  
 장군님전에 드렸더니,

I conscientiously served you, throwing a small party every three days and a big party every five days. I selected thirty beautiful women who served you alternately.

I offered you Lu Bu's(呂布) wife, Diao Chan(貂蟬), to be your second wife.

You killed her with Blue Dragon Sword, saying she was wicked. But I didn't complain at all.

I gave you a lot of money when you got on your horse and got off your horse.

But you left without saying goodbye to me. You killed six of my warriors when you went through the five gates.

But I didn't blame you at all. Rather, I gave you written permission to leave.

What do you say about my behavior? Please have mercy on me and spare my life."

**[Jungmori]** Guan Yu(關羽) scolds Cao Cao(曹操).

I was unfortunate to visit your country. I returned all the money to you.

Brave, Yan Liang(顏良) and Wen Chou(文醜), the officers in Hebei(河北), killed many of your officers and soldiers.

Ashamed to watch them, I was about to go to the battleground with Blue Dragon Sword in my hand.

You poured wine into a glass for me in front of me. I couldn't pick up the glass because I didn't accomplish any feat for you.

I shouted and cut off Yan Liang(顏良) and Wen Chou's(文醜) heads in one move. When I brought the two heads to your camp, the wine was still warm.

I conquered a wide area and gave it to you, so I returned your favor. Stop complaining. Just die!"

Cao Cao(曹操) entreats. "Hello, general. Listen to me.

The red horse you are on used to belong to Lu Bu(呂布). I deprived it of him and gave it to you.

‘천리외역<sup>2532</sup>) 있는 형장<sup>2533</sup>) 하루 내에 뵈오리다.’ 희희낙락<sup>2534</sup>) 하시더니,  
 이제 어찌 잊었으며, 순금 갑옷, 황금 투구를 내려서<sup>2535</sup>) 드렸으니,  
 나의 도리 어떠하오?  
 살려주오. 살려주오. 장군님 덕택에 살려주오.” 운장의 어진 마음 놓으실 처분<sup>2536</sup>)은 있었으나,  
 조조를 조롱하여 애타는 것 보시려고 청룡도 번쩍 들어노니,  
 조조가 깜짝 놀라, “아이고, 정욱아. 내 모가지 있나 보아라.  
 아, 청룡도가 든다더니만<sup>2537</sup>) 아프지도 않고 그냥 모가지가 땅에 툭 떨어지는구나.”

## 52. (주창의 재촉) 관운장이 조조를 죽이지 않자, 주창이 죽일 것을 재촉한다.

[아니레] 운장이 기가 막혀, “그 목이 떨어졌으면은 죽은 거 아니오? 죽은 사람도 말을 할까?”  
 “예, 본래 정신이 좋아서 말은 잘하지마는 혼은 벌써 피난 갔소.”  
 운장이 대소<sup>2538</sup>)하고, 조조를 놓으려<sup>2539</sup>) 할 제,  
 [자진모래] 주창<sup>2540</sup>)이 거동 바라. 주창이 거동 바라.  
 큰소리로 하는 말, “여보 장군, 듣조시오.  
 첫 칼에 베일 조조를 천추<sup>2541</sup>)하여 두옵시니 옛일과 같소이다.  
 강동<sup>2542</sup>)의 모진 범<sup>2543</sup>)이 함양<sup>2544</sup>)을 파한 후에,  
 대룡<sup>2545</sup>)을 그려 놓고 홍문연<sup>2546</sup>) 굳이 열고,  
 항장<sup>2547</sup>)의 날랜 칼이 쓸 곳이 바이없어<sup>2548</sup>) 백설<sup>2549</sup>)이 되단 말  
 가?<sup>2550</sup>)

Exuberant, you said, ‘I can meet my brother far away from here within a day.’

Did you forget that? I gave you the golden armor and helmet you are wearing. What do you say?

Please be generous and spare my life.” Being benevolent, Guan Yu(關羽) intends to set Cao Cao(曹操) free.

But in order to tease Cao Cao(曹操) and to see him feel uneasy, Guan Yu(關羽) raises Blue Dragon Sword.

Cao Cao(曹操) is horrified. “Gosh, Cheng Yu(程昱). See if my head is intact.

I heard Blue Dragon Sword cuts well. I think it cut my head off to the ground without causing pain.”

**52. (Zhou Cang’s(周倉) Pressing) Guan Yu(關羽) does not kill Cao Cao(曹操). Zhou Cang(周倉) presses Guan Yu(關羽) to kill Cao Cao(曹操).**

[Aniri] Guan Yu(關羽) is dumfounded. “If your head is cut off, aren’t you dead? How can a dead person speak?”

“My mind is originally clear, so I can speak, but my spirit has already come out of my body.”

Guan Yu(關羽) laughs and tries to set Cao Cao(曹操) free.

[Jajinmori] Behold Zhou Cang(周倉). Behold him.

He speaks loudly, “General, please listen.

You can slash Cao Cao(曹操) to death, but you hesitate to do it, which is similar to past events.

Xiang Yu(項羽), the fierce tiger of Jiangdong(江東), occupied Xian Yang(咸陽).

He drew a picture of a large dragon and threw a party.

He planned to have Xiang Zhuang(項莊) kill Liu Bang(劉邦) to no avail.

계명산<sup>2551</sup>) 추야월에<sup>2552</sup>) 옥통소<sup>2553</sup>) 한 곡조에 팔천대병<sup>2554</sup>)이 흘러  
 어지니,  
 오강풍랑중에 자문이사<sup>2555</sup>) 하였으니 역발산기개세<sup>2556</sup>)도 오히려 그  
 령거든,  
 하물며 조맹덕<sup>2557</sup>)은 치세지능신<sup>2558</sup>)이요, 난세지간웅<sup>2559</sup>)이라.  
 장군이 농사오면 소장이 잡으리다.”  
 별안간 달려들으며 조조 먹살 꼭 붙들고,  
 “왕지명<sup>2560</sup>)이 달린 네 목숨이 어디로 가느냐!” 하여노니,  
 조조가 눈살<sup>2561</sup>)이 킁킁하고 콧구녕<sup>2562</sup>)이 뻑뻑하고 목이 콧 쉽  
 서,<sup>2563</sup>)  
 “아이고, 주별감<sup>2564</sup>)나리 나 쪼깨<sup>2565</sup>) 살려주시오. 내 술 한잔 받아  
 주리다.”

### 53. (조조 살려줌) 관운장이 조조를 살려주고 돌아오니, 공 명이 칭찬하며 반긴다.

[중모레] 운장이 보시다 민망하야,<sup>2566</sup>)  
 “마라. 마라. 그리를 말어라. 목숨은 살려두고 잡아가자. 중군<sup>2567</sup>)은  
 하산하라.”  
 말머리를 돌려노니, 조조가 운장이 회마<sup>2568</sup>)함을 보고 일시에<sup>2569</sup>) 모  
 두 다 도망하니,  
 운장이 호령할 적에, “어디로 가느냐?” 하여노니, 조조가 말께<sup>2570</sup>) 떨어  
 어져서 데굴데굴 뒹구르니,<sup>2571</sup>)  
 장수들이 말께 내려 합장<sup>2572</sup>)하여 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장군님  
 전 비나이다. 살려주오. 살려주오.



On Jiming(鷄鳴) Mountain, a jade flute played sad music on an autumn night moon, dispersing Xiang Yu's(項羽) 8,000 soldiers. Xiang Yu(項羽) committed suicide on the wind and waves of the Wu(烏) River, although he was strong enough to pull out a mountain.

Cao Cao(曹操) is a talented subject in a peaceful time, but he is a wicked man in a chaotic time.

General, if you set him free, I will catch him.”

Suddenly running at Cao Cao(曹操), Zhou Cang(周倉) grabs him by the neck and says,

“You can't go free because of the king's order!”

The wrinkles between Cao Cao's(曹操) eyes become straight. His nostrils become tense. His throat turns abruptly hoarse.

“Zhou Cang(周倉), please spare my life. I'll buy you a drink.”

**53. (Cao Cao(曹操) is Set Free.) Guan Yu(關羽) sets Cao Cao(曹操) free and comes back. Kong Ming(孔明) welcomes Guan Yu(關羽) and praises him.**

[Jungmori] Guan Yu(關羽) feels sorry for Cao Cao(曹操).

“Don't do it. Let's bring him to our camp alive. Troops, let's go down the mountain!”

When Guan Yu(關羽) turns around, Cao Cao(曹操) sees him. He and all of his soldiers flee instantly.

Guan Yu(關羽) yells at him. “Where are you going?” Cao Cao(曹操) falls off his horse and rolls over.

His generals get off their horses and beg together. “We beg you, general. We implore you to spare our premier.

우리 승상 살려주면, 높고 높은 장군의 은혜 본국<sup>2573</sup> 천 리 가서  
결초보은<sup>2574</sup>을 하오리다.”

문무장졸<sup>2575</sup> 우는 소리 화용산천<sup>2576</sup>이 막막<sup>2577</sup>하구나.

**[엿중모리]** 운장이 더욱 측은하여 정히<sup>2578</sup> 유정하는<sup>2579</sup> 차에,<sup>2580</sup>  
장요<sup>2581</sup> 말을 놓아 들어와 반갑게 인사하니,

운장이 또한 옛 은혜를 생각하고 조조를 놓아 주고 하구<sup>2582</sup>로 돌아  
오니,

그 때에 공명선생은 계하<sup>2583</sup>로 내려오더니만 운장의 손을 잡고,  
“양<sup>2584</sup>이 간밤에 천기<sup>2585</sup>를 보니, 조조를 만약 죽여노면 여덟 조조  
가 낳겠기로 관공을 보내어서 옛 은혜를 갚았으니, 어찌 아름답지  
아니하리오?”

삼국지 칠 권을 소리로다 하자면은 몇 날이 될 줄 모르겠구나. 어질더  
질<sup>2586</sup> 놀아보자.

If you spare our premier, we will return your favor back in our country away from here.”

All the civilians, officers, and soldiers cry, surrounded by the mountains and rivers around Huarong(華容) Road.

**[Eotjungmori]** Guan Yu(關羽) feels all the more sympathetic to Cao Cao(曹操).

Zhang Liao(張遼) gets off his horse and warmly greets Guan Yu(關羽).

Thinking about the past favor, Guan Yu(關羽) releases Cao Cao(曹操) and returns to Xiakou(夏口).

Kong Ming(孔明) steps down the stairway and grabs Guan Yu's(關羽) hands.

“I examined heaven last night. If you had killed Cao Cao(曹操), eight Cao Caos(曹操) would be spawned. So I sent you there, and you returned his favor. Isn't this beautiful?”

It might takes several days to sing *Sanguozhiyanyi*(三國志演義) consisting of seven books. Let me finish.

- 
- 1) 天下大勢. 온 세상의 큰 흐름.
  - 2) 合久必分. 합한 지가 오래면 반드시 나누어짐.
  - 3) 分久必合. 나누어진 지가 오래면 반드시 합해짐.
  - 4) 周나라. 중국의 옛날 왕조. 섬서성에서 일어나 문왕(文王) 때 번영했다. 아들인 무왕(武王)이 동방의 은나라를 쳐부수고 호경(鎬京)에 도읍했다. 기원 전 770년에 만족의 침입을 피하여 동방의 낙양으로 천도했는데, 천도 이전을 서주, 천도 이후를 동주 시대라고 한다. 동주 시대는 춘추전국시대라고 불리는데, 제후들의 세력에 눌려 주나라 왕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고 무력한 작은 나라로 되어, 기원 전 256년에 진나라에게 망했다.
  - 5) 末年. 끝 무렵.
  - 6) 秦始皇. 진나라의 황제. 육국(六國)을 멸하여 천하를 통일하고 봉건제를 고쳐 천하를 군현으로 나누었으며 흉노 및 남월을 쳐서 강토를 확장한 다음 만리장성을 쌓았음.
  - 7) 漢高祖. 중국 전한의 고조 유방(劉邦). 유방은 B.C. 206년 항우로부터 한왕으로 봉해졌으나, 그 후 4년 동안 항우와의 쟁패전에서 장량, 한신 등의 도움을 받아 해하에서 항우를 대파하고 천하통일을 이루었다. B.C. 202년 유방은 황제의 자리에 올랐으며 장안에 도읍하였다.
  - 8) 仁義. 어짐과 의로움.
  - 9) 獻帝. 후한의 마지막 왕으로, 동탁(董卓)이 소제(少帝)를 폐한 뒤 세운 임금.
  - 10) 東에. 동쪽에. 여기서는 양자강의 동쪽, 지금의 강소성 지방을 가리키는 말.
  - 11) 孫權. 자는 중모(仲謀). 중국 삼국시대 오나라의 임금. 유비와 함께 적벽에서 조조를 크게 무찌른 뒤 다시 위나라와 손을 잡고 임금이 되었음.
  - 12) 曹操. 자는 맹덕(孟德). 후한 현재 때에 승상으로 실권을 쥐었는데, 뒤에 화북 지방을 거의 평정하여 위왕(魏王)이라고 일컬었다. 적벽에서 유비와 손권의 연합군에게 졌으나, 한나라를 대신하여 위나라를 세우는 기틀을 마련했다.
  - 13) 爲人. 사람 됨됨이.
  - 14) 볼 것 같으면.
  - 15) 治世之能臣. 잘 다스려져 질서가 잡힌 세상의 능력 있는 신하.
  - 16) 亂世之奸雄. 어지러운 세상의 간사한 영웅.
  - 17) 挾天子而令諸侯. 천자를 끼고 제후를 호령함.
  - 18) 氣勢. 남이 보기에 두려워할 만큼 세차게 뻗치는 힘.
  - 19) 難當. 당하기 어려움.
  - 20) 涿郡. 지금의 중국 허북성에 있는 지명.
  - 21) 낳아서 있으니.
  - 22) 劉玄德. 161년에 나서 223년에 죽은 중국 삼국시대 촉한의 건실자. 이름은 비(備), 자(字)는 현덕, 시호는 소열제(昭烈帝)임.
  - 23) 關雲長. 관우(關羽)의 자(字). 중국 삼국시대에 촉한의 유비, 장비와 함께 의형제를 맺고 촉나라를 세우는데 공이 컸던 명장. 산서(山西) 사람으로 시호는 충의후(忠義侯).
  - 24) 張飛. 중국 삼국시대 촉의 장수. 자는 익덕(翼德). 호북성에서 태어나 유비, 관우와 더불어

어 도원에서 의형제를 맺었다. 그는 유비를 평생 동안 섬기면서 많은 전쟁터에서 누구도 따를 수 없는 힘과 용기로 용맹을 떨쳤다. 그는 뛰어난 호걸이긴 하였지만 너무 성미가 급하고 또한 술을 좋아하였다. 관우의 원수를 갚기 위하여 군사를 일으켜 오(吳) 나라로 쳐들어가는 길에 부하의 손에 의해 암살되었다.

- 25) 桃園. 하북성 탁군에 있는 장비의 집 후원 복숭아 밭. 이곳에서 유비, 관우, 장비 세 사람이 의형제를 맺었음.
- 26) 社稷. 토지의 신과 곡식의 신. 대개 '종묘'와 함께 왕실과 나라를 아울러 이르는 말.
- 27) 磐石. 원래는 '넓고 평평한 바위'라는 뜻인데, 기틀이 아주 튼튼함을 비유적으로 이룸.
- 28) 白馬. 흰 말.
- 29) 三人. 세 사람.
- 30) 謀士. 남을 위해 피를 내어주는 사람.
- 31) 徐庶. 유비가 조조에게 패하고 유표(劉表)에게 있을 때 만난 인재. 영천(潁川) 사람으로 자(字)는 원직(元直). 단번에 의기가 통하여 유비를 위하여 공을 세웠다. 조조가 그의 어머니를 감금하고 거짓 서면으로 유인하는 통에 그에게로 갔으나, 어머니는 자식의 무모함을 꾸짖고 자살하였다. 어머니의 죽음 이후 한 가지의 꾀도 바치지 않고 아까운 재주를 썩혔다.
- 32) 許昌. 중국의 지명. 조조가 헌제를 맞아 새로 도읍을 정한 곳.
- 33) 程昱. 조조의 모사(謀士). 동군(東郡) 동아(東阿) 사람으로, 자는 중덕(仲德). 순욱의 천거로 조조의 막하에 들었으며, 벼슬이 위위(衛尉)에 이르렀다.
- 34) 筆跡. 손수 쓴 글씨의 모양.
- 35) 盜賊하여. 도적질을 하여. 위조(僞造)하여.
- 36) 僞造片紙. 가짜로 만든 편지.
- 37) 大驚. 크게 놀람.
- 38) 紛紜世上. 어지러운 세상.
- 39) 天下를 得失할. 세상을 얻고 잃을.
- 40) 母子之情. 어머니와 자식의 정.
- 41) 大事成功. 큰일을 이루어냄.
- 42) 하십시오. 하십시오.
- 43) 劉皇叔. 유비가 한나라 헌제의 아저씨가 되므로, 유비를 높여 일컫는 말.
- 44) 厚恩. 두터운 은혜. 많은 은혜.
- 45) 諸將. 여러 장수.
- 46) 때. 때에.
- 47) 薄福. 복이 없음.
- 48) 劉嗣君. 유비가 선왕의 대를 이었다는 데서 부르는 말. '사군(嗣君)'은 선왕의 대를 물려 받은 임금. 사군을 '帥君'으로 쓰면, 스승을 높이어 이르는 말임.
- 49) 조조에게로.
- 50) 徐元直. 서서(徐庶)의 자(字). 유비가 조조에게 패하고 유표(劉表)에게 있을 때 만난 인재. 영천(潁川) 사람.
- 51) 亡終. 마지막.

- 52) 薦舉. 어떤 자리에 인재를 추천함.
- 53) 襄陽땅. '양양'은 중국 호북성 북서부에 있는 도시. 예로부터 군사상의 요충지였는데, 이곳 서쪽에 있는 복룡산(伏龍山)이 제갈공명의 은거지였음.
- 54) 二十里許. 이 십 리쯤 되는 곳.
- 55) 萬古奇才. 만고에 뛰어난 인재.
- 56) 字. 본 이름 이외에 부르는 이름. 흔히 장가든 뒤에 본 이름 대신으로 부름.
- 57) 道號. 본래는 '불도에 들어간 뒤에 붙이는 이름'이지만, 여기서는 그냥 호로 쓰였음.
- 58) 臥龍. 누워 있는 용. 와룡은 비구름을 만나면 하늘로 올라간다고 하므로, 때를 기다리는 호걸을 비유함.
- 59) 大賢人. 크게 어질고 총명하여 성인 다음으로 가는 사람.
- 60) 上通天文. 위로는 하늘의 이치에 통달함.
- 61) 下達地理. 아래로는 땅의 이치에 달통함.
- 62) 前無後無. 그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없음.
- 63) 바닥에 깎 자리를 걷듯이 어떤 일을 쉽게 처리할 때 쓰는 말.
- 64) 司馬德操. '사마'는 군사 방면 최고 책임자를 이르는 말이고 '덕조'는 황실의 후에 왕손(王孫)을 이름. 곧 서서를 이르는 말.
- 65) 伏龍. 세상에 숨어 있는 인재를 가리키는 말로 제갈량을 이름.
- 66) 鳳雛. 방통(龐統)을 이름.
- 67) 占하리다. 자리를 차지할 것입니다.
- 68) 襄陽. 중국 호북성 북서부에 있는 도시. 예로부터 군사상의 요충지였는데, 이곳 서쪽에 있는 복룡산(伏龍山)이 제갈공명의 은거지였음.
- 69) 龐統. 유비 막하의 모사. 본래 와룡(臥龍) 봉추(鳳雛) 중 하나만 얻어도 왕업을 이루려던 말 속의 봉추가 바로 그림. 양양 사람으로 자는 사원(士元). 적벽대전에서 연환계를 내어 성공시켰음. 낙성(洛城)을 치다가 삼십육 세로 죽었음.
- 70) 大喜하여. 크게 기뻐하여.
- 71) 三顧草廬. 오막살이집을 세 번 찾음. 유비가 제갈량을 모시러 세 번 초가집을 찾아갔다는 고사에서 나온 말로, 인재를 얻기 위한 끈질긴 노력을 일컫는 말.
- 72) 堂堂한. 버젓하고 정대한.
- 73) 身長. 키
- 74) 七尺五寸. 일곱 자 다섯 치. 약 225cm 정도.
- 75) 面如冠玉. 얼굴이 관옥과 같음. '관옥'은 머리에 쓰는 관 앞을 꾸미는 옥. 남자의 잘 생긴 얼굴을 비유하여 일컫는 말.
- 76) 自顧其耳. 두 귀를 손수 돌아봄. 두 귀가 스스로 돌아볼 수 있을 만큼 크다는 뜻.
- 77) 垂手過膝. 손이 무릎 아래까지 내려옴.
- 78) 烏帽紅袍. 검은 모자에 붉은 도포.
- 79) 雙股劍. 넓적다리 모양으로 생긴 칼.
- 80) 비스듬히.
- 81) 馱廬馬上. 적로마 위. '적로마'는 이마에 흰 점이 있는 말.
- 82) 엉크러지거나 흐리지 않고 똑똑하며 분명하게.

- 83) 漢太祖, '태조'는 나라를 처음 세운 임금. 유현덕이 한나라의 태조가 될 만한 기상을 지녔음을 일컫는 말.
- 84) 氣像, 사람이 타고난 기개나 마음씨, 또는 그것이 겉으로 드러난 몸가짐.
- 85) 爲人, 사람 됨됨이.
- 86) 볼 것 같으면.
- 87) 面如重棗, 얼굴이 진한 대추의 색깔과 같음.
- 88) 脣若塗脂, 입술이 연지를 바른 것과 같이 붉음.
- 89) 丹鳳眼, 단산에 사는 봉황의 눈. '단산(丹山)'은 붉은 모래가 나는, 봉황이 살고 있다는 전설 속의 산.
- 90) 臥蠶眉, 누워 있는 누에처럼 길고 굽은 눈썹.
- 91) 青龍刀, 청룡언월도(靑龍偃月刀). 긴 자루 끝에 초승달처럼 생긴 날을 단 칼. 관우가 쓰는 칼은, 칼날을 청룡이 물고 있는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청룡도라고 하였음.
- 92) 三角鬚, 두 뺨과 턱에 난 수염이 삼각형을 이룬 수염.
- 93) 거스르게 하고, 끝이 위로 올라가게 하고.
- 94) 赤兔馬上, 적토마 위. '적토마'는 조조가 관우에게 준 명마로, 온 몸이 붉은 빛이 나는 말. 관우가 죽자 굶어 죽었다고 함.
- 95) 舉動, 행동이나 태도.
- 96) 威風, 위엄 있는 풍채.
- 97) 凜凜하고, 위풍이 있고 당당하며 씩씩하고.
- 98) 豹頭環眼, 표범의 머리와 고리눈. '고리눈'은 눈동자의 둘레에 흰 고리가 둘러 눈.
- 99) 燕頷虎鬚, 제비턱과 호랑이 수염.
- 100) 綠巾, 녹색 비단으로 만든 모자.
- 101) 鸚鵡戰袍, 앵무새의 깃갈처럼 노랑과 아름다운 전포. '전포'는 장수가 입던 옷.
- 102) 丈八尺, 일장 팔척. 일장은 10척임. 1척(자)은 약 30cm.
- 103) 蛇矛長槍, 창끝이 뱀의 머리처럼 세모꼴로 된 긴 창.
- 104) 烏騄馬上, 오추마 위. '오추마'는 항우가 탔다는 명마(名馬).
- 105) 眞三國之猛將, 삼국 중에서 가장 용맹한 장수.
- 106) 玄纁玉帛, 예물로 쓰는 검은색, 분홍색, 흰색의 비단.
- 107) 다리 이름인 듯하나 불명.
- 108) 寂寞空山, 고요한 깊은 산.
- 109) 寥寥行遠, 멀리 떠나는 길이 고요하고 쓸쓸함.
- 110) 창이 자루.
- 111) 犖犖한, 분명하고 뚜렷한.
- 112) 山鳥聲, 산새들의 울음소리.
- 113) 天空, 하늘.
- 114) 草野江山, 들과 강과 산에는.
- 115) 玉泉, 맑은 샘.
- 116) 山影渡江魚躍水, 산 그림자 강을 건너고, 물고기는 물에서 뜬다.
- 117) 金角鐵峯, 바위가 쇠나 철처럼 단단하게 우뚝 선 봉우리.

- 118) 翠竹青松. 푸른 대나무와 푸른 소나무.
- 119) 半空. 땅으로부터 그리 높지 아니한 허공.
- 120) 南陽. 중국 하남성에 있는 지방으로, 공명이 은거하던 곳.
- 121) 秀麗. 빼어나게 아름다움.
- 122) 澄清. 맑고 깨끗함.
- 123) 劉關張. 유비·관우·장비를 아울러 일컫는 말.
- 124) 채찍을 쳐서.
- 125) 南陽隆中. 남양에 있는 용중. '남양'은 중국 하남성에 있는 지방으로, 공명이 은거하던 곳. '용중'은 중국 호북성 양양현에 있는 산 이름으로, 공명이 은거하던 곳.
- 126) 人跡. 사람의 자취.
- 127) 內洋. 육지와 육지 사이에 낀 좁은 바다. 여기서는 '강물'을 이르는 듯.
- 128) 童子다려. 동자에게. 사내아이에게.
- 129) 數日. 며칠.
- 130) 三五日. 3일에서 5일 사이.
- 131) 十數日. 십 일이 약간 넘는 날.
- 132) 期約. 언제라고 때를 정하고 약속함.
- 133) 모르나이다. 모릅니다.
- 134) 漢宗室. 한나라 임금의 일가붙이.
- 135) 劉皇叔. 유비가 한나라 마지막 황제인 헌제의 삼촌뻘이 된다 해서 부르는 이름.
- 136) 階下. 계단 아래.
- 137) 申申히. 다른 사람에게 부탁이나 당부를 할 때 거듭해서 간곡하게 하는 모양.
- 138) 新野. 중국의 지명. 지금의 하남성 남양현에 있음.
- 139) 兄丈. 나이가 비슷한 또래의 사람들 사이에서 상대방을 높여 일컫는 말. 여기서는 '형님'이라는 뜻으로 썼음.
- 140) 小弟. 아우가 형에 대하여 자신을 낮추어 일컫는 말.
- 141) 大賢. 뛰어난 현인.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람을 일컬음.
- 142) 不順. 순종하지 않은.
- 143) 兩位. 부모나 부모처럼 섬기는 사람의 내외분을 가리키는 말. 여기서는 그저 '두 분'이라는 뜻으로 썼음.
- 144) 朔風. 겨울철에 북쪽에서 불어오는 찬바람.
- 145) 凜凜하고. 위풍이 있고 당당하며 씩씩하고.
- 146) 瑞雪. 상서로운 눈.
- 147) 霏霏. 부슬부슬 내리는 모양.
- 148) 萬山平野. 모든 산과 평야.
- 149) 紛紛. 어지러이 날아다님.
- 150) 臥龍岡. 공명이 은거하여 살던 골짜기로, 하남성 남양현 서남쪽에 있음.
- 151) 草堂. 집의 원채에서 따로 떨어져 있는, 억새나 짚 같은 것으로 지붕을 인 조그마한 집.
- 152) 名畫. 이름난 그림.
- 153) 淡泊以明志요, 寧靜以致遠이라. 욕심이 없고 깨끗함으로써 뜻을 밝게 하고, 평안하고



조용함으로써 원대한 일을 이룬다. 제갈량의 《계자서(誡子書)》에 있는 구절. 원문은 다음과 같다. ‘비담박무이명지(非淡泊無以明志) 비영정무이치원(非寧靜無以致遠). 욕심없이 깨끗하지 아니하면 뜻을 밝힐 수 없고, 평안하고 조용하지 않으면 원대한 일을 이룰 수 없다.’

- 154) 鳳, 봉황
- 155) 사람의 키 정도의 길이.
- 156) 날기 때문에.
- 157) 梧桐. 오동나무. 봉황새는 오동나무에 집을 짓고 산다고 함.
- 158) 一邦. 한 나라. 한 국가.
- 159) 明主. 현명한 군주.
- 160) 琴書. 거문고와 책을 아울러 이르는 말. 여기서는 거문고에 붙인 글귀를 뜻함.
- 161) 寄傲함. 자신의 오만함을 비유하여 표현함.
- 162) 天時. 하늘이 주는 때.
- 163) 高名. 남의 이름을 높여 이르는 말.
- 164) 前日. 얼마 전.
- 165) 萬幸. 천만다행(千萬多幸)임. 아주 다행함.
- 166) 慌忙히. 마음이 몹시 급하여 당황하고 허둥지둥하면서.
- 167) 家兄. 남에게 자신의 형을 겸손하게 이르는 말.
- 168) 大驚. 크게 놀람.
- 169) 臥龍先生. ‘와룡’은 제갈량의 호.
- 170) 長兄. 맏형.
- 171) 諸葛瑾. 손권 막하의 모사. 자는 자유(子瑜). 제갈량의 형이며, 난을 피해 강동에 가 있다가 노숙의 천거로 손권을 섬기게 되었다. 아우 량이 유비를 도와 승상으로 있었기 때문에, 주로 유비 측과의 외교 접촉을 위하여 동분서주하였으나, 사사로이 만나는 일은 없었다고 한다. 대장군에 예주목(豫州牧)을 겸했는데, 뒤에 병으로 죽고, 그의 아들 각(恪)이 대를 이었으나 권력이 너무 커져 죽임을 당했다.
- 172) 東吳. 동쪽에 있는 오나라.
- 173) 孫仲謀. 손권(孫權). ‘중모’는 손권의 자(字).
- 174) 幕賓. 비장(裨將). 무관 벼슬의 하나. 여기서는 ‘막하에 초청되어 가서 특별한 직책 없이 일을 도와주는 사람, 곧 비공식 참모.’ 정도의 의미로 썼음.
- 175) 仲兄. 둘째 형.
- 176) 諸葛均. 제갈량의 동생. 자세한 사항은 알려져 있지 않다.
- 177) 崔州平. 남양의 숨은 인재. 박릉 사람으로 제갈량, 석광원, 서서 등과 함께 공부한 사이. 난세에 세상에 나오기를 꺼려 숨어 지냈다.
- 178) 相若. 서로 약속함.
- 179) 紙筆. 종이와 붓.
- 180) 悄愴함. 마음이 근심스럽고 슬픔.
- 181) 漢朝. 한나라 왕조.
- 182) 苗裔. 먼 후대의 자손.

- 183) 群雄. 같은 시대에 여기저기에서 일어난 영웅들.  
 184) 하기 때문에.  
 185) 匡濟. 잘못된 일을 바르게 고쳐 구제함.  
 186) 經綸之策. 천하를 다스릴 계획.  
 187) 仰慕. 우러러 그리워함.  
 188) 呂望. 주(周)나라 초기의 어진 재상 강태공(姜太公)을 말함.  
 189) 大才. 큰 재주.  
 190) 子房. 장자방(張子房). 이름은 양(良). 자방은 그의 자(字). 한나라 고조 유방의 모사로  
 서 한나라를 세우는 데 큰 공을 세웠음.  
 191) 洪業. 나라를 세우는 큰 사업.  
 192) 社稷. 토지의 신과 곡식의 신. 대개 '종묘'와 함께 왕실과 나라를 아울러 이르는 말.  
 193) 萬幸. 천만다행(千萬多幸)임. 매우 다행함.  
 194) 하여.  
 195) 告 하나이다. 고합니다. 알립니다.  
 196) 建安. 중국 후한 헌제 때의 연호. 서기 196년에서 220년까지임.  
 197) 藍冠. 남빛 관.  
 198) 青衣. 푸른 옷.  
 199) 호리병박처럼 가운데가 잘룩하게 들어간 병으로, 흔히 술이나 약재를 담는 데 씀.  
 200) 丁寧한. 분명한.  
 201) 말에서.  
 202) 莫非臥龍인가? 와룡이 아닌가요?  
 203) 慌忙히. 황망하게. 마음이 몹시 급하여 당황하고 허둥지둥하면서.  
 204) 黃承彥. 제갈량의 장인. 제갈량을 따라 촉으로 왔다. 이릉전투 후에 오나라 장수 육손  
 이 유비를 추격하다 팔진도에 갇히게 되었는데, 그가 이끌어 내주었다.  
 205) 日後. 뒷날.  
 206) 오십시오.  
 207) 基業. 대대로 물려 내려오는 사업.  
 208) 어찌 할 도리 없이.  
 209) 어찌할까?  
 210) 兄丈. 나이가 비슷한 또래의 사람들 사이에서 상대방을 높여 일컫는 말. 여기서는  
 '형님'이라는 뜻으로 썼음.  
 211) 心慮치. 염려하지.  
 212) 明年. 다음 해.  
 213) 新野. 중국의 지명. 지금의 하남성 남양현에 있음.  
 214) 建安. 중국 후한 헌제 때의 연호. 서기 196년에서 220년까지 임.  
 215) 初春. 이른 봄.  
 216) 沐浴齋戒. (부정을 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목욕을 하고, 육식을 삼가며, 몸가짐을  
 깨끗이 하는 일.  
 217) 禮物. 감사의 뜻이나 기쁨의 뜻을 나타내기 위하여 주는 물건.

- 218) 三顧草廬. 오막살이집을 세 번 찾음. 유비가 제갈량을 모시러 세 번 초가집을 찾아갔다는 고사에서 나온 말로, 인재를 얻기 위한 끈질긴 노력을 일컫는 말.
- 219) 南陽隆中. 남양에 있는 융중. '남양'은 중국 하남성에 있는 지방으로, 공명이 은거하던 곳. '융중'은 중국 호북성 양양현에 있는 산 이름으로, 공명이 은거하던 곳.
- 220) 蒼天. 맑게 갠 푸른 하늘.
- 221) 碁局. 바둑이나 장기의 국면.
- 222) 世人. 세상 사람.
- 223) 往來者. 오고 가는 사람들.
- 224) 榮辱. 영예(榮譽)와 치욕(恥辱).
- 225) 的實히. 틀림없이.
- 226) 內洋. 육지와 육지 사이에 낀 좁은 바다. 여기서는 '강물'을 이르는 뜻.
- 227) 동자에게.
- 228) 草堂. 집의 원채에서 따로 떨어져 있는, 억새나 짚 같은 것으로 지붕을 인 조그마한 집.
- 229) 春睡. 봄날에 자는 잠.
- 230) 無想. 일체의 상념이 없음.
- 231) 揖. 인사하는 예의 하나로, 두 손을 맞잡아 얼굴 앞으로 들어올리고, 허리를 앞으로 공손히 구부렸다가 몸을 펴면서 손을 내림.
- 232) 階下. 계단 아래.
- 233) 半日. 한 나절.
- 234) 翼德. 장비(張飛)의 자(字).
- 235) 눈동자의 둘레에 흰 테가 있는 눈.
- 236) 다복술처럼 더부룩하고 억세며 곱슬곱슬하게 난 짧은 수염.
- 237) 거스르게 하고. 끝이 위로 올라가게 하고.
- 238) 옷소매를 뒤집어 걷고.
- 239) 高聲大喝曰. 큰 소리로 크게 꾸짖어 말하기를.
- 240) 哥哥. 형을 일컫는 말.
- 241) 金枝玉葉. 임금의 집안과 그 자손들을 일컫는 말. 귀여운 자손을 소중하게 이르는 말.
- 242) 漢室至親. 한나라 왕실의 친족.
- 243) 枉臨. 남을 높이어 그가 자기를 찾아옴을 이르는 말.
- 244) 假잠인가, 眞잠인가. 거짓으로 자는 잠인가, 진실로 자는 잠인가.
- 245) 志氣. 의지와 기개.
- 246) 賢弟야. 어진 아우야.
- 247) 春秋 적. 춘추시대(春秋時代) 때. 기원전 770년 주나라가 낙읍으로 도읍을 옮긴 이후, 기원전 403년에 한(韓)·위(魏)·조(趙)가 독립할 때까지의 시기.
- 248) 齊 桓公. 제나라의 제후. 이름은 소백(小白). 관중을 재상으로 맞아들여 경제를 충실히 하고 천하를 통일했다. 제나라는 지금의 산둥성 근방에 있었으며, 강태공이 세운 나라이다.
- 249) 東郭野人. 성의 동쪽에 사는 선비. 제나라 환공이 성의 동쪽에 산다는 현명한 사람을 구하려고 다섯 번이나 찾아갔다가 겨우 만났다고 하는데, 성이 환공과 같은 강(姜)이라고 하나, 이름은 전하지 않는다.

- 250) 硬論. 강경한 태도의 논의나 논설.
- 251) 草堂에 春睡足하니, 窓外日遲遲라. 大夢을 誰先覺고? 平生을 我自知라. 제갈량이 읊은 원문은, '대몽수선각 평생아자지 초당춘수족 창외일지지(大夢誰先覺 平生我自知 草堂春睡足 窓外日遲遲)'임. 큰 꿈을 누가 먼저 깨칠까. 평생을 내 스스로 아네. 초당에 봄잠을 충분히 자고 나니, 창밖의 해가 점차 길어진다.
- 252) 漢宗室. 한나라 임금의 일가붙이.
- 253) 劉皇叔. 유비가 한나라 마지막 황제인 헌제의 삼촌뻘이 된다 해서 부르는 이름.
- 254) 그 때가 되어서야.
- 255) 이제야.
- 256) 內堂. 안채.
- 257) 綸巾. 비단으로 만든 두건.
- 258) 鶴氅衣. 소매가 넓고, 가에 검은 천을 댄 선비의 옷.
- 259) 白羽扇. 새의 흰 깃털로 만든 부채.
- 260) 禮畢. 인사를 마침.
- 261) 坐定. 자리를 잡고 앉음.
- 262) 隆準龍眼. 크고 우뚝한 코와 용의 눈.
- 263) 垂手過膝. 손이 무릎 아래까지 내려옴.
- 264) 萬乘天子. 병차 일만을 낼 수 있는 넓은 토지를 가진 군주.
- 265) 氣像. 사람이 타고난 기개나 마음씨. 또는 그것이 겉으로 드러난 모양.
- 266) 眉在江山精氣. 미간(양 눈썹 사이)에 강산의 정기가 어려 있음.
- 267) 六經六甲之法. 육경과 육갑의 법칙. '육경'은 중국 춘추 시대의 여섯 가지 경서(經書). 《역경》, 《서경》, 《시경》, 《춘추》, 《예기》, 《악기》를 이르는데 《악기》 대신 《주례》를 넣기도 한다. '육갑'은 육십갑자를 이르는 말로 우주의 원리를 짚어내어 점을 치는 일.
- 268) 胸中. 가슴 속.
- 269) 揖을 하고, 인사를 하고, '읍'은 두 손을 맞잡아 얼굴 앞으로 들어올리고, 허리를 앞으로 공손히 구부렸다가 몸을 펴면서 내리는 인사.
- 270) 高名. 남의 이름을 높여 이르는 말.
- 271) 微賤한. 보잘 것 없고 천한.
- 272) 갔는데.
- 273) 天嗣. 천도(天道)를 이어 하느님이나 천자(天子)를 계승하는 사람. 특히 임금의 후손을 이른다.
- 274) 賤士. 천한 선비. 보잘 것 없는 선비.
- 275) 陋地. 누추한 곳.
- 276) 枉臨. 남을 높이어, 그가 자기를 찾아옴을 이르는 말.
- 277) 哀矜히. 불쌍하게.
- 278) 事情. 어떤 일의 형편이나 까닭을 남에게 말하고 무엇을 간청함.
- 279) 들어주십시오.

- 280) 漢室. 한나라 왕실.
- 281) 宗廟와 社稷. '종묘'는 임금의 조상들의 위패를 모신 사당이며, '사직'은 토지의 신과 곡식의 신. 따라서 '종묘사직'은 왕실과 나라를 아울러 이르는 말.
- 282) 亡在朝夕. 하루 아침이나 저녁에 망할 판임.
- 283) 草野. '풀이 난다'는 뜻으로 시골의 궁벽한 곳을 이름.
- 284) 無窮. 끝이 없음.
- 285) 武術. 무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여러 가지(검술, 창술, 궁술 등) 기술.
- 286) 社稷. 토지의 신과 곡식의 신. 대개 '종묘'와 함께 왕실과 나라를 아울러 이르는 말.
- 287) 白雪. 흰 눈.
- 288) 祝天. 하늘에 빌.
- 289) 經天緯地. 하늘을 주름잡고 땅을 누비는. 곧, 천하를 잘 다스릴.
- 290) 安邦輔國. 나라를 편안히 하고, 나라 일을 도움.
- 291) 어리석은.
- 292) 拜辭奏曰. 삼가 절하고 사양하며 아뢰기를.
- 293) 良. 제갈량 자신을 이름.
- 294) 布衣賤士. 벼슬하지 않고 사는 시골의 천한 선비.
- 295) 南陽. 중국 하남성에 있는 지방으로, 공명이 은거하던 곳.
- 296) 江湖. 강과 호수.
- 297) 讎覆. 이리저리 뒤집음. 여기서는 천하를 도모한다는 뜻.
- 298) 萬不成說.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말.
- 299) 虛行. 헛걸음.
- 300) 荊州益州圖. 형주와 익주 지역의 지도. 형주는 지금의 호남, 호북, 광서 및 귀주를 아울러 가리키는 이름. 익주는 형주의 서쪽 지방을 이르는 이름으로, 지금의 사천성.
- 301) 孫權. 자는 중모(仲謀). 중국 삼국시대 오나라의 임금. 유비와 함께 적벽에서 조조를 크게 무찌른 뒤 다시 위나라와 손을 잡고 임금이 되었음.
- 302) 領地. 영토(領土).
- 303) 荊州. 지금의 호남, 호북, 광서 및 귀주를 아울러 가리키는 이름.
- 304) 襄陽. 중국 호북성 북서부에 있는 도시. 예로부터 군사상의 요충지였는데, 이곳 서쪽에 있는 복룡산(伏龍山)이 제갈공명의 은거지였음.
- 305) 西蜀. 중국의 사천성 서쪽 지방.
- 306) 劉季玉. 유장(劉璋). 자는 계옥(季玉). 한말 강하 경릉 사람. 부친의 권유로 익주목이 되었지만 병약하고 무능하여, 신하인 법정과 장송, 맹달이 익주를 유비에게 넘길 계책을 마련하였다.
- 307) 四十一州. 마흔 한 개의 고을.
- 308) 漢中. 중국 섬서성 남서쪽 한강(漢江) 북쪽의 땅으로, 사천·호북에 이르는 요충인데, 한 고조 유방이 항우로부터 한왕(漢王)에 책봉된 곳임.
- 309) 張松. 유장의 부하. 자는 영년(永年). 유비에게 협력하다가 유장에게 참수 당하였다.
- 310) 漢室. 한나라 왕실.
- 311) 옛날 술은 밑에 다리가 셋 붙어 있는데, 이로써 삼국이 서로 버티는 형상을 비유한 것.

- 312) 누가.
- 313) 興復. 다시 일으킴.
- 314) 嗚咽. 목이 메어 흐느낌.
- 315) 龍顏. 임금의 얼굴을 이르는 말.
- 316) 淚落이 滿江流. 눈물이 떨어져 강에 가득 흐름.
- 317) 흐르는 것이.
- 318) 나오는 것이.
- 319) 一片心. 일편단심(一片丹心). 한 조각의 붉은 마음. 오직 한 가지 마음.
- 320) 九泉. '땅 밑, 대지의 밑'이라는 뜻으로 사람이 죽어서 돌아가는 곳. 저승.
- 321) 社稷. 토지의 신과 곡식의 신. 나라를 비유적으로 일컫는 말.
- 322) 勞心焦思. 몹시 마음을 쓰며 애를 태움.
- 323) 일어나서.
- 324) 淺短한. 얇고 짧은.
- 325) 犬馬之功. 개와 말의 공. 신하가 임금에게 자신의 모든 충성을 바치겠다는 뜻으로 씀.
- 326) 大喜하여. 크게 기뻐하여.
- 327) 禮緞. 예물로 보내는 비단.
- 328) 皇叔. 황제의 삼촌. 유비가 한나라 황제인 헌제의 삼촌뻘이 된다 해서 부르는 이름.
- 329) 三顧之恩. 세 번이나 찾아온 은혜.
- 330) 後園. 뒤뜰.
- 331) 兄丈. 나이가 비슷한 또래의 사람들 사이에서 상대방을 높여 일컫는 말. 여기서는 '형님'이라는 뜻으로 썼음.
- 332) 하시어.
- 333) 빨리.
- 334) 還家. 집으로 돌아옴.
- 335) 함께.
- 336) 新野. 중국의 지명. 지금의 하남성 남양현에 있음.
- 337) 夏口. 중국 호북성 무창현에 있는 지명.
- 338) 하찮게 내버려지거나 근근이 살아감을 이름.
- 339) 容身. 이 세상에 겨우 몸을 붙이고 살아감
- 340) 朝夕. 아침과 저녁.
- 341) 太過. 지나침.
- 342) 陣法. 싸움에서 군대를 배치하는 법.
- 343) 探者. 남의 사정을 보고, 고하는 사람.
- 344) 告하되. 알리니.
- 345) 夏侯惇. 위나라의 장수. 자는 원호(元護). 본래 조조와 한 족속인데, 조조가 그 아버지 대에 조씨에게 양자를 갔기 때문에 성이 다르다. 여러 전투에서 용맹을 떨치고, 조조가 죽은 후에 병으로 죽었다.
- 346) 于禁. 조조의 부하 장수. 태산(泰山) 거평(鉅平) 사람으로, 조조가 산동의 황건적 잔당을 소탕하였을 때 수백 군사를 거느리고 조조의 휘하로 들어왔다. 적벽대전 때 수군의

- 총지휘를 맡았다가 크게 패하였으며, 양양 싸움에서 관우에게 항복하여 옥에 갇혀 있다가, 관우가 싸움에 져 죽은 뒤 손권이 보내주어 돌아갔다. 후에 조조의 능 관리를 하였는데, 그가 항복하는 모습을 조조의 공적을 그린 벽화 속에 그려 넣었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부끄러움과 노여움으로 병을 얻어 죽었다.
- 347) 李典. 조조의 부하 장수. 산양(山陽) 거록(鉅鹿) 사람으로, 자는 만성(曼成). 조조가 처음 군사를 일으켰을 때부터 참가하였으며, 뒤에 벼슬이 파로장군(破虜將軍)에 이르렀다.
- 348) 副將. 대장(大將)이나 주장(主將)의 다음 자리에 있으면서 대장 또는 주장을 보좌하는 장수. 부수(副帥).
- 349) 風雨같이. 비바람이 부는 것처럼.
- 350) 함부로 몹시 쳐 온다.
- 351) 將令. 군대를 거느리는 장수의 명령.
- 352) 印. 관직의 표시로 차던 쇠붙이로 만든 조각물.
- 353) 빌려주십시오.
- 354) 一日은. 하루는.
- 355) 將臺. 장수가 자리를 잡고 명령을 내리는 곳.
- 356) 諸將. 여러 장수.
- 357) 分撥. 나누어 펼침.
- 358) 博望坡. 하남성 남양현 동북쪽에 있는 산 이름.
- 359) 산.
- 360) 豫山. 산 이름.
- 361) 安林. 박망과 왼쪽에 있는 숲.
- 362) 三千軍. 삼천 명의 군사.
- 363) 埋伏. 불시에 습격하려고 일정한 곳에 몰래 숨어 있음.
- 364) 糧草. 군대가 먹을 양식과 말을 먹일 풀.
- 365) 趙雲. 유비의 부하 장수. 상산(常山) 사람으로, 자(字)는 자룡(子龍). 본디 원소(袁紹)의 막하에 있다가, 그의 인품에 실망하여 공손찬(公孫瓚)을 위기에서 건져주고 그의 막하에 들었다. 거기서 유비를 만나 알게 되고, 호모하여, 이후 고락을 같이 하였다.
- 366) 一軍. 온 군대. 중국 주나라 때에는 일만 명의 군병으로 이루어진 군사 조직을 가리켰음.
- 367) 先鋒. 맨 앞장 또는 앞장에 서는 사람.
- 368) 主公. 주인을 높여 이르는 말. 신하가 임금을 높여 이르는 말.
- 369) 接應. 맞아 싸움.
- 370) 違令者. 명령을 어긴 사람.
- 371) 斬. 목을 뺌.
- 372) 霜雪. 서리와 눈.
- 373) 運籌帷幄之中하여 決勝千里之外. 장막 안에서 산가지(점치는 도구)로 점을 쳐서, 천리 밖에 나가 싸움에 이길 것을 판단함. '실제로 전쟁에 나가지 않고도 능히 승패를 가름할 지략을 짜낸 만환'의 뜻으로 쓰인다.
- 374) 怏怏不樂. 매우 마음에 차지 아니하거나 야속하게 여겨 즐거워하지 아니함.

- 375) 定치. 여기서는 ‘그치지’ 정도의 뜻.
- 376) 夏侯惇. 위나라의 장수. 자는 원호(元護). 본래 조조와 한 족속인데, 조조가 그 아버지 대에 조씨에게 양자를 갔기 때문에 성이 다르다. 여러 전투에서 용맹을 떨치고, 조조가 죽은 후에 병으로 죽었다.
- 377) 博望坡. 하남성 남양현 동북쪽에 있는 산 이름.
- 378) 三三五五. 서너 사람 또는 대여섯 사람이 떼를 지어 다니거나 무슨 일을 함. 또는 그런 모양.
- 379) 隊伍. 편성된 대열.
- 380) 夏侯惇. 위나라의 장수. 자는 원호(元護). 본래 조조와 한 족속인데, 조조가 그 아버지 대에 조씨에게 양자를 갔기 때문에 성이 다르다. 여러 전투에서 용맹을 떨치고, 조조가 죽은 후에 병으로 죽었다.
- 381) 徐元直. 서서(徐庶). 원직은 그의 자(字). 유비가 조조에게 패하고 유표(劉表)에게 있을 때 만난 인재. 영천(潁川) 사람.
- 382) 徐庶. 유비가 조조에게 패하고 유표(劉表)에게 있을 때 만난 인재. 영천(潁川) 사람으로 자(字)는 원직(元直).
- 383) 반딧불이의 불.
- 384) 新野城. 신야의 성. ‘신야’는 중국의 지명. 지금의 하남성 남양현에 있음.
- 385) 쉬게 하지.
- 386) 마치지를. 끝나지를.
- 387) 함부로 몹시 쳐 온다.
- 388) 三습. 세 번을 맞서 싸움. ‘합’은 무기를 들고 싸울 때 서로 한 차례 맞붙는 것을 이룸.
- 389) 勝勢. 싸움에서 이기거나 어떤 일에 성공할 기세.
- 390) 골짜기.
- 391) 于禁. 조조의 부하 장수. 태산(泰山) 거평(鉅平) 사람으로, 조조가 산동의 황건적 잔당을 소탕하였을 때 수백 군사를 거느리고 조조의 휘하로 들어왔다. 적벽대전 때 수군의 총지휘를 맡았다가 크게 패하였으며, 양양 싸움에서 관우에게 항복하여 옥에 갇혀 있다가, 관우가 싸움에 져 죽은 뒤 손권이 보내주어 돌아갔다. 후에 조조의 능 관리를 하였는데, 그가 항복하는 모습을 조조의 공적을 그린 벽화 속에 그려 넣었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부끄러움과 노여움으로 병을 얻어 죽었다.
- 392) 李典. 조조의 부하 장수. 산양(山陽) 거록(鉅鹿) 사람으로, 자는 만성(曼成). 조조가 처음 군사를 일으켰을 때부터 참가하였으며, 뒤에 벼슬이 파로장군(破虜將軍)에 이르렀다.
- 393) 들어 주십시오.
- 394) 엽신여기면.
- 395) 放砲一聲. 한 번 소리 내어 총이나 대포를 쏘.
- 396) 活活匪匪. 불타는 채한 기세와 시끄러운 소리를 흉내낸 말. ‘팔팔’은 물이 기운차게 흐르는 소리. ‘잡잡’은 이러쿵저러쿵 쓸데없이 잔소리를 하는 모양.
- 397) 夏侯惇. 위나라의 장수. 자는 원호(元護). 본래 조조와 한 족속인데, 조조가 그 아버지 대에 조씨에게 양자를 갔기 때문에 성이 다르다. 여러 전투에서 용맹을 떨치고, 조조가 죽은 후에 병으로 죽었다.



- 398) 兩將. 양 장수. 관우와 장비를 이름.
- 399) 一陣. 군대의 한 진영(陣營).
- 400) 斃殺. 모두 죽임.
- 401) 許昌. 중국의 지명. 조조가 헌제를 맞아 새로 도읍을 정한 곳.
- 402) 無色하여. 무안하여 볼 낮이 없어서.
- 403) 糜芳. 미축(糜竺)의 아들로 유비의 처남. 관우의 부하 장수로 있다가 형주가 함락되자 손권에게 항복하였다. 유비가 복수의 군대를 일으켜 연전연승해 오자, 관우를 잡은 왕충의 목을 베어 돌아왔으나 유비에게 죽임을 당하였다.
- 404) 糜竺. 미방의 형. 유비의 두 번째 부인인 미부인의 오빠이다. 동해 구현 사람으로 자는 자중(子仲).
- 405) 四輪車. 바퀴가 넷 달린 마차.
- 406) 擁衛하여. 부축하여. 호위하여.
- 407) 綸巾. 비단으로 만든 두건.
- 408) 鶴氅衣. 소매가 넓고, 가에 검은 천을 댄 선비의 옷.
- 409) 白羽扇. 새의 흰 깃털로 만든 부채.
- 410) 말에서.
- 411) 伏拜. 엎드려 절함.
- 412) 大喜하여. 크게 기뻐하여.
- 413) 新野. 중국의 지명. 지금의 하남성 남양현에 있음.
- 414) 江陵. 중국 호북성의 한 현.
- 415) 穀倉. 곡식이 많이 나는 곳.
- 416) 後日. 시간이 지나 뒤에 올 날.
- 417) 樊城. 호북성 악성현의 서북쪽에 있는 변항강이 양자강으로 흘러드는 입구에 있는 성.
- 418) 榜. 방문(榜文)의 준말. 여러 사람에게 널리 알리기 위하여 길거리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써 붙이는 글.
- 419) 曹軍. 조조의 군사.
- 420) 入城. 성에 들어옴.
- 421) 欽慕. 기쁜 마음으로 사모함.
- 422) 哭聲. 울부짖는 소리.
- 423) 夏侯惇. 위나라의 장수. 자는 원호(元護). 본래 조조와 한 족속인데, 조조가 그 아버지 대에 조씨에게 양자를 갔기 때문에 성이 다르다. 여러 전투에서 용맹을 떨치고, 조조가 죽은 후에 병으로 죽었다.
- 424) 許昌. 중국 하남성에 있는 지명. 위(魏)나라의 도읍지.
- 425) 火攻. 불로 하는 공격.
- 426) 모두.
- 427) 風雨같이. 비바람이 부는 것처럼 거세게.
- 428) 함부로 몹시 쳐 울.
- 429) 第一隊軍. 대오를 지어 맨 앞에 나가는 군대.
- 430) 許褚. 조조의 부하 장수. 자는 중강(仲康). 용맹이 뛰어나서 ‘호치(虎癡)’라고도 불렸음.

- 431) 張遼, 조조의 부하 장수. 성은 섭(聶), 자는 문원(文遠). 무예가 뛰어나서 조조와 함께 공을 많이 세웠음.
- 432) 先鋒, 맨 앞장 또는 앞장에 서는 사람.
- 433) 夏侯淵, 조조의 부하 장수. 자는 묘재(妙才). 정서장군을 지냈는데, 평양관에서 촉나라 군사와 싸우다가 죽었다.
- 434) 張郃, 조조의 부하 장수. 자(字)는 준문(雋文). 하간군 정현 사람. 본시 원소의 밑에 있다 조조에게 항복하여 중용되었음.
- 435) 曹洪, 조조의 사촌 동생으로 위나라 대장. 자(字)는 자렴(子廉). 여러 번 조조를 구하고 자신이 타고 있던 말을 주었으며, 수많은 공을 세워 조조의 신임을 얻었다.
- 436) 曹仁, 조조의 종제이며 부하 장수. 자(字)는 자효(子孝). 조조가 처음 통타를 치려고 의병을 일으켰을 때부터 참여하여, 수많은 공을 세웠다.
- 437) 文聘, 조조의 부하 장수. 남양 완성(宛城) 사람으로 자(字)는 중엽(仲業). 강야태수를 거쳐 신야후에 봉해짐.
- 438) 樂進, 조조의 부하 장수. 양평(楊平) 위국(衛國) 사람으로 자는 문겸(文謙). 몸집은 작았으나 담력이 있어 여러 차례 공을 세웠다.
- 439) 五隊, 다섯 번째 나가는 군대.
- 440) 焦觸, 조조의 막하 장수. 원소(袁紹)의 둘째 아들 원희(袁熙)의 군대를 거느렸다가 상대가 안 될 것을 깨닫고 조조에게 항복하였다. 조조가 대군을 이끌고 손권을 칠 때, 적벽대전을 앞두고 장남(張南)과 함께 자진하여 출전하였다가 오나라 장수 한당(韓當)의 창에 찔려 죽었다.
- 441) 張南, 조조의 부하 장수. 본래는 원소의 둘째 아들 원희(袁熙)의 군대를 거느렸다가 상대가 안 될 것을 깨닫고 항복하였다. 조조가 손권을 강상에서 칠 때 적벽대전에 앞서 자진하여 출전하였다가, 동오의 장수 주태의 손에 성겁게 죽었다.
- 442) 種繇, 영천(潁川) 장사(長沙) 사람. 자(字)는 원상(元常). 조조의 동작대 잔치에서 그의 덕을 칭송하는 글을 지어 올렸음. 장안군 태수로 있을 때 마초에게 성을 빼앗기고, 동생을 잃었다.
- 443) 種進, 조조의 부하 장수. 마초의 군대와 싸우다 방덕(龐德)의 칼에 맞아 죽었다. 형은 종요(種繇)로 장안군 태수로 있으면서 백성을 잘 다스렸다고 전해진다.
- 444) 夏侯傑, 조조의 부하 장수.
- 445) 夏侯惇, 위나라의 장수. 자는 원호(元護). 본래 조조와 한 족속인데, 조조가 그 아버지 대에 조씨에게 양자를 갔기 때문에 성이 다르다. 여러 전투에서 용맹을 떨치고, 조조가 죽은 후에 병으로 죽었다.
- 446) 一等名將, 제일가는 훌륭한 장수.
- 447) 風前燈火, (바람 앞의 등불이라는 뜻으로) '존망이 달린 매우 위급한 처지'를 비유하여 이르는 말.
- 448) 新野城, 신야의 성. '신야'는 중국의 지명. 지금의 하남성 남양현에 있음.
- 449) 신이 나서.
- 450) 모두, 전부.
- 451) 天氣, 날씨.
- 452) 방이나 마루에 종이나 나무로 평평하게 만든 천장.

- 453) 焰硝. 질산칼륨. 검은 색 화약, 성냥, 비료 등의 원료로 씀.
- 454) 狂風. 매우 세차게 부는 바람.
- 455) 大作. 크게 일어남.
- 456) 曹仁. 조조의 종제이며 부하 장수. 자(字)는 자효(子孝). 조조가 처음 동탁을 치려고 의병을 일으켰을 때부터 참여하여, 수많은 공을 세웠다.
- 457) 許褚. 조조의 부하 장수. 자는 중강(仲康). 용맹이 뛰어나서 ‘호치(虎癡)’라고도 불렸음.
- 458) 大驚. 크게 놀람.
- 459) 장수 이름인 듯하나 불명.
- 460) 中門. 대문 안에 거둬 세운 문.
- 461) 五更. 새벽 세 시에서 다섯 시 사이.
- 462) 飢渴. 배고프고 목마름.
- 463) 엎드러지고, 잘못하여 엎어지고.
- 464) 白河. 신야 가까이 있는 강 이름.
- 465) 布袋. 부대. 종이, 피륙, 가죽 따위로 만든 큰 자루.
- 466) 漲溢. 큰물이 저 넘침. 여기서는 ‘아주 많다’는 뜻으로 썼음.
- 467) 모르겠구나.
- 468) 兵馬. 병사(兵士)와 군마(軍馬)를 아울러 이르는 말.
- 469) 江陵. 중국 호북성의 한 현.
- 470) 趙子龍. 유비의 부하 장수. 자룡은 상산(常山) 사람인 조운(趙雲)의 자(字). 본디 원소(袁紹)의 막하에 있다가, 그의 인품에 실망하여 공손찬(公孫瓚)을 위기에서 건져주고 그의 막하에 들었다. 거기서 유비를 만나 알게 되고, 흠모하여, 이후 고향을 같이 하였다.
- 471) 家率. 집안 어른에 딸린 식구.
- 472) 緩緩히. 천천히.
- 473) 長板坡. 중국의 지명. 호북성 당양현 북쪽에 있음.
- 474) 薄福한. 복이 없는.
- 475) 患難. 근심 걱정과 재난.
- 476) 兄丈. 나이가 비슷한 또래의 사람들 사이에서 상대방을 높여 일컫는 말. 여기서는 ‘형님’이라는 뜻으로 썼음.
- 477) 心慮치. 염려하지. 걱정하지.
- 478) 勝敗. 이기고 짐.
- 479) 兵家. 군대, 군비(軍備), 전쟁 등 군에 관한 일에 종사하는 사람.
- 480) 常事. 보통 있는 일.
- 481) 漢高祖. 한나라를 세운 유방(劉邦). 유방은 B.C. 206년 항우로부터 한왕으로 봉해졌으나, 그 후 4년 동안 항우와의 쟁패전에서 장양, 한신 등의 도움을 받아 해하에서 항우를 대파하고 천하통일을 이루었다. B.C. 202년 유방은 황제의 자리에 올랐으며 장안에 도읍하였다.
- 482) 項羽. 중국 진(秦)나라 말엽의 무장. 기원전 209년 유방(劉邦)과 같이 진나라를 쳐서 멸하고, 스스로 서초(西楚)의 패왕(霸王)이 됨.
- 483) 九疑山. 중국 강소성에 있는, 항우와 유방이 싸운 곳.

- 484) 社稷. 토지의 신과 곡식의 신. 나라를 비유적으로 일컫는 말.
- 485) 新野. 중국의 지명. 지금의 하남성 남양현에 있음.
- 486) 樊城. 호북성 악성현의 서북쪽에 있는 변강이 양자강으로 흘러드는 입구에 있는 성.
- 487) 화살.
- 488) 趙子龍. 유비의 부하 장수. 자룡은 상산(常山) 사람인 조운(趙雲)의 자(字). 본디 원소(袁紹)의 막하에 있다가, 그의 인품에 실망하여 공손찬(公孫瓚)을 위기에서 건져주고 그의 막하에 들었다. 거기서 유비를 만나 알게 되고, 흠모하여, 이후 고락을 같이 하였다.
- 489) 反하여. 배반(背反)하여.
- 490) 조조에게로.
- 491) 患難. 근심과 재난을 통틀어 이르는 말.
- 492) 反骨. 어떤 권력이나 권위에 순응하거나 따르지 아니하고 저항하는 기골.
- 493) ‘배’의 비어.
- 494) 古城. 옛 성.
- 495) 事由. 일의 까닭.
- 496) 기(騎) : 말을 탄 사람을 세는 단위.
- 497) 長坂橋. 중국 호북성 당양현 동북에 있는 다리 이름.
- 498) 計巧. 요리조리 헤아려 보고 생각해 낸 꾀.
- 499) 배어서.
- 500) 往來馳騁. 왔다갔다 부산하게 돌아다님.
- 501) 疑兵. 적의 눈을 속이기 위하여 거짓으로 군사를 꾸밈.
- 502) 蛇矛長槍. 창끝이 뱀의 머리처럼 세모꼴로 된 긴 창.
- 503) 비스듬히.
- 504) 눈동자의 둘레에 흰 테가 있는 눈.
- 505) 騎. 말을 탄 사람을 세는 단위.
- 506) 簡雍. 유비의 부하 장수. 자(字)는 헌화(憲和). 유비와 동향으로 최고참 참모 역할을 수행하였다.
- 507) 兩位. 유비의 두 부인을 높여 이르는 말.
- 508) 主母. 집안 살림을 주장하여 다스리는 부인. 여기서는 감부인과 미부인을 일컬음.
- 509) 거기.
- 510) 劉嗣君. 유비가 선왕의 대를 이었다는 데서 부르는 말. ‘사군(嗣君)’은 선왕의 대를 물려받은 임금. 사군을 ‘師君’으로 쓰면, 스승을 높여 이르는 말임.
- 511) 누웠나이다. 누워 있습니다.
- 512) 甘夫人. 유비의 두 부인 중 한 사람. 미부인이 죽은 뒤 혼자 유비를 받들다가, 유비가 형주(荊州)를 차지하고 있는 사이에 세상을 떠났다.
- 513) 散髮. 머리를 풀어 헤침.
- 514) 種種이. 갖가지로 함께.
- 515) 哭聲. 울음소리.
- 516) 狼藉. 여기저기 흩어져 어지러움.
- 517) 외치어.

- 518) 계십니까?
- 519) 放聲大哭. 소리를 크게 높여 슬피 울.
- 520) 말에서.
- 521) 都是. 원래. 본시.
- 522) 糜夫人. 유비의 부인. 유비에게는 감부인(甘夫人)과 함께 두 부인이 있었는데, 미부인에게만 아들을 두어 아명(兒名)을 아두(阿斗), 이름을 선(禪)이라 하여, 유비의 뒤를 이어 황제의 위에 올라 흔히 후주(後主)라 부른다. 미부인은 장관교 싸움에서 부상을 당하고, 조운에게 아두의 보호를 당부한 뒤 자신은 우물에 뛰어들어 목숨을 끊었다.
- 523) 阿斗. 유비의 아들 유선(劉禪). 자는 공사(公嗣). 유비의 오직 하나인 아들로 미부인의 소생임.
- 524) 廝殺. 전투에서 적병을 마구 죽임.
- 525) 마치고.
- 526) 結縛. 꼭꼭 묶음.
- 527) 一員大將. 한 사람의 대장.
- 528) 糜竺. 미방의 형. 유비의 두 번째 부인인 미부인의 오빠이다. 동해 구현 사람으로 자는 자중(子仲).
- 529) 淳于導. 조조의 부하 장수. 장관교 싸움에서 유비의 장수 미축을 사로잡아 가지고 가다가 조자룡을 만나 그의 손에 죽었다.
- 530) 長槍. 긴 창.
- 531) 取하야. 맞아서.
- 532) 一合에. 한 차례 칼이나 창이 부딪친 뒤에. 한 번에.
- 533) 외쳐.
- 534) 落後. 뒤처짐.
- 535) 성하게. 온전하게.
- 536) 主公. 주인을 높여 이르는 말. 신하가 임금을 높여 이르는 말.
- 537) 前面. 앞쪽.
- 538) 小主人. 유비의 아들 ‘아두’를 이름.
- 539) 黃泉. 죽어서 가는 곳. 저승.
- 540) 劉嗣君. 유비가 선왕의 대를 이었다는 데서 부르는 말. ‘사군(嗣君)’은 선왕의 대를 물려받은 임금. 사군을 ‘師君’으로 쓰면, 스승을 높이어 이르는 말임.
- 541) 마치고.
- 542) 一員大將. 한 사람의 대장.
- 543) 夏侯恩. 조조의 신변을 지키던 부하 장수. 장관교 싸움에서 조자룡을 만나 죽고, 조조의 보검인 청홍검을 빼앗겼다.
- 544) 청공검(靑釭劍). 조조가 가지고 있던 보검 중의 하나로, 하후은이 가지고 있다가 조자룡에게 빼앗김.
- 545) 內行. ‘부인의 행차’를 이르는 말.
- 546) 얼굴.
- 547) 流血. 다쳐서 흘리는 피.

- 548) 狼藉. 여기저기 흩어져 어지러운.
- 549) 慌忙히. 황망하게. 마음이 몹시 급하여 당황하고 허둥지둥하게.
- 550) 主母. 집안 살림을 주장하여 다스리는 부인.
- 551) 小將. 장수가 자신을 낮추어 이르는 말.
- 552) 大軍中. 대군 속.
- 553) 洪福. 큰 행복.
- 554) 마치고.
- 555) 劉禪. 유비의 아들 아두.
- 556) 언덕을 파듯이.
- 557) 悲感하여. 슬퍼서.
- 558) 悠悠蒼天. 끝없이 넓고 푸른 하늘.
- 559) 무슨.
- 560) 患難. 근심 걱정과 재난.
- 561) 公子. 지체가 높은 집의 젊은 아들.
- 562) 어찌할까? 어떻게 할까?
- 563) 曹軍. 조조의 군사.
- 564) 憤氣擲天. 분한 마음이 하늘을 찌를 듯 격렬하게 북받쳐 오름.
- 565) 長槍. 긴 창.
- 566) 曹仁. 조조의 종제이며 부하 장수. 자(字)는 자효(子孝). 조조가 처음 동탁을 치려고 의병을 일으켰을 때부터 참여하여 수많은 공을 세웠다.
- 567) 副將. 대장(大將)이나 주장(主將)의 다음 자리에 있으면서 대장 또는 주장을 보좌하는 장수. 부수(副帥).
- 568) 呂曠. 위(魏)나라의 장수. 본래 원상의 부하 대장이었으나 조조에게 투항하였다. 조조에게 공을 세우려고 동생 여상과 함께 출전하였다가 조자룡에게 죽음.
- 569) 張郃. 조조의 부하 장수. 자(字)는 준문(雋文). 하간군 정현 사람. 본시 원소의 밑에 있다 조조에게 항복하여 중용되었음.
- 570) 失足. 발을 잘못 디딤.
- 571) 劍光. 칼날의 빛.
- 572) 大驚. 크게 놀람.
- 573) 青釭劍. 조조가 가지고 있던 보검 중의 하나로, 하후은이 가지고 있다가 조자룡에게 빼앗김.
- 574) 흩어지듯이.
- 575) 景山. 호북성 근처에 있는 지명.
- 576) 常山. 하북성 정정현의 서북쪽에 있는 지명.
- 577) 幕下. 으뜸가는 장수가 되는 사람의 부하, 또는 그 지위.
- 578) 입맛을 다시는 모양, 또는 그 소리.
- 579) 傷하지. 다치게 하지.
- 580) 阿斗. 유비의 아들 유선(劉禪). 자는 공사(公嗣). 유비의 오직 하나인 아들로 미부인의 소생임.

- 581) 東을. 동쪽 편을.  
 582) 올리. 상대자에게 해를 입히려는 말이나 행동으로 겁을 먹도록 위협하여.  
 583) 西를. 서쪽 편을.  
 584) 南을. 남쪽 편을.  
 585) 北을. 북쪽 편을.  
 586) 生門. 점술가들이 점치는 여덟 개의 문의 하나로 길한 방위의 문임.  
 587) 死門. 점술가들이 점치는 여덟 개의 문의 하나로 흉한 방위의 문임.  
 588) 갑자기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모양.  
 589) 여기 가서.  
 590) 갑자기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모양.  
 591) 將. 장수.  
 592) 저기 가서.  
 593) 매과에 딸린 새로, 날개 길이는 36cm, 부리는 3.2cm 가량임. '백송골이 꿩 차듯'은 '날째게 빼앗거나 움켜 가지듯'이라는 뜻.  
 594) 날째게 빼앗거나 움켜 가지듯이.  
 595) 銀粧刀. 의식 때 사용하는 칼의 한 가지로, 나무로 만들고 칼집에 여러 가지 무늬를 아로새겼으며, 온 몸에 은칠을 하고 끈을 달.  
 596) 橫行. 거리낄 것이 없이 멋대로 다님.  
 597) 秋風落葉. 가을 바람에 떨어지는 나뭇잎.  
 598) 如山. 산과 같음. 산더미처럼 많음.  
 599) 對陣. 적수로서 겨룸.  
 600) 戰袍. 장수가 입던 옷.  
 601) 兩將. 두 장수.  
 602) 種繇. 영천(潁川) 장사(長沙) 사람. 자(字)는 원상(元常). 조조의 동작대 잔치에서 그의 덕을 칭송하는 글을 지어 올렸음. 장안군 태수로 있을 때 마초에게 성을 빼앗기고, 동생을 잃었다. 따라서 종요의 죽음은 이 대목과 관련이 없다.  
 603) 빼앗아.  
 604) 種進. 조조의 부하 장수. 마초의 군대와 싸우다 방덕(龐德)의 칼에 맞아 죽었다. 종요의 죽음은 이 대목과 관련이 없다.  
 605) 憤氣撐天. 분한 기운이 하늘을 찌를 것 같음.  
 606) 右手. 오른 손.  
 607) 長坂橋. 중국 호북성 당양현 동북에 있는 다리 이름으로, 한(漢)·오(吳)·위(魏), 삼국시절(三國時節) 장비가 먼지를 일으켜 대군이 있는 것처럼 속여 조조의 군사를 격퇴한 싸움터.  
 608) 文聘. 조조의 부하 장수. 남양 완성(宛城) 사람으로 자(字)는 중엽(仲業). 강야태수를 거쳐 신야후에 봉해짐.  
 609) 大呼. 크게 외쳐 부름.  
 610) 외치는.  
 611) 追兵. 뒤쫓아 오는 군사.  
 612) 終始. 끝내.

- 613) 保存한가. 무사한가.  
 614) 모르나이다. 모르겠습니다.  
 615) 大喜하여. 크게 기뻐.  
 616) 雙手. 두 손.  
 617) 阿斗. 유비의 아들 유선(劉禪). 자는 공사(公嗣). 유비의 오직 하나인 아들로 미부인의 소생임.  
 618) 乳兒로서. 젖먹이 때문에.  
 619) 許褚. 조조의 부하 장수. 자는 중강(仲康). 용맹이 뛰어나서 ‘호치(虎癡)’라고도 불렸음.  
 620) 張遼. 조조의 부하 장수. 성은 섭(聶), 자는 문원(文遠). 무예가 뛰어나서 조조와 함께 공을 많이 세웠음.  
 621) 徐晃. 조조의 부하 장수. 하동(河東) 양군(楊郡) 사람으로, 자는 공명(公明). 양봉(楊奉)의 부하로 있다가 그의 용맹을 본 조조가 사로잡아 부하로 삼았다.  
 622) 文聘. 조조의 부하 장수. 남양 완성(宛城) 사람으로 자(字)는 중업(仲業). 강야태수를 거쳐 신야후에 봉해짐.  
 623) 樂進. 조조의 부하 장수. 양평(楊平) 위국(衛國) 사람으로 자는 문겸(文謙). 몸집은 작았으나 담력이 있어 여러 차례 공을 세웠다.  
 624) 張郃. 조조의 부하 장수. 자(字)는 준문(雋文). 하간군 정현 사람. 본시 원소의 밑에 있다 조조에게 항복하여 중용되었음.  
 625) 夏侯傑. 조조의 부하 장수.  
 626) 함부로 쳐들어 와서.  
 627) 蛇矛長槍. 창끝이 뱀의 머리처럼 세모꼴로 된 긴 창.  
 628) 눈동자의 둘레에 흰 테가 있는 눈.  
 629) 烏騅馬. 중국 진(秦) 말의 장수 항우(項羽)가 탔던 명마.  
 630) 隱隱히.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정도가 알 듯 모를 듯하게.  
 631) 靑羅傘. 푸른 비단으로 만든 일산(日傘). ‘일산’은 햇볕을 가리기 위하여 세우는 큰 양산. 우산보다 크며 놀이할 때에 한테에다 세운다.  
 632) 비스듬히 받치고.  
 633) 얼썌하니. (조금 큰 것이) 눈앞에 잠깐 나타났다가 없어지니.  
 634) 외쳐.  
 635) 燕人. (중국 전국시대의) 연나라 사람.  
 636) 말에서.  
 637) 自相踐踏. 자기들끼리 서로 짓밟음.  
 638) 不知其數. 그 수를 알지 못함.  
 639) 許褚. 조조의 부하 장수. 자는 중강(仲康). 용맹이 뛰어나서 ‘호치(虎癡)’라고도 불렸음.  
 640) 張遼. 조조의 부하 장수. 성은 섭(聶), 자는 문원(文遠). 무예가 뛰어나서 조조와 함께 공을 많이 세웠음.  
 641) 丞相. 옛날 중국의 벼슬인데, 우리나라의 정승에 해당한다. 여기서는 ‘조조를 이르는 말.  
 642) 匹夫. 보잘 것 없는 사내.  
 643) 애들아.



- 644) 萬軍中. 모든 군대 내.  
 645) 칼이나 가위로 단번에 베는 소리.  
 646) ‘천행(天幸)’은 천만 다행. ‘만행’ ‘오행’은 ‘천행’에 이어 우습게 쓴 말.  
 647) 回報. 돌아와 알림.  
 648) 兵書. 병법에 관하여 쓴 책.  
 649) 伏兵. 갑작스레 적을 내치려고 요긴한 목에 숨어 있는 군사.  
 650) 분명하다.  
 651) 夏口. 중국 호북성 무창현에 있는 지명.  
 652) 戰船. 전투를 할 때 쓰는 배.  
 653) 곧고 긴 물건이 뻑뻑이 모여 선 모양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삼대’는 삼의 줄기.  
 654) 大驚. 크게 놀람.  
 655) 船頭. 뱃머리.  
 656) 無恙. 별 탈이 없음.  
 657) 小姪. 조카인 자신을 낮추어 이르는 말.  
 658) 오래오이다. 오래입니다. 오래되었습니다.  
 659) 江夏. 지금의 호북성 운몽현의 동남쪽에 있는 지명.  
 660) 劉琦. 유표의 장남. 유비와 합병하여 하구에 주둔하고 후에 형주자사가 되었다.  
 661) 困하심. 어려운 지경에 처하심.  
 662) 接應. 맞아 싸움.  
 663) 大喜하여. 크게 기뻐하여.  
 664) 戰船. 전투하는 배.  
 665) 兩人. 두 사람. 헌덕과 유기를 가리킴.  
 666) 綸巾. 비단으로 만든 두건.  
 667) 鶴氅衣. 소매가 넓고, 가에 검은 천을 댄 선비의 옷.  
 668) 白羽扇. 새의 흰 깃털로 만든 부채.  
 669) 主公. 주인을 높여 이르는 말. 신하가 임금을 높여 이르는 말.  
 670) 別來無恙. 이래로 별 탈이 없음.  
 671) 南陽. 중국 하남성에 있는 지방으로, 공명이 은거하던 곳.  
 672) 良. 제갈량 자신을 이름.  
 673) 漢陣. 한나라의 진영.  
 674) 公子. 지체가 높은 집의 젊은 아들.  
 675) 水路. 물길.  
 676) 荊州. 지금의 호남, 호북, 광서 및 귀주를 아울러 가리키는 이름.  
 677) 襄陽. 중국 호북성 북서부에 있는 도시. 예로부터 군사상의 요충지였는데, 이곳 서쪽에 있는 복룡산(伏龍山)이 제갈공명의 은거지였음.  
 678) 南郡. 중국의 지명. 형주에 속하는 군(郡)으로 현재의 호북성 강릉에 위치함.  
 679) 실제로.  
 680) 江東. 중국 양자강 동쪽의 땅. 상해·남경·무호 지방 일대. 오나라의 근거지임.

- 681) 書. 편지 글.
- 682) 孤. 왕이나 제후가 자신을 겸손하게 칭하는 말.
- 683) 詔書. 임금의 명령을 일반에게 알릴 목적으로 적은 문서
- 684) 旗. 깃발.
- 685) 劉琮. 형주목으로 유표의 차남. 조조에게 투항하여 형주를 넘기고 우금에게 사살되었다.
- 686) 滎陽. 중국 하남성 내 현(縣)의 명칭.
- 687) 望風歸順. 명망을 사모하여 스스로 돌아서서 순종하고 복종함.
- 688) 上將. 능력이 뛰어난 장수를 통칭하는 말.
- 689) 弓師. 활을 쏘는 군사. 활을 만드는 사람.
- 690) 回報. 어떤 문제에 관한 물음이나 요구에 대하여 대담으로 보고함.
- 691) 大驚. 크게 놀람.
- 692) 衆將. 여러 장수.
- 693) 謀士. 남을 위해 꾀를 내어주는 사람.
- 694) 猶豫未決. 망설이어서 결정을 짓지 못함.
- 695) 魯肅. 손권의 부하 장수. 자는 자경(子敬). 임회군(臨淮郡) 동성현(東城縣) 사람. 주유의 천거로 손권의 부하가 되어 중심이 되는 정책을 수립하였다. 주유가 죽은 뒤에 병권을 장악하였다.
- 696) 內堂. 안채. ‘안채’는 한 집 안에 안팎 두 채 이상의 집이 있을 때, 안에 있는 집채.
- 697) 近者에. 근래(近來)에. 가까운 시기에.
- 698) 諸葛瑾. 손권 막하의 모사. 자는 자유(子瑜). 제갈량의 형이며, 난을 피해 강동에 가 있다가 노숙의 천거로 손권을 섬기게 되었다. 아우 제갈량이 유비를 도와 승상으로 있었기 때문에 주로 유비 측과의 외교 접촉을 위하여 동분서주하였으나 사사로이 만나는 일은 없었다고 한다. 대장군에 예주목(豫州牧)을 겸했는데, 뒤에 병으로 죽고, 그의 아들 각(恪)이 대를 이었으나 권력이 너무 커져 죽임을 당했다.
- 699) 一葉片舟. 한 조각의 작은 배.
- 700) 禮畢坐定. 인사를 마치고 자리에 앉음.
- 701) 江東. 중국 양자강 동쪽의 땅. 상해·남경·무호 지방 일대. 오나라의 근거지임.
- 702) 孫仲謀. ‘손권의 자(字).
- 703) 六郡. 여섯 개의 군.
- 704) 州. 행정구역의 단위.
- 705) 兵精糧足. 병사는 정예롭고 양식은 풍부함.
- 706) 孫·劉 兩家. 손권과 유비 두 집안.
- 707) 功名. 공을 세워 이름을 널리 떨치는 일.
- 708) 大驚. 크게 놀람.
- 709) 紛紜世上 : 어지러운 세상.
- 710) 出入他國. 다른 나라를 드나들.
- 711) 深量處分. 깊이 헤아려 처리함.
- 712) 千萬祝手. 수없이 두 손 모아 빌.
- 713) 此時. 이 때.

- 714) 孫權. 자는 중모(仲謀). 중국 삼국시대 오나라의 임금. 유비와 함께 적벽에서 조조를 크게 무찌른 뒤 다시 위나라와 손을 잡고 임금이 되었음.
- 715) 漢室. 한나라 왕실.
- 716) 吳國. 오나라.
- 717) 朱瑜. 손권의 부하 장수요, 동지. 여강 서성 사람으로 자(字)는 공근(公瑾). 손권의 형인 손책과는 동서간으로 교공의 두 딸을 나눠 얻었다.
- 718) 激動하여. 몹시 흥분하도록 충동하여.
- 719) 逃走而還. 도망하여 돌아옴.
- 720) 中途而起. 중간에 병사를 일으킴.
- 721) 吳魏兩勢. 오나라와 위나라의 양쪽 세력.
- 722) 一案에. 하나의 계획으로.
- 723) 徒取. 힘들이지 않고 얻음.
- 724) 坐而得功. 가만히 앉아서 공을 세움.
- 725) 賢主. 어진 임금. 자신이 섬기는 임금을 아름답게 이르는 말.
- 726) 一葉小船. 한 조각의 작은 배.
- 727) 百難之中. 온갖 괴로움과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 728) 冬. 겨울.
- 729) 南屏山. 중국 강소성 상요현의 서쪽 3리 되는 곳에 있는 산. 우뚝 솟은 괴암과 병풍처럼 생긴 절벽들로 이루어졌다고 함.
- 730) 어귀. 드나드는 목의 첫머리.
- 731) 綸巾. 비단으로 만든 두건.
- 732) 鶴氅衣. 소매가 넓고, 가에 검은 천을 댄 선비의 옷.
- 733) 白羽扇. 새의 흰 깃털로 만든 부채.
- 734) 一葉片舟. 한 조각의 작은 배.
- 735) 幕下. 으름가는 장수가 되는 사람의 부하, 또는 그 지위. 여기서는 손권의 막사(幕舍)를 가리킴.
- 736) 謀士. 남을 위해 꾀를 내어주는 사람.
- 737) 張昭. 손권의 모사(謀士). 팽성(彭城) 사람으로 자는 자포(子布). 손책이 원술에게 돌아올 때 주유의 추천으로 그의 막하에 들어갔다. 본시 문신이라 사람됨이 소심하고 침착하여, 적벽대전을 앞두고는 항복하기를 권하기도 하였다. 시호는 문후(文侯).
- 738) 顧雍. 손권의 모사. 오군(吳郡) 사람으로 자는 원탄(元嘆). 중랑장 채웅(蔡邕)의 제자로, 말이 적고 술을 가까이 않으며, 엄숙 정대하였다. 승상으로 19년간 재직하였다.
- 739) 保薦. 손권의 모사(謀士). 임회군 회음 사람. 자(字)는 자산(子山).
- 740) 處臧. 손권의 모사(謀士). 회계(會稽) 여조 사람. 자는 중상(中翔). 역리에 깊이 통하고 의술을 겸하였으며 박학하였다.
- 741) 薛宗. 손권의 모사(謀士). 자는 경문. 교주를 정벌하고 있던 손권에게 발탁되었는데 문장에 뛰어났다.
- 742) 陸績. 손권의 모사(謀士). 자(字)는 공기(公紀). 오군 오현 사람. 손권이 강동을 장악하였을 때 귀순하였고 ‘회궐고사(懷橘故事)’의 주인공으로 유명하다.

- 743) 黃蓋, 손권의 부하 장수. 영릉의 천릉 사람으로 자는 공복(公覆). 적벽대전을 앞두고 스스로 주유를 찾아 교육계를 쓸 것을 제안하여, 일부러 주유에게 죽도록 얻어맞고 조조에게 거짓 항복 문서를 보냈으며, 대전시에 선봉대장이 되어 조조의 혼란을 유도하여 크게 공을 세웠음.
- 744) 呂蒙, 오나라 장수. 자는 자명(子明). 주유와 함께 조조 군사를 오림에서 크게 무절렀다. 벼슬은 남군태수(南郡太守).
- 745) 程普, 오나라 장수. 우복평 토은 사람으로 자(字)는 덕모(德謀). 벼슬이 탕구장군(蕩寇將軍)에 이르렀음.
- 746) 韓當, 오나라 장수. 자(字)는 의공(義公)이며, 요서(遼西) 영지인(令支人)임.
- 747) 周泰, 오나라 장수. 구강(九江) 하채(下蔡) 사람. 이릉 전투에선 남만장수 사마가를 죽였으며 후일 조조(曹操)와의 합비 싸움에서 가장 큰공을 세웠고, 유비(劉備)와의 싸움에서도 많은 활약을 하였다. 벼슬이 한중태수(漢中太守)에 이르렀으며, 병으로 죽었다.
- 748) 太史慈, 손권의 부하 장수. 손책과 싸우다가, 손책이 그의 용맹을 아껴 사로잡아 부하로 삼았음.
- 749) 徐盛, 손권의 부하 장수. 낭야 사람으로 자는 문항(文嚮). 용맹이 뛰어났고, 특히 수전에 능하였다.
- 750) 丁奉, 손권의 부하 장수. 여강 안풍 사람으로 자는 승연(承淵).
- 751) 甘寧, 오나라 장수. 손권에게 계책을 올려 황조(黃祖)를 쳐부수고, 주유와 함께 조조를 쳐서 큰 공을 세워 강표호신(江表虎臣)이라 불렀고, 벼슬은 정충장군이였다.
- 752) 陸遜, 손권의 부하 장수. 오군(吳郡) 오현(吳縣) 사람으로, 자는 백언(伯言). 뛰어난 지략을 지닌 장수로, 뒤에 승상이 되었는데, 태자를 폐하는 데 반대하였다가 노염을 사고 물러나 병들어 죽었다.
- 753) 修人事, 인사를 차림.
- 754) 客位, 손님 자리.
- 755) 張昭, 손권의 모사(謀士). 팽성(彭城) 사람으로 자는 자포(子布). 손책이 원술에게 돌아올 때 주유의 추천으로 그의 막하에 들어갔다. 본시 문신(文臣)이라 사람됨이 소심하고 침착하여, 적벽대전을 앞두고는 항복하기를 권하기도 하였다. 시호는 문후(文候).
- 756) 여러 선비.
- 757) 攻駭, 남의 잘못을 몹시 따지고 공격함.
- 758) 舌戰, 말다툼.
- 759) 들어주십시오.
- 760) 皇叔, 황제의 삼촌. 유비가 한나라 마지막 황제인 헌제의 삼촌뻘이 된다 해서 부르는 이름.
- 761) 荊州, 지금의 호남, 호북, 광서 및 귀주를 아울러 가리키는 이름. 군사상 요충지였음.
- 762) 襄陽, 중국 호북성 북서부에 있는 도시. 예로부터 군사상의 요충지였음.
- 763) 바닥에 간 자리를 걷듯이 어떤 일을 쉽게 처리할 때 쓰는 말.
- 764) 管仲, 춘추시대 제나라 환공을 도와 으뜸가는 제후로 만든 인물.
- 765) 樂毅, 연나라의 소왕을 도와 제나라의 여러 성을 항복받은 인물.
- 766) 齊나라. (기원전 1046-기원전 221) 춘추시대의 춘추오패이자, 전국시대의 전국칠웅 중 하나로, 근거지는 현재의 산둥 지방이다. 주(周)의 문왕(文王)이 나라를 건국할 때

재상 강태공(姜太公)에게 봉토로 내린 땅으로 강태공으로부터 12대까지 역사가 불명확하다. 이후 제환공(齊桓公)시대에 관중(管仲)을 등용하여 패자(霸者)의 자리에 오르게 된다.

- 767) 桓公. 제(齊)나라의 제후. 이름은 소백(小白). 관중을 재상으로 맞아들여 경제를 충실히 하고 천하를 통일했다. 제나라는 지금의 산둥성 근방에 있었으며, 강태공이 세운 나라이다.
- 768) 一光天下. 세상을 빛냄.
- 769) 濟世之士. 세상을 구제할 선비.
- 770) 草廬. 오막살이.
- 771) 天下縱橫. 온 세상을 거침없이 마구 다님.
- 772) 新野. 중국의 지명. 지금의 하남성 남양현에 있음.
- 773) 樊城. 호북성 악성현의 서북쪽에 있는 변강이 양자강으로 흘러드는 입구에 있는 성.
- 774) 當陽. 중국 호북성 내의 현(縣). 장관교 싸움으로 유명하다.
- 775) 夏口. 중국 호북성 무장현에 있는 지명.
- 776) 謀士. 남을 위해 꾀를 내어주는 사람.
- 777) 鳳. 봉황새. 상상속의 새.
- 778) 사람의 키 정도의 길이.
- 779) 날기 때문에.
- 780) 잡새 : 오나라의 선비들을 비하하여 이르는 말.
- 781) 劉皇叔. 유비가 한나라 마지막 황제인 헌제의 삼촌뻘이 된다 해서 부르는 이름.
- 782) 濫用. 함부로 마구 씀.
- 783) 趙雲. 유비의 부하 장수. 상산(常山) 사람으로 자(字)는 자룡(子龍). 본디 원소의 막하에 있다가, 그의 인품에 실망하여 공손찬을 위기에서 건져주고 그의 막하에 들었다. 거기서 유비를 만나 알게 되고, 흠모하여, 이후 고락을 같이 하였다.
- 784) 雲長. 관우(關羽)의 자(字). 산서(山西) 사람. 시호는 충의후(忠義侯). 중국 삼국시대 촉한의 장수로서 유비, 장비와 더불어 의형제를 맺고, 한나라의 부흥을 위하여 진력했음.
- 785) 張飛. 자는 익덕(翼德). 호북성에서 태어나 유비, 관우와3 더불어 도원에서 의형제를 맺었다. 그는 유비를 평생 동안 섬기면서 많은 전쟁터에서 누구도 따를 수 없는 힘과 용기로 용맹을 떨쳤다. 그는 뛰어난 호걸이긴 하였지만 너무 성미가 급하고 또한 술을 좋아하였다. 관우의 원수를 갚기 위하여 군사를 일으켜 오(吳)나라로 쳐들어가는 길에 부하의 손에 의해 암살되었다.
- 786) 對敵. 서로 맞서 겨룸.
- 787) 博望. 하남성 남양현 동북쪽에 있는 지명.
- 788) 白河. 신야 가까이 있는 강 이름.
- 789) 曹仁. 조조의 종제이며 부하 장수. 자(字)는 자효(子孝). 조조가 처음 동탁을 치려고 의병을 일으켰을 때부터 참여하여, 수많은 공을 세웠다.
- 790) 夏侯惇. 조조의 부하 장수. 본래 조조와 한 족속인데, 조조가 그 아버지 대에 조씨에게 양자를 갔기 때문에 성이 다르다. 여러 전투에서 용맹을 떨치고, 조조가 죽은 후에 병으로 죽었다.

- 791) 肝膽. 간과 쓸개라는 뜻으로 '깊이 간직한 속마음'을 비유적으로 일컫는 말.
- 792) 祿. 녹봉(祿俸).
- 793) 變. 변란(變亂). 세상이 어지러워지는 일.
- 794) 欺瞞. 그럴 듯하게 남을 속여 넘김.
- 795) 萬古逆賊. 세상에 다시 그 유례가 없는 반역자.
- 796) 厚恩. 두터운 은혜.
- 797) 人君. 임금.
- 798) 漢文券. 상당한 양의 한문책.
- 799) 千言萬舌. 수없이 하는 말.
- 800) 局量. 도량이나 궁리.
- 801) 붓촉을 박는 가는 대.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릴 때 손으로 잡는 부분이다.
- 802) 可日否日. 월가월부(日可日否). 어떤 일에 대하여 옳거니 옳지 아니하거니 하고 말함.
- 803) 祝文. 제사 때 읽어 신명께 고하는 글.
- 804) 紙榜. 지방문(紙榜文). 제사 따위를 지낼 때에 지방에 쓰는 글.
- 805) 四柱. 타고난 운수.
- 806) 觀相. 사람의 생김새를 보고 그의 운명수명·길흉·성질 등을 판단하는 일.
- 807) 末年. 끝 무렵.
- 808) 무릎을 치면서 맞추는 장단.
- 809) 時調 三章. '시조'는 고려 말기부터 발달하여 온 우리나라 고유의 정형시로 초장, 중장, 종장의 3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 810) 國論. 국가에 대한 논의.
- 811) 小人之輩. 마음 씀씀이가 좁고 간사한 사람들이나 그 무리.
- 812) 張昭, 손권의 모사(謀士). 팽성(彭城) 사람으로 자는 자포(子布). 손책이 원술에게 돌아올 때 주유의 추천으로 그의 막하에 들어갔다. 본시 문신이라 사람됨이 소심하고 침착하여, 적벽대전을 앞두고는 항복하기를 권하기도 하였다. 시호는 문후(文侯).
- 813) 陸績, 손권의 모사(謀士). 자(字)는 공기(公紀). 오군 오현 사람. 손권이 강동을 장악하였을 때 귀순하였고 '회궐고사(懷橘故事)'의 주인공으로 유명하다.
- 814) 魯肅, 손권의 부하 장수. 자는 자경(子敬). 임회군(臨淮郡) 동성현(東城縣) 사람. 주유의 천거로 손권의 부하가 되어 중심이 되는 정책을 수립하였다. 주유가 죽은 뒤에 병권을 장악하였다.
- 815) 相貌. 면상(面相). 얼굴 모습.
- 816) 堂堂하구나. 버젓하고 정대하구나.
- 817) 碧眼黃鬚. 푸른 눈과 노란 수염.
- 818) 冠玉. 머리에 쓰는 관 앞을 꾸미는 옥. 남자의 잘 생긴 얼굴을 비유하여 일컫는 말.
- 819) 風采. 드러나 보이는 사람의 겉모양.
- 820) 管樂. 관중과 악의. '관중'은 춘추시대 제나라 환공을 도와 으뜸가는 제후로 만들었고, '악의'는 연나라의 소왕을 도와 제나라의 여러 성을 항복받았다.
- 821) 呂苞. 후한 시대의 장수. 본래 형주자사 정원(丁原)의 의자(義子)로 그를 호위하였으나, 동탁이 적토마를 주어 매수하는 바람에 아버지라고 부르던 정원을 죽이고 동탁에 붙었

- 다. 왕윤이 초선이로 하여금 미인계를 쓰니, 또 넘어가 동탁을 죽이고, 이각, 광사의 무리와 싸웠다. 후에 조조와 유비의 연합군에게 잡혀 죽었다.
- 822) 劉表. 중국 후한(後漢) 때 군웅. 자는 경승(景升). 고평(高平) 출신. 한(漢)나라 경제(景帝)의 아들인 노공왕(魯恭王) 유여(劉餘)의 자손이다. 젊어서부터 팔고(八顧)라고 하여 유덕자의 한 사람으로 꼽혔다. 190년 형주자사(荊州刺史)가 되자 종적(宗賊)을 평정하여 강남을 지배했고, 세력이 남쪽의 영릉(零陵)·계양(桂陽)까지 미쳤다.
- 823) 元邵. 중국 후한(後漢) 말기 군웅의 한 사람. 자는 본초(本初). 여남군(汝南郡) 여양(汝陽) 출신. 원씨는 4대에 걸쳐서 3공을 배출한 명문으로, 당시에는 원씨의 은고를 입은 문하생과 아전이 매우 많았다. 영제(靈帝)가 죽은 뒤 환관을 배제하려던 외척 하진(何進)이 모살당하자 원소는 종제 원술(袁術)과 힘을 모아 환관 2000명을 모두 살해했다.
- 824) 遠術. 원소의 사촌 동생. 자는 공로(公路). 여양 사람. 동탁(董卓)이 황제 폐립(廢立)계획을 세우고 가담시키려 하자, 후환이 두려워 난양(南陽)으로 탈주하여 손견(孫堅)과 결탁, 동탁을 격파하여 명성을 떨쳤다
- 825) 雄據. 어떤 지역을 차지하고 군세에 막아 지킴.
- 826) 江東. 중국 양자강 동쪽의 땅. 상해·남경·무호 지방 일대. 오나라의 근거지임.
- 827) 兵精糧足. 병사는 정예롭고 양식은 풍부함.
- 828) 兩家. 두 집안.
- 829) 萬古逆賊. 세상에 다시 그 유례가 없는 역적. ‘역적’은 임금에게 반역한 사람.
- 830) 拜辭奏曰. 절하고 사양하며 아뢰기를.
- 831) 天意. 하늘의 뜻.
- 832) 合當. 꼭 알맞음.
- 833) 合勢. 힘을 합함.
- 834) 酬酢. 서로 말이나 술잔을 주고받음.
- 835) 朱瑜. 손권의 부하 장수요, 동지. 여강 서성 사람으로 자(字)는 공근(公瑾). 손권의 형인 손책과는 동서간으로 교공의 두 딸을 나눠 얻었다.
- 836) 鄱陽湖. 중국 강서성(江西省) 북부에 있는, 중국에서 가장 넓은 호수.
- 837) 修人事. 인사를 차림.
- 838) 破. 격파.
- 839) 江東. 중국 양자강 동쪽의 땅. 상해·남경·무호 지방 일대. 오나라의 근거지임.
- 840) 計策. 꾀나 방책.
- 841) 緣由. 그렇게 되는 까닭.
- 842) 銅雀臺. 조조가 업(위나라의 수도)에 쌓은 누대. 구리로 만든 봉황새를 옥상에 안치하여 엮음.
- 843) 大喬. 소喬. 교공의 두 딸로 모두 미인이었음. 주유가 손권의 형인 손책을 따라 완성을 칠 때 포로로 잡아 대교는 손책이, 소교는 주유가 차지했다.
- 844) 妃嬪. 비(妃)와 빈(嬪)을 아울러 이르는 말.
- 845) 豪強. 호화롭고 편안한 삶을 누림.
- 846) 萬無一失. 조금도 잃는 것이 없음.
- 847) 昭詳히. 분명하고 자세하게.

- 848) 子建. 조식(曹植). ‘자건’은 그의 자(字)임. 시호(諡號)는 사(思). 안휘성(安徽省) 출생. 마지막 봉지에 의하여 진사왕(陳思王)이라고도 불린다. 조조(조조)의 셋째 아들이며, 문제(文帝) 조비(曹氏)의 아우이다. 조조, 조비, 조식 이 세 사람은 삼조(三曹)라 하여 건안문학(建安文學)의 중심적 존재로서 ‘문학사상의 주공(周公)-공자(孔子)’라 칭송되었다.
- 849) 萬古文章. 오랜 세월에 걸쳐 빛날 뛰어난 글.
- 850) 詩文. 시와 산문을 아울러 이르는 말.
- 851) 개운하지 않고 무엇인가 마음에 걸리는 데가 있지만.
- 852) 應諾. 상대방의 요청에 응하여 승낙함. 또는 상대방의 말을 들어줌.
- 853) 五臟. 다섯 가지 내장. 여기서는 뱃속 깊은 곳, 혹은 마음 속 깊은 곳.
- 854) 從明后而嬉游兮, 登層臺以娛情. 이요, 見太府之廣開兮, 觀聖德之所營이라. 建高門之嵯峨兮, 浮雙闕乎太清이요, 立中天地華觀兮, 連飛閣乎西城이라. 臨漳水之長流兮, 望園果之滋榮이요, 立雙臺於左右兮, 有玉龍與金鳳이며, 攬二喬於東南兮, 樂朝夕之與共이라. 현명한 임금을 따라가서 즐겁게 놀고, 누대를 올라가 즐거이 교분을 나누며, 넓은 서울을 바라보니, 어진 임금의 덕이 바라는 바를 알겠도다. 높은 문을 높이 세우니, 두 궁궐이 하늘에 뜬 듯이 솟았고, 누각은 하늘 높이 솟아서 아름답게 빛나며, 나는 듯이 서성에까지 이어졌도다. 길게 흐르는 장수의 물가에 서서 정원의 과실들은 열매를 많이 맺기를 바라노라. 양 옆에 누대를 둘 세웠으니, 옥룡각과 금봉각이라. 대교와 소교를 동남에서 데려와 밤낮으로 함께 즐기며 지내리라. 본래 원문에는 마지막 두 구절이 ‘연이교어동서해(連二橋於東西兮)여 약장공지체동(若長空之蟉螭)’으로 ‘동서로 다리를 이어놓으니, 마치 하늘에 뜬 무지개인 듯하다’는 뜻인데, 대교와 소교를 데려다 같이 즐기겠다는 내용으로 살짝 바꾸었다.
- 855) 卓上. 책상 위.
- 856) 都督. 부대를 지휘하는 사령관.
- 857) 마음이나 흥분 따위를 가라앉힘.
- 858) 漢나라 高祖. 한나라를 세운 유방(劉邦).
- 859) 匈奴. 기원전 4세기에서 1세기 사이에 몽고 지방에서 세력을 떨쳤던 유목민족. 서역의 통상로를 지배하여 한나라와 대항하였으나, 후한 시절에 토벌되어 서쪽으로 이동하였음.
- 860) 孫伯符. 오나라의 명장 손책(孫策). 손권의 아들이요, 손권의 형. ‘백부’는 그의 자(字).
- 861) 아내.
- 862) 失言. 말을 잘못 함.
- 863) 大怒. 크게 화를 냄.
- 864) 雪恨. 한을 풀.
- 865) 帳中. 장막의 안. 여기서는 군대를 지휘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을 가리킴.
- 866) 兵器. 전투에 쓰는 여러 가지 기구.
- 867) 大江. 큰 강.
- 868) 隔하여. 사이에 두고.
- 869) 軍用. 군사적 목적에 쓰는 물건.
- 870) 完納. 남김없이 완전히 납부함.
- 871) 工作要物. 물건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



- 872) 軍中은 無戲言. 군대에서는 농담을 하지 않음.
- 873) 代行키로. 대신하기로.
- 874) 軍令狀. 일이 잘못되면 군법에 의해 처벌을 받겠다는 서약서.
- 875) 大喜하여. 크게 기뻐하여.
- 876) 靑布 帳幕. 푸른색 천으로 된 포장. '장막'은 야외에서 별 또는 비를 막고 사람이 들어가 있을 수 있도록 둘러치는 포장. 옆으로 돌아가며 휘장을 침.
- 877) 窺으로 만든 사람의 형상.
- 878) 等物. 등등의 것들.
- 879) 亮. 제갈량. 공명.
- 880) 가져오십시오.
- 881) 牌. 같이 어울려 다니는 사람의 무리.
- 882) 화살같이. 빠르게.
- 883) 長江. 양자강.
- 884) 一帶. 주변의 모든 지역.
- 885) 五更時.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
- 886) 水寨. 물 위에 지은 군사 주둔 시설.
- 887) 陣中. 군대나 부대의 안.
- 888) 動할. 움직일.
- 889) 將臺. 군사를 지휘하는 사람이 올라서서 명령을 내리는 대.
- 890) 江東. 중국 양자강 동쪽의 땅. 상해남경무호 지방 일대. 오나라의 근거지임.
- 891) 伏兵. 갑작스레 적을 내치려고 요긴한 목에 숨어 있는 군사.
- 892) 動하지. 움직이지.
- 893) 弓弩手. 활과 쇠뇌를 쏘는 군사. '쇠뇌'는 잇달라 여러 개의 살이 나가도록 만든 활의 한 가지.
- 894) 許緒. 조조의 부하 장수. 자는 중강(仲康). 용맹이 뛰어나서 '호치(虎癡)'라고도 불렸음.
- 895) 張遼. 조조의 부하 장수. 성은 섭(聶), 자는 문원(文遠). 무예가 뛰어나서 조조와 함께 공을 많이 세웠음.
- 896) 徐晃. 조조의 부하 장수. 하동(河東) 양군(楊郡) 사람으로, 자는 공명(公明). 양봉(楊奉)의 부하로 있다가 그의 용맹을 본 조조가 사로잡아 부하로 삼았다.
- 897) 于禁. 조조의 부하 장수. 태산(泰山) 거평(鉅平) 사람으로, 조조가 산동의 황건적 잔당을 소탕하였을 때 수백 군사를 거느리고 조조의 휘하로 들어왔다. 적벽대전 때 수군의 총지휘를 맡았다가 크게 패하였으며, 양양 싸움에서 관우에게 항복하여 옥에 갇혀 있다가, 관우가 싸움에 져 죽은 뒤 손권이 보내주어 돌아갔다. 후에 조조의 능 관리를 하였는데, 그가 항복하는 모습을 조조의 공적을 그린 벽화 속에 그려 넣었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부끄러움과 노여움으로 병을 얻어 죽었다.
- 898) 李典. 조조의 부하 장수. 산양(山陽) 거록(鉅鹿) 사람으로, 자는 만성(曼成). 조조가 처음 군사를 일으켰을 때부터 참가하였으며, 뒤에 벼슬이 파로장군(跋虜將軍)에 이르렀다.
- 899) 樂進. 조조의 부하 장수. 양평(楊平) 위국(衛國) 사람으로 자는 문겸(文謙). 몸집은

- 작았으나 담력이 있어 여러 차례 공을 세웠다.
- 900) 夏侯惇. 위나라의 장수. 자는 원호(元護). 본래 조조와 한 족속인데, 조조가 그 아버지 대에 조씨에게 양자를 갔기 때문에 성이 다르다. 여러 전투에서 용맹을 떨치고, 조조가 죽은 후에 병으로 죽었다.
- 901) 江中. 강 가운데.
- 902) 비스듬히.
- 903) 喇叭. 옛날 관악기의 한 가지. 쇠붙이로 긴 대롱처럼 만들되, 위는 가늘고 끝이 퍼짐.
- 904) 화살.
- 905) 謝禮. 감사의 예를 올림.
- 906) 大怒. 크게 화를 냄.
- 907) 江東 배. 강동에서 온 배. 곧 공명이 탄 배.
- 908) 豪氣. 씩씩하고 호방한 기상. 거만스럽게 잘난 체하며 자꾸 버릇없이 구는 기운.
- 909) 神人. 신과 같이神通력을 가진 사람.
- 910) 天文. 하늘의 이치.
- 911) 地理. 땅의 이치.
- 912) 遁甲. 술법을 써서 마음대로 제 몸을 감추거나, 다른 것으로 변하게 함.
- 913) 庸才. 평범하고 졸렬한 재주.
- 914) 限. 기한(期限). 어느 때까지를 기약함.
- 915) 工作要物. 물건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
- 916)害하리오? 해치겠는가?
- 917) 일어나서.
- 918) 禮. 여기서는 ‘인사’의 뜻.
- 919) 神技妙算. 귀신같은 재주와 묘한 계산.
- 920) 測量치. 헤아리지.
- 921) 못하겠나이다. 못하겠습니다.
- 922) 鬱火. 마음이 답답하여 일어나는 심화(心火).
- 923) 龐統. 유비 막하의 모사. 본래 와룡(臥龍) 봉추(鳳雛) 중 하나만 얻어도 왕업을 이루리라던 말 속의 봉추가 바로 그임. 양양 사람으로 자는 사원(士元). 적벽대전에서 연환계를 내어 성공시켰음. 낙성(洛城)을 치다가 삼십육 세로 죽었음.
- 924) 連環計. 주유가 방통을 조조에게 보내어, 조조의 군대가 수전에 능하지 못하므로, 전선을 모두 쇠고리로 연결하여 육지처럼 만들어 싸우면 된다고 한 뒤에, 불로 쳐서 크게 이긴 계책.
- 925) 만들게.
- 926) 水質. 물의 성질.
- 927) 만들어.
- 928) 雲集. 구름처럼 많이 모임.
- 929) 만들어.
- 930) 江上陸地. 강 위의 육지. 여기서는 배를 쇠고리로 연결하여 마치 육지처럼 만들어 놓은 것을 가리킴.

- 931) 留陣. 군대의 진영에 머물.
- 932) 十八技. 중국에 전해 내려오는 열여덟 가지 무예.
- 933) 私習. 스승 없이 스스로 훈련하고 익힘.
- 934) 萬軍中. 모든 군대 내.
- 935) 犒軍. 호궤(犒饋). 군사들에게 음식을 배풀어 위로함.
- 936) 狼藉. 여기저기 흩어져 어지러움.
- 937) 月色. 달빛.
- 938) 如同白日. 밝은 대낮과 같음.
- 939) 長江. 양자강.
- 940) 一帶. 주변의 모든 지역.
- 941) 如橫素練. 마치 흰 비단을 펼쳐놓은 것 같음.
- 942) 兵校. 장교. 조조를 가리킴.
- 943) 心中. 마음 속.
- 944) 어떤 느낌을 우리나라에 하여.
- 945) 諸將. 여러 장수.
- 946) 南屏山色. 남병산의 빛깔. '남병산'은 중국 강소성 상요현의 북쪽에 있는 산으로, 제갈공명이 동남풍을 빌어 조조의 군사를 깨뜨리기 위하여 칠성단을 쌓은 곳.
- 947) 그림屏. 그림을 그린 병풍. 남병산이 병풍처럼 깎은 듯이 높고 경치가 좋음을 빗대어하는 말.
- 948) 扶桑. 해가 뜨는 동쪽 바다. 혹은 중국 전설에서, 해가 뜨는 동쪽 바다 속에 있다고 하는 상상의 나무. 또는 그 나무가 있다는 곳.
- 949) 夏口境. 하구성의 경계. '하구성'은 호북성 무창현에 있는 손권이 쌓은 성.
- 950) 樊城. 호북성 악성현의 서북쪽에 있는 변항강이 양자강으로 흘러드는 입구에 있는 성.
- 951) 烏林. 적벽강의 북쪽 맞은 편 언덕에 있는 숲. 지금의 호북성 가어현(嘉魚縣) 서쪽에 있음.
- 952) 廣闊. 넓히게 넓음.
- 953) 起兵. 군사를 일으킴.
- 954) 四海. 네 방향에 있는 바다, 곧 온 세상.
- 955) 끌어 모아 독차지하고.
- 956) 未得之江南. 아직 얻지 못한 것이 강남이다.
- 957) 應師. '군사로 모으고' 정도의 의미인 듯.
- 958) 諸君. 그대들.
- 959) 用兵. 군사를 지휘하여 부림.
- 960) 魏漢. 위나라와 한나라.
- 961) 吳漢. 오나라와 한나라.
- 962) 明日로다. 다음날로.
- 963) 決斷하라. 결정적인 판단을 하거나 단정을 내려라. 여기서는 '결판을 내려'는 정도의 의미.
- 964) 萬乘帝業. 만 대의 수레를 가진 천자가 될 사업. '승'은 수레를 세는 단위.

- 965) 大功. 큰 공적.  
 966) 千金賞. 수많은 돈으로 크게 내리는 상.  
 967) 萬戶侯. 만 호의 백성을 다스리는 제후.  
 968) 封. 천자가 영지를 주어 제후를 삼는 일.  
 969) 令. 명령.  
 970) 百萬軍衆. 백만 명의 군사들.  
 971) 醉罷. 취하도록.  
 972) 各心所願대로. 저마다 원하는 대로.  
 973) 妻子. 아내와 자식.  
 974) 보고 싶어.  
 975) 鬪戔. 기름에 절인 두꺼운 종으로 작은 손가락 너비만하고 길이 다섯 치쯤 되게 만들어, 그림과 깃수를 그려 넣은 노름 기구, 또는 그것을 갖고 하는 노름.  
 976) 處處. 곳곳에.  
 977) 病淚卽將爲不幸이라. 병사가 눈물을 흘리면 곧 불행한 일이 닥친다.  
 978) 半白. 흰 머리 털이 반쯤 섞임.  
 979) 注子. 술 따위를 퍼서 잔에 붓는 그릇.  
 980) 散炙. 쇠고기 따위를 길쭉하게 썰어 양념을 하여 꼬치에 꿰어 구운 음식.  
 981) 물끄러미.  
 982) 千里戰場. 천 리나 떨어진 먼 전쟁터.  
 983) 병거지. 전립(戰笠). 옛날 주로 하인이나 병졸이 쓰던, 짐승의 털로 만든 모자.  
 984) 보에 고인 물. 또는 보에서 흘러내린 물. ‘보’는 눈에 물을 대려고 독을 쌓아 물을 막아 두는 곳.  
 985) 다리를 아무렇게나 제 멋대로 하고.  
 986) 서럽게.  
 987) 未決하고. 아직 결정을 짓지 못하고.  
 988) 天下大事. 천하의 큰 일. 여기서는 조조가 삼국을 통일 하는 일.  
 989) 서러운. 슬픈.  
 990) 高堂上. 고당 위. ‘고당’은 늙은 부모가 거처하시는 곳을 가리키는 말.  
 991) 鶴髮兩親. 학처럼 머리가 희옻게 늙으신 부모님.  
 992) 拜別. 이별의 인사를 올림.  
 993) 父兮여 生我시고, 母兮여 育我하시니. 아버님이 나를 낳으시고, 어머님이 날 기르시니.  
 994) 欲報之德澤이나 昊天罔極이라. 그 덕택을 갚고자 하나, (그 은혜는) 하늘처럼 끝이 없다.  
 995) 愛重. 사랑하여 중하게 여김.  
 996) 閨中. 아녀자가 기거하는 곳.  
 997) 妻子. 아내와 자식.  
 998) 寄別. 떠 대 데 있는 사람이 모르고 있는 소식을 알림, 또는 그 소식.  
 999) 出門望. 문 밖에 나가 기다림.  
 1000) 依門望. 어머니가 문에 기대어 아들딸이 돌아오기를 기다림.

- 1001) 相思曲. 님을 그리워하는 노래.  
 1002) 斷腸懷. 창자가 끊어질 듯한 그리움.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심정을 나타낸 말.  
 1003) 晝夜愁心. 밤낮으로 하는 근심스런 생각.  
 1004) 陸戰. 육지에서 하는 전쟁.  
 1005) 水戰. 물에서 하는 전쟁.  
 1006) 번갈아 가며 할 때.  
 1007) 生死가 모두 다 朝夕이라. 죽고 사는 것이 아침과 저녁이 다르다. 곧, 그렇게 쉽게 죽을 처지에 있다는 말.  
 1008) 客死. 객지에서 죽는 죽음.  
 1009) 掩土. 겨우 흙이나 덮어서 간신히 장사를 지냄. 또는 그 장사.  
 1010) 骨曝沙場. 모래밭에 뼈가 드러남.  
 1011) 흩어져서.  
 1012) 烏鵲. 까마귀와 까치.  
 1013) '후여' 하고 소리를 치며, 힘차게 (새를 쫓는) 손짓을 하여.  
 1014) 一日思親十二時. 하루에 12시간을 아버이를 생각함. 옛날에는 하루를 12시로 생각했으므로, 결국 온 종일 부모를 생각한다는 말임.  
 1015) 나의 서러움만큼 되려면.  
 1016) 남의 五代獨身. 자신이 (부모의) 오대독신이라는 말을 이렇게 한 것임. '오대독신'은 5대째 독자로 내려온 집안의 외아들을 가리킴.  
 1017) 將近도록. 곧 가깝도록. 거의 다 되도록.  
 1018) 膝下. 아버이의 곁에.  
 1019) 一點血肉. 단 하나의 자식.  
 1020) 조금 반갑거나 놀라운 느낌을 나타내는 감탄사.  
 1021) 供. 신이나 부처에게 음식이나 재물, 기도 등을 바치며 소원을 비는 일.  
 1022) 名山. 이름난 산.  
 1023) 大刹. 큰 절.  
 1024) 靈神堂. 부처와 여러 신을 모신 집.  
 1025) 古廟. 오래 된 사당.  
 1026) 叢祠. 여러 신을 모신 사당.  
 1027) 釋王寺. 절 이름.  
 1028) 石佛. 돌로 만들거나 새긴 부처님.  
 1029) 菩薩. 부처의 다음 가는 성인. 도가 높은 중을 존경하여 이르는 말.  
 1030) 彌勒. 도솔천에 살며, 역만 년 뒤에 인간 세상에 내려와 중생을 구제한다는 미래의 부처. 돌로 새긴 부처.  
 1031) 허위허위. 손발을 내두르며 부자연스럽게 서두르는 모양.  
 1032) 힘들여 심은 나무.  
 1033) 胎氣. 아이를 뱃 기미.  
 1034) 十朔. 열 달.  
 1035) 胎育. 아이를 배서 기름.

- 1036) 排設. 의식이나 연회에서 필요한 것을 벌이어 배품.
- 1037) 席不正不坐. 자리가 반듯하지 않으면 앉지 않음. 주나라 문왕의 어머니 태임(太任)이 실천했다는 태교의 한 가지.
- 1038) 割不正不食. 바르게 자르지 않은 음식은 먹지 않음. 주나라 문왕의 어머니 태임(太任)이 실천했다는 태교의 한 가지.
- 1039) 耳不聽淫聲. 귀로는 음란한 소리를 듣지 않음. 주나라 문왕의 어머니 태임(太任)이 실천했다는 태교의 한 가지.
- 1040) 目不視惡色. 눈으로는 좋지 않은 색깔은 보지 않음. 주나라 문왕의 어머니 태임(太任)이 실천했다는 태교의 한 가지.
- 1041) 解腹. 출산. 아기를 낳는 일.
- 1042) 香臭. 향기로운 냄새.
- 1043) 彩雲. 여러 가지 고운 빛깔의 구름.
- 1044) 昏迷中에. 정신이 없는 가운데.
- 1045) 반가울 텐데.
- 1046) 三七日. 21일.
- 1047) 五六朔. 5-6개월.
- 1048) 壯版房. 바닥을 장판으로 바른 방. '장판'은 방바닥을 바르는 데 쓰는 기름 먹인 두꺼운 종이.
- 1049) 힘에 벽차서 애처롭게 겨우 움직이는 모양.
- 1050) 거머쥐어 잡고.
- 1051) 어린아이가 머리를 좌우로 흔들며 피우는 재롱.
- 1052) 어린아이가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면서 피우는 재롱.
- 1053) 어린 아이를 안고 어르면서 하는 말. '자장자장'이라는 의미.
- 1054) 부엌의 벽 중턱에 가로 드린 선반. 그릇 따위를 얹어 놓는 데 씀.
- 1055) 생쥐.
- 1056) 밤이나 곡식의 낱알을 세는 단위.
- 1057) 콩이나 깨 따위를 휘저으며 볶거나 맷돌에 가는 모양.
- 1058) 어린 아이를 안고 어르면서 하는 말 또는 모양.
- 1059) 晝夜. 밤낮. 늘. 언제나.
- 1060) 愛重한 게. 애중한 것이. 사랑하여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 1061) 외치는.
- 1062) 祠堂門. 조상의 신주를 모셔놓은 집의 문.
- 1063) 痛哭再拜. 슬피 울면서 두 번 절을 함.
- 1064) 戰場. 전쟁터.
- 1065) 간질간질하게 재미있는.
- 1066) 萬里戰場. 만 리나 되게 멀리 떨어진 전쟁터.
- 1067) 生離別. 살아 있는 부부끼리 하는 이별.
- 1068) 아기가.
- 1069) (무엇을 보이거나, 들려주거나, 몸을 흔들어주거나 하여) 어린애의 마음을 기쁘게

- 하여 볼거나.
- 1070) 서러운.
- 1071) 早失하고, 일찍 잃고, 일찍 여의고.
- 1072) 전혀 없이.
- 1073) 子子單身. 의지할 곳이 없이 외로운 홀몸.
- 1074) 二姓之合. 두 성씨가 합치는 일. 두 성씨가 만나 혼인하는 일.
- 1075) 宗家大事. 한 문중에서 맏이로만 내려온 집안의 큰 일.
- 1076) 한 때도. 잠시도.
- 1077) 세월이 가는 줄. '철'은 계절.
- 1078) 불로 인한 재화(災禍)나 변고(變故).
- 1079) 天地間. 하늘과 땅 사이. 온 세상.
- 1080) '상투'를 이르는 뜻.
- 1081) 戰笠. 옛날 주로 하인이나 병졸이 쓰던, 짐승의 털로 만든 모자.
- 1082) 二八青春. 나이가 열여섯 살 된 청춘. 곧 한창 때.
- 1083) 가려고 하시오.
- 1084) 出陣. 싸움터로 나아감.
- 1085) 사정없이 뿌리쳐.
- 1086) 萬端情懷. 온갖 마음과 회포.
- 1087) 大體. 대관절. 요점만 말한다면.
- 1088) 妻子. 아내와 자식.
- 1089) 不可한. 옴지 않은.
- 1090) 남의 집 五代獨身. 자신이 (부모의) 오대독신이라는 말을 이렇게 한 것임. '오대독신'은 5대째 독자로 내려온 집안의 외아들을 가리킴.
- 1091) 喪妻. 아내를 잃음.
- 1092) 求婚. 결혼할 상대자를 구함.
- 1093) 四柱單子. 혼인할 것을 정한 뒤에 신랑될 사람의 집에서 신랑될 사람의 사주(태어난 해, 달, 일, 시)를 적어서 보내는 종이.
- 1094) 擇日. 날을 잡음.
- 1095) 寄別. 떠 댈 데 있는 사람이 모르고 있는 소식을 알림, 또는 그 소식.
- 1096) 一襲器具. 결혼에 필요한 일체의 도구.
- 1097) 張風憲네. 장풍헌은 장씨 성을 가진 풍헌의. '풍헌'은 조선조 때 향소직의 하나로 면이나 이(里)의 일을 맡아 보았음.
- 1098) 털이 빠지는 병인 비루에 걸린 말.
- 1099) 이씨 성을 가진 과부의 집.
- 1100) 줌이 먹은 안장.
- 1101) 선천적으로 윗입술이 두 군데가 찢어진 사람.
- 1102) 앞 뒤 곱사등이. 가슴과 등의 뼈가 병적으로 불쑥 내민 사람.
- 1103) 鄭洞長. 정씨 성을 가진 동장. '동장'은 마을에서 공동으로 부리던 종.
- 1104) 혼례를 올리기에 앞서 신랑집에서 신부에게 주는 예물을 담은 함을 지고 가는 사람.

- 1105) 눈이 하나밖에 없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
- 1106) 절름발이.
- 1107) 찌수의 아버지. 찌수 혹은 찌쇠는 찌가 많은 사람을 이름.
- 1108) 上客. 혼례 때에 식구나 일가 가운데서 신랑이나 신부를 데리고 가는 사람.
- 1109) 紗帽品帶. 혼례 때에 신랑이 쓰던 모자와 허리띠.
- 1110) 綾羅豪奢. 비단으로 사치스럽게 꾸밈.
- 1111) 醺禮廳. 전안청(奠雁廳)이라고도 하는데, 전안식을 올리는 식장을 말함. 보통 마당에 차일을 치고, 병풍을 세우고, 명석을 깔고 상을 차린다.
- 1112) 大禮廳. 혼인할 때 대례를 올리는 곳. 대개 초례를 위한 차림에서 전안상만 치우고는 그대로인데, 대례에서는 먼저 신부가 절 네 번을 하면 답으로 신랑이 두 번 절하고, 청실과 홍실을 켜 표주박에 술을 따라 마시게 한다.
- 1113) 방마다.
- 1114) 茶啖床. 차와 다과 따위를 차린 상.
- 1115) 日落咸池. 함지에 해가 떨어짐. '함지'는 해가 진다고 하는 서쪽에 있는 큰 연못.
- 1116) 月出동녘. 달이 동쪽에서 떠오름.
- 1117) 갓은 飯床. 온갖 음식으로 차린 밥상. '반상'은 밥과 반찬을 차린 상차림.
- 1118) 二更 初. '이경'은 밤 9시에서 11시 사이이므로 '이경 초'는 밤 9시에서 10시 사이를 가리킴.
- 1119) 明兆. 얼굴에 나타나는 밝은 징조.
- 1120) 떠서 움직이는 모양.
- 1121) 英風. 영특한 기운.
- 1122) 綠衣紅裳. 연두색 저고리에 다홍치마라는 뜻으로 젊은 여인의 복장.
- 1123) 譬如天地. 비유하자면 하늘과 땅 같음.
- 1124) 佩物. 사람의 몸치장으로 차는, 귀금속 따위로 만든 장식물.
- 1125) 圓衫. 여자의 예복의 한 가지로, 연두 길에 자주 깃과 색동 소매를 달아 짓는다.
- 1126) 아내의 남자 형제간의 아내.
- 1127) 호들갑스럽게. 야단스럽게.
- 1128) 연기, 혹은 냄새.
- 1129) 부녀자들이 예복을 입을 때에 머리에 얹던 관의 하나.
- 1130) 圓衫. 여자의 예복의 한 가지로, 연두 길에 자주 깃과 색동 소매를 달아 짓는다.
- 1131) 單衣. 속곳. 속속곳과 단속곳을 함께 이르는 말. '속속곳'은 예전에, 여자들이 입던 아랫도리 속옷 가운데 맨 속에 입는 것. 다리통이 넓은 바지 모양이다. '단속곳'은 여자 속옷의 하나. 양 가랑이가 넓고 밑이 막혀 있으며 흔히 속바지 위에 덧입고 그 위에 치마를 입는다.
- 1132) 밤중 쯤 되어.
- 1133) 외치는.
- 1134) 열어젖히고. 갑자기 활짝 열고.
- 1135) 魂飛中天. 혼백이 하늘 높이 떠 날아감.
- 1136) 遑急. 정신없이 급함.



- 1137) 둘러메고.  
 1138) 자기. 여기서는 ‘성기’를 가리킨다.  
 1139) 急煞. 갑작스럽게 닥치는 재액(災厄).  
 1140) 誤死. 잘못된 죽음.  
 1141) 병치. 전립(戰笠). 옛날 주로 하인이나 병졸이 쓰던, 짐승의 털로 만든 모자  
 1142) 여러 군사.  
 1143) 天地開闢. 온 세상이 처음 생김.  
 1144) 병거지. 전립(戰笠). 옛날 주로 하인이나 병졸이 쓰던, 짐승의 털로 만든 모자.  
 1145) 萬軍中. 모든 군대 속.  
 1146) 歷代七書. 대대로 내려오는 사서와 삼경.  
 1147) 예전에 쓰던 노란 빗갈의 엽진.  
 1148) 이르다가. 놀려주며 장난하다가.  
 1149) 大笑. 크게 웃음.  
 1150) 相好. 부처의 몸에 갖추어진 훌륭한 용모와 형상. 부처의 화신에는 뚜렷해서 보기 쉬운 32가지의 상과 미세해서 보기 어려운 80가지의 호가 있다. 여기서는 그저 ‘생김새’라는 뜻으로 썼다.  
 1151) 북통처럼 큰 머리. ‘대그빱’은 ‘머리’의 비어.  
 1152) 실로 가늘게 꼰 줄. 여기서는 ‘가느다란’의 의미로 쓰였음.  
 1153) ‘목’의 비어.  
 1154) 장구통처럼 불룩한 배. ‘배야지’는 ‘배’의 비어.  
 1155) 수증(水腫)다리. 병으로 통통하게 부은 다리.  
 1156) 소의 다리. 잘 걷고 힘들어하지 않는 단단한 다리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1157) 다리 아랫마디의 앞부분.  
 1158) 발이 넓은 발.  
 1159) 쥐털처럼 짧은 수염.  
 1160) 거스르게 하고. 끝이 위로 올라가게 하고.  
 1161) 孱妄함. 행동이 자질구레하고 가벼움.  
 1162) 着刀. 지휘봉으로 쓰는, 몸에 지니고 다니는 칼.  
 1163) 너희들.  
 1164) 한꺼번에 모두 다.  
 1165) ‘마음 씹씀이나 하는 행동이 보잘 것 없이 작은 사람’을 욕으로 일컫는 말.  
 1166) 爲國者는 不顧家事라. 나라를 위하는 사람은 집안을 돌보지 않음.  
 1167) 男兒何必戀妻子리오? 남자가 하필이면 아내와 자식만을 그리워하겠는가?  
 1168) 莫向江村老壯年하소. 노인이나 젊은이나 할 것 없이 고향은 생각 마소.  
 1169) 어찌 할 도리 없이.  
 1170) 腰下. 허리 아래.  
 1171) 三尺. 석 자. 약 90cm.  
 1172) 吳漢. 오나라와 한나라.  
 1173) 兩陣. 양 진영.

- 1174) 땡깡. 쇠붙이 따위가 세계 부러지거나 부딪칠 때 쿵게 나는 소리. 여기서는 ‘사람의 목을 세계 벨 때 나는 소리’임.
- 1175) 勝戰鼓. 싸움에 이겨 울리는 북.
- 1176) 여러 군사.
- 1177) 項도령. 힘이 장사였다는 항우(項羽)를 가리킴.
- 1178) 씨줄 태니.
- 1179) 머리의 뒷부분.
- 1180) 豪氣. 씩씩하고 의로운 기운.
- 1181) 兵馬. 병사와 군마(軍馬).
- 1182) 勝勢. 싸움에서 이기거나 어떤 일에 성공할 기세.
- 1183) 今日. 오늘.
- 1184) 犒軍. 호궤(犒饋). 군사들에게 음식을 베풀어 위로함.
- 1185) 明日. 내일.
- 1186) 限死. 죽기를 각오함.
- 1187) 習用干戈. 창과 방패를 익혀 처음으로 사용함. 현원씨가 제후들을 정벌하려고 창과 방패를 처음으로 사용했다고 함.
- 1188) 軒轅氏. 중국 고대의 전설상의 임금으로 성은 공손(公孫), 이름은 현원(軒轅)인데, 토지의 덕으로 임금이 되었으므로 땅의 누런 빛깔을 따서 황제(黃帝)라고도 한다. 신농씨의 자손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덕이 약해지므로 창과 방패를 만들어 천하를 통일하고 제후를 통합했다고 함.
- 1189) 與炎帝로. 염제에 맞서서. ‘염제’는 염제 유망씨(榆罔氏)이다. 신농씨와 동일하게 여겨져 ‘염제 신농씨’라고 한다. 중국 고대 삼황의 한 사람으로 성은 강(姜)인데, 사람의 몸에 소의 머리를 지녔다고 한다. 쟁기를 만들어 농사짓는 법을 가르치고, 풀을 맛보아 약을 만들었다. 또 시장을 열어 물건을 바꾸어가는 법을 가르치기도 했다고 한다.
- 1190) 阪泉싸움. 현원씨와 염제 유망씨가 싸운 싸움. 이곳에서 현원씨가 유망씨를 이기고 천하를 평정하였다.
- 1191) 能作大霧 蚩尤作亂. 능히 큰 안개를 일으킬 수 있는 치우가 난리를 일으킴. 치우는 제후임.
- 1192) 涿鹿싸움. 현재의 중국 하북성 탁록현에서 현원씨와 치우가 벌인 싸움. 현원씨가 응룡(應龍)을 시켜 치우를 치게 하자, 치우는 바람 신에게 안개를 일으키게 하므로, 현원씨가 안개 속에서도 방향을 알 수 있는 지남거를 만들어, 탁록벌에서 치우를 사로잡았음.
- 1193) 衰한 天地. 점점 쇠약해져 다 된 세상.
- 1194) 紛紛하다. 뒤숭숭하고 수선스럽다.
- 1195) 春秋싸움. 중국 춘추시대 천하를 놓고 다섯 나라가 다투던 싸움.
- 1196) 蜂起諸將. 벌떼처럼 일어난 여러 장수들.
- 1197) 八年風塵. 8년 동안의 전쟁. ‘풍건’은 전쟁터에서 일어나는 바람과 먼지를 가리킴.
- 1198) 楚漢싸움. 초나라의 항우(項羽)와 한나라의 유방(劉邦)이 천하를 놓고 싸우던 싸움.
- 1199) 太公. 한고조 유방의 아버지.

- 1200) 呂后. 한고조 유방이 미천했던 시절의 아내로서, 유방이 죽자 아들 혜제(惠帝)를 섭정하여 실권을 잡고 조왕(趙王) 여의(如意)와 척부인(戚夫人)을 살해하였다.
- 1201) 太公 呂后가 잡혔구나, 西北大風 睢水싸움. 진나라가 망한 뒤에 한나라의 유방은 초나라의 항우와 팔년 동안이나 싸우다가 마침내 해하에서 항우를 무찌르고 천하를 통일하여 한나라의 고조가 되었다. 유방은 수수싸움에서 항우에게 포위당한 적이 있는데, 때마침 서북풍이 크게 불어 낮이 밤같이 되어 겨우 도망쳤으나, 부모인 태공과 여씨 황후는 항우에게 볼모로 잡힌 적이 있었다.
- 1202) 馬上天下. 말 위에서 천하를 얻음. 한나라의 역사를 기록한 《한서(漢書)》에 나오는 말로 원문은 ‘마상득천하 마상불가치천하(馬上得天下 馬上不可治天下. 말 위에서 천하를 얻을 수는 있으나, 천하를 다스릴 수는 없다)’임.
- 1203) 赤壁싸움. 적벽강에서의 싸움. 중국 삼국시대 때에 오나라와 한나라의 연합군과 조조의 백만대군이 싸워 조조가 대패한 싸움. ‘적벽강’은 호북성 기어현에 있는 강.
- 1204) 功成身退. 공을 세우고 물러남.
- 1205) 하고 싶어라.
- 1206) 갑자기 힘차게 앞으로 달려 나가며.
- 1207) 너희들.
- 1208) 才談. 재치 있게 하는 재미있는 말.
- 1209) 怪談. 괴이한 말.
- 1210) 失談. 실수로 잘못 한 말.
- 1211) 雜談. 쓸데없이 지껄이는 말.
- 1212) 明日. 내일.
- 1213) 廝殺. 전투에서 적병을 마구 죽임.
- 1214) 柔能制剛이요 弱能制盛. 부드러운 것이 굳센 것을 이길 수 있으며, 약한 것이 도리어 번성하는 것을 이길 수 있다.
- 1215) 兵家. 군사학의 전문가.
- 1216) 徵驗이요. 경험에 비추어 아는 것이요.
- 1217) 在德興亡盛衰라. 흥망성쇠가 덕에 달려 있다.
- 1218) 勝負間에. 이기고 지고 간에.
- 1219) 誤死. 형벌이나 재난을 당하여 비명(非命)에 죽음.
- 1220) 急死. 갑자기 죽음.
- 1221) 客死. 객지에서 죽는 죽음.
- 1222) 卽死. 그 자리에서 바로 죽음.
- 1223) 水死. 물에 빠져 죽음.
- 1224) 火死. 불에 타서 죽음.
- 1225) 憤死. 분에 못 이겨 죽음.
- 1226) 烏鵲南飛. 까마귀와 까치가 남쪽으로 날아감.
- 1227) 回心. 회심하여. 마음을 돌이켜 먹고서.
- 1228) 明朗. 밝고 환함.
- 1229) 中天. 하늘의 한가운데.

- 1230) 諸將. 여러 장수.  
 1231) 醉中에. 술에 취한 중에.  
 1232) 月明星稀 鳥鵲이 南飛하니, 繞樹三匝에 無枝可依로다. 달은 밝고, 별은 드문드문하여, 까마귀와 까치가 남쪽으로 날아가는데, 나무를 세 바퀴나 돌아도 의지할 가지 하나 없도다.  
 1233) 劉馥. 조조의 부하 장수. 패국(沛國) 상현(相縣) 사람으로 양주자사(揚州刺史)를 지냈음.  
 1234) 陣中. 군대나 부대의 안.  
 1235) 沮防. 막아서 방비함.  
 1236) 병거지. 전립(戰笠). 옛날 주로 하인이나 병졸이 쓰던, 짐승의 털로 만든 모자.  
 1237) 父母妻子. 부모와 아내 그리고 자식.  
 1238) 너의.  
 1239) 門前. 문 앞.  
 1240) 묻는다면. 물어보면.  
 1241) 軍師. 군대를 운용하며 군사작전을 짜던 사람.  
 1242) 똑똑한 것이. 똑똑한 사람이.  
 1243) 分撥. 나누어 펼침.  
 1244) 無斷히. 사전에 아무런 연락이나 허락이 없이. 아무 이유 없이.  
 1245) 群心. 여러 사람의 마음. 군중 심리.  
 1246) 此日. 이 날.  
 1247) 水軍都督. 수군의 으뜸가는 장수.  
 1248) 毛玠. 조조 휘하의 모사. 진류(陳留) 평구(平丘) 사람으로, 자는 효선(孝先). 적벽대전에서 우금과 함께 지휘를 맡았다가 크게 패하였음. 조정에서 근무에 매우 충실하였으나, 참소를 입어 쫓겨나 있다가 병으로 죽었음.  
 1249) 于禁. 조조의 부하 장수. 태산(泰山) 거평(鉅平) 사람으로, 조조가 산동의 황건적 잔당을 소탕하였을 때 수백 군사를 거느리고 조조의 휘하로 들어왔다. 적벽대전 때 수군의 총지휘를 맡았다가 크게 패하였으며, 양양 싸움에서 관우에게 항복하여 옥에 갇혀 있다가, 관우가 싸움에 져 죽은 뒤 손권이 보내주어 돌아갔다. 후에 조조의 능 관리를 하였는데, 그가 항복하는 모습을 조조의 공적을 그린 벽화 속에 그려 넣었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부끄러움과 노여움으로 병을 얻어 죽었다.  
 1250) 連鎖戰船 畢鎖하고. 전투할 배를 서로 이어놓기를 마치고.  
 1251) 卽日. 그 날.  
 1252) 進兵. 군대를 진격시킴.  
 1253) 樓船. 망을 보기 위한 다락집이 있는 배.  
 1254) 水陸諸將. 수군과 육군의 여러 장수.  
 1255) 五色旗. 다섯 색깔의 깃발.  
 1256) 分撥. 나누어 펼침.  
 1257) 水陣. 수군의 진영.  
 1258) 中挾摠. 대오의 한가운데서 황색 기를 들고 지휘하는 장수.  
 1259) 左挾摠. 대오의 왼쪽에서 지휘하는 장수.

- 1260) 文聘, 조조의 부하 장수. 남양 완성(宛城) 사람으로 자(字)는 중업(仲業). 강야태수를 거쳐 신야후에 봉해짐.
- 1261) 右挾摠, 대오의 오른쪽에서 지휘하는 장수.
- 1262) 張郃, 조조의 부하 장수. 자(字)는 준문(雋文). 하간군 정현 사람. 본시 원소의 밑에 있다 조조에게 항복하여 중용되었음.
- 1263) 陸陣, 육군의 진영.
- 1264) 前司把, 군대의 앞에서 지휘하는 장수.
- 1265) 徐晃, 조조의 부하 장수. 하동(河東) 양군(楊郡) 사람으로, 자는 공명(公明). 양봉(楊奉)의 부하로 있다가 그의 용맹을 본 조조가 사로잡아 부하로 삼았다.
- 1266) 左司把, 군대의 왼편에서 지휘하는 장수.
- 1267) 樂進, 조조의 부하 장수. 양평(楊平) 위국(衛國) 사람으로 자는 문겸(文謙). 몸집은 작았으나 담력이 있어 여러 차례 공을 세웠다.
- 1268) 右司把, 군대의 오른쪽편을 맡은 장수.
- 1269) 李典, 조조의 부하 장수. 산양(山陽) 거록(鉅鹿) 사람으로 자는 만성(曼成). 조조가 처음 군사를 일으켰을 때부터 참가하였으며, 뒤에 벼슬이 파로장군(破虜將軍)에 이르렀다.
- 1270) 水陸應接使, 수군과 육군의 연락을 맡은 장수인 듯.
- 1271) 夏侯惇, 위나라의 장수. 자는 원호(元護). 본래 조조와 한 족속인데, 조조가 그 아버지 대에 조씨에게 양자를 갖기 때문에 성이 다르다. 여러 전투에서 용맹을 떨치고, 조조가 죽은 후에 병으로 죽었다.
- 1272) 許褚, 조조의 부하 장수. 자는 중강(仲康). 용맹이 뛰어나서 '호치(虎癡)'라고도 불렸음.
- 1273) 張遼, 조조의 부하 장수. 성은 섭(聶), 자는 문원(文遠). 무예가 뛰어나서 조조와 함께 공을 많이 세웠음.
- 1274) 水陣 發榜曰, 수군의 진영에 명령을 내려 말하기를.
- 1275) 官旗聽著 耳聽金鼓 目視旌旗 駕船如馬 見賊爭先 同舟共命 縱逃賊舟면, 軍法不貸 關哨鼓動 起去야! 관기에 나타난 바를 따라, 귀로는 징소리를 듣고, 눈으로는 군기를 보아라. 말 타듯이 배를 타고, 적을 보면 앞을 다투며, 배와 생명을 같이 하라. 적의 배를 멋대로 도망가게 두면 군법은 이를 용서하지 않는다. 각 조소에 연락해 복을 울리고, 일어서서 출발하라.
- 1276) 悠悠小設하면 敵有所施하여 視如聽如라. 여유 있고 침착하게 조금씩 싸울 태세를 갖추고, 적에게 베푸는 것이 있는 것처럼 하며, 보는 것같이 하고 듣는 것같이 하라
- 1277) 假會汝脫退면 敵不急據而니 各隊整齊하여 不許參戰 越後하라! 만일에 적진을 빠져나오는 데도 적이 급히 쫓아오지 않으면, 각 부대를 정비하여 싸움에 말려들지 말고, 뒤의 부대로 그 적을 넘겨라.
- 1278) 各應聲畢, 각각 대답하는 소리를 마침.
- 1279) 戰船, 전투하는 배.
- 1280) 風帆, 돛단배.
- 1281) 平地, 평평한 곳.
- 1282) 觀望, 한발 물러나서 어떤 일이 되어 가는 형편을 바라봄.
- 1283) 龐士元, 방통(龐統). 양양(襄陽) 사람으로 이름이 통이며, 자(字)가 사위이다. 유비의

- 모사(謀士)로, 조조에게 연환계(조조의 군사가 수전에 능하지 못 하므로 쇠줄로 배를 연결하여 육지처럼 만들어 싸우게 하자는 계략)를 쓰도록 하여 대패하게 하였다.
- 1284) 程昱. 조조의 모사(謀士). 동군(東郡) 동아(東阿) 사람으로, 자는 중덕(仲德). 순욱의 천거로 조조의 막하에 들었으며, 벼슬이 위위(衛尉)에 이르렀다.
- 1285) 兵書. 병법에 관하여 쓴 책.
- 1286) 冬雪. 엄동설한(嚴冬雪寒)의 준말인 듯. '엄동설한'은 눈 내리는 깊은 겨울의 심한 추위.
- 1287) 西北風에. 서북 계절풍이 부는데.
- 1288) 北陣. 북쪽에 있는 진영.
- 1289) 南陣. 남쪽에 있는 진영.
- 1290) 탈 것이기 때문에.
- 1291) 勝利할 妙法이다.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교묘한 방법이다.
- 1292) 水陸軍. 수군과 육군.
- 1293) 南屏山. 중국 강소성 상요현의 서쪽 3리 되는 곳에 있는 산. 우뚝 솟은 괴암과 병풍처럼 생긴 절벽들로 이루어졌다고 함.
- 1294) 地勢. 땅의 생긴 모양이나 형편.
- 1295) 狂風. 매우 세차게 부는 바람.
- 1296) 大將旗. 대장이 아랫장수를 지휘할 때 쓰던 기. 좌우 양쪽의 기폭은 청색과 백색으로 되어 있으며, 중앙은 황색으로 불꽃 속에 하늘로 치솟는 용의 그림이 그려져 있음.
- 1297) 吳陣. 오나라 진영.
- 1298) 面相. 얼굴.
- 1299) 火攻. 불로 하는 공격.
- 1300) 欲破無計. 쳐부수고자 하나 방법이 없음.
- 1301) 馬上. 말 위.
- 1302) 大寨. 큰 성채.
- 1303) 自請. 스스로 하기를 청함.
- 1304) 涼藥. 서늘한 약.
- 1305) 먹도록 하라.
- 1306) 欲破曹兵인댄 宜用火攻이니, 萬事具備하되 只欠東南風이라. 조조의 군사를 쳐부수려면 마땅히 불로 쳐야 하는데, 모든 것이 다 갖추어졌으며, 다만 동남풍이 없는 것이 흠이로구나.
- 1307) 切切히. 매우 간절히.
- 1308) 天地造化. 하늘이 부리는 신통한 재주.
- 1309) 人力. 사람의 힘.
- 1310) 答曰. 답하여 말함.
- 1311) 謀事는 在人이요, 窮達은 하늘이라. 일을 꾸미는 것은 사람에게 달려 있고, 일을 성공시키는 것은 하늘에 달려 있다.
- 1312) 三夜. 삼일 밤.
- 1313) 軍中은 無戲言. 군대 내에서는 농담을 하지 않음.

- 1314) 軍令狀. 일이 잘못되면 군법에 의해 처벌을 받겠다는 서약서.
- 1315) 大喜하여. 크게 기뻐하여.
- 1316) 軍令狀. 일이 잘못되면 군법에 의해 처벌을 받겠다는 서약서.
- 1317) 將卒. 장수와 병졸.
- 1318) 南屏山. 중국 강소성 상요현의 서쪽 3리 되는 곳에 있는 산. 우뚝 솟은 괴암과 병풍처럼 생긴 절벽들로 이루어졌다고 함.
- 1319) 七星壇. 복두칠성을 모시는 제단. 공명이 동남풍을 빌기 위해 남병산에 쌓았던 제단.
- 1320) 만들려고 할 때.
- 1321) 精軍人. 정예 군사. 날랜 군사.
- 1322) 聽令俟侯. 명령을 기다려 들음.
- 1323) 竝馬하고. 함께 말을 타고.
- 1324) 南屏山. 중국 강소성 상요현의 서쪽 3리 되는 곳에 있는 산. 우뚝 솟은 괴암과 병풍처럼 생긴 절벽들로 이루어졌다고 함.
- 1325) 取用하여. 가져다가 사용해서.
- 1326) 三層壇. 삼 층으로 된 단.
- 1327) 方圓. 밑바닥 둘레.
- 1328) 二十四丈. 스물네 장. ‘장’은 길이의 단위로 약 3m.
- 1329) 各 高. 각각의 높이.
- 1330) 合高. 합친 높이.
- 1331) 下一層. 맨 아래 1층.
- 1332) 二十八宿. 해, 달, 항성의 자리를 밝히려고 황도에 따라 천구(天球)를 스물여덟으로 나눈 것.
- 1333) 各色 旗. 여러 가지 빛깔의 기.
- 1334) 七面. 일곱 면.
- 1335) 靑旗. 푸른색 기.
- 1336) 角亢房心尾箕. 이십팔수에서 동쪽을 나타내는 일곱 별자리.
- 1337) 蛟龍貉狐兔虎豹. 이십팔수에서 동쪽을 나타내는 일곱 별자리를 상징하는 동물인 도룡뇽, 용, 오소리, 여우, 토끼, 호랑이, 표범.
- 1338) 按檢. 조사하여 살핀.
- 1339) 紅旗. 붉은색 기.
- 1340) 井鬼柳星張翼轸. 이십팔수에서 남쪽을 나타내는 일곱 별자리.
- 1341) 犴羊獐馬鹿蛇虺. 이십팔수에서 남쪽을 나타내는 일곱 별자리를 상징하는 동물인 들개, 양, 노루, 말, 사슴, 뱀, 지렁이.
- 1342) 白旗. 흰색 기.
- 1343) 庚辛四九金. 경, 신과 4와 9는 금에 해당함. ‘경 신’은 천간(天干) 가운데 일곱 여덟 번째이다. ‘사구’는 하도수(河圖數)인데 9를 ‘경(庚)’이라고 하고 4를 ‘신(辛)’이라고 한다. ‘금(金)’은 오행 가운데 하나를 말하는 것으로 ‘경신’과 숫자 4, 9가 여기에 해당한다.
- 1344) 奎婁胃昂畢觜參. 이십팔수에서 서쪽을 나타내는 일곱 별자리.
- 1345) 壬癸一六水. 임, 계와 1과 6은 수에 해당함. ‘임계’는 천간(天干) 가운데 아홉 열 번째

- 이다. ‘일육’은 하도수(河圖數)인데 1을 ‘임(壬)’이라고 하고 6을 ‘계(癸)’라고 한다. ‘수(水)’는 오행 가운데 하나를 말하는 것으로 ‘임계’와 숫자 1, 6이 여기에 해당한다.
- 1346) 斗牛女虛危室壁. 이십팔수에서 북쪽을 나타내는 일곱 별자리.
- 1347) 獬牛蝠鼠燕猪豨. 이십팔수에서 북쪽을 나타내는 일곱 별자리를 상징하는 동물인 해태, 소, 박쥐, 쥐, 제비, 돼지, 이리.
- 1348) 黃神大旗. 중오방기(中五方旗, 동·서·남·북과 중앙의 다섯 군데에 세우는 군기)의 하나로 중앙에 세우는 큰 기.
- 1349) 六韜三略. 강태공이 지은 《육도》와 황석공이 지은 《삼략》을 아울러 이르는 말. 중국 병법의 고전.
- 1350) 黑羅布. 검은색 비단.
- 1351) 鳳衣. 품이 넉넉한 옷.
- 1352) 博帶. 넓은 허리띠.
- 1353) 朱履. 붉은 신.
- 1354) 方裙. 옷자락이 네모난 옷.
- 1355) 前左. 왼쪽 앞부분.
- 1356) 立一人. 한 사람을 세워.
- 1357) 手執長竿. 손에 긴 장대를 잡음.
- 1358) 竿尖上에. 장대 끝에.
- 1359) 用鷄羽葆하여 以招風信하고. 닭의 깃털로 장식을 만들어 바람을 부르고.
- 1360) 後左. 뒷부분의 왼쪽.
- 1361) 奉寶劍. 보검을 받들어 들고. 보검은 의식에 쓰는 칼의 한 가지.
- 1362) 右後. 오른쪽 뒷부분.
- 1363) 奉香爐. 향로를 받들어 들고. 향로는 향을 피우는 화로.
- 1364) 壇下에. 단의 아래에.
- 1365) 二十四人. 스물네 사람.
- 1366) 旌旗. 모두 깃발인데, ‘정’은 깃대 끝을 새의 깃털로 꾸민 기임.
- 1367) 寶蓋. 양산처럼 생겨서 햇빛 따위를 가리는 물건.
- 1368) 大戟. 끝이 갈라진 큰 창.
- 1369) 長槍. 긴 창.
- 1370) 黃耗. 누런 깃발.
- 1371) 白鉞. 무기로 쓰던 흰 도끼.
- 1372) 朱旛. 군대에서 의장에 쓰던 붉은 깃발.
- 1373) 阜纛. 군대에서 의장에 쓰던 검은색 대장기.
- 1374) 環繞四面. 사방을 등글게 둘러쌌.
- 1375) 此時에. 이 때에.
- 1376) 子敬. 노숙의 자(字).
- 1377) 調兵. 병사를 훈련시킴.
- 1378) 應함이. 어떤 물음이나, 부름, 요구 따위의 사실에 맞추어 행동함.



- 1379) 怪異함. 이상야릇함.
- 1380) 不許擅離方位. 제멋대로 자리를 뜨는 것을 허락하지 않음.
- 1381) 不許失口亂言.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음.
- 1382) 不許大驚所異. 괴이한 것에 크게 놀라는 것을 허락하지 않음.
- 1383) 違令者. 명령을 어긴 사람.
- 1384) 斬. 목을 뱌.
- 1385) 솥을 노니. 명령을 내려놓으니.
- 1386) 祭床. 제사상.
- 1387) 座面紙. 제사 지낼 때에, 제상 위에 까는 기름종이.
- 1388) 魚東肉西. 생선은 동쪽에, 육류는 서쪽에 놓는 제사상 차림법.
- 1389) 左脯右醢. 포는 왼쪽에, 식혜는 오른쪽에 놓는 제사상 차림법.
- 1390) 紅東白西. 붉은 과실은 동쪽에, 흰 과실은 서쪽에 놓는 제사상 차림법.
- 1391) 祝文. 제사 때 읽어 신명께 고하는 글.
- 1392) 原三國志. 원래의 삼국지.
- 1393) 祝.
- 1394) 鄭春風. 조선 철종, 고종 때의 명창으로 충청도 유가(儒家) 출신으로 한학에 조예가 깊었고 진사과에도 급제했다고 함. 동편제의 명창으로 후기 팔명창 중 하나로 꼽힘. 이 〈적벽가〉는 정춘풍-박기홍-조학진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함.
- 1395) 維歲次. 제문의 첫머리에 쓰는 말.
- 1396) 建安. 중국 후한 헌제 때의 연호. 서기 196년에서 220년까지 임.
- 1397) 上輔國崇祿大夫. 정일품 벼슬아치의 품계.
- 1398) 謀士. 남을 위해 꾀를 내어주는 사람.
- 1399) 諸葛亮. 제갈공명(諸葛孔明, 181-234). 성은 제갈(諸葛), 자는 공명(孔明), 이름은 량(亮). 삼국시대 유비 현덕을 도와 많은 공을 세웠으나, 통일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병사하였음. 뛰어난 지략과 충의의 사람으로 중국에서 만인으로부터 추앙을 받는 인물임.
- 1400) 敢昭告于. 감히 고합니다.
- 1401) 山天后土. 산과 하늘, 땅의 신.
- 1402) 日月星辰. 해와 달, 별.
- 1403) 風雨神將. 바람과 비를 다스리는 신.
- 1404) 火德眞君. 불을 다스리는 신.
- 1405) 下台. 하태성(下台星). ‘하태성’은 큰곰자리에 있는 삼태성에서 중태성 아래에 있는 두 별.
- 1406) 衆存. 녹존성. 구성(九星) 중의 셋째 별. ‘구성’은 천체의 중심인 북극성 주위를 회전하며 우주를 지배하는 북두칠성과 좌보성(左輔星), 우필성(右弼星)을 합한 아홉개의 별, 곧 탐랑(貪狼), 거문(巨門), 녹존(祿存), 문곡(文曲), 염정(廉貞), 무곡(武曲), 파군(破軍), 좌보(左輔), 우필(右弼)을 말한다.
- 1407) 星君前에. 별의 신께.
- 1408) 至誠. 지극한 정성.

- 1409) 漢運. 한나라의 운수.
- 1410) 竝起. 함께 일어난.
- 1411) 黃巾賊. 중국 후한(後漢) 말에 장각(張角)을 수령으로 하여 하북(河北)에서 일어난 도적. 그 무리가 13만으로, 모두 누런 두건을 쓰고, 황로(黃老)의 도를 받들어 태평도(太平道)라 하고 일시 세력을 떨쳐 난을 일으켰으나, 장각의 병사로 쇠퇴하여, 곧 황보숭(黃甫嵩), 조조(曹操) 등에 의해 평정되었음.
- 1412) 董卓. 후한 사람. 자(字)는 중영(仲穎). 하동 태수로 있을 때 황건적과의 싸움에서 변변한 공을 세우지도 못했으나, 궁중의 환관들과 줄을 대어 영제(靈帝) 때 전장군(前將軍)이 되고, 그 뒤 헌제(獻帝)를 세워 흥포한 짓을 많이 하다가 여포(呂布), 왕충(王充) 등에 죽임을 당하였음.
- 1413) 凶. 흉적(凶賊). 흉악한 도적.
- 1414) 李傕 郭汜 亂兵. 이각과 곽사의 반란군. ‘이각’과 ‘곽사’는 모두 동탁의 수하 장수로, 동탁이 죽은 후 잔병을 규합하여 도성을 점령하고 갖은 횡포를 일삼았으나, 후에 조조에게 패하여 죽임을 당하였음.
- 1415) 天運. 하늘이 내려준 운. 아주 좋은 기회.
- 1416) 滅하시고. 멸망하여 죄다 없어지게 하시고.
- 1417) 憑私征伐. 사적인 일을 빙자하여 정벌함.
- 1418) 以用篡逆. 반역에 이용함.
- 1419) 挾天子而令諸侯. 천자를 끼고 제후를 호령함.
- 1420) 掃蕩者. 휩쓸어 죄다 없애 버릴 사람.
- 1421) 烏林. 적벽강의 북쪽 맞은 편 언덕에 있는 숲.
- 1422) 雄師. 뛰어난 군사.
- 1423) 三江口. 삼강의 어귀. 적벽대전이 벌어졌던, 현 호북성 가어현 동남쪽 양자강 남단에 위치한 지명.
- 1424) 불명.
- 1425) 莫非火攻. 불로 공격해야함.
- 1426) 北陣. 북쪽의 군대.
- 1427) 行南. 남쪽으로 감.
- 1428) 南陣. 남쪽의 군대.
- 1429) 行北. 북쪽으로 감.
- 1430) 如無東南風. 만일 동남풍이 없으면.
- 1431) 實難放火. 진실로 불을 놓기가 어려움.
- 1432) 無堪人性.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음.
- 1433) 不時東南風. 때에 맞지 않는 동남풍.
- 1434) 빌려 주시면.
- 1435) 平天下而令諸侯. 천하를 평정하고 제후를 호령함.
- 1436) 漢室. 한나라 왕실.
- 1437) 千萬祝手. 수없이 두 손 모아 빌.
- 1438) 鶴氅衣. 소매가 넓고, 가에 검은 천을 댄 선비의 옷.

- 1439) 대강 건너.  
 1440) 胸膛. 가슴 한복판.  
 1441) 吳江邊. 오강의 강가. ‘오강’은 강소성 남쪽 지방을 흐르는 강.  
 1442) 江村. 강가에 있는 마을.  
 1443) 遙落. 멀리 떨어져 보임.  
 1444) 새벽에 동쪽 하늘에서 빛나는 금성을 가리킴.  
 1445) 비스듬히 있는데.  
 1446) 吳江邊. 오강의 강가. ‘오강’은 강소성 남쪽 지방을 흐르는 강.  
 1447) 趙子龍. 조운(趙雲)의 자(字). 삼국시대 촉한(蜀漢)의 무장. 유비가 조조에게 쫓겨 처자를 버리고 남으로 도망할 적에 기장(驕將)이 되어 그들을 보호하여 난을 면하게 함.  
 1448) 발로 탄탄한 곳을 자꾸 세게 굴러 울리는 소리를 내며 걸어.  
 1449) 揖. 인사하는 예(禮)의 하나. 두 손을 맞잡아 얼굴 앞으로 들어 올리고 허리를 앞으로 공손히 구부렸다가 몸을 펴면서 손을 내린다.  
 1450) 危邦陣中. 위험한 적의 진영 속.  
 1451) 반가워서.  
 1452) 賢主. 어진 임금. 신하가 임금을 높여서 일컫는 말.  
 1453) 諸將軍卒. 여러 장수들과 병사들.  
 1454) 滔滔滔滔. 넘실넘실.  
 1455) 彈弓. 활을 쏘.  
 1456) 一邊. 한편.  
 1457) 軍官. 장교.  
 1458) 請來. 오라고 청함.  
 1459) 應接. 어떤 사물에 접촉함. 여기서는 싸움을 시작하라는 의미.  
 1460) 稟報. 지시를 내림.  
 1461) 黃蓋 火船. 황개가 거느린 화선. ‘화선’은 화약과 장작, 짚 등을 싣고 불을 질러 바람을 이용하여 공격하는 데 사용하는 배.  
 1462) 大箭. 큰 화살.  
 1463) 船頭. 뱃머리. 배의 앞부분.  
 1464) 密布하고. 뽁뽁하게 설치하고.  
 1465) 焰硝. 질산칼륨. 검은색 화약, 성냥, 비료 등의 원료로 씀.  
 1466) 牙旗. 대장기.  
 1467) 船尾. 배의 뒷부분.  
 1468) 小船. 작은 배.  
 1469) 敵用小船. 적군이 작은 배를 쓰면.  
 1470) 以我大船. 우리는 큰 배로.  
 1471) 刺股廝殺. 다리를 찌르고 마구 죽임.  
 1472) 敵船逼我大船. 적선이 우리의 큰 배를 공격하면.  
 1473) 我用小船. 우리가 쓰는 작은 배에서는.  
 1474) 待時連發. 때를 기다려 연이어 화살을 쏘.

- 1475) 三更夜. 삼경에. ‘삼경’은 밤 11시에서 새벽 1시까지.  
 1476) 天色. 하늘의 빛깔.  
 1477) 晴明하고. 맑고 밝으며.  
 1478) 微風. 약하게 부는 바람.  
 1479) 不動한데. 일어나지 않는데.  
 1480) 虛談. 실상이 없는 빈말.  
 1481) 嚴冬白雪. 눈 내리는 깊은 겨울의 추위.  
 1482) 相. 모습. 형상.  
 1483) 君子. 인품이 훌륭한 사람.  
 1484) 보십시오.  
 1485) 마치지를.  
 1486) 帳幕. 야외에서 별 또는 비를 막고 사람이 들어가 있을 수 있도록 둘러치는 포장.  
 옆으로 돌아가며 휘장을 침.  
 1487) 몸의 일부를 움츠리거나 퍼거나 하며 움직이는 모양.  
 1488) 大驚失色. 몹시 놀라 얼굴빛이 하얗게 질림.  
 1489) 五方. 동서남북과 그 가운데.  
 1490) 神旗. 조선 시대에, 기면(旗面)에 말을 탄 신장(神將)의 화상을 그린 군기(軍旗). 방위를 따라 오색으로 하였으며, 삼중으로 진을 칠 때 진의 가운데에 세웠다.  
 1491) 靑龍. 청룡기(靑龍旗). ‘청룡기’는 대오방기의 하나로 진영의 문 왼편에 세움.  
 1492) 朱雀. 주작기(朱雀旗). 대오방기의 하나로 진영의 앞문에 세움.  
 1493) 戊亥方. 서북 쪽.  
 1494) 北風換作東南風. 북풍이 바뀌어 동남풍이 일어남.  
 1495) 難測. 짐작하기 어려움.  
 1496) 東吳. 동쪽에 있는 오나라.  
 1497) 禍根. 재앙이나 화의 근원.  
 1498) 徐盛. 손권의 부하 장수. 낭야 사람으로 지는 문향(文嚮). 용맹이 뛰어났고, 특히 수전에 능하였다.  
 1499) 丁奉. 손권의 부하 장수. 여강 안풍 사람으로 지는 승연(承淵).  
 1500) 長短도. 옳고 그름도.  
 1501) 鐵器. 철로 된 병기.  
 1502) 兩將. 두 장수. 서성과 정봉을 이룸.  
 1503) 令旗대. 영기의 깃대. ‘영기’는 군중에서 군대의 명령을 전할 때 쓰던 기. 사방 두자 가량의 푸른 비단 바탕에 붉은 빛으로 ‘令’ 자를 썼음.  
 1504) 遮日. 햇볕을 가리기 위해 치는 포장.  
 1505) 帳幕. 야외에서 별, 또는 비를 막고 사람이 들어가 있도록 둘러치는 막. 옆으로 돌아가며 휘장을 침.  
 1506) 날리어.  
 1507) 去中. 공중.  
 1508) 畫戟. 색칠을 하거나 그림을 그려 넣은 창의 하나. 의장용으로 쓴다.

- 1509) 불명.
- 1510) 三頭槍. 끝이 뾰족한 부분이 세 개로 갈라져 있는 창.
- 1511) 白日. 구름이 끼지 않고 쨍쨍하게 비치는 해.
- 1512) 冷冷할 제. 온도가 쌀쌀하고도 몹시 찬데.
- 1513) 碧空. 푸른 하늘.
- 1514) 竄드려 있구나.
- 1515) 遙落. 멀리 떨어져 보임.
- 1516) 吳江邊. 오강의 강가. '오강'은 강소성 남쪽 지방을 흐르는 강.
- 1517) 遠近. 멀고 가까운 곳.
- 1518) 蒼波江上. 푸른 강 물결 위.
- 1519) 待秋風景. 가을을 기다리는 풍경. 곧 가을이 되기 직전의 풍경.
- 1520) 衝天滄波. 하늘을 찌를 듯한 바다 물결.
- 1521) 水卒. 수군의 병사.
- 1522) 昨日. 어제
- 1523) 日暮時. 해질 때.
- 1524) 甲冑. 갑옷과 투구.
- 1525) 一員. 한 사람.
- 1526) 一葉片舟. 한 조각의 작은 배.
- 1527) 江口. 나루.
- 1528) 비스듬히.
- 1529) 坐不安席. (마음이 불안하거나 걱정스러워서) 한 군데에 가만히 오래 앉아 있지를 못함.
- 1530) 萬端疑心. 여러 가지로 의심함.
- 1531) 洋洋江水. 넓고 넓은 강물.
- 1532) 十里長江碧波上. 폭이 십 리나 되는 장강(양자강)의 푸른 물결 위.
- 1533) 거룻배. 돛을 달지 않은 작은 배.
- 1534) 桐江七里灘. 중국 절강성에 있는 여울인데, 엄자룡이 낚시하던 곳으로 유명함.
- 1535) 嚴子陵. 이름은 광(光). '자룡'은 그의 자(字). 한나라의 광무제와 글공부를 같이 했으나, 광무제가 즉위한 뒤로 이름을 감추고 숨어 살았다. 황제가 그를 찾아 간의대부라는 벼슬을 주려 했으나, 받지 않았다.
- 1536) 時節이 搖亂하니. 세상이 (전쟁으로) 뒤숭숭하니.
- 1537) 萬端. 무수히 많은 갈래나 토막. 여기서는 '무수히 많은'이라는 의미.
- 1538) 鶴氅衣. 옛날 윗옷의 한 가지로, 뒷술기가 터지고 소매가 넓으며, 가를 돌아가며 검은 형질을 넓게 대었음.
- 1539) 一員. 한 사람.
- 1540) 荊山. 중국 호북성 남장현 서쪽에 있는 산. 질 좋은 옥이 남.
- 1541) 白玉. 흰 옥.
- 1542) 瀟湘江. 양자강의 두 지류인 소수와 상강.
- 1543) 천천히, 느리게.

- 1544) 太過. 아주 지나치게 심하거나, 많거나, 큼.  
 1545) 忿心. 분한 마음.  
 1546) 白骨. 살이 다 썩고 남은 하얀 뼈.  
 1547) 무엇이 몹시 심하거나 하여 못마땅해서 빈정거릴 때 내는 소리.  
 1548) 자칫 잘못 하다가는.  
 1549) 가물가물.  
 1550) 海上. 바다 위.  
 1551) 외쳐.  
 1552) 여기.  
 1553) 都督). 주유. '도독'은 부대를 지휘하는 사령관.  
 1554) 請來. 오라고 청함.  
 1555) 有故. 특별한 사정이나 사고가 있음.  
 1556) 本陣. 본영(本營). 지휘를 하는 본부가 있던 군영.  
 1557) 回報하시오. 돌아가서 알리시오.  
 1558) 물체의 한 부분이 바람에 떠들려 가볍게 자꾸 움직이는 모양.  
 1559) 憤氣. 분한 마음.  
 1560) 撐天하여. 하늘에 닿을 듯이 솟아올라.  
 1561) 船尾. 배의 뒷부분.  
 1562) 有功. 공이 있음.  
 1563) 殺害코자. 해치어 죽이고자.  
 1564) 《삼국지연의》를 기초로 해서 쓴 고전소설 《산양대전》의 배경이 되는 싸움을 가리킨 듯함. 조자룡이 아두를 품에 품고 적진을 빠져 나오던 전투는 장관교 전투임.  
 1565) 八公山 草木 치듯. 팔공산은 안휘성 봉대현의 동남쪽에 있는 산. 서진이 망한 뒤에 화북 지방에서 일어난 오호 십육국의 하나인 전진(前秦)의 임금 부견(苻堅)이 동진(東晉)을 칠 때에, 이 산에 들어서 있는 나무들을 동진의 병사인 줄로 잘못 알고 모두 베어 버렸다고 한다.  
 1566) 一葉船. 한 척의 작은 배.  
 1567) 성하게. 본디 모습대로 멀쩡하게.  
 1568) 賢主. 어진 임금.  
 1569) 和親. 나라와 나라 사이에 다툼 없이 가까이 지냄.  
 1570) 手段. 일을 처리하여 내는 솜씨와 피.  
 1571) 長弓. 큰 활.  
 1572) 鐵箭. 쇠로 만든 화살.  
 1573) 화살을 시위에 매어.  
 1574) 胸虛腹實. 숨을 다 내쉬고 배에 힘을 줌.  
 1575) 불명.  
 1576) 非丁非八. 丁 자도 아니고 八 자도 아닌 모양으로 하여. 활을 쏘 때의 발의 모양을 가리키는 말.

- 1577) 머리 뒤. 뒤통수.  
 1578) 깍지낀 손. ‘깍지’는 활줄을 잡아당기는, 엄지손가락에 끼는 빨로 만든 기구.  
 1579) 아씩. 잡자기 찬 기운이 몸을 스쳐가는 느낌을 느끼는 모양.  
 1580) 줍통. 활의 한가운데 손으로 쥐는 부분.  
 1581) 터지도록.  
 1582) 놀지 않게. 움직이지 않게.  
 1583) 불명. 다른 본에서는 ‘아씩’으로 되어 있음. ‘아씩’은 잡자기 찬 기운이 몸을 스쳐가는 느낌을 느끼는 모양.  
 1584) 조금 앞으로 날아가게 할까, 조금 뒤로 날아가게 할까.  
 1585) 힘차게 떼어놓으니.  
 1586) 큰 새나 물건 등이 낮게 날아가는 소리 또는 모양.  
 1587) 徐盛, 손권의 부하 장수. 낭야 사람으로 자는 문향(文嚮). 용맹이 뛰어났고, 특히 수전에 능하였다.  
 1588) 丁奉, 손권의 부하 장수. 여강 안풍 사람으로 자는 승연(承淵).  
 1589) 사물의 중간이 되는 부분.  
 1590) 물결이 크게 출렁거리는 모양.  
 1591) 怯走하여. 겁에 질려 달아나.  
 1592) 回報하니. 돌아와 알리니.  
 1593) 大驚. 크게 놀람.  
 1594) 後圖. 나중에 일을 꾸밈.  
 1595) 水陸軍. 수군과 육군.  
 1596) 營將. 진영장(陣營將)의 준말. 각 진영(지방에 배치된 군대)의 우두머리.  
 1597) 水戰. 물에서 하는 전쟁.  
 1598) 甘寧. 오나라 장수. 손권에게 계책을 올려 황조(黃祖)를 쳐부수고, 주유와 함께 조조를 쳐서 큰 공을 세워 강표호신(江表虎臣)이라 불렸고, 벼슬은 정충장군이었다.  
 1599) 蔡中 降卒. 채중의 항복한 병사들. ‘채중’은 유표(劉表)의 처남이자 수군대장이었던 채모(蔡瑁)의 사촌. 조조를 거짓 배반하고 주유에게 항복했다가, 이를 간파한 주유에게 역이용만 당하고 죽임을 당하였음.  
 1600) 炬火爲號. 횃불로 신호를 함.  
 1601) 前營의. 앞의 진영에 있는.  
 1602) 太史慈. 손권의 부하 장수. 손책과 싸우다가, 손책이 그의 용맹을 아껴 사로잡아 부하로 삼았음.  
 1603) 右營. 오른쪽 진영.  
 1604) 董襲. 오나라 장수. 자는 원대(元代). 키가 팔 척이나 되고 힘이 장사였는데, 손책 밑에서 여러 차례 공을 세우고, 유수구에서 조조와 싸우다 폭풍우를 만나 물에 빠져 죽었다.  
 1605) 潘璋. 오나라 장수. 자는 문규(文珪). 집이 가난하고 술을 좋아했는데, 손권을 도와 여러 차례 공을 세워 양양태수, 평북장군, 우장군 등을 지냈다.  
 1606) 水陸軍. 수군과 육군.

- 1607) 埋伏. (적을) 불시에 습격하려고 일정한 곳에 몰래 숨어 있음.
- 1608) 兵營官. 병영의 장교.
- 1609) 第一隊. 첫 번째 부대.
- 1610) 韓當. 오나라 장수. 자(字)는 의공(義公)이며, 요서(遼西) 영지인(令支人)임.
- 1611) 第二隊. 두 번째 부대.
- 1612) 周泰. 오나라 장수. 구강(九江) 하채(下蔡) 사람. 벼슬이 한중태수(漢中太守)에 이르렀으며, 병으로 죽었다.
- 1613) 第三隊. 세 번째 부대.
- 1614) 蔣欽. 오나라 장수. 구강(九江) 수춘(壽春) 사람으로, 자는 공혁(公奕). 수군을 통솔하는 데 뛰어나 벼슬이 탕주장군(蕩寇將軍)에 이르렀음.
- 1615) 第四隊. 네 번째 부대.
- 1616) 陳武. 오나라 장수. 여강(廬江) 송자(松滋) 사람. 조조의 세 번째 남침을 맞아 싸우다 방덕(龐德)에게 칼을 맞아 전사했음.
- 1617) 擺列. 늘어 세움.
- 1618) 上部都督. ‘도독’은 한 부대의 총 대장을 가리키는 말이므로, 상부도독은 전방 부대의 총대장을 가리키는 말인 듯.
- 1619) 先鋒將. 부대의 가장 앞에 나아가는 대장.
- 1620) 陸遜. 손권의 부하 장수. 오군(吳郡) 오현(吳縣) 사람으로, 자는 백언(伯言). 뛰어난 지략을 지닌 장수로, 뒤에 승상이 되었는데, 태자를 폐하는 데 반대하였다가 노염을 사고 물러나 병들어 죽었다.
- 1621) 帳中. 장막의 안. 여기서는 군대를 지휘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을 가리킴.
- 1622) 乘火煙如雲하여 一齊 應陣하였으니. 불이 붙어 연기가 구름처럼 일어날 때를 타서 일제히 군대를 움직였으니.
- 1623) 黃蓋. 손권의 부하 장수. 영릉의 천릉 사람으로 자는 공복(公覆). 적벽대전을 앞두고 스스로 주유를 찾아 고육계를 쓸 것을 제안하여, 일부러 주유에게 죽도록 얻어맞고 조조에게 거짓 항복 문서를 보냈으며, 대전시에 선봉대장이 되어 조조의 혼란을 유도하여 크게 공을 세웠음.
- 1624) 黃蓋 火船. 황개가 거느린 화선. ‘화선’은 화약과 장작, 짚 등을 싣고 불을 질러 바람을 이용하여 공격하는 데 사용하는 배.
- 1625) 各船에. 모든 배에.
- 1626) 聽候하라. 청령사후(聽令俟候)하라. 명령이 내리기를 기다려라.
- 1627) 一葉片舟. 한 조각의 작은 배.
- 1628) 相面. 서로 얼굴을 마주 대함.
- 1629) 將臺. 장수가 부대를 지휘하기 위하여 나아가는 대.
- 1630) 分撥. 나누어 펼침.
- 1631) 常山 땅의 趙子龍. 상산 땅에서 태어난 조운(趙雲). 자룡(子龍)은 그의 자(字). 본디 원소(袁紹)의 막하에 있다가, 그의 인품에 실망하여 공손찬(公孫瓚)을 위기에서 건져 주고 그의 막하에 들었다. 거기서 유비를 만나 알게 되고, 흠모하여, 이후 고락을 같이 하였다.



- 1632) 烏林. 적벽강의 북쪽 맞은 편 언덕에 있는 숲. 지금의 호북성 가어현(嘉魚縣) 서쪽에 있음.
- 1633) 불을 질러서.
- 1634) 掩殺. 에워싸서 죽임.
- 1635) 車騎將軍. 공이 큰 장군에게 붙여주는 호.
- 1636) 葫蘆谷. 오림에 있는 골짜기 이름.
- 1637) 糜芳. 미축(糜竺)의 아우로 유비의 처남. 관우의 부하 장수로 있다가 형주가 함락되자 손권에게 항복하였다. 유비가 복수의 군대를 일으켜 연전연승해 오자, 관우를 잡은 왕충의 목을 베어 돌아왔으나, 유비에게 죽임을 당하였다.
- 1638) 糜竺. 미방의 형. 유비의 두 번째 부인인 미부인의 오빠이다. 동해 구현 사람으로 자는 자중(子仲).
- 1639) 劉封. 유비의 부하 장수로, 유비의 양아들임. 본래 이름은 구봉(寇封). 일찍 부모를 여의고, 고모부 유필(劉泌)을 의지하여 번성에 있다가, 유비의 눈에 띄어 유비의 양자가 되었다.
- 1640) 關平. 관우의 양자. 본래 관우가 조조의 보호로부터 탈출하여 오관참장하고 유비를 찾아나섰을 때 도움을 받은 관정(關定) 노인의 작은아들이었음. 평생 양부를 따라 행동하다 형주 함락 후에 관우와 함께 죽임을 당하였음.
- 1641) 江上. 강물 위.
- 1642) 器械. 군사들의 무기.
- 1643) 旗幟와 槍劍. 군중에서 쓰던 여러 가지 깃발과 창과 칼을 통틀어 일컫는 말.
- 1644) 日月을 戲弄하고. 군사의 사기가 거칠 것 없이 드높음을 비유한 말.
- 1645) 鼓角聲. 군대에서 쓰는 북과 나팔의 소리.
- 1646) 폭 익어서 물렁물렁하게 된.
- 1647) 대추의 색깔. 붉은 색.
- 1648) 三角鬚. 두 뺨과 턱에 난 수염이 삼각형을 이룬 수염.
- 1649) 거스르게 하고. 끝이 위로 올라가게 하고.
- 1650) 鳳. 봉황(鳳凰). 상상 속의 새.
- 1651) 赤兔馬. 조조가 관우에게 준 명마로, 온 몸이 붉은 빛이 나는 말. 관우가 죽자 굶어 죽었다고 함.
- 1652) 엉클어지거나 흐리지 아니하고 아주 분명하게.
- 1653) 青龍刀. 청룡언월도(靑龍偃月刀). 긴 자루 끝에 초승달처럼 생긴 날을 단 칼. 관우가 쓰는 칼은, 칼날을 청룡이 물고 있는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청룡도라고 하였음.
- 1654) 함부로 크게 지르며.
- 1655) 兄長. 형님.
- 1656) 小將. 장수가 자신을 낮추어 일컫는 말.
- 1657) 못하오이다. 못하옵니다.
- 1658) 論之하면. 따져서 말하면.
- 1659) 絶倫. 매우 뛰어남.
- 1660) 無窮無盡. 끝이 없고 다함이 없음.

- 1661) 合肥. 지금의 안휘성(중국 동남부)의 중앙에 위치한 현(縣).
- 1662) 敗를 만나. 싸움에서 패하여.
- 1663) 前功. 이전에 세운 공로나 공적.
- 1664) 定치. 정하지.
- 1665) 허물하지. 그릇 저지른 실수를 들어 꾸짖지.
- 1666) 마십시오.
- 1667) 載然後 知輕重이요, 度然後 知長短이라. 짐은 실어 본 뒤에야 가볍고 무거운 것을 알며, 물건은 재어 본 뒤에야 길고 짧음을 안다.
- 1668) 私情. 개인의 사사로운 감정.
- 1669) 待令키로. 윗사람의 지시나 명령을 기다기로.
- 1670) 軍令狀. 일이 잘못되면 군법에 의해 처벌을 받겠다는 서약서.
- 1671) 賤등(白等). 이두식 표기로 ‘사퇴건대’라는 뜻. 말씀을 올리건대.
- 1672) 小將. 장수가 자기를 낮추어 이르는 말.
- 1673) 關某. 관우가 제 스스로를 이르는 말.
- 1674) 地闊이 雖微나. 지체와 문벌은 비록 미천하나.
- 1675) 忠義는 眞誠이라. 충성과 의리는 참되고 지성스럽다.
- 1676) 桃園. 하북성 탁군에 있는 장비의 집 후원 복숭아 밭. 이 곳에서 유비, 관우, 장비 세 사람이 의형제를 맺었음.
- 1677) 結義. 의리로써 관계를 맺음.
- 1678) 望死生之同心. 살고 죽기를 한 마음으로 하기를 바라며.
- 1679) 戰場出而艱苦하니. 싸움터에 나가서 온갖 어려움을 다 겪으니.
- 1680) 不違其令而竭力이라. 그 명령을 어기지 않고 온 힘을 다한 것이라.
- 1681) 起兵以共討하니. 군대를 이끌고 가 함께 토벌을 하니.
- 1682) 放曹而何著고? 조조를 놓아 주고 어찌 돌아올 것인가.
- 1683) 如彼小兒生擒함이 無異探囊取物이니. 저 조그만 아이, 곧 조조를 사로잡는 것은 주머니 속에 든 물건을 집는 것이나 다름이 없으니.
- 1684) 若而違令이옵거든. 만일에 명령을 어기면.
- 1685) 上告. 윗사람에게 알림.
- 1686) 處置 宜當事라. 죽이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
- 1687) 着銜. 문서에 성명을 적는 따위의 결재.
- 1688) 華容道. 호북성 감리현 서북쪽의 화용현으로 통하는 길.
- 1689) 南郡. 중국의 지명. 형주(荊州)에 속하는 군으로 현재의 호북성 강릉.
- 1690) 彝陵. 중국 호북성에 있는 지명.
- 1691) 大路. 큰 길.
- 1692) 저 모양으로. 저처럼.
- 1693) 小路. 좁은 길.
- 1694) 軍令狀. 일이 잘못되면 군법에 의해 처벌을 받겠다는 서약서.
- 1695) 清道. 청도기(淸道旗). 행군할 때에 앞에 세워 잡인이 가까이 다가오지 못 하게 하던 깃발. 바탕은 남빛, 가장자리 화염은 붉은 빛이며 ‘청도(淸道)’라는 두 글자를 썼음.

- 1696) 紅門. 군대에서 쓰이던 깃발.  
 1697) 東南角. 의장기의 하나.  
 1698) 東北角. 의장기의 하나.  
 1699) 靑門. 군대에서 쓰이던 깃발.  
 1700) 朱雀. 주작기(朱雀旗). 전문(前門)에 세워서 전군, 전영, 전위를 지휘함. 붉은 바탕에 주작과 운기(雲氣)를 그리고, 가장자리와 화염은 남색임.  
 1701) 南東角. 의장기의 하나.  
 1702) 南西角. 의장기의 하나.  
 1703) 紅高招. 진중(陣中)에서 전후좌우의 방위별로 쓰이던 깃발.  
 1704) 紅門. 군대에서 쓰이던 붉은 색 깃발.  
 1705) 玄武. 현무기(玄武旗). 후문(後門)에 세워 뒤쪽 진영을 지휘하는데 쓰이던 깃발. 검은 바탕에 거북을 그림.  
 1706) 北東角. 의장기의 하나.  
 1707) 北西角. 의장기의 하나.  
 1708) 黑高招. 진중(陣中)에서 전후좌우의 방위별로 쓰이던 깃발.  
 1709) 黑門. 군대에서 쓰이던 검은색 깃발.  
 1710) 白虎. 백호기(白虎旗). 대오방기의 하나로, 진영의 오른쪽 문에 세워 오른쪽에 있는 군대를 지휘하는 데 씀. 흰 바탕에 백호와 운기(雲氣)를 그리고, 가장자리는 누른빛임.  
 1711) 西南角. 의장기의 하나.  
 1712) 西北角. 의장기의 하나.  
 1713) 白高招. 진중(陣中)에서 전후좌우의 방위별로 쓰이던 깃발.  
 1714) 白門. 군대에서 쓰이던 흰색 깃발.  
 1715) 黃神. 황신기(黃神旗). 중오방기(中五方旗 조선조 때 쓰던 군기(軍旗)의 한 가지. 홍신기(紅神旗)·남신기(藍神旗)·황신기(黃神旗)·백신기(白神旗)·흑신기(黑神旗)의 다섯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 동·서·남·북·중앙에 하나씩 세워 두었음. 기의 뒷면에는 각기 그 방위에 해당하는 달 탄 신장(神將)의 화상을 그렸음)의 하나로서 중앙에 세우는 기.  
 1716) 豹尾. 표범의 꼬리가 그려진 깃발. 다른 사람이 드나들지 못 하게 하는 데 쓰였음.  
 1717) 金鼓. 군중(軍中)에서 치는 쇠붙이와 북.  
 1718) 笳. 쇠로 만든 타악기의 일종.  
 1719) 笛. 대로 만든 관악기.  
 1720) 鼓. 북.  
 1721) 鼙. 나팔, 호적(胡笛) 등으로도 불리는 관악기의 일종.  
 1722) 旗牌官. 여러 군영에서 지방 출신 군사들의 훈련을 맡아보던 무관 벼슬.  
 1723) 軍半直列. 한 줄로 죽 늘어선 군뢰. ‘군뢰’는 군대에서 죄인을 다루는 일을 맡아보는 병졸.  
 1724) 座馬. 대장이 말을 탈 때 여별로 데리고 다니던 말.  
 1725) 纛. 군대에서 대장의 앞에 세우던 깃발.  
 1726) 攔後. 부대의 맨 뒤를 호위하던 군대.  
 1727) 親兵. 임금이나 대장이 친히 거느리던 군사.

- 1728) 教師. 군대의 훈련을 맡던 벼슬.  
 1729) 塘報. 적의 행편을 살펴 알리는 임무를 맡은 척후병.  
 1730) 氣色. (희로애락 등) 어떤 마음의 작용으로 드러나는 얼굴빛.  
 1731) 用兵. 군사를 부림. 군사를 지휘함.  
 1732) 看審次로. 살펴볼 셈으로.  
 1733) 樊口. 호북성 악성현의 서북쪽에 있는 변항강이 양자강으로 흘러드는 입구.  
 1734) 大起로다. 크게 일어나는구나.  
 1735) 개운하지 않고 무엇인가 마음에 걸리는 데가 있어서.  
 1736) 沮防. 막아서 방비함.  
 1737) 兵書. 군사를 지휘하여 전쟁을 하는 방법에 관한 책.  
 1738) 冬至 後에는 一陽이 生. 동지 후 양의 기운이 생겨나기 시작하니. 곧 동지가 지난 후부터 점점 해가 길어지고, 봄기운이 돈다는 말.  
 1739) 可知. 알만함.  
 1740) 黃蓋. 손권의 부하 장수. 영릉의 천릉 사람으로 지는 공복(公覆). 적벽대전을 앞두고 스스로 주유를 찾아 고육계를 쓸 것을 제안하여, 일부러 주유에게 죽도록 얻어맞고 조조에게 거짓 항복 문서를 보냈으며, 대전시에 선봉대장이 되어 조조의 혼란을 유도하여 크게 공을 세웠음.  
 1741) 擇船. 골라 택한 배. 곧 화선(火船).  
 1742) 青龍牙旗. 청룡이 그려진 대장기.  
 1743) 船旗上에. 배에 꽂는 깃발 위에.  
 1744) 先鋒隊將. 맨 앞장을 서는 군대를 지휘하는 장수.  
 1745) 엉크러지거나 흐리지 않고 똑똑하며 분명하게.  
 1746) 靑布帳. 푸른색 천으로 만든 포장. ‘포장’은 피륙을 여러 폭으로 이어 빙 둘러막아 친 장막.  
 1747) 吳江. 강소성 남쪽 지방을 흐르는 강.  
 1748) 드나드는 목의 첫머리.  
 1749) 隱隱하게.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정도가 알 듯 모를 듯 하게.  
 1750) 떠서 들어오니.  
 1751) 黃公覆. 황개. ‘공복’은 황개의 자.  
 1752) 糧草. 군대가 먹을 양식과 말을 먹일 풀.  
 1753) 軍糧. 군대가 먹을 양식.  
 1754) 배 같으면.  
 1755) 움직임.  
 1756) 船中. 배의 가운데.  
 1757) 穩重. 무거움.  
 1758) 搖搖하고. 연달아 자꾸 흔들리고.  
 1759) 泛流하니. 둥둥 떠 물결 따라 흐르니.  
 1760) 奸巧. 간사한 계교.  
 1761) 帳下. 장막 아래.

- 1762) 長槍. 긴 창.
- 1763) 小將. 장수가 자신을 낮추어 일컬은 말.
- 1764) 막으리다. 막겠습니다.
- 1765) 文聘. 조조의 부하 장수. 남양 완성(宛城) 사람으로 자(字)는 중업(仲業). 강아테수를 거쳐 신야후에 봉해짐.
- 1766) 大劍. 큰 칼.
- 1767) 小船. 작은 배.
- 1768) 배질을 할 때 쓰는 긴 막대. 배를 댈 때나 띄울 때, 또는 물이 얇은 곳에서 배를 밀어 나갈 때 쓴다.
- 1769) 어느 쪽. 어느 편.
- 1770) 소식이나 연락이 전혀 없는 모양.
- 1771) 마치지를.
- 1772) 화살을 시위에 메어.
- 1773) 깎지킨 손. ‘깎지’는 활줄을 잡아당기는, 엄지손가락에 끼는 빨로 만든 기구.
- 1774) 험차게 떼어놓으니.
- 1775) 文聘. 조조의 부하 장수. 남양 완성(宛城) 사람으로 자(字)는 중업(仲業). 강아테수를 거쳐 신야후에 봉해짐.
- 1776) 黃蓋. 손권의 부하 장수. 영릉의 천릉 사람으로 자는 공복(公覆). 적벽대전을 앞두고 스스로 주유를 찾아 고육계를 쓸 것을 제안하여, 일부러 주유에게 죽도록 얻어맞고 조조에게 거짓 항복 문서를 보냈으며, 대전시에 선봉대장이 되어 조조의 혼란을 유도 하여 크게 공을 세웠음.
- 1777) 불을 옮겨 붙여 놓으니.
- 1778) 화살같이. 빠르게.
- 1779) 喇叭. 옛날 관악기의 한 가지. 쇠붙이로 긴 대롱처럼 만들되, 위는 가늘고 끝이 퍼짐.
- 1780) 물기가 전혀 없이 마르거나, 타버리는 모양.
- 1781) 외치는.
- 1782) 戰船. 전투하는 배.
- 1783) 항구 안에서 사람이나 짐을 실어 나를 조그만 배.
- 1784) 노 젓는 긴 나무.
- 1785) 旗幟. 깃발.
- 1786) 帳幕. 야외에서 별 또는 비를 막고 사람이 들어가 있도록 둘러 치는 막. 옆으로 돌아가며 휘장을 침.
- 1787) 火箭. 불화살.
- 1788) 弓箭. 활과 화살.
- 1789) ‘면장’인 듯. ‘면장’은 돛대의 밑 부분을 고정하는 확처럼 생긴 ‘개밥통’을 고정하기 위해 엇비슷하게 뾰족에 대는 나무 토막.
- 1790) 적군이나 도둑을 막는 데 쓰는, 끝이 날카롭고 몇 갈래가 지도록 무쇠로 만든 물건.
- 1791) 風波江上. 바람에 물결이 이는 강물 위.
- 1792) 火光. 불빛.

- 1793) 諸將. 여러 장수.  
 1794) 一等武士. 첫째가는 이름난 무사. ‘무사’는 무예를 익히어 그 방면에 종사하는 사람.  
 1795) 비스듬히.  
 1796) 片箭. 축이 날카롭고 짧은 화살.  
 1797) 아쑥. 갑자기 찬 기운이 몸을 스쳐가는 느낌을 느끼는 모양.  
 1798) 紗帽. 벼슬아치가 관복을 갖추어 쓸 때 쓰는 모자.  
 1799) 꿰어.  
 1800) 쇠로 만든 도리깨. 무기의 일종.  
 1801) 대상을 위협하며 나아가는 모양인 듯.  
 1802) 神機箭. 예전에, 화약을 장치하거나 불을 달아 쏘던 화살.  
 1803) 長弓. 큰 활.  
 1804) 鐵箭. 쇠로 만든 화살.  
 1805) 三同의 法을 차려. 삼동이라는 방법을 분비하여. 여기서는 ‘삼동편사(三同便射)’를 가리킴. ‘삼동편사’는 갑사정(甲射亭), 을사정(乙射亭)의 두 사정이 각기 당상관 한 사람과 급제 후 아직 벼슬에 나가지 못한 한 사람과 한량의 세 계급을 연합하여 편을 짜서 활쏘기 승부를 겨루던 경기.  
 1806) 깎지 낀 손. ‘깎지’는 활줄을 잡아당기는, 엄지손가락에 끼는 뿔로 만든 기구.  
 1807) 험차게 떼어놓으니.  
 1808) 一等名將. 제일가는 훌륭한 장수.  
 1809) 엎드리는.  
 1810) 水陣. 수군의 진영.  
 1811) 火焰. 불꽃.  
 1812) 無斷히. 사전에 아무런 연락이나 허락이 없이. 아무 이유 없이.  
 1813) 誤死. 형벌이나 재난을 당하여 비명에 죽음.  
 1814) 急死. 갑자기 죽음.  
 1815) 客死. 객지에서 죽음.  
 1816) 卽死. 그 자리에서 죽음.  
 1817) 水死. 물에 빠져 죽음.  
 1818) 火死. 불에 타서 죽음.  
 1819) 砒霜. 극약의 일종.  
 1820) 賜藥하여. 죽는 약을 먹여.  
 1821) 五代獨身. 오 대를 외아들로 내려온 사람.  
 1822) 발로 탄탄한 곳을 자꾸 세게 굴러 울리는 소리를 내며 걸어.  
 1823) 滄海茫茫. 넓은 바다가 아득함.  
 1824) 大海. 크고 넓은 바다.  
 1825) 火焰. 불꽃.  
 1826) 衝天. 하늘을 찌를 듯함.  
 1827) 전혀 없어.  
 1828) 자꾸 기어 올라가는 모양.

- 1829) 맨 끄트머리.
- 1830) 北堂. 어머니가 거처하는 집을 가리키는 말인데, 어머니를 이르기도 함.
- 1831) 鶴髮兩親. 학처럼 머리가 허영게 늙으신 부모님.
- 1832) 紅顏. 아주 예쁜 젊은 여자의 얼굴.
- 1833) 뻑뻑하게 차서 빈틈이 없음.
- 1834) 一等名將. 제일가는 훌륭한 장수.
- 1835) 無用. 쓸모없음.
- 1836) 許褚. 조조의 부하 장수. 자는 중강(仲康). 용맹이 뛰어나서 '호치(虎癡)'라고도 불렸음.
- 1837) 張遼. 조조의 부하 장수. 성은 섭(聶), 자는 문원(文遠). 무예가 뛰어나서 조조와 함께 공을 많이 세웠음.
- 1838) 죽을 뻔하다가.
- 1839) 圖生. 살려고 도모함.
- 1840) 紅袍. 붉은 색 도포.
- 1841) 遑急. 몹시 어수선하고 급박함.
- 1842) 피를 부리며, 양탈(남의 말을 듣지 않고 불평을 늘어놓거나 피를 부림)을 하며.
- 1843) 달아나지.
- 1844) 張遼. 조조의 부하 장수. 성은 섭(聶), 자는 문원(文遠). 무예가 뛰어나서 조조와 함께 공을 많이 세웠음.
- 1845) 公瑾. 주유(朱瑜). 손권의 부하 장수요, 동지. 여강 서성 사람으로 자(字)는 공근(公瑾). 손권의 형인 손책과는 동서간으로 교공의 두 딸을 나눠 얻었다.
- 1846) 本陣. 본영(本營). 지휘를 하던 본부가 있던 군영(軍營).
- 1847) 徐盛. 손권의 부하 장수. 낭야 사람으로 자는 문향(文嚮). 용맹이 뛰어났고, 특히 수전에 능하였다.
- 1848) 丁奉. 손권의 부하 장수. 여강 안풍 사람으로 자는 승연(承淵).
- 1849) 周泰. 오나라 장수. 구강(九江) 하채(下蔡) 사람. 이릉 전투에선 남만장수 사마가를 죽였으며 후일 조조(曹操)와의 합비 싸움에서 가장 큰공을 세웠고, 유비(劉備)와의 싸움에서도 많은 활약을 하였다. 벼슬이 한중태수(漢中太守)에 이르렀으며, 병으로 죽었다.
- 1850) 合兵. 둘 이상의 부대를 합쳐서 한 부대로 편성함.
- 1851) 餘魂. 남은 혼. 남은 정신.
- 1852) 氣急. 갑자기 놀라는 정도가 몹시 심함.
- 1853) 烏林. 적벽강의 북쪽 맞은 편 언덕에 있는 숲. 지금의 호북성 가어현(嘉魚縣) 서쪽에 있음.
- 1854) 쓸데없이 자질구레하게 늘어놓는 말.
- 1855) 臀腫. 불기짜이나 그 근처에 나는 종기.
- 1856) 피를 부리며, 양탈(남의 말을 듣지 않고 불평을 늘어놓거나 피를 부림)을 하며.
- 1857) 伏兵. 요긴한 곳에 숨어 있다가 불의에 적을 공격하는 군사.
- 1858) 漢將. 한나라 장수.
- 1859) 肝腸. 마음.

- 1860) 彝陵. 중국 호북성에 있는 지명.
- 1861) 메주라기. 쟁과의 겨울 철새로 몸은 병아리와 비슷하나 꼬리가 짧다.
- 1862) 무엇에 놀라 갑자기 날아가는 모양.
- 1863) 無色하여. 무안하여 볼 낮이 없어서.
- 1864) 險峻. 지세가 험하며 높고 가파름.
- 1865) 樹木. 나무.
- 1866) 叢雜한데. 뻘뻘하게 우거졌는데.
- 1867) 萬壑에. 수많은 골짜기에.
- 1868) 千峰에. 수많은 산봉우리에.
- 1869) 바람이 세차게 불 때.
- 1870) 花草木實. 꽃과 풀과 나무 열매.
- 1871) 전혀 없어.
- 1872) 끊어졌는데. 날지 않는데.
- 1873) 赤壁火戰. 적벽대전에서. 적벽강에서 불로 싸운 싸움에서.
- 1874) 怨鳥. 원통하게 죽은 사람의 귀신이 변하여 되었다는 새.
- 1875) 曹丞相. 승상 벼슬에 있는 조조.
- 1876) 맨 끄트머리.
- 1877) 塗炭. (진흙 구렁이나 숯불과 같은 데 빠졌다는 뜻으로) ‘몹시 고통스러운 지경’을 이르는 말.
- 1878) 歸蜀道. ‘촉나라로 가는 길’이라는 뜻으로, 두견새의 울음 소리. 주나라 말기에 촉지방의 제후로 스스로 황제라고 일컬었던 두우(杜宇), 곧 망제(望帝)는 신하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억울하게 죽었는데, 그 혼이 두견새가 되어 ‘귀촉도’ 또는 ‘불여귀’라고 운다고 함.
- 1879) 不如歸. ‘돌아가지 못한다’는 뜻으로, 두견새의 울음소리.
- 1880) 蜀魂鳥. 두견새의 다른 이름.
- 1881) 如山軍糧. 산처럼 많은 군대의 양식.
- 1882) 燒盡. 모조리 타서 없어져버림.
- 1883) 村廬擄掠. 민가에 대한 노략질.
- 1884) 한창이다.
- 1885) 敗軍. 전쟁에서 진 군대.
- 1886) 百計圖生. 온갖 피를 써 살려고 함.
- 1887) 궁리로만 한다. 구체적인 행동은 없고 생각으로만 함.
- 1888) 草坪大路. 풀이 우거진 넓은 들판의 큰 길.
- 1889) 深山叢林. 깊은 산 속 우거진 수풀.
- 1890) 굵주린.
- 1891) 冷病. 찬 기운을 얻어서 생기는 병.
- 1892) 張遼. 조조의 부하 장수. 성은 섭(聶), 자는 문원(文遠). 무예가 뛰어나서 조조와 함께 공을 많이 세웠음.
- 1893) 湖畔새. 물총새과에 딸린 물새. 날개 길이 12cm, 부리 5.5cm 쯤 되며, 등은 적갈색에



- 자줏빛을 띠었고, 등의 아랫부분과 허리는 회고, 아랫도리는 황갈색, 부리는 붉은데 굵고 크며, 다리도 붉음.
- 1894) 半空. 그다지 높지 않은 하늘.
- 1895) 하루 동안 부는 바람. 적벽강 전투에서 하루 동안 불었던 바람을 가리킨 듯. ‘회루바람’으로 볼 수도 있음. ‘회루바람’은 회오리바람.
- 1896) 전라도 무당춤에서, 두 손에 지전을 가지고 팔과 어깨를 활짝 벌린 사위를 이르는 말. 따라서 여기서는 바람막이 자세처럼 두 날개를 짝 벌리고 떠 있는 새를 가리킨 듯.
- 1897) 鐵網. 쇠로 만든 그물.
- 1898) 火兵. 군대에서 불을 때서 밥 짓는 일을 하는 군사.
- 1899) (몹시 성이 나거나 남을 위압하기 위하여) 큰 소리를 지르거나 크게 꾸짖음. 또는 그 소리.
- 1900) 紅袍. 붉은 색 도포.
- 1901) 지어새과의 겨울 철새. 몸은 회고 부리는 검다.
- 1902) 不遠이라. 멀지 않다. 멀지 않다.
- 1903) 赤壁風波. 적벽강의 세차게 일어나는 물결.
- 1904) 백로(白鷺). 해오라기. 새의 일종으로, 날개 길이 20cm, 꽂지 길이 10cm 쯤 되며, 온 몸의 털이 회고, 발가락은 연두색임. 앞이마의 눈 주위에는 털이 없이 누르스름하고, 부리와 다리는 검고 길다.
- 1905) (성질이) 바르지 못하고 약간 괴상하다.
- 1906) 伏兵. 요긴한 곳에 숨어 있다가 불의에 적을 공격하는 군사.
- 1907) 팽그르르. (작은 것이) 매끄럽고 빨리 한 바퀴 도는 모양.
- 1908) 辭說. 길게 늘어놓는 잔소리나 꾸밈의 말.
- 1909) 鏖戰. 아주 치열한 싸움.
- 1910) 飢寒. 굶주리고 헐벗어 배고픈 추위에.
- 1911) 汨沒. 어떤 한 일에 파묻혀 다른 생각을 할 여유가 없음.
- 1912) 丹粧. 얼굴에 분, 연지 등을 발라서 곱게 하고, 머리카락이나 옷차림 등을 매만져 맵시하게 꾸밈. 여기서는 새의 아름다운 빛깔을 이르는 말.
- 1913) 毒氣. 독의 성분이나 기운.
- 1914) 때구루루. (좀 탄탄하고 큰) 물건이 단단한 바닥에 떨어져서 구르는 소리.
- 1915) 내려가며.
- 1916) 諸將. 여러 장수.
- 1917) 軍士魂. 군사들의 원혼(冤魂).
- 1918) 다리를 아무렇게나 하고 제 멋대로 앉아.
- 1919) 두리번거리는 모양.
- 1920) 僅僅圖生. 겨우겨우 살아가기를 꾀함.
- 1921) 蒼皇中에. 어찌할 겨를이 없이 썩 급한 가운데.
- 1922) ‘목’의 비어.
- 1923) 重傷. 아주 심하게 다침.
- 1924) 마치지름.

- 1925) 烏林山谷. 오림 산골짜기. '오림'은 적벽강의 북쪽 맞은 편 언덕에 있는 숲.  
 1926) 兩便에서. 양쪽에서.  
 1927) 高聲. 큰 소리.  
 1928) 火光. 불빛.  
 1929) 衝天. 하늘을 찌를 듯함.  
 1930) 掩殺. 에워싸서 죽임.  
 1931) 荊山. 중국 호북성 남장현 서쪽에 있는 산. 질 좋은 옥이 남.  
 1932) 白玉. 흰 옥.  
 1933) 瀟湘江. 양자강의 두 지류인 소수와 상강.  
 1934) 錦袍. 비단으로 만든 도포나 두루마기.  
 1935) 鹿布. 사슴 가죽.  
 1936) 掩身甲옷. 갑옷으로 몸을 가림,  
 1937) 長槍. 긴 창.  
 1938) 堂堂. 버젓하고 정대한.  
 1939) 威風. 위엄 있는 풍채.  
 1940) 一咆聲. 한 차례 성내어 크게 외치는 소리.  
 1941) 무엇이 몹시 심하거나 하여 못마땅해서 빈정거릴 때 내는 소리.  
 1942) 달리지.  
 1943) 올리. 상대자에게 해를 입히려는 말이나 행동으로 겁을 먹도록 위협하여.  
 1944) 생문(生門) : 점술가들이 점치는 여덟 개의 문의 하나로 길한 방위의 문임.  
 1945) 사문(死門) : 점술가들이 점치는 여덟 개의 문의 하나로 흉한 방위의 문임.  
 1946) 갑자기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모양.  
 1947) 여기.  
 1948) 將. 장수.  
 1949) 저기 가서.  
 1950) 매과에 딸린 새로, 날개 길이는 36cm, 부리는 3.2cm 가량임.  
 1951) 날째게 빼앗거나 움켜져 가지듯.  
 1952) 銀粧刀. 의식 때 사용하는 칼의 한 가지로, 나무로 만들고 칼집에 여러 가지 무늬를 아로새겼으며, 온 몸에 은칠을 하고 끈을 달.  
 1953) 橫行하여. 아무 거리낌 없이 제멋대로 행동하여.  
 1954) 秋風落葉. 가을 바람에 떨어지는 나뭇잎.  
 1955) 주검이 泰山이로구나. 시체가 태산처럼 높이 쌓여 있구나.  
 1956) 徐晃. 조조의 부하 장수. 하동(河東) 양군(楊郡) 사람으로, 자는 공명(公明). 양봉(楊奉)의 부하로 있다가 그의 용맹을 본 조조가 사로잡아 부하로 삼았다.  
 1957) 張郃. 조조의 부하 장수. 자(字)는 준문(雋文). 하간군 정현 사람. 본시 원소의 밑에 있다 조조에게 항복하여 중용되었음.  
 1958) 雙接하여. 상대방을 상대하여.  
 1959) 葫蘆谷. 호리병박처럼 갈수록 좁아지는 골짜기.  
 1960) 바람, 포성 따위로 요란스럽게 일어나는 소리를 강조하여 이르는 말.

- 1961) 救急. 급한 일에 대해 우선 응급 처치를 취함.
- 1962) 漢水. 중국 섬서성 영강현에서 발원하여 호북성을 관류하는 양자강의 지류.
- 1963) 강이나 바다의 물살이 세게 흐르는 얇은 곳.
- 1964) 彝陵. 중국 호북성에 있는 지명.
- 1965) 寂寂山中. 고요한 산 속.
- 1966) 清溪上에. 맑은 시냇물 위에.
- 1967) 雙雙 白鷗. 짝을 지어 있는 해오라비.
- 1968) 흐르듯이 떠 있구나.
- 1969) 雨後清江. 비 온 뒤의 맑은 강물.
- 1970) 興味. 호취. 어떤 대상의 내용에 대한 특별한 주의를 붙좇아 따르는 감정.
- 1971) 紅蓼月色. 잎이 지고 빨간 대만 남은 물가의 여뀌풀에 비치는 달빛.
- 1972) 어디쯤인가?
- 1973) 漁笛數聲. 어부들이 부는 피리 소리 몇 마디.
- 1974) 누구의. 누구와의.
- 1975) 期約. 때를 정하여 약속함.
- 1976) 泛彼滄波. 저 푸른 물결 위에 떠서.
- 1977) 勝遊하고. 즐겁게 놀고.
- 1978) 奔走. 수선스럽게 왔다갔다함.
- 1979) 沒死. 모조리 다 죽음.
- 1980) ‘마음’을 낮추어 이르는 말.
- 1981) 伏兵. 갑작스레 적을 내치려고 요긴한 목에 숨어 있는 군사.
- 1982) 복병의 ‘복’을 배라는 뜻으로 풀이한 말.
- 1983) 승상에 이어서 써서 우습게 쓴 말.
- 1984) 마치지를.
- 1985) 號砲. 군대에서, 신호로 쏘는 총이나 대포.
- 1986) 掩殺. 에워싸서 죽임.
- 1987) 죽었습니다.
- 1988) 맷쌀 따위의 메진 곡식으로 만든 떡.
- 1989) 칼이나 종이 따위를 칼이나 가위로 연이어 단번에 베는 소리. 또는 그 모양.
- 1990) 張飛. 자는 익덕(翼德). 중국 삼국시대 촉의 장수. 호북성에서 태어나 유비, 관우와 더불어 도원에서 의형제를 맺었다. 그는 유비를 평생 동안 섬기면서 많은 전쟁터에서 누구도 따를 수 없는 힘과 용기로 용맹을 떨쳤다. 그는 뛰어난 호걸이긴 하였지만 너무 성미가 급하고 또한 술을 좋아하였다. 관우의 원수를 갚기 위하여 군사를 일으켜 오(吳)나라로 쳐들어가는 길에 부하의 손에 의해 암살되었다.
- 1991) 검푸른 빛.
- 1992) 蛇矛長槍. 창끝이 뱀의 머리처럼 세모꼴로 된 긴 창.
- 1993) 性情. 성질과 심정.
- 1994) 猛虎. 사나운 호랑이.
- 1995) 뛰어나오며.

- 1996) 달아나지.  
 1997) 날겠는가?  
 1998) 기어가겠는가?  
 1999) 바람개비.  
 2000) 飛上天. 하늘로 날아 올라감.  
 2001) 두더지.  
 2002) 뒤질까.  
 2003) ‘까불까불’의 약한 말. 가볍게 흔들리는 모양.  
 2004) 前日. 얼마 전.  
 2005) 萬軍中. 수많은 군대 내.  
 2006) 許褚. 조조의 부하 장수. 자는 중강(仲康). 용맹이 뛰어나서 ‘호치(虎癡)’라고도 불렸음.  
 2007) 張遼. 조조의 부하 장수. 성은 섭(聶), 자는 문원(文遠). 무예가 뛰어나서 조조와 함께 공을 많이 세웠음.  
 2008) 徐晃. 조조의 부하 장수. 하동(河東) 양군(楊郡) 사람으로, 자는 공명(公明). 양봉(楊奉)의 부하로 있다가 그의 용맹을 본 조조가 사로잡아 부하로 삼았다.  
 2009) 張郃. 조조의 부하 장수. 자(字)는 준문(雋文). 하간군 정현 사람. 본시 원소의 밑에 있다 조조에게 항복하여 중용되었음.  
 2010) 限死挾攻. 죽기를 다하여 협공을 함. ‘협공’은 앞뒤 또는 좌우 양쪽에서 공격함.  
 2011) 糜芳. 미축(糜竺)의 아우로 유비의 처남. 관우의 부하 장수로 있다가 형주가 함락되자 손권에게 항복하였다. 유비가 복수의 군대를 일으켜 연전연승해 오자, 관우를 잡은 왕충의 목을 베어 돌아왔으나, 유비에게 죽임을 당하였다.  
 2012) 糜竺. 미방의 형. 유비의 두 번째 부인인 미부인의 오빠이다. 동해 구현 사람으로 자는 자중(子仲).  
 2013) 劉封. 유비의 부하 장수로, 유비의 양아들임. 본래 이름은 구봉(寇封). 일찍 부모를 여의고, 고모부 유필(劉泌)을 의지하여 번성에 있다가, 유비의 눈에 띄어 유비의 양자가 되었다.  
 2014) 三將. 세 장수.  
 2015) 前路. 앞 길.  
 2016) 軍士 器物. 군기(軍器). 전쟁에 쓰이는 병기와 물건.  
 2017) 巡視. 순시기. 군인들의 행동을 순찰하여 죄 지은 자를 잡아올 때 쓰던 기.  
 2018) 令旗. 군중에서 명령을 전하는 데 쓰던 기. 사방 두 자 가량의 푸른 비단 바탕에 ‘令’ 자를 썼음.  
 2019) 蛇矛長槍. 창끝이 뱀의 머리처럼 세모꼴로 된 긴 창.  
 2020) 大劍. 큰 칼.  
 2021) 쇠로 만든 도리깨처럼 생긴 무기.  
 2022) 엄연(嚴然)한. 현상이 뚜렷하여 누구도 감히 부정할 수 없는. 여기서는 ‘멀쩡한’ 정도의 의미.  
 2023) 쇠붙이를 녹이는 그릇.  
 2024) 弓箭. 활과 화살.

- 2025) 나무의 끝을 어긋맞도록 들쭉날쭉하게 파내어 맞추어 짠 가구의 모퉁이에 걸쳐 대는 쇠조각.
- 2026) 적군이나 도둑을 막는 데 쓰는, 끝이 날카롭고 몇 갈래가 지도록 무쇠로 만든 물건.
- 2027) 火繩. 불을 붙게 하는 데 쓰는 노끈. 대의 속살을 꼬아 만든 것으로, 옛날 총열에 화약과 탄알을 채고 이 노끈에 불을 댕겨 귀약통에 대어 폭발시켰다.
- 2028) 독침(毒針). 살인 수단이나 무기로 쓰는, 독물을 묻힌 바늘.
- 2029) 조금도 남기지 않고 전부.
- 2030) 山高谷深. 산은 높고 골짜기는 깊음.
- 2031) 無人한데. 사람이 없는데.
- 2032) 前面에. 앞에.
- 2033) 兩 길. 두 길.
- 2034) 南郡. 중국의 지명. 형주(荊州)에 속하는 군으로 현재의 호북성 강릉.
- 2035) 小路. 좁은 길. 작은 길.
- 2036) 가깝지만.
- 2037) 狹小. 공간이 좁고 작음.
- 2038) 華容道. 호북성 감리현 서북쪽의 화용현으로 통하는 길.
- 2039) 人馬. 사람과 말.
- 2040) 氣盡. 기력이 풀려서 다함. 기운이 다 떨어짐.
- 2041) 불에 덴.
- 2042) 老弱. 늙고 약한 사람.
- 2043) 허청허청. 허청거리면서. 다리에 힘이 없어 잘 걷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모양.
- 2044) 蜀道之難. 촉 지방으로 가는 길의 어려움. 촉 나라 지역으로 가는 길이 매우 험했다고 함.
- 2045) 險다. 한들. 험하다고 한들.
- 2046) 이보다.
- 2047) 張遼. 조조의 부하 장수. 성은 섭(聶), 자는 문원(文遠). 무예가 뛰어나서 조조와 함께 공을 많이 세웠음.
- 2048) 許褚. 조조의 부하 장수. 자는 중강(仲康). 용맹이 뛰어나서 '호치(虎癩)'라고도 불렸음.
- 2049) 徐晃. 조조의 부하 장수. 하동(河東) 양군(楊郡) 사람으로, 자는 공명(公明). 양봉(楊奉)의 부하로 있다가 그의 용맹을 본 조조가 사로잡아 부하로 삼았다.
- 2050) 所約之心. 약속한 마음.
- 2051) 運籌決勝. 여러 가지로 방법을 강구하여 승패를 결정함.
- 2052) 諸復終始不如意로다. 다시금 시작과 끝을 함께 하려고 했는데, 뜻처럼 되지 않는구나.
- 2053) 草行露宿. 풀밭을 돌아다니고, 이슬을 맞으며 한데 잠을 잠.
- 2054) 妄想. 망령된 생각.
- 2055) 一嚙一笑. 한번 얼굴을 찌푸렸다가 또 한번 웃었다가 함. 곧 변덕을 부림.
- 2056) 把摠. 각 군영의 종4품 무관 벼슬.
- 2057) 울면서 나온다.
- 2058) 霸業. 나라를 세우 통일하는 일.
- 2059) 人力. 사람의 힘.

- 2060) 敗軍諸將. 패한 군대의 여러 장수.
- 2061) 前後哨. 앞뒤의 군대. ‘초’는 약 백 명을 단위로 하던 군대의 편제.
- 2062) 左右哨. 왼쪽과 오른쪽의 군대. ‘초’는 약 백 명을 단위로 하던 군대의 편제.
- 2063) 怪惡. 괴이하고 흉악함.
- 2064) 五次 連防禦. 다섯 차례에 걸친 계속되는 방어.
- 2065) 울음을 다 끝내고 나니.
- 2066) 哨官. 한 초(哨)를 거느리던 종구품 무관 벼슬.
- 2067) 前探後保. 앞으로는 살피고 뒤로는 보호함.
- 2068) 死中求生.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 한 가닥 살길을 찾음.
- 2069) 충량지신(忠良之臣)이. 충성스럽고 선량한 신하가.
- 2070) 領率三卿. (천자가 되어) 삼경을 거느림. ‘삼경’은 상·중·하품의 경(벼슬아치).
- 2071) 채신. 채신머리. ‘채신머리’는 처신을 속되게 이르는 말.
- 2072) 用兵. 쓸 군사.
- 2073) (많아서) 남을 정도였지만.
- 2074) 龐統. 유비 막하의 모사. 본래 와룡(臥龍) 봉추(鳳雛) 중 하나만 얻어도 왕업을 이루리 라던 말 속의 봉추가 바로 그림. 양양 사람으로 지는 사원(士元). 적벽대전에서 연환 계를 내어 성공시켰음. 낙성(洛城)을 치다가 삼십육세로 죽었음.
- 2075) 黃蓋. 손권의 부하 장수. 영릉의 천릉 사람으로 지는 공복(公覆). 적벽대전을 앞두고 스스로 주유를 찾아 고육계를 쓸 것을 제안하여, 일부러 주유에게 죽도록 얻어맞고 조조에게 거짓 항복 문서를 보냈으며, 대전 시에 선봉대장이 되어 조조의 혼란을 유도하여 크게 공을 세웠음.
- 2076) 計術. 계략과 술책.
- 2077) 一夜風塵. 하룻밤의 전쟁. ‘풍진’은 전쟁터에서 일어나는 바람과 먼지를 가리킴.
- 2078) 蕩滅하니. 모조리 멸망하니.
- 2079) 三旗. 군대 앞에서 행진하던 세 개의 깃발, 곧 세 부대를 일컬음.
- 2080) 精兵. 훈련이 잘 된 날랜 군사.
- 2081) 죽었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
- 2082) 죽었던 말인가?
- 2083) 軍將. 군대의 장수.
- 2084) 筋力. 일을 능히 감당하여 내는 힘.
- 2085) 전혀 없구나.
- 2086) 火兵. 불을 때서 취사를 하는 병사.
- 2087) 燧人氏 教人火食. 수인씨가 사람들에게 불로 음식을 익혀 먹는 것을 가르쳤다는 말. 수인씨는 중국의 삼황오제 시절의 전설적인 인물로, 불을 사용하는 법과 음식을 익혀 먹는 법을 가르쳤다고 함.
- 2088) 片鎗. 창이 한 종류인 듯.
- 2089) 炊飯火器. 밥을 짓는 도구.
- 2090) 둘러메고.
- 2091) 救急. 위급한 것을 구원함.

- 2092) 軍裝. 군대의 장비.  
 2093) 按擔. 남의 책임을 맡아 짐.  
 2094) 품질이 낮은 낫쇠로 만든 노구술. ‘노구술’은 낫쇠나 구리쇠로 만든 작은 술.  
 2095) 行裝. 여행할 때에 지니거나 차리는 도구.  
 2096) 조리와 바가지. ‘조리’는 쌀을 이는 데 쓰이는 기구.  
 2097) 氣盡하여. 기운과 힘이 풀려서 다하여.  
 2098) 救急. 급한 일에 대해 우선 응급 처치를 취함. 여기서는 먹여 살리는 일.  
 2099) 奉馬軍. 말을 돌보는 군사.  
 2100) 몽고에서 들어온 말 종류.  
 2101) 말에.  
 2102) 軍糧. 군대가 먹을 양식.  
 2103) 말채찍.  
 2104) 慌忙히. 황망하게. 마음이 몹시 급하여 당황하고 허둥지둥하게.  
 2105) 떠서 날아와.  
 2106) 작고 단단한 물건이 갑자기 세게 부러지거나 깨지는 모양.  
 2107) 魏國. 위나라.  
 2108) 凡軍. 모든 군사.  
 2109) 環刀. 옛 군복에 갖추어 차는 긴 칼.  
 2110) 칼, 벼루, 총 따위를 꺼거나 담아 둘 수 있게 만든 것.  
 2111) 우그러진. 찌그러진.  
 2112) 戰笠. 옛날 주로 하인이나 병졸이 쓰던, 짐승의 털로 만든 모자.  
 2113) 赤手空拳. 맨 손과 맨 주먹. 곧, 가진 것이라고는 아무 것도 없다는 뜻.  
 2114) 상투 하나만 남아 있음. 곧 가진 것이 아무 것도 없다는 뜻.  
 2115) 文武將卒. 문관과 무관의 장수와 병졸. 모든 병졸.  
 2116) 華容山川. 화용도의 산천.  
 2117) 大怒. 크게 화를 냄.  
 2118) 松林. 소나무 숲.  
 2119) 三角鬚. 두 뺨과 턱에 난 수염이 삼각형을 이룬 수염.  
 2120) 거스르게 하고. 끝이 위로 올라가게 하고.  
 2121) 갑자기 마주치는 모양.  
 2122) 程昱. 조조의 모사(謀士). 동군(東郡) 동아(東阿) 사람으로, 자는 중덕(仲德). 순욱의 친거로 조조의 막하에 들었으며, 벼슬이 위위(衛尉)에 이르렀다.  
 2123) 氣色. 얼굴 빛.  
 2124) 十里墟. 십리 쯤 되는 곳.  
 2125) (지난날에) 이정표나 마을의 수호신으로 동네 어귀나 길가에 세운 사람 모양의 형상.  
 2126) 下令. 명령을 내림.  
 2127) 馬上. 말 위.  
 2128) 非夢似夢間. 꿈인지 아닌지 어렵פות한 상태에.

- 2129) 木神. 나무 신.
- 2130) 天地萬物. 이 세상의 모든 사물.
- 2131) 各色草木. 여러 가지 풀과 나무.
- 2132) 有巢氏. 새가 보금자리를 만들어 사는 것을 보고, 뱀이나 짐승의 피해를 막으려고 나무 위에 집을 짓고 사는 것을 가르쳤다는, 중국 고대의 전설의 성인. '인황씨'는 중국 고대의 전설상의 성인으로, 150대, 45,600년에 걸쳐 나라를 다스리다가, 유소씨에게 넘겨주었다고 함.
- 2133) 神農氏. 중국의 옛 전설에 나오는 제왕으로, 삼황(三皇)의 한 사람이며, 성은 강(姜)임. 불의 덕으로 임금이 된 까닭에 염제(炎帝)라고 일컬으며, 백성에게 농사짓는 법을 가르쳤으므로 신농씨라고 일컬음. 의료와 약사의 신. 주조(鑄造)와 양조(釀造)의 신, 교역의 법을 가르쳐 상업의 신으로 되어 있다. 사람의 몸에 소의 머리를 가졌다고 한다.
- 2134) 構木爲巢. 나무를 엮어 보금자리를 만들.
- 2135) 軒轅氏. 고대 중국의 전설상의 임금으로, 창과 방패를 쓰는 법을 가르치고, 배와 수레를 처음으로 만들었다고 함.
- 2136) 作舟車. 배와 수레를 만들.
- 2137) 以濟不通. 통하지 못하던 곳을 건너다니게 함.
- 2138) 便다. 편하다고.
- 2139) 石上. 바위 위.
- 2140) 碧梧桐. 나무 껍질이 푸른빛을 띠는 오동나무.
- 2141) 五絃琴. 순임금이 탔다는 다섯 줄이 있는 비파.
- 2142) 腹板. 가야금이나 거문고, 또는 이와 비슷한 악기의 소리가 울리는 부분.
- 2143) 大舜. 위대한 순임금.
- 2144) 膝上에. 무릎 위에.
- 2145) 비스듬히 기대어 놓고.
- 2146) 南風歌. 순임금이 지어 불렀다는 노래.
- 2147) 비파 소리를 흉내낸 의성어.
- 2148) 文王之甘棠木. 문왕 시절의 팔배나무. '소백(召伯)의 팔배나무'로 해야 함. 《시경》 '감당'이라는 시에, 주나라 소백의 덕을 기리기 위해, 소백이 그 아래서 쉰 감당목을 자르지도 꺾지도 마라는 내용이 있다.
- 2149) 琵琶聲. 비파 소리. 여기서는 '감당'이라는 시를 비파에 맞춰 노래한다고 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임.
- 2150) 秦皇帝 五侯木. 태산에 올라갔다 돌아오는 길에 비를 만난 진시황에게 비를 피할 수 있게 하였다고 벼슬이 내려진 소나무.
- 2151) 春興. 봄의 흥취.
- 2152) 高閣巨樓. 크고 웅장한 집.
- 2153) 棟梁木. 대들보로 쓰인 나무.
- 2154) 龍成畫彩. 용을 그린 그림의 빛깔.
- 2155) 半空. 땅으로부터 그리 높지 아니한 허공.



- 2156) 死後. 죽은 뒤.
- 2157) 棺板木. 관의 널빤지로 쓰는 나무.
- 2158) 白骨身體. 죽어서 썩어 흰 뼈만 남은 몸.
- 2159) 安葬. 편안히 장사지냄.
- 2160) 身發室堂. 죽은 몸이 집을 떠남. ‘실’은 아녀자가 거처하는 곳, ‘당’은 남자가 거처하는 곳.
- 2161) 栗木. 밤나무. 신주를 밤나무로 만들. 밤나무는 밤을 심어 썩이 나서 열매가 열릴 때까지 썩바미 썩지 않으므로, 자손이 끊기지 않고 대대로 번창하라는 뜻에서 신주를 밤나무로 만들었다고 함.
- 2162) 神柱. 죽은 조상의 벼슬과 이름을 써서 사당에 모시는 나무 패.
- 2163) 四時節. 사철.
- 2164) 忌故日. 죽은 날.
- 2165) 滿盤珍羞. 상에 가득 찬 좋은 음식.
- 2166) 設位. 자리를 베풀어 만들.
- 2167) 焚香. 향을 피움.
- 2168) 讀祝. 축문을 읽음.
- 2169) 一身. 한 몸.
- 2170) 上中下品 벗어나. 아주 좋은 것에서 아주 못한 것에 이르기까지의 그 어느 것에도 끼지 못하고.
- 2171) 下山作櫟. 산에서 배어져 내려와 작은 집의 들보가 됨.
- 2172) 大廣板. 크고 넓은 나무 판.
- 2173) 防川. 독의 흠이 무너지지 않도록 박는 말뚝.
- 2174) 토막토막.
- 2175) 馬板. 마굿간에 끼는 판자.
- 2176) 구유. 소나 말 따위의 짐승에게 먹이를 담아주는, 통나무로 만든 그릇의 일종.
- 2177) 所用대로. 쓰고자 하는 대로.
- 2178) 마디. 토막.
- 2179) 몽푹하고 모양이 없이 생긴 코.
- 2180) 朱土漆. 나무로 된 기둥이나 마루 따위에 붉은 흙을 묽게 개어 바르는 칠.
- 2181) 방울처럼 동그란 눈.
- 2182) 다복술처럼 더부룩하고 억세며 곱슬곱슬하게 난 수염.
- 2183)八字 없는. 팔자에 없는. 평생의 운수에 없는.
- 2184) 紗帽品帶. 사모와 품대. ‘사모’는 벼슬아치가 관복을 갖출 때 쓰는 모자. ‘품대’는 벼슬아치가 품계에 따라 허리에 두르던 띠.
- 2185) 行人去來. 행인이 오고감. 행인이 오고가는.
- 2186) 大路上에다. 큰 길 위에다.
- 2187) 嚴然히. 현상이 뚜렷하여 누구도 감히 부정할 수 없게.
- 2188) 不避風雨. 비바람을 피하지 못 함.
- 2189) 우두커니.
- 2190) 進退維谷. 궁지에 다다라 앞으로 나아갈 수도 뒤로 물러날 수도 없어 어찌할 길이

- 없음.
- 2191) 이렇게.
- 2192) 木神. 나무의 신.
- 2193) 物久則神. 물건이 오래 묵으면 낡아서 귀신이 됨.
- 2194) 深量. 깊이 헤아려서.
- 2195) 千萬祝手. 수없이 두 손 모아 빌.
- 2196) 失體. 체신을 잃음.
- 2197) 放送. 내보냄.
- 2198) 시끌벅적하니. 속이 편치 않다는 뜻.
- 2199) 食前. 식사를 하기 전.
- 2200) 酒酣. 술에 취하여 정신없이 마구하는 말이나 행동.
- 2201) 이.
- 2202) 손아랫사람을 일컫는 말.
- 2203) 敗는. 패배는.
- 2204) 漢宗室. 한나라 임금의 일가붙이.
- 2205) 宗親. 왕의 일가친척.
- 2206) 去來. 주고 받는 일.
- 2207) 陽山 두엄. 양산의 거름밭. 유현덕은 탁군 누상촌 사람이므로 양산과는 관련이 없음.
- 2208) 菜麻田. 채소나 삼을 가꾸는 밭.
- 2209) 南陽. 중국 하남성에 있는 지방으로, 공명이 은거하던 곳.
- 2210) 草堂. 집의 원채에서 따로 떨어져 있는, 억새나 짚 같은 것으로 지붕을 인 조그마한 집.
- 2211) 農土漢. 농사꾼을 앞잡아 일컫는 말.
- 2212) 謀事. 일 꾸미기. 꾸민 일.
- 2213) 庸劣하여. 못생기어 어리석고 변변치 못하여.
- 2214) 後生. 뒤에 태어난 사람. 선생에 뒤이어 비꼬는 투로 이어 붙인 말.
- 2215) 可笑이고. 가소롭고.
- 2216) 河東. 황하의 동쪽 지방. 오늘날 산서성(山西省) 안읍(安邑).
- 2217) 店놈. 토기나 그릇을 만들어 파는 상인(商人)을 낮추어 부르는 말.
- 2218) 눈동자의 둘레에 흰 테가 있는 눈.
- 2219) 涿郡. 지금의 중국 허북성에 있는 지명.
- 2220) 돼지.
- 2221) 豬肉塵. 돼지고기 파는 상점.
- 2222) 地體. 대대로 전하여 내려온 지위나 문벌.
- 2223) 實尊長. 저의 존장. 저보다 나이가 많은 어른.
- 2224) 세면.
- 2225) 世慾. 세상에서 크게 성공하려는 욕망.
- 2226) 先代. 앞 세대. 조상.
- 2227) 常山. 허북성 정정현의 서북쪽에 있는 지명.

- 2228) 돌구멍.
- 2229) 西涼太守 馬超. 서량태수 마등의 큰아들. 자는 맹기(孟起). 아버지가 조조에게 속아 패하여 죽자, 한수(韓遂)와 함께 군사를 동원하여 장안을 빼앗고, 동관을 점령하여 용맹을 날렸다. 나중에 장비와 싸우다가 항복하여 죽을 때까지 유비를 위하여 싸웠다. ‘서량은 지금의 중국 감숙성 돈황 지역을 가리키는 말.
- 2230) 知鑑. 지인지감(知人之鑑). 사람을 잘 알아보는 능력.
- 2231) 糜芳. 미축(糜竺)의 아우로 유비의 처남. 관우의 부하 장수로 있다가 형주가 함락되자 손권에게 항복하였다. 유비가 복수의 군대를 일으켜 연전연승해 오자, 관우를 잡은 왕충의 목을 베어 돌아왔으나, 유비에게 죽임을 당하였다.
- 2232) 糜竺. 미방의 형. 유비의 두 번째 부인인 미부인의 오빠이다. 동해 구현 사람으로 자는 자중(子仲).
- 2233) 劉封. 유비의 부하 장수로, 유비의 양아들임. 본래 이름은 구봉(寇封). 일찍 부모를 여의고, 고모부 유필(劉泌)을 의지하여 번성에 있다가, 유비의 눈에 띄어 유비의 양자가 되었다.
- 2234) 三將. 세 장수. 미방, 미축, 유봉을 이름.
- 2235) 烏合之卒. 까마귀가 모인 것처럼 질서가 없이 모인 병졸이라는 뜻으로, 임시로 모여들어서 규율이 없고 무질서한 병졸 또는 군중을 이르는 말.
- 2236) ‘마음 씩씩이나 하는 행동이 보잘 것 없이 작은 사람’을 욕으로 일컫는 말.
- 2237) 日後. 뒷날.
- 2238) 지체 높은 사람의 행세를 하지 못한다는 뜻.
- 2239) 杜門不出. 집안에만 틀어박혀 세상 밖으로 나타나지 아니함.
- 2240) 王侯將相이寧有種乎아? 왕, 제후, 장수, 재상이 어찌 씨가 있겠는가. 곧,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은 원래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아무나 할 수 있다는 말.
- 2241) 있습니까?
- 2242) 製述. 술수를 부림.
- 2243) 그을렸습니다. (불에 타) 검게 되었습니다.
- 2244) 無色하여. 무안하여 볼 낮이 없어서.
- 2245) 點考. 명부에 일일이 점을 찍어가며 수효를 확인하는 일.
- 2246) 흠어진.
- 2247) 漢國. 한나라.
- 2248) 韓信. 한고조(漢高祖) 유방(劉邦)을 도와 서한(西漢)을 세운 명장. 회음(淮陰) 출신. 처음에는 항우(項羽)를 섬겼으나 등용되지 못하자 유방에게로 돌아섰다. 소하(蕭何)의 추천으로 등용되어 대장군에 임명되었다. 초한(楚漢) 전쟁 무렵 제왕(齊王)에 봉해졌으며 해하(垓下)에서 초패왕 항우의 군사를 격파하는 등赫赫한 공을 세웠다. 한고조의 기틀이 완성된 뒤 고조 유방은 그의 세력을 두려워하여 지위가 낮은 회음후(淮陰侯)에 임명했다가 나중에 살해하였다. 이때 그는 ‘교토사주구팽(狡兔死走狗烹)’이라는 명언을 남겼다.
- 2249) 彭越. 한신과 함께 항우를 물리쳐 양(梁)의 제후가 되었는데, 뒤에 모반의 의심을 받고 한나라 고조에게 죽음을 당했다.
- 2250) 불명. ‘도무지의 뜻인 듯.

- 2251) 輔國忠臣. 충성을 다하여 나라 일을 돕는 충직한 신하.  
 2252) 불명.  
 2253) 절뚝절뚝.  
 2254)怨하느니. 원망하노니. 원망하는데.  
 2255) 창대를 짚고 오는 군사를 보고 빗자루로 마당을 쓸며 오는 것 같다고 하는 말.  
 2256) 정도가 어지간하다.  
 2257) 將臺. 장수가 올라서서 명령·지휘하던 대. 성(城), 보(堡) 따위의 동서 양쪽에 돌로 쌓아 만들었다.  
 2258) 左手. 왼손.  
 2259) 笏記. 의식의 순서나 임금의 명령을 적은 것.  
 2260) 右手. 오른손.  
 2261) 陣中에. 진 속에. ‘진’은 군사들이 적과 싸울 때 대오를 배치하는 일, 또는 배치한 곳.  
 2262) 不參者. 참여하지 않은 사람.  
 2263) 태도가 매우 여유 있고 의젓한 모양.  
 2264) 버무리떡. 쌀가루에 콩이나 팥 따위를 한데 버무리 쥘 떡.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비웃기 위해 한 말.  
 2265) 멀건. ‘멀건’은 국물 따위가 진하지 아니하고 매우 묽음을 뜻하는데 여기서는 나무가 드문드문 보이는 산을 빗댄 말.  
 2266) 옛날 군인이 전쟁할 때에 갑옷과 함께 방위용으로 쓰던 쇠로 만든 모자.  
 2267) 말에.  
 2268) 兵營. 병사가 집단으로 거주하는 곳.  
 2269) 不意之變. 뜻밖에 당한 변고.  
 2270) 道理. 방법.  
 2271) 千摠. 조선조 때의 정삼품 무관 벼슬.  
 2272) 千摠之道理. 천총의 입장에서 마땅히 해야 할 바른 길.  
 2273) 軍禮. 군대의 예절. 군대의 인사.  
 2274) 嚴然히. 현상이 뚜렷하여 누구도 감히 부정할 수 없게.  
 2275) 들어주십시오.  
 2276) 가늘고 약한 물건이 부러지는 모양.  
 2277) 軍禮. 군인들이 하는 인사.  
 2278) 못했나이다. 못했습니다.  
 2279) 中天. 하늘의 한가운데.  
 2280) 萬端情懷. 온갖 마음과 회포.  
 2281) 아무렇게나 함부로 하는 말.  
 2282) 眷屬. 딸린 식구.  
 2283) 物故. ‘죽었다’는 말을 돌려서 표현한 말.  
 2284) 不共戴天之怨讐. 하늘을 함께 이지 못하는 원수. 이 세상에서 같이 살 수 없을 만큼 큰 원한을 가진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285) ‘죽었다’의 비어.

- 2286) 左部左使. 동쪽지역을 맡아 다스리는 좌사. ‘좌사’는 삼사(三司)에 속한 정이품 벼슬.
- 2287) 骨內腫이. ‘뼈 속에 종기가 나는 병이 걸린 사람’이라는 뜻으로, 익살스럽게 일컬은 말.
- 2288) 앞 뒤 곱사등이. 가슴과 등의 뼈가 병적으로 불쑥 내민 사람.
- 2289) 입술마저.
- 2290) 병으로 말미암아 꼬부라져 불거나 팔뚝이 없는 팔.
- 2291) 구부렀다 폈다 하지 못하고 늘 벌어 있는 다리. 또는 그런 다리를 가진 사람.
- 2292) 힘없이 흐느적흐느적 비틀거리는 모양.
- 2293) 죽지 아니할 정도로 맞은 벼락.
- 2294) 안판낙포. 앞 뒤 곱사등이.
- 2295) 끌어당기고.
- 2296) 입술까지. 입술마저.
- 2297) 半生半死. 반은 살고, 반은 죽음. 거의 죽게 된 모양.
- 2298) 生死가 朝夕인데. 죽고 사는 것이 아침과 저녁이 다른데. 곧 그렇게 쉽게 죽을 처지에 있다는 말.
- 2299) 客死. 객지에서 죽음.
- 2300) 보고 싶구나.
- 2301) 眷屬. 자기 집에 딸린 식구.
- 2302) 본디 모습대로 멀쩡하니.
- 2303) 용하게. (재주가) 뛰어나고 좋게.
- 2304) ‘눈’의 비어.
- 2305) 人醬食. 사람을 잡아 장국을 끓여 먹음.
- 2306) 어디에다가.
- 2307) 前部右使. 앞 지역을 맡아 다스리던 우사. ‘우사’는 삼사(三司)에 속한 정이품 벼슬.
- 2308) 바늘을 세는 단위. 한 째은 바늘 스물네 개를 이름.
- 2309) 세 번 발걸음을 옮기다 크게 뛰는 모양.
- 2310) 상한 데 없이 본래대로 온전하나?
- 2311) 회를 처서. 회를 만들어. ‘회’는 물고기·고기·야채 따위를 날로 얇게 썬 음식.
- 2312) 무엇이 몹시 심하거나 하여 못마땅해서 빈정거릴 때 내는 소리.
- 2313) ‘머리’의 비어.
- 2314) 죽지요.
- 2315) 반갑게.
- 2316) 도대체.
- 2317) ‘배’의 비어.
- 2318) 天下에. 세상에 다시는 없을 만큼 심한 형편이라는 뜻으로, 너무 놀라거나 한탄할 때 쓰는 말.
- 2319) 火繩. 불을 붙게 하는 데 쓰는 노끈. 대의 속살을 꼬아 만든 것으로, 옛날 총열에 화약과 탄알을 채고 이 노끈에 불을 덩겨 귀약통에 대어 폭발시켰다.
- 2320) 바늘을 세는 단위. 한 째은 바늘 스물네 개를 이름.
- 2321) 한결같이 늘.

- 2322) 一色. 매우 아름다운 미인을 일컫는 말.
- 2323) 간질간질하게 재미있는.
- 2324) 汾水에. 분수에서. ‘분수’는 강 이름. 중국 산서성에서 발원하여 황하로 들어감.
- 2325) 待人難. 사람을 기다리기가 어려움.
- 2326) 出門望. 문 밖에 나가 기다림.
- 2327) 左手. 왼손.
- 2328) 右手. 오른 손.
- 2329) 誤入. 여자와 성관계를 가지는 일.
- 2330) 馬兵長. ‘마병’은 말탄 군사이므로, 마병장은 말탄 군사들의 우두머리를 가리킨 듯.
- 2331) 어디다.
- 2332) 팔을 휘저으며 걷는 모양.
- 2333) 모두 신통에 이어서 우습게 이어 쓴 말. ‘신통’은 대견하고 훌륭하다는 뜻.
- 2334) 軍糧. 군대가 먹을 양식.
- 2335) 조금 반갑거나 놀라운 느낌을 나타내는 감탄사.
- 2336) 것 같으면.
- 2337) 亂中에. 난리 중에.
- 2338) 太古적. 아주 오랜 옛날.
- 2339) ‘벌레’의 방언.
- 2340) 怒視. 사람을 업신여겨 하찮게 대함.
- 2341) 있습니까.
- 2342) 말 한 마리 당 두 돈.
- 2343) 敗軍之將. 싸움에 진 장수.
- 2344) 近來에. 요즘에.
- 2345) 한 사람이 안에 타고 둘이나 넷이 들거나 메던, 조그만 짐 모양의 탈것.
- 2346) 두 사람이 마주 드는 들것.
- 2347) 등에 지는 짐.
- 2348) 팔을 가볍게 저어 바람을 내면서 걷는 모양.
- 2349) 길을 가는 거리가 쉽게 늘어나고. ‘분다’는 수량이 많아지다는 뜻.
- 2350) ‘눈’의 비어.
- 2351) 같지 않아도.
- 2352) 어디에다가.
- 2353) 불명. 다른 본에는 ‘후군장’으로 되어 있음. ‘후군장(後軍長)’은 뒤를 맡은 군사의 우두머리.
- 2354) 움츠러든.
- 2355) 路毒. 여행에서 생긴 병이나 피로.
- 2356) 怪惡. 괴이하고 흉악함.
- 2357) 있으니.
- 2358) 대면서.

- 2359) 強弱이 不同. 강하고 약한 것이 같지 않음.  
 2360) 불명. 천한 무리를 일컫는 말인 듯.  
 2361) 張哥. 장씨 성을 가진 사람을 이르는 말.  
 2362) 텅기니까.  
 2363) 긴장을 하다가.  
 2364) 남의 자식을 자기 자식으로 삼아 기른 아들.  
 2365) 軍糧지기. 군대의 양식을 맡은 군사.  
 2366) 길이가 짧고 끝이 뭉툭한 자루.  
 2367) 軍糧. 군대에서 먹을 식량.  
 2368) 領去. 함께 데리고 가거나 가지고 감.  
 2369) 上船배. 제일 큰 배.  
 2370) 닳을 매단 줄.  
 2371) 烏林. 적벽강의 북쪽 맞은 편 언덕에 있는 숲. 지금의 호북성 가어현(嘉魚縣) 서쪽에 있음.  
 2372) 뜻밖의 일에 자지러질 정도로 깜짝 놀람.  
 2373) ‘힘’을 강조하여 이르는 말.  
 2374) 彝陵. 중국 호북성에 있는 지명.  
 2375) 先鋒. 맨 앞장 또는 앞장에 서는 사람.  
 2376) 逢敗. 일이 잘못됨.  
 2377) 주실랍니까?  
 2378) 잇따라. 거듭.  
 2379) 쌀 한 섬이 담긴 가마니.  
 2380) 쳐다보니.  
 2381) 萬壑千峰. 수많은 깊은 골짜기와 산봉우리.  
 2382) 白沙之場. 흰 모래밭.  
 2383) 화닥닥. 갑자기 움직이는 모양.  
 2384) 크고 단단한 물건이 갑자기 세게 부러지거나 깨지는 소리. 또는 그 모양.  
 2385) 白沙地. 흰 모래밭.  
 2386) 살며시.  
 2387) 속아서.  
 2388) 火兵지기. 군대에서 불을 때서 밥 짓는 일을 하는 군사.  
 2389) 甘食. 달게 먹음. 맛있게 먹음.  
 2390) 陣中. 군대나 부대의 안.  
 2391) (부상으로 인해 몸이 뒤로) 젖혀진.  
 2392) 仰天痛哭. 하늘을 우러러 슬피 울.  
 2393) 各心所願. 저마다 원하는 바.  
 2394) 將卒. 장수와 병졸.  
 2395) 吳漢兩國. 오나라와 한나라.

- 2396) 回軍. 군사를 돌려 돌아옴.
- 2397) 主台. 예전에, 손님이 종이품 이상의 주인을 높여 이르던 말. 따라서 여기서는 조조를 가리킨 듯.
- 2398) 勝戰. 싸움에 이김.
- 2399) 億兆蒼生. 수많은 백성.
- 2400) 萬民. 모든 백성.
- 2401) 擊壤歌. 풍년이 들어서 농부가 태평한 세월을 즐기는 노래를 일컫는 말. 중국 요(唐堯)임금 때 늙은 농부가 태평한 세월을 즐겨워하여 땅을 치면서 부른 노래라고 함. 그 내용은 ‘일출이작 일입이식 작정이음 경전이식 제력우아하유재(日出而作 日入而息 擊井而飲 耕田而食 帝力于我何有哉. 해가 뜨면 일하고, 해가 지면 쉰다네. 셈을 파서 물을 마시고, 밭을 갈아 먹으니, 임금의 힘이 나에게 무슨 소용 있으리.)’임.
- 2402) 萬歲遺傳. 영원히 전하여 내려옴.
- 2403) 龐統. 유비 막하의 모사. 본래 와룡(臥龍) 봉추(鳳雛) 중 하나만 얻어도 왕업을 이루리 라던 말 속의 봉추가 바로 그임. 양양 사람으로 자는 사원(士元). 적벽대전에서 연환 계를 내어 성공시켰음. 낙성(洛城)을 치다가 삼십육 세로 죽었음.
- 2404) 連環計. 주유가 방통을 조조에게 보내어, 조조의 군대가 수전에 능하지 못하므로, 전선을 모두 쇠고리로 연결하여 육지처럼 만들어 싸우면 된다고 한 뒤에, 불로 쳐서 크게 이긴 계책.
- 2405) 黃蓋. 손권의 부하 장수. 영릉의 천릉 사람으로 자는 공복(公覆). 적벽대전을 앞두고 스스로 주유를 찾아 교육계를 쓸 것을 제안하여, 일부러 주유에게 죽도록 얻어맞고 조조에게 거짓 항복 문서를 보냈으며, 대전시에 선봉대장이 되어 조조의 혼란을 유도 하여 크게 공을 세웠음.
- 2406) 苦肉計. 황개가 주유를 찾아가 죽도록 얻어맞고 조조에게 거짓으로 항복문서를 보내 어 적을 혼란을 빠트린 계책. 적을 속이기 위하여 자신의 괴로움을 무릅쓰고 꾸미는 계책을 이름.
- 2407) 萬里故國. 만 리나 되게 멀리 떨어진 고국.
- 2408) 武裝해라. (전쟁이나 전투를 위해) 장비를 갖추어라.
- 2409) 찰기가 없는 조. 알이 굵고 빛이 노르며 끈기가 적다. 여기서는 조조에 이어서 조조를 조롱하며 우습게 일컫는 말.
- 2410) 마치지를. 끝나지를.
- 2411) 放砲一聲. 한 번 소리 내어 총이나 대포를 쏜.
- 2412) 대포의 옛말. ‘호총(號銃)’이라고 함.
- 2413) 放砲. 군중(軍中)의 호령으로 포나 총을 쏘는 일.
- 2414) 조조를 사냥하러 오는 것을 이름.
- 2415) 나왔다 보다.
- 2416) 供養. 절에서 부처님 앞에 음식을 바치는 일.
- 2417) 遑急. 정신없이 급함.
- 2418) 靑旗. 푸른색 기.
- 2419) 赤旗. 붉은색 기.



- 2420) 白旗, 흰색 기.  
 2421) 黑旗, 검은색 기.  
 2422) 여기에서도,  
 2423) 저기에서도,  
 2424) 騎鼓喊聲, 싸움터에서 쓰는 북소리와 고함소리.  
 2425) 旗色, 기의 색깔.  
 2426) 漢壽亭侯, 조조가 관우에게 내렸던 봉호.  
 2427) 雲長, 관우(關羽). 중국 삼국시대에 촉한의 유비, 장비와 함께 의형제를 맺고 촉나라를 세우는데 공이 컸던 명장.  
 2428) (큰 물체가) 흐리지 않고 분명하게 떠오르는 모양.  
 2429) 欲脫無計, 벗어나고자 하여도 방법이 없음.  
 2430) 欲退無處, 도망가고자 하여도 갈 곳이 없음.  
 2431) 對敵, 서로 맞서 겨룸.  
 2432) 네 발로 기어다니는 짐승.  
 2433) 劍光, 칼에서 빛나는 광채.  
 2434) 赤手單劍, 맨 손에 칼 한 자루뿐임.  
 2435) 五關斬將, 관우가 조조로부터 탈출하면서, 다섯 개의 관문을 통과하며 여섯 명의 장수를 죽인 것을 가리킴.  
 2436) 手段, 일을 처리하여 내는 솜씨와 짜.  
 2437) 前日, 얼마 전.  
 2438) 名이, 이름이, 명성이.  
 2439) 文章, 문장가, 글을 뛰어난게 잘 짓는 사람.  
 2440) 可曰否曰, 왈가왈부(曰可曰否), 어떤 일에 대하여 옳거니 옳지 아니하거니 하고 말함.  
 2441) 帳幕, 여기서는 ‘덮개’ 정도의 의미로 쓰였음.  
 2442) 神通한, 신기할 정도로 묘한.  
 2443) ‘눈’의 비어.  
 2444) 벌겋게 되어.  
 2445) 青龍刀, 청룡언월도. 긴 자루 끝에 초승달처럼 생긴 날을 단 칼. 관우가 쓰는 칼은, 칼날을 청룡이 물고 있는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청룡도라고 하였음.  
 2446) 돼지.  
 2447) 씹.  
 2448) 어찌할 수 없이.  
 2449) 百計圖生, 온갖 피를 써 살려고 함.  
 2450) 폭 익어서 물렁물렁하게 된.  
 2451) 대추빛 : 대추의 색깔. 곧 붉은 색.  
 2452) 三角鬚, 두 뺨과 턱에 난 수염이 삼각형을 이룬 수염.  
 2453) 거스르게 하고, 끝이 위로 올라가게 하고.  
 2454) 赤兔馬, 조조가 관우에게 준 명마로, 온 몸에 붉은 빛이 나는 말. 관우가 죽자 굶어 죽었다고 함.

- 2455) 분명하고 뚜렷하게.
- 2456) 漢壽亭侯. 한나라 수정후. 관우를 가리키는 말. '수정후'는 조조가 관우에게 내린 봉호.
- 2457) 妄靈. 망령되어. 정신이 흐려서 말이나 행동이 정상을 벗어나서.
- 2458) 얇은 피.
- 2459) 잘 드는. 칼날이 날카로워 잘 베어지는.
- 2460) 百計圖生. 온갖 피를 써 살려고 함.
- 2461) 말에서.
- 2462) 대머리.
- 2463) 고추처럼 생긴 볼품없는 상투.
- 2464) 小將. 장수가 자신을 낮추어 일컬은 말.
- 2465) 去年. 지난 해. 작년.
- 2466) 氣體. 옷어른에게 편지로 문안을 올릴 때 그를 높여 '정신과 건강 상태'를 이르는 말.
- 2467) 馬上에서. 말 위에서.
- 2468) 好言. 친절하고 듣기 좋은 말.
- 2469) 兄長. 형님.
- 2470) 下命. 명령.
- 2471) 哀乞. 소원을 들어달라고 애처롭게 빌.
- 2472) 들어주십시오.
- 2473) 目下. 눈앞의 형편 아래.
- 2474) 天子. 천제(天帝)의 아들, 즉 하늘의 뜻을 받아 하늘을 대신하여 천하를 다스리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군주 국가의 최고 통치자를 이르는 말.
- 2475) 萬軍. 수많은 군사.
- 2476) 沒死시키고. 모조리 다 죽이고.
- 2477) 蒼黃奔走. 너무 급하여 수선스럽게 왔다갔다함.
- 2478) 반갑고.
- 2479) 怒色하여. 성난 얼굴빛을 하여.
- 2480) 絶凶. 아주 흉악한.
- 2481) 匈奴. 기원전 4세기에서 1세기 사이에 몽고 지방에서 세력을 떨쳤던 유목민족. 서역의 통상로를 지배하여 한나라와 대항하였으나, 후한 시절에 토벌되어 서쪽으로 이동하였음.
- 2482) 白登七日之圍. 백등에서 칠일 동안 포위를 당함. 한고조가 흉노와 싸우다가 백등이라는 곳에서 흉노의 왕 모돈에게 이레 동안 포위당해 있었음. 한고조의 신하인 진평이 모돈의 아내 알씨에게 뇌물을 주고 풀려났음.
- 2483) 漢高祖. 한나라를 세운 유방(劉邦). 유방은 B.C. 206년 항우로부터 한왕으로 봉해졌으나, 그 후 4년 동안 항우와의 쟁패전에서 장양, 한신 등의 도움을 받아 해하에서 항우를 대파하고 천하통일을 이루었다. B.C. 202년 유방은 황제의 자리에 올랐으며 장안에 도읍하였다.
- 2484) 智伯之臣 豫讓. 지백의 신하 예양. 예양은 전국시대 진(晉)나라 사람으로 지백이 그를 아꼈는데, 지백이 조(趙)나라를 치다가 죽자, 그를 위해 원수를 갚으려고 했음.

- 2485) 趙襄子. 조나라의 양자. ‘양자’는 전국시대 조나라의 경(卿).
- 2486) 挾匕首. 비수를 끼고. ‘비수’는 작고 날카로운 칼.
- 2487) 宮中塗廁. 궁중의 변소에 칠을 칠함. 예양이 조양자를 죽이려고 칠을 칠하는 사람으로 위장하여 죽일 기회를 엿본 일을 가리킴. 예양은 조양자를 죽이지 못하고 잡혔으나, 의인이라고 하여 살려주었다. 예양은 다시 문둥이로 변장하여 다리 밑에 숨어 기회를 엿보았으나 또 잡히게 되자, 양자의 옷을 벗어달라고 하여 칼을 뽑아 세 번 찌른 후에, ‘지백의 원수를 갚았다’고 하며 자살했다고 함.
- 2488) 義人. 의로운 인물.
- 2489) 吾謹避之. 내가 조심하여 피함.
- 2490) 大怒하여. 크게 화를 내어.
- 2491) 天中大人. 임금 가운데서도 도량이 크신 분.
- 2492) 賊臣. 반역한 신하.
- 2493) 義將. 의로운 장수.
- 2494) 下邳. 후한, 위, 서진의 하비국 중심도시. 현재 서주시(徐州市) 영현(寧縣). 여포가 최후를 맞이한 곳.
- 2495) 分散하여. 이리저리 흩어져.
- 2496) 居住. 머물러 사는 곳. ‘거주를 모른다’는 말은 일정한 곳에 머물러 살지 못하고, 여기 저기 떠돈다는 말.
- 2497) 小將. 장수가 자기를 낮추어 이르는 말.
- 2498) 糜夫人. 유비의 부인. 유비에게는 미부인과 감부인(甘夫人)이 있었는데, 미부인에게만 아들을 두었다. 그 아들은 아명(兒名)은 아두(阿斗), 이름은 선(禪)이며, 유비의 뒤를 이어 황제의 위에 올라 흔히 후주(後主)라 부른다. 미부인은 당양과 싸움에서 부상을 당하고, 조운에게 아두의 보호를 당부한 뒤 자신은 우물에 뛰어들어 목숨을 끊었다.
- 2499) 甘夫人. 유비의 두 부인 중 한 사람. 미부인이 죽은 뒤 혼자 유비를 받들다가, 유비가 형주(荊州)를 차지하고 있는 사이에 세상을 떠났다.
- 2500) 別宮. 특별히 따로 지은 궁전.
- 2501) 三日에 小宴. 삼일마다 작은 잔치를 벌임.
- 2502) 五日에 大宴. 오일마다 큰 잔치를 벌임.
- 2503) 色 갈아. 미녀들을 바꾸어가며.
- 2504) 侍衛. 모시어 호위함.
- 2505) 呂布. 여포는 후한 시대의 장수. 본래 형주자사 정원(丁原)의 의자(義子)로 그를 호위하였으나, 동탁이 적토마를 주어 매수하는 바람에 아버지라고 부르던 정원을 죽이고 동탁에 붙었다. 왕윤이 초선이로 하여금 미인계를 쓰니, 또 넘어가 동탁을 죽이고, 이각, 광사의 무리와 싸웠다. 후에 조조와 유비의 연합군에게 잡혀 죽었다.
- 2506) 貂蟬. 중국 삼국시대 때의 절세의 미인으로, 동탁의 횡포와 나라의 어지러움을 한탄하다 왕윤의 눈에 띄어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치기로 결심하고, 여포의 첩이 되어 동탁과 여포 사이에서 그들을 농락하여 결국 여포로 하여금 동탁을 죽이게 하였다. 관우가 조조에게 의탁하고 있을 때, 조조가 여포를 죽이고 빼앗아 관우에게 주었으나, 관우는 요물이라 하여 죽였다.

- 2507) 別房. 첩.
- 2508) 上馬할 때 黃金 千 兩. 말을 탈 때에 천 냥의 황금을 줌.
- 2509) 下馬할 때 白金 千 兩. 말에서 내릴 때에 천 냥의 백금을 줌.
- 2510) 말로 세어서. '말'은 곡식이나 액체 따위의 분량을 재는 데 쓰는 기구로, 용량은 9리터, 혹은 10리터임.
- 2511) 告치 않고. 말하지 않고. 알리지 않고.
- 2512) 五關 六將. 관우가 조조로부터 탈출하면서, 다섯 개의 관문을 통과하며 죽인 여섯 명의 장수.
- 2513) 怨心. 원망하는 마음.
- 2514) 公文. 다편. 공문서를 주어서 정식으로.
- 2515) 보냈지 않았습니까?
- 2516) 河北大將. 하북지방에서 일어난 원소(元邵)의 부하 대장이란 뜻.
- 2517) 顏良. 원소의 부하 장수.
- 2518) 文醜. 원소의 부하 장수.
- 2519) 其勇이 相犯키로. 그 용맹으로 장졸들을 번갈아 무찌르므로.
- 2520) 數多. 수다한. 수많은.
- 2521) 將卒. 장수와 병졸.
- 2522) 眼前에. 눈 앞에.
- 2523) 一功. 한 가지 공적.
- 2524) 怪異하여. 이상하여.
- 2525) 一顧喊聲. 잠깐 동안 여럿이 함께 높이 지르는 소리.
- 2526) 지명인 듯하나 불명.
- 2527) 빼앗아.
- 2528) 案冊. 책상 위에 놓인 장부.
- 2529) 빨리.
- 2530) 赤兔馬. 조조가 관우에게 준 명마로, 온 몸에 붉은 빛이 나는 말. 관우가 죽자 굶어 죽었다고 함.
- 2531) 呂布. 중국 삼국시대 때의 장수. 정원(丁原), 동탁(董卓), 장막(張邈) 등을 따랐다. 뒤에 조조와 유비의 연합군에게 잡혔을 때 평소에 배반을 너무 자주 하였다 하여 목을 매어 죽였다.
- 2532) 千里外域. 천 리 밖에 있는 장소.
- 2533) 兄長. 형님. '유비'를 이름.
- 2534) 喜喜樂樂. 매우 기뻐하고 즐거워함.
- 2535) 나라서. 나이기 때문에. 내가.
- 2536) 處分. 결정한 마음.
- 2537) 잘 배어진다고 하더니.
- 2538) 大笑. 크게 웃음.
- 2539) 놓아 주려고. 살려 주려고.
- 2540) 周倉. 관우의 부하로 천하장사. 본래 황건적 장보의 부하로 와우산에서 산적질을

- 하다가, 관우를 만나 최후까지 충성을 다하였다.
- 2541) 遷推. 미적미적 미루어 감.
- 2542) 江東. 양자강 동쪽 지방. 여기서는 항우가 군사를 일으킨 곳을 말한다.
- 2543) 마음씨가 몹시 사납고 독한 호랑이. 항우를 이름.
- 2544) 咸陽. 중국 섬서성 장안현에 있는 지명.
- 2545) 大龍. 큰 용.
- 2546) 鴻門宴. 진나라 끝 무렵에, 하남성의 상구현(商丘縣)과 우성현(虞城縣)의 경계에 있는 홍구(鴻溝)의 군문(軍門)에서, 항우가 유방을 불러다 죽이려고 벌인 잔치.
- 2547) 項莊. 항우의 사촌 동생. 홍문연에서 칼춤을 추면서 유방을 죽이려고 했으나, 항우의 숙부인 항백(項伯)의 방해로 죽이지 못하였음.
- 2548) 전혀 없어.
- 2549) 白雪. 흰 눈. 범종이 옥 술잔을 깨부서 흰 눈처럼 흩어졌다고 한 데서 나온 말.
- 2550) 되었던 말인가?
- 2551) 鷄鳴山. 중국 안휘성 합비현 서북쪽에 있는 산.
- 2552) 秋夜月. 가을 달밤에.
- 2553) 옥으로 만든 통소. '통소'는 대나무로 만든 관악기의 한 가지.
- 2554) 八千大兵. 팔천 명의 군사.
- 2555) 烏江風浪中에 自刎而死. 오강의 풍랑에서 스스로 목을 베어 죽음. 항우가 유방에게 패하고 도망을 가다가 오강에서 자결한 것을 이름.
- 2556) 力拔山氣蓋世. 힘이 산이라도 빼어 던질 만하고, 기(氣)는 세상을 덮을 만큼 웅대함. <<사기>>의 '항우본기(項羽本紀)'에 나오는 말로, 초패왕(楚霸王) 항우의 빼어난 힘과 기개를 표현한 말.
- 2557) 曹孟德. 조조(曹操)의 자. 후한 헌제 때에 승상으로 실권을 쥐었는데, 뒤에 화북 지방을 거의 평정하여 위왕(魏王)이라고 일컬었다. 적벽에서 유비와 손권의 연합군에게 졌으나, 한나라를 대신하여 위나라를 세우는 기틀을 마련했다.
- 2558) 治世之能臣. 잘 다스려져 질서가 잡힌 세상의 능력 있는 신하.
- 2559) 亂世之奸雄. 어지러운 세상의 간사한 영웅.
- 2560) 王之命. 왕의 명령.
- 2561) 두 눈썹 사이에 잡히는 주름.
- 2562) 콧구멍.
- 2563) 쉬면서.
- 2564) 周別監. 주창. 겁이 나는 바람에 주별감으로 부르며 우습게 표현한 것임. '별감(別監)'은 좌수(座首)에 버금가는 향청의 한 벼슬.
- 2565) 조금.
- 2566) 惘惘하여. 답답하고 안타까워.
- 2567) 中軍. 중앙에 배치하는 군대.
- 2568) 회마(回馬) : 말을 돌림.
- 2569) 一時에. 한꺼번에.
- 2570) 말께 : 말에서.

- 2571) 뽕구니.
- 2572) 合掌. 두 손을 모음.
- 2573) 본국(本國) : 자기 나라. 위(魏)나라.
- 2574) 結草報恩. 죽어 혼령이 되어서도 은혜를 잊지 않고 갚음. 중국 춘추시대 진(晉)나라의 위무자(魏武子)의 아들 과(顓)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에 서모를 개가시켜 순사(殉死. 죽은 사람의 뒤를 이어 따라 죽음)하지 않게 하였더니, 후에 위과가 전장에 나갔을 때, 서모의 아버지의 혼령이 적군의 앞길에 풀을 잡아 매어놓아, 적군의 발이 걸려 쓰러지게 함으로써 적을 잡게 했다는 고사에서 나온 말.
- 2575) 文武將卒. 문관과 무관의 모든 장수와 병졸.
- 2576) 華容山川. 화용도의 산천.
- 2577) 漠漠. 끝없이 넓고 아득함.
- 2578) 진실로.
- 2579) 有情하는. 정이 있는. 다정한. 여기서는 ‘불쌍히 여기던’의 의미.
- 2580) 次에. 때에.
- 2581) 張遼. 조조의 부하 장수. 성은 섭(聶), 자는 문원(文遠). 무예가 뛰어나서 조조와 함께 공을 많이 세웠음. 평소 관우는 장요의 사람됨을 좋아했고, 장요도 관우에게 호감을 갖고 있었다고 함.
- 2582) 夏口. 중국 호북성 무창현에 있는 지명.
- 2583) 階下. 계단 아래.
- 2584) 亮. 제갈공명(諸葛孔明. 181-234). 성은 제갈(諸葛), 자는 공명(孔明), 이름은 량(亮). 삼국시대 유비 현덕을 도와 많은 공을 세웠으나, 통일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병사하였음. 뛰어난 전략과 충의의 사람으로 중국에서 만인으로부터 추앙을 받는 인물임.
- 2585) 天氣. 하늘의 기운.
- 2586) 관소리의 끝에 사용하는 말로, 북소리를 흉내낸 말인 듯.